

2019. 12.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정선군
JEONGSEON COUNTY

제 출 문

정선군수 귀하

귀 청과 계약 체결한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성과를 본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이	유
책 임 급	박 세 희	
책 임 급	권 형 남	
책 임 급	조 명 호	
책 임 급	문 광 철	
선 임 급	허 영 일	
선 임 급	김 정 훈	
선 임 급	김 도 희	
연 구 보 조	박 성 수	
연 구 보 조	서 지 영	
연 구 보 조	신 수 진	

2019년 12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비전정선 2040」 수립개요	1
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과 목적	3
1-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	3
1-2. 「비전정선 2040」 수립 목적	5
2. 「비전정선 2040」 성격과 위상	6
2-1. 「비전정선 2040」 성격과 위상	6
3. 「비전정선 2040」 수립 단계	8
3-1. 「비전정선 2040」 목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8
3-2. 수립 단계	8
4. 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사례	10
4-1. 국내 사례	10
4-2. 해외 사례	15
 II. 정선군 현황 및 여건분석	27
1. 정선군 현황	29
1-1. 도시 연혁	29
1-2. 위치 및 자연환경	30
1-3. 인문·사회 환경	34
1-4. 기반시설	45
1-5. 도시경제 현황	50
1-6. 생활환경 현황	53

1-7. 주거환경 현황	56
1-8. 지역의 잠재력 및 관광환경	57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73
2-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교통부)	73
2-2. 2040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국토연구원)	78
2-3. 강원비전2040(강원도)	80
2-4.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강원도)	87
2-5. 2025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정선군)	90
3. 정선군 여건변화	93
3-1. 외부 여건 변화	93
3-2. 내부 여건 변화	100
3-3. 정선군의 위기와 기회	110
4. 종합검토	115
4-1. SWOT분석에 따른 전략	115

Ⅲ. 미래트렌드와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117

1. 미래 메가트렌드	119
1-1. 9대 메가트렌드	119
2. 사회영역의 미래시나리오와 삶의 질	132
2-1. 개요	132
2-2. 2040년 피라미드 시나리오 : '실패한 다문화사회'	133
2-3. 2040년 직사각형 시나리오 : '인구감소사회'	136
3. 한국의 2040년 미래트렌드	142
3-1. 미래전망 1 - 창조, 자유, 포용의 문화공동체	142
3-2. 미래전망 2 - 2040 경제와 삶의 질	147
3-3. 미래전망 3 - 삶의 질과 과학기술	156
3-4. 미래전망 4 - 2040년에 부상하는 미래의 일자리	167

3-5. 미래전망 5 – 미래 농촌의 실태 및 농림식품 기술 메가트렌드	171
3-6. 미래전망 6 – 미래기술기반의 먹거리산업의 변화	175
3-7. 미래전망 7 – 미래 관광산업의 변화	179
3-8. 미래전망 8 –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	181
3-9. 시사점	183
4.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185
4-1. 농촌지역의 현실과 장래 발전 여건	185
4-2. 정선군 미래 인구구조 변화(늘어나는 고령인구)	191
4-3. 정선군 미래 환경 – 이슈별 환경 검토	201
4-4. 미래지향적 농촌 도시모델이 추구해야 할 방향	205
4-5.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	213
5. 시사점	217

IV. 정선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 및 아젠다 도출 221

1. 정선군 핵심키워드 도출 과정	223
1-1. 국내·외 국토정책 및 상위계획 핵심가치 검토	224
1-2. 상위 및 관련계획·군정계획 검토	226
1-3. 주민의식조사 및 지역주민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키워드 도출	227
1-4. 전문가 및 연구원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분야별 키워드 도출	228
1-5. 미래비전 핵심키워드 종합	230
2. 정선군 미래 핵심키워드 구성체계	231
2-1. 2040년 정선군 미래비전 설정 과정	231
2-2. 정선군 미래비전의 3대 미래가치 및 아젠다 도출 방향	232
3.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234
3-1. 정선군 행정구역별 기존사업 현황	234
3-2. 2040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239
3-3. 비전정선 2040 미래비전 목표 및 전략	240

3-4. 부문별 핵심가치의 이해	242
3-5. 6대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245

V.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및 관리운영 255

1.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257
1-1. 사업추진방향	257
2. 관리운영계획	263
2-1. 관리계획	263
2-2. 운영계획	264
2-3.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265
2-4. 관리조직의 규모 및 효과	266
2-5.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271
2-6. 미래비전의 사업운영시 고려사항	274

표 목 차

1-1. 제주 미래비전 사례 검토	10
1-2. 경기비전 2040 사례 검토	11
1-3. 2030 서울플랜 사례 검토	13
1-4. 충북미래비전 2040 사례 검토	14
1-5. 독일 하펜시티 사례 검토	15
1-6. 호주 달링하버 사례 검토	16
1-7. 프랑스 유라릴 사례 검토	17
1-8. 일본 나오시마 사례 검토	18
1-9. 독일 보리스호펜 사례 검토	19
1-10.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사례 검토	19
1-11.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 검토	20
1-12. 영국 게이트헤드 사례 검토	21
1-13. 프랑스 뫼디푸 사례 검토	22
1-14. 핀란드 로바니에미 사례 검토	23
1-15.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 검토	24
1-16.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 사례 검토	25
1-17.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타운 사례 검토	26
2-1. 정선군 연혁	29
2-2. 정선군 경·위도상의 위치 현황	30
2-3. 표고분석표	31
2-4. 경사도 분석표	31
2-5. 하천현황	32

2-6 연도별 기상개황	33
2-7. 총인구 및 세대수	34
2-8. 전국 및 강원도, 정선군 인구 변화	35
2-9. 전국 및 강원도, 정선군 세대수 변화	36
2-10. 행정구역별 인구	37
2-11. 연령별 인구	38
2-12. 노인인구	40
2-13. 1인 가구	42
2-1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43
2-15. 용도지역 현황	43
2-16. 주요도로 시설현황	45
2-17. 타 시군과의 도로현황 비교	46
2-18. 정선군 도로체계 현황	47
2-19. 강원도내 고속도로 미개설 지역별 연계현황	48
2-20. 정선군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49
2-21. 경제활동 현황	50
2-22. 산업유형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0
2-23. 기술업종 비율 현황	51
2-24.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중 정선군 점유 비율	53
2-25. 상수도 현황	53
2-26. 하수도 현황	54
2-27. 문화시설 현황	54
2-28. 교육시설 현황	54
2-29. 체육시설 현황	55
2-30. 공원 현황	55
2-31. 최근 주택관련 지표변화	56
2-32. 주택유형별 현황	56
2-33.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57

2-34. 중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61
2-35. 남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64
2-36. 연도별 관광객 현황	70
2-37. 연도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71
2-38. 6대 추진전략	76
2-39. 강원권 발전방향	77
2-40. 미래 국토발전 6대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79
2-41. 강원비전 2040 실천전략과 아젠다	83
2-42. 제6차 관광개발계획 공간구상	88
2-43. 제6차 관광개발계획 공간별 계획	89
2-44.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농업 및 농가공 부문 추진전략	90
2-45.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문화관광 부문 추진전략	91
2-46.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일자리·창업 부문 추진전략	92
2-47.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97
2-48. 제5차 국토종합계획	99
2-49. 2030 및 2040 강원비전 비교	99
2-50.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예측(저위추계)	101
2-51. 2005년 이후 1인 가구 증가 추세	102
2-52. 최근 주택관련 지표변화	105
2-53. 강원도 빈집 발생현황	106
3-1. 세계3극의 경제비중 장기전망(2007~2040년)	147
3-2. 교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148
3-3. 미래 산업 발전의 동인과 발전 방향	149
3-4. 2040 연령구조 추이	152
3-5. 생산가능 인구	152
3-6. 사회의 변천	157
3-7. 모형식에 의한 인구예측	191

3-8. 과거추세연장법 추정 결과	192
3-9. 과거추세연장법 산정검증	192
3-10.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계획인구 산정	192
3-11. 장래 강원도 가임여성 천명당 출산율(2015~2035)	193
3-12. 장래 강원도 출생성비(2015~2035)	194
3-13. 장래 강원도 인구 사망률(2015~2035)	194
3-14.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 추정치	195
3-15. 자연적 인구증가 총괄	196
3-16. 외부유입률 및 지표 산정기준	197
3-17. 사회적 인구증가 총괄	198
3-18. 사회적 증가 인구 단계별 인구	199
3-19. 계획인구 설정	199
3-20. 인구구조 전망	200
3-21.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204
4-1. 상위 및 관련계획·군정계획 검토	226
4-2. 주민참여단 회의내용	227
5-1.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258
5-2. 사업추진시 시행전략	259
5-3. 사업추진 개발 주체별 특징	261
5-4. 공공주도형 개발과 민간주도형 개발의 구분	262
5-5. 정원산정기법과 적용대상 조직	268
5-6. 교육의 목적	272
5-7. 교육의 실시 주기	272
5-8. 교육계획의 과정	272

그림 목 차

1-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	3
1-2. 장기 비전계획 수립 필요	4
1-3. 강원도의 변화하는 미래 사회	5
1-4. 비전정선 2040의 성격과 위상(1)	6
1-5. 비전정선 2040의 성격과 위상(2)	7
1-6. 정선군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8
1-7. 「비전정선 2040」 수립 단계	9
1-8. 제주 미래비전 체계	10
1-9. 경기비전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11
1-10. 경기비전2040 체계	12
1-11. 2030 서울플랜 체계	13
1-12. 충북미래비전 2040 체계	14
1-13. 독일 하펜시티 모습	15
1-14. 호주 달링하버 모습	16
1-15. 프랑스 유라릴 모습	17
1-16. 일본 나오시마 모습	18
1-17. 독일 뵘리츠호펜 모습	19
1-18.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모습	20
1-19.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습	21
1-20. 영국 게이트헤드 모습	22
1-21. 프랑스 뤼뒤푸 모습	23
1-22. 핀란드 로바니에미 모습	23
1-23. 독일 프라이부르크 모습	24

1-24.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 모습	25
1-25.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타운 모습	26
2-1. 정선군 위치 현황	30
2-2. (좌)정선군 하천망 및 (우)정선군 수계	32
2-3. 총인구 및 증감률	34
2-4. 정선군 인구구조 변화	35
2-5. 전국·정선군 인구 변화 추이	36
2-6. 전국·정선군 세대수 변화 추이	37
2-7. 행정구역별 인구	38
2-8. 연령별 인구	39
2-9. 연령별 인구구성비 증감률	39
2-10. 노인 인구	40
2-11. 노령화지수 현황	41
2-12. 1인 가구 현황	42
2-13.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43
2-14. 용도지역 현황도	44
2-15. 주요도로 포장현황	45
2-16. 정선군 도로망 현황	47
2-17. 정선군 철도망 현황	49
2-18. 기술업종 비율 현황	52
2-19. 업종별 입지계수 현황	52
2-20. 주택유형별 현황	56
2-21.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1)	57
2-22.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2)	58
2-23. 중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62
2-24. 남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65
2-25. 정선군 관광자원 현황	69

2-26. 정선군 연도별 관광객 현황	70
2-27. 정선군 5개년 평균 관광지 점유율	72
2-28.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74
2-29.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75
2-30. 2040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79
2-31. 강원비전 2040 비전하우스	81
2-32. 9대 메가트렌드를 통한 강원도의 방향성	81
2-33. 산림/에너지/관광의 신성장 거점	84
2-34. 강원남부지역권 주요사업 구상도	85
2-35. 2040 강원도 권역별 구상(종합)	85
2-36. 미래 강원도의 새로운 권역 구상	86
2-37. 2040년 강원도의 새로운 권역구상(안)	87
2-38.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공간구상	88
2-39.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현황	93
2-4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94
2-41. 정선알파인 스키장 및 폐광지역 도시재생	100
2-42. 강원도 인구추이(2015-2045)	101
2-43. 전국 및 정선군 1인가구 증가추세	102
2-44. 정선군의 위기(1)	110
2-45. 정선군의 위기(2)	111
2-46. 정선군의 기회(1)	112
2-47. 정선군의 기회(2)	113
2-48. 정선군의 기회(3)	114
3-1. 2020년 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주요 국가	119
3-2. 2060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120
3-3.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2015, 2065년)	121
3-4.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5-2065(중위)	121

3-5. 시도별 1인 가구 구성비, 2015~2045년	122
3-6. 삶의 만족도와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	122
3-7. 소득과 관광산업과의 관계	123
3-8. 스마트시티 키워드	124
3-9. 스마트 건설기술 개념도	125
3-10.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126
3-11. 초연결사회 시스템 계층 구조 및 일상생활 조망	127
3-12. 9대 메가트렌드(1)	128
3-13. 부양비, 1965~2065년	129
3-14. 9대 메가트렌드(2)	131
3-15. 사회영역의 미래시나리오	132
3-16. 피라미드 시나리오	136
3-17. 직사각형 시나리오	141
3-18. 미래전망 1 - 창조, 자유, 포용의 문화공동체	146
3-19. 산업과 부가가치활동의 매트릭스 및 사례	150
3-20. 미래전망 2 - 2040 경제와 삶의 질	156
3-21. 미래의 니즈와 기술과 개인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159
3-22.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연계	159
3-23. 구글무인자동차 사례	161
3-24. 일인용 비행기 사례	163
3-25. PRT(Personal Rapid Transit)	164
3-26. 미래전망 3 - 삶의 질과 과학기술	167
3-27. 기술진보의 특성과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	168
3-28. 미래사회 변화 동인과 미래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	169
3-29.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	170
3-30. 2040년에 부상하는 20가지 일자리	171
3-31. 미래 농촌(읍·면)인구 및 미래 농촌 고령화율 전망	172
3-32. 농촌 거주 주택 유형변화 추세 및 농촌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173

3-33. 메가트렌드 및 농림식품 트렌드 선정	174
3-34. 미래 농림식품 기술트렌드 사례	174
3-35.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	175
3-36.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산업지도	176
3-37. 스마트농업의 관리체계 변화	177
3-38.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산업(1)	177
3-39.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산업(2)	178
3-40. 미래 관광산업의 변화	181
3-41.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1)	182
3-42.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2)	183
3-43. 한국의 2040년 미래트렌드 시사점	184
3-44.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분야별 정주 만족도(연령별 비교)	185
3-45. 농촌주민의 정주 만족도가 낮은 세부 서비스 항목	186
3-46. 귀농·귀촌인의 연도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율 변화 추이	187
3-47. 주민 유형별 농촌 정주 만족도	188
3-48.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189
3-49.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 여건(전국 농촌지역 대상)	190
3-50. 인구구조 전망도표	200
3-51.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	201
3-52. 미래 농촌의 삶터와 쉼터 이슈 및 전개방향	202
3-53. 미래 농촌의 일터와 공동체의 터 이슈 및 전개방향	204
3-54. 압축도시로의 전환 필요	206
3-55.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207
3-56. 압축도시 실현을 위한 구역설정 예시	208
3-57. (좌)지방중소도시 및 (우)농산어촌지역 압축형 공간구조 구상도	209
3-58. 정선군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인구 및 노령화지수 변화	210
3-59. 정선군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	211
3-60. 정선군 미래 거점지역의 변화	212

3-61. 미래 정선군 공간구조	212
3-62.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213
3-63.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전략	214
3-64. 지역 푸드플랜 기본 모델	215
3-65. 정선 푸드플랜 체질 맞춤형 소비트렌드	216
3-66. 정선군 미래전망 시사점	219
4-1. 정선군 핵심 키워드 도출 과정	223
4-2. 국내·외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25
4-3. 지역주민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키워드 도출	228
4-4. 정선군 공통부문 및 도시·교통·주거기반시설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229
4-5. 정선군 경제·일자리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농촌·산림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229
4-6. 정선군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사회복지·공동체·보건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230
4-7. 정선군 2040 미래비전 핵심가치 검토(종합)	230
4-8. 정선군 2040 미래비전 수립시 주요 검토사항	231
4-9. 정선군 2040 미래비전 3대 미래가치	232
4-10.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방향 구성체계	233
4-11.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방향 구성체계(예시)	233
4-12.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검토내용	234
4-13.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정선읍	235
4-14.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고한읍	235
4-15.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사북읍	236
4-16.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신동읍	236
4-17.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화암면	237
4-18.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남면	237
4-19.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여량면	238
4-20.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북평면	238
4-21.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임계면	239

4-22. 정선군 3대 미래가치에 따른 미래 아젠다 도출	240
4-23. 정선군 2040 미래비전 목표 및 전략	242
4-24. 6대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242
4-25. 아젠다 1 실천과제 검토	246
4-26. 아젠다 2 실천과제 검토	248
4-27. 아젠다 3 실천과제 검토	249
4-28. 아젠다 4 실천과제 검토	250
4-29. 아젠다 5 실천과제 검토	252
4-30. 아젠다 6 실천과제 검토	253
5-1. 정선군 미래비전 이미지 공유방안(협치방안)	260
5-2. 관리조직의 주요 지향점 및 변화 과정	265
5-3.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265
5-4. 적정운영인력 편성	267
5-5. 적정인력 산정법	269
5-6. 정선군 미래비전 조직구성	270
5-7. 교육목표	271
5-8. 미래비전 운영시 주요 이슈 검토(1)	274
5-9. 미래비전 운영시 주요 이슈 검토(2)	275
5-10. 미래비전의 사업 운영시 고려사항	276

비전정선 2040

「비전정선 2040」 수립개요

1장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과 목적 1

「비전정선 2040」 성격과 위상 2

「비전정선 2040」 수립 단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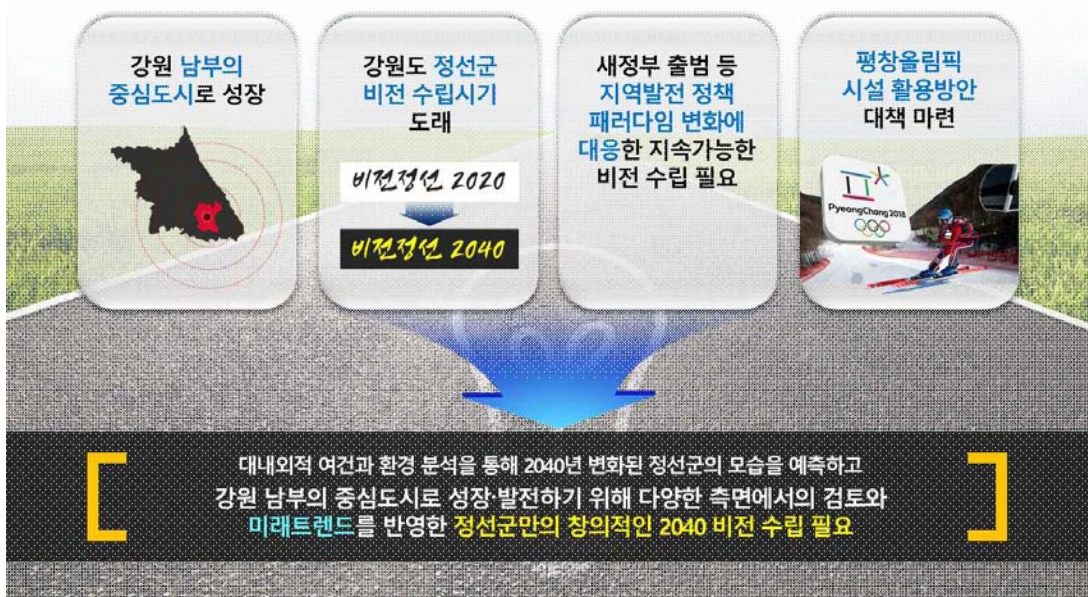
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사례 4

1장. 「비전정선 2040」 수립 개요

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과 목적

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

-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 분석을 통해 2040년 변화된 정선군의 모습을 예측하고 강원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미래트렌드를 반영한 정선군만의 창의적인 2040 비전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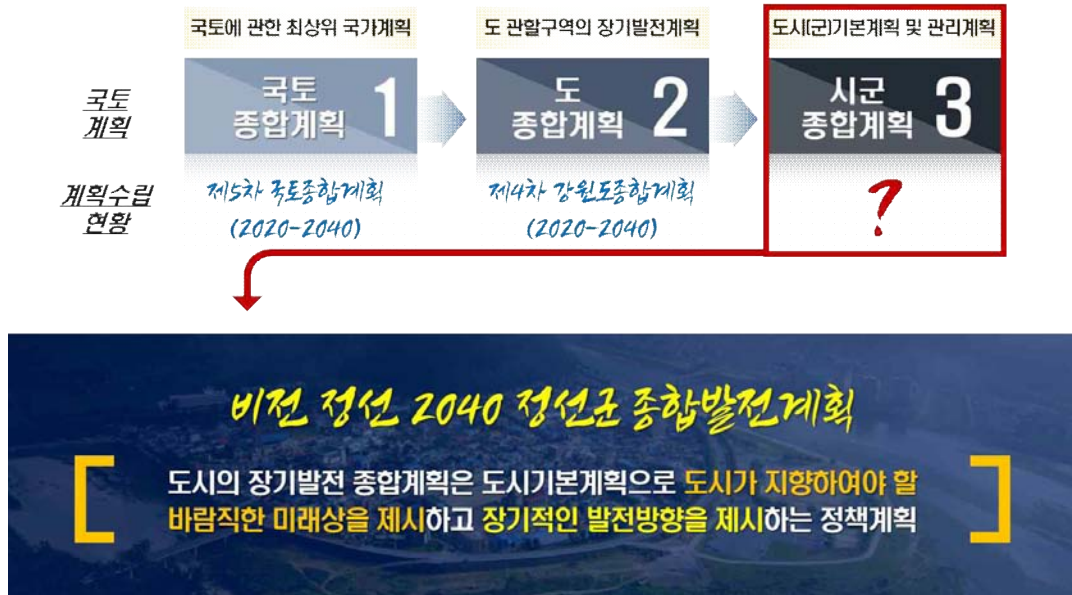


[그림 1-1]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

가. 미래트렌드가 반영된 정선군만의 장기 비전계획 수립 필요

- 최근 과학기술의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와 자원고갈,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미래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잠재적 위협요인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장기 비전계획 마련이 필요함
-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발전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2040년 변화된

정선군의 모습을 예측한 후 바람직한 미래상과 군정방향을 구체화, 입체화하여 올림픽 개최도시, 강원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해 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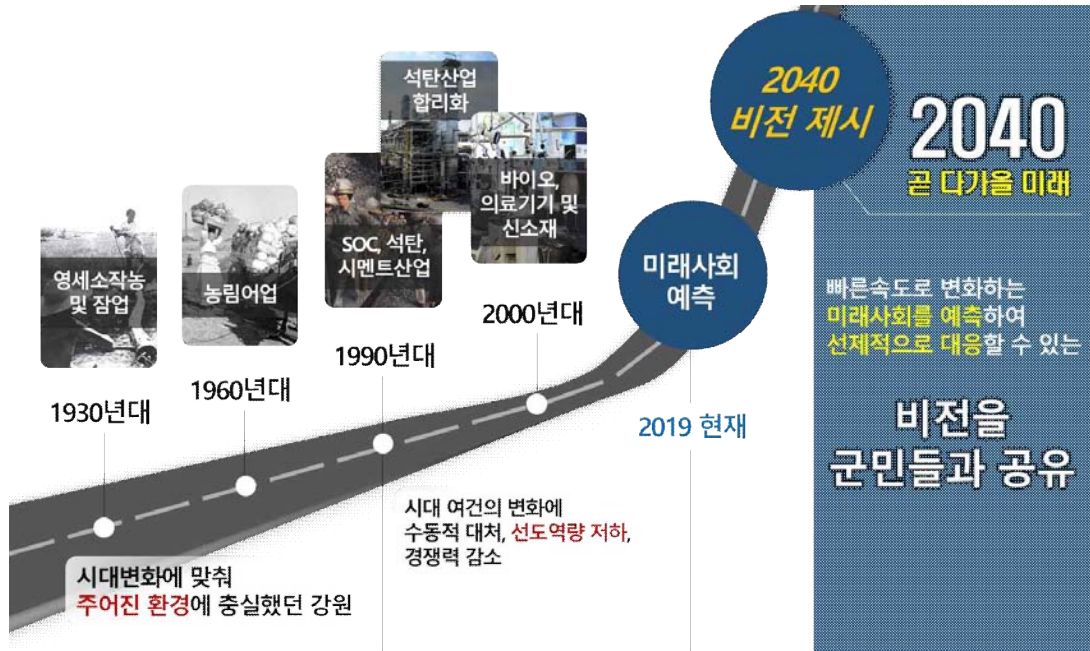
[그림 1-2] 장기 비전계획 수립 필요

나.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요인에 대한 기존 계획의 한계

- 기존의 각종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2020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래의 과학기술변화의 가속화 등 다양한 미래트렌드에 따라 나타나게 될 미래사회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는 미래 발전 및 장기 비전에 대한 계획이 역부족한 실정임
- 또, 기존 계획은 단기 현안 중심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함

다.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정선군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출생률 감소와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 현상 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경기 및 리조트 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그림 1-3] 강원도의 변화하는 미래 사회

2. 「비전정선 2040」 수립 목적

가. 미래트렌드가 반영된 정선군 미래 전망 및 대응방안 및 전략 도출

-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메가트렌드에 기초하여 정선군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미래 이슈를 도출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미래 아젠다를 선정하고자 함

나. 정선군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상 및 비전 제시

- 정선군민의 염원과 희망사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 세대를 포함한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다. 미래 정선군정의 정책기반과 실천과제 제시

- 정선군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실천과제와 실천전략, 실행 방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2 「비전정선 2040」 성격과 위상¹⁾

1. 「비전정선 2040」 성격과 위상

가. 정선군의 고유가치를 담아 함께 만드는 최상위 종합계획

- 정선군만의 창의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담아 군민 - 전문가 - 공공 등 수차례의 논의와 공감과정을 통해 함께 만드는 계획
 - 장기비전과 미래계획, 연차별 로드맵이 연계된 통합계획
 - 군내·외 집단 지성을 활용한 협력 계획 (군민, 군, 의회 등 각계 전문가 공동 협력)
 - Top-Down 방식의 목표달성 계획(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의 목표달성 계획→핵심이슈별 아젠다 및 세부전략→아젠다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그림 1-4] 비전정선 2040의 성격과 위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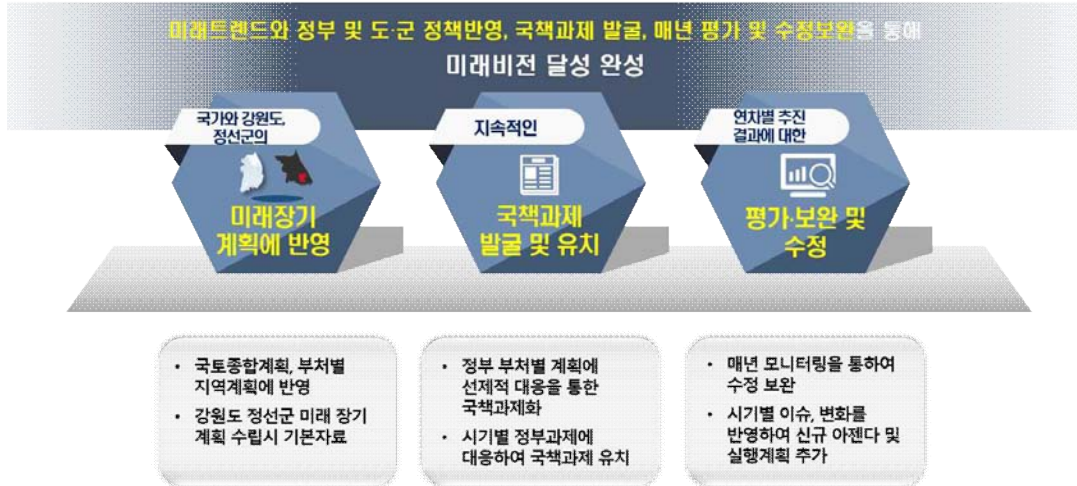
나.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계획

- 미래트렌드와 정부 및 도·군 정책 반영, 국책과제 발굴, 매년 평가 및 수정보완을 통해 미래비전 달성 완성
 - 국가와 강원도, 정선군의 미래장기계획에 반영
 - 지속적인 국책과제 발굴 및 유치

1) 강원비전 2040의 성격과 위상을 참조하여 재인용

- 연차별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보완·수정
- 시기별 이슈와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아젠다 및 실행계획 추가

■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계획



[그림 1-5] 비전정선 2040의 성격과 위상(2)

3 「비전정선 2040」 수립 단계

1. 「비전정선 2040」 목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 정선군 관련 상위계획과 내부적·외부적으로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현안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선군의 현안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한 핵심 키워드와 미래의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핵심 가치 도출



[그림 1-6] 정선군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2. 수립 단계

가. 1단계 : 국내외 미래 환경 분석(패러다임 변화)

- 국가단위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미래 가치와 핵심가치 방향을 제시하고, 정선군의 미래발전을 전망함에 있어 요구되는 미래전망 대상 및 영역 산정

나. 2단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군정계획 검토

- 1단계에서 도출된 국가단위 메가트렌드에 기초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정선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실시

다. 3단계 : 주민참여단 및 주민의식조사(미래비전 인터뷰)

- 정선군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정선군민이 가지고 있는 정선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함

라. 4단계 : 전문가 및 연구원 인터뷰(미래비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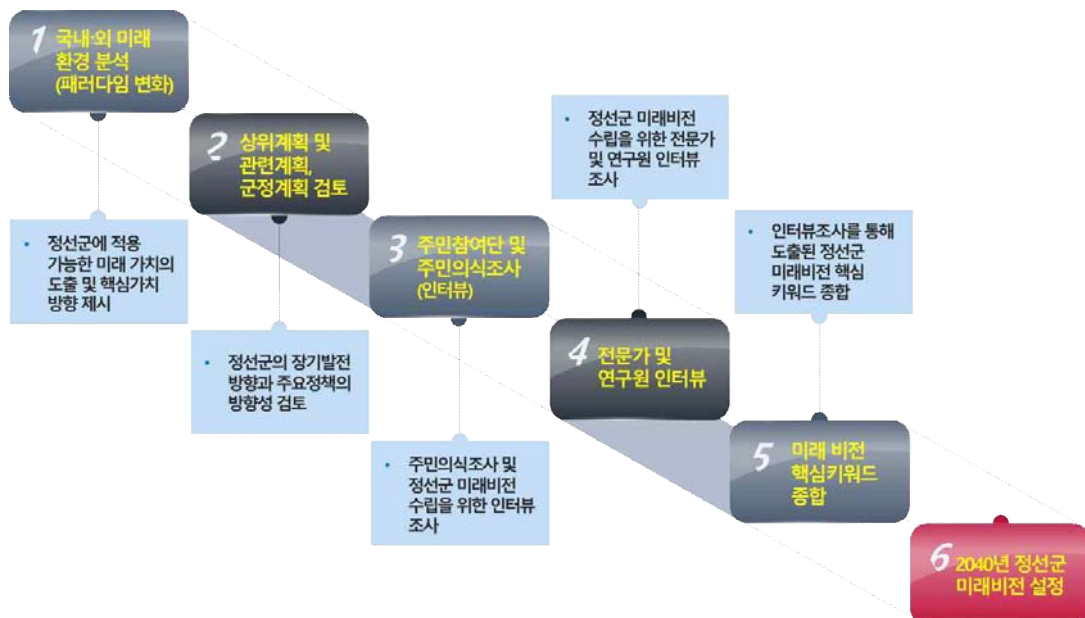
- 사회복지, 경제산업, 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원의 의식조사를 통해 정선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전문가 및 연구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함

마. 5단계 : 미래비전 핵심 키워드 도출

- 정선군민과 전문가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선군 미래비전 핵심키워드를 종합 검토

바. 6단계 : 비전정선 2040 미래비전 설정

- 각 단계에서 도출한 정선군의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정선군이 다루어야 할 아젠다별 핵심가치를 분류하고, 정선군민이 희망하는 정선의 모습과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기초하여 정선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를 선정함
- 선정된 미래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선군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기본적인 미래비전의 구성체계를 완성하는 단계임



[그림 1-7] 「비전정선 2040」 수립단계

4 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사례

1. 국내 사례

가. 제주 미래비전

[표 1-1] 제주 미래비전 사례 검토

비전수립 목적	- 지역현황 진단과 잠재력 분석을 통한 현안이슈 대응 -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미래비전 설정 -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 제시	
핵심가치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추진전략 (목표)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 사회통합의 공동체 실현	
분야별 정책 (핵심이슈)	- 생태자연 청정도시 - 편리안전 안심도시 - 청정관리 도시	- 상생창조 도시 - 휴양관광 도시 - 문화교육 복지도시
비전정선 2040 수립시 참고사항	- 제주도민 계획단을 중심으로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체계적으로 추진된 부분 벤치마킹 - 군민 참여단 운영, 군민/군의회/군 의견수렴 시 적용	

자료 : 제주미래비전 참조



자료 : 제주미래비전

[그림 1-8] 제주 미래비전 체계

나. 경기비전 2040

[표 1-2] 경기비전 2040 사례 검토

비전수립 목적	1,300만 명 도민이 공유하는 비전 수립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아젠다와 중장기 전략 제시
핵심가치	혁신(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
비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추진전략 (목표)	- 지역경제구조의 혁신(GRDP N+1% 전략) -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 -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남북경제통합 거점)
분야별 정책 (핵심이슈)	-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유와 상생의 경제 시스템의 구축 - 거점도시간 환상 철도 건설 -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 실현 - 포괄적 평생학습체계 구축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 장수도시 실현 -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실천
비전정선 2040 수립시 참고사항	- 미래학 방법론에 기초하여 비전, 전략,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도출 - 비전정선 2040에서 지향하는 Top-down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추진한 부분을 적극 벤치마킹

자료 : 경기비전2040 참조



[그림 1-9] 경기비전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자료 : 경기비전2040

[그림 1-10] 경기비전2040 체계

다. 2030 서울플랜

[표 1-3] 2030 서울플랜 사례 검토

비전수립 목적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실현화하는 공간계획 -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한 전략적 계획
핵심가치	산업·일자리 환경·에너지·안전 복지·교육·여성 도시공간·교통·정비 역사문화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분야별 정책 (핵심이슈)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 -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비전정선 2040 수립시 참고사항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

자료 : 2030 서울플랜 참조



자료 : 2030 서울플랜

[그림 1-11] 2030 서울플랜 체계

라. 충북미래비전 2040

[표 1-4] 충북미래비전 2040 사례 검토

비전수립 목적	- 미래트렌드에 따른 충북의 미래 전망 및 대응방안 도출 - 도민이 염원하는 충북의 미래상 및 비전 제시 - 미래 이슈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 미래 충북도정의 정책적 토대와 실천방안 제시		
핵심가치	풍요 공존 개방		
비전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		
추진전략 (목표)	총인구 200만명, GRDP 200조원, 수출 1,000억불, 무장애도시 구현 -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충북 -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충북 - 세계를 이끌어가는 개방된 충북		
분야별 정책 (핵심이슈)	- 초연결사회를 선도하는 혁신경제 - 인재와 일자리가 풍부한 학습사회 - 문화와 휴식이 조화로운 삶의 터전 -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안전한 청정도시	-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선진복지 -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정부 - 포용과 개방의 균형적인 창조공간 -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비전정선 2040 수립시 참고사항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를 준비단계, 2030년까지를 발전단계, 2040년까지를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아젠다 분야별 핵심 전략과 선도과제를 제시하였음		

자료 : 충북미래비전 2040 참조



자료 : 충북미래비전 2040

[그림 1-12] 충북미래비전 2040 체계

2. 국외 사례

가. 외부지향적 연결성 확대

1) 하펜시티(Hafen City, 독일)

[표 1-5] 독일 하펜시티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2001년 항만시설 노후화와 도심기능 쇠퇴, 인접한 곳의 신항 개발 등 항만 재개발 착수
목표	거주민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매력적인 복합 항만 개발
특징	- 항만 내 창고로 쓰이던 유서 깊은 건물과 항만시설을 파괴하는 대신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접목시켜 하펜시티만의 독창적인 건축물로 재탄생 - 원도심과 대상지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마다 다리나 도로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트램 및 지하철 Y4라인 연장
시사점	지역의 낡은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주거, 업무, 문화, 편의시설의 혼합 배치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3] 독일 하펜시티 모습

2) 달링하버(Darling Harbour, 호주)

[표 1-6] 호주 달링하버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과거 단순 항만기능과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던 항구를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위락지역으로 변모
목표	일 년 내내 즐거운 해양관광 도시
특징	- 재개발을 통해 항구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 마리나 시설을 비롯해 상업용 해양 크루저, 제트보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을 갖춘 위락형 해양관광 항구로 탈바꿈 - 새해불꽃놀이, 호주의 날 축제, 재즈 축제, 겨울음악회, 크리스마스축제 등 일 년 내내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시사점	기존 항구시설을 마리나 시설 및 해양스포츠 기능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각종 축제를 통해 인구 유입 유도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4] 호주 달링하버 모습

3) 유라릴(Euralille, 프랑스)

[표 1-7] 프랑스 유라릴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주 산업이었던 광업이 1970년대 들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연결하는 허브 역으로서의 도시발전 전략 수립
목표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3개국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 도시 건설
특징	- 새로 입주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도시의 상가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시민, 공무원, 언론인, 철학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매월 모여 건물의 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감 - 유라릴은 점차 환승지가 아닌 목적지로 탈바꿈해 나갔으며, 역 인근에 대형 문화공간 그랑팔레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남
시사점	3개국을 연결하는 환승지에서 점진적 단계를 거쳐 목적지로 중심성을 획득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여 계획 수립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5] 프랑스 유라릴 모습

나. 체류형 관광목적지 조성

1) 나오시마(Naoshima, 일본)

[표 1-8] 일본 나오시마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구리 제련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황폐화되어가던 나오시마에 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섬 전체를 예술 작품화함
목표	다양한 숙박시설로 맞춤형 체류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조성
특징	- 컬처노믹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꼽히며 한 해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머무르고 싶은 곳 조성
시사점	저렴한 가격의 민박부터 고급형 호텔이 있어 취향에 맞게 체류가 가능하며, 다카마츠, 오키야마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오래 머무르고 싶은 여행지 조성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6] 일본 나오시마 모습

2) 뵘리스호펜(Wörishofen, 독일)

[표 1-9] 독일 뵘리스호펜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1800년대 자연 치료법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면서 요양시설 설립
목표	장기요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통해 치유와 휴양으로 특화
특징	-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치유를 위한 휴양마을로 요양건물, 숙박용 펜션, 상점 등으로 구성된 도시 - 크나이프 의사협회에서 설계한 치유를 위한 산림코스 146개 조성
시사점	- 수려한 자연을 활용하여 치유와 휴양이라는 명확한 테마 설정 - 장기요양시설 조성을 통한 치매노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7] 독일 뵘리스호펜 모습

3) 할슈타트(Hallstatt, 오스트리아)

[표 1-10]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세계 최초 소금광산이 있던 할슈타트는 소금산업의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관광지로 모습을 바꿔 감. 호수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어 특색 있는 경관을 가진 관광지로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함
목표	자주, 오랫동안 머물기 좋은 별장 같은 여행지
특징	- 웨리엔하우스(방학, 휴가를 위한 집) : 가족호텔 개념의 펜션으로 '숙박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 (가족단위로 렌트) - 웨리엔하우스는 주민들의 주 수입원으로 작용하며, 이용자들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재방문 유도
시사점	- 저가의 장기체류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장기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의 목적성을 가진 지속적인 방문 유도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8]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모습

다. 지역특색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마케팅 성공

1) 바르셀로나(Barcelona, 스페인)

[표 1-11]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 피카소와 가우디의 도시로 유명한 바르셀로나는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유명 관광지가 됨
목표	건축과 예술 자산의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한 도시전체의 문화유산
특징	•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들로 인해 수도인 마드리드보다 도시경쟁력이 훨씬 높은 도시로서, 전 세계 관광객과 건축학도들이 몰려들고 있음 • 지하철, 버스, 트램, 푸니쿨라, 케이블카 등 종합적 대중교통망을 제공하여 이동 편의성 도모
시사점	•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볼거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음 • 다른 도시와 경쟁하지 않는 유니크한 도시정체성 확보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19]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습

2) 게이트헤드원(Gateshead, 영국)

[표 1-12] 영국 게이트헤드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예술을 통한 재생을 목표로 삼고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침체되었던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에 철로 제작 및 1986년 공공공간 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시작
목표	쇠퇴한 산업유산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스토리텔링형 도시재생
특징	- 지방정부의 비전에 따라 지역주민 설득하여 ‘북방의 천사상’ 조형물을 설치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여 세이지 음악당 조성 -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지역민 프로그램)의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시사점	- 공공이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획 수립 -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비물리적 계획 시행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20] 영국 게이츠헤드 모습

3) 뤼뒤푸(Puy du Fou, 프랑스)

[표 1-13] 프랑스 뤼뒤푸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방데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역민의 자원봉사와 문화유산을 토대로 테마파크 조성
목표	지역밀착형 창의적 테마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특징	- 방데지역의 역사와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억문화유산' 으로부터 '시네세니'라 불리는 창의적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 '시네세니'의 참여 배우는 모두 지역민으로 미래의 뤼뒤푸를 이끌어갈 지역의 청소년에게 전수를 목적으로 한 '주니어 아카데미' 설립
시사점	방데 지방 역사의 독특성과 주민의식, 정서가 반영된 지역의 기억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그림 1-21] 프랑스 푸뒤푸 모습

4) 로바니에미(Rovaniemi, 핀란드)

[표 1-14] 핀란드 로바니에미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 혹독한 기후조건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버려진 땅을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이미지로 활용
목표	지역의 스토리텔링(테마)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특징	•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타클로스가 사는 마을’로 조성
시사점	• 단기적인 개발이 아닌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라는 장기적인 테마 구축



[그림 1-22] 핀란드 로바니에미 모습

라. 미래사회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

1) 프라이부르크(Freiburg, 독일)

[표 1-15]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
목표	친환경에너지의 대명사,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
특징	- 절전형 전구를 각 가정에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주택을 개발·보급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 시행 -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하여 녹색시장 성장 유도
시사점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23] 독일 프라이부르크 모습

2) 마스다르(Masdar, 아랍에미레이트)

[표 1-16]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아부다비 2030계획의 하나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개발’을 통해 아부다비를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만들 계획 수립
목표	신재생에너지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에너지 허브
특징	- 아부다비를 지속가능한 청정 기술의 개발과 연구, 상업화를 위한 기지로 삼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마스다르에 1500개의 다국적 기업 입주목표를 수입 관세와 세금 면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100% 인정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을 검토 중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다르 공과대학에서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기술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시사점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함 - 에너지 분야 R&D 기업 유치로 통해 경제 부문과 환경 부문을 모두 향상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24]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 모습

3) 후지사와 스마트타운(Fujisawa Smart Town, 일본)

[표 1-17]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타운 사례 검토

배경 및 목적	이산화탄소 70% 저감, 생활용수 30% 저감,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률 30% 이상을 목표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
목표	재난·재해에 위협받지 않는 자립형 스마트 에너지 마을
특징	- 모든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가정별로 사용전력을 관리하는 스마트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제공 - 바람, 빛, 물, 열을 구석구석 전달하는 패시브 설계를 통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비상시에도 전기와 온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조-축적 제휴시스템’ 도입
시사점	- 패시브 설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 기후 재해 등에 따른 비상 상황까지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

자료 : 강원비전 2040 참조



[그림 1-25]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타운 모습

비전정선 2040

정선군 현황 및 여건분석

2장

정선군 현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정선군 여건변화 3

종합검토 4

2장. 정선군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선군 현황

1. 도시 연혁

- 정선군은 고구려 보장왕 27년에 잉매현으로 불렸으며, 신라시대에 이르러 757년 행정구역 9주로 확정함에 따라 경덕왕 16년에 정선현으로 칭했음
-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삼봉, 도원, 주 등으로 불리다가 서기 1018년 정선군으로 승격

[표 2-1] 정선군 연혁

연도	내용
757	• 행정구역을 9주로 확정함에 따라 명주 정선현으로 됨
1018	• 정선현을 정선군으로 승격
1895.05.26.	• 칙령 제98호(1895.5.26. 공포)에 의거 강릉부 정선군이 충주부 정선군이 됨
1896.08.04.	• 칙령 제36호(1896.8.4. 공포)에 의한 13도제 실시로 다시 정선군이 됨
1906.10.01.	• 강릉군으로부터 임계면과 도암면이, 평창군으로부터 신동면이 편입(8면)
1924.07.01.	• 서면을 정선면에 병합(7면)
1931.04.01.	• 부령 제11호(1931.2.28. 공포)로 도암면을 평창군에 편입
1935.12.25.	• 정선면의 도암동, 백일동 일부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신동면 각각 읍으로 승격(2읍5면)
1973.07.01.	• 대통령령 제6543호(1973.3.12. 공포)로 정선면과 동면 사북출장소가 각각 읍으로 승격(2읍5면) •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 공포)로 삼천군, 하장면 가목리와 도전리가 임계면에, 명주군 왕산면 구절리와 남곡리가 북면에 신동면 천포리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
1980.12.01.	• 대통령령 제10050호(1980.10.21.공포)로 정선군 신동면이 신동읍으로 승격(3읍 4면)
1985.10.01.	• 대통령령 제10772호(1985.9.26. 공포)로 사북읍이 분할 고한읍과 사북읍으로 승격(4읍 4면 2출장소)
1986.04.01.	• 대통령령 제 11874호(1986.3.27. 공포)로 북면 북평출장소가 북평면으로 승격(4읍 5면 1출장소관할)
1989.01.18.	• 정선군 조례 제1173호(1989.1.18. 공포)로 임계면 봉정리를 북면 봉정리로 편입
2009.05.01.	• 정선군 조례 제2157호(2009.4.8. 공포)로 동면은 화암면, 북면은 여량면으로 명칭 변경
2009.11.01.	• 임계면 골지리를 문래리로 명칭 변경(정선군조례 제2180호, 2009.10.20. 공포)

자료 : 정선군 내부자료

2. 위치 및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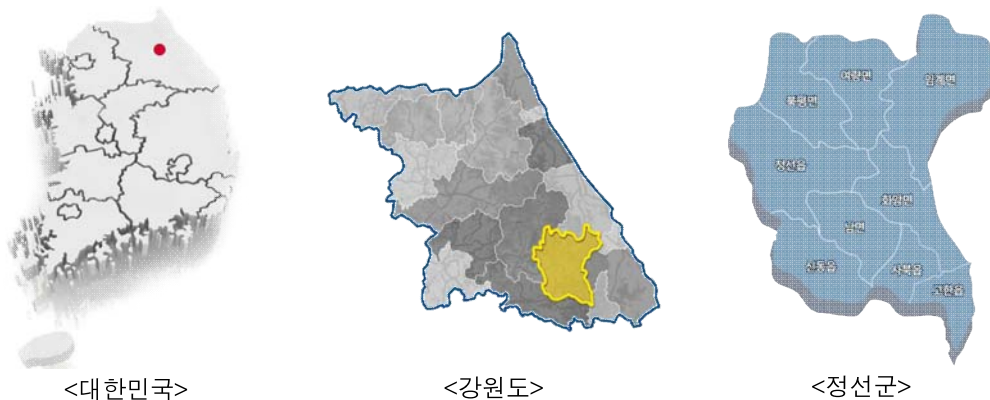
가. 위치

- 국토 공간상 정선군은 강원도 동남부지역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강릉, 남으로는 영월, 동으로는 동해, 태백, 삼척, 서로는 평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9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서울로부터 151km(대전 240km, 광주 400km, 부산 376km)의 거리로 영동고속도로, 태백선 철도, 국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영동권의 가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관광권과 강원산간지역의 중부 관광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경 40km내의 6개 시·군의 구심적인 역할이 가능함
- 지리적 위치로는 동단이 정선군 임계면 가목, 서단이 정선읍 회동으로 동서 연장거리는 40.25km에 이르며, 남단이 고한읍 고한, 북단이 임계면 화성으로 남북연장거리는 44.45km에 이름
- 접근은 국도 35호선, 38호선, 42호선, 59호선으로 가능하나 산지가 많아 주요고속도로와 거리가 있어 용이하지만은 않고, 현재 남북을 관통하는 59번 국도의 경우 2차선 도로에 급커브구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부이동도 수월하지 않음. 기존도로 개선사업과 동시에 수도권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표 2-2] 정선군 경·위도상의 위치 현황

극단	지명	인접시군	경도 및 위도	연장거리
동단	임계면 가목리	동해시	동경 128° 59'	동서간 40.25km
서단	정선읍 회동리	평창군	동경 128° 30'	
남단	고한읍 고한리	태백시	북위 37° 09'	남북간 44.45km
북단	임계면 임계리	강릉시	북위 37° 35'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1] 정선군 위치 현황

나.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 정선은 강원 영서의 태백산맥으로 형성된 고원지대로 가리왕산, 함백산, 문래산, 노추산 등의 산세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면적의 66.5%가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이며, 20° 이상의 급경사지가 65.7%를 차지하는 심한 산간지역이며, 청정한 하천이 발달되어 있음
- 정선군의 동남부 및 북부 산악에서 분기한 지맥과 이들 능선에 의해 형성된 계곡 등이 구곡양장의 지세를 이루고 있음
- 오대산맥에서 뻗어 내린 상원산, 가리왕산, 비봉산, 벽파령, 성마령, 마전치 등이 군의 우측을 감싸고 있고 석병산, 중봉산, 갈래산, 백운산, 예미산 등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의 중심에는 고양산이 위치하여 정선읍, 화암면, 여량면, 임계면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

2) 표고 및 경사도 분석

[표 2-3] 표고분석표

(단위 : k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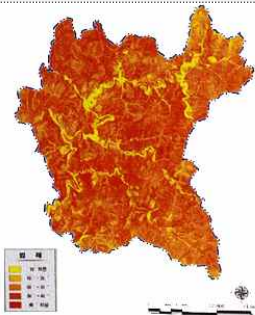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19.73	100.0	
200m 미만	0.22	0.0	
200~400m	91.44	7.5	
400~600m	307.71	25.2	
600~800m	449.57	36.9	
800~1,000m	246.54	20.2	
1,000m 이상	124.25	10.2	

자료 : 정선군 내부자료

주 : 1/25,000 지형도상에서의 구적치

[표 2-4] 경사도 분석표

(단위 :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19.73	100.0	
10° 미만	144.23	11.8	
10°~20°	151.46	12.4	
20°~30°	370.37	30.4	
30°~40°	413.85	33.9	
40° 이상	139.82	11.5	

자료 : 정선군 내부자료

주 : 1/25,000 지형도상에서의 구적치

3)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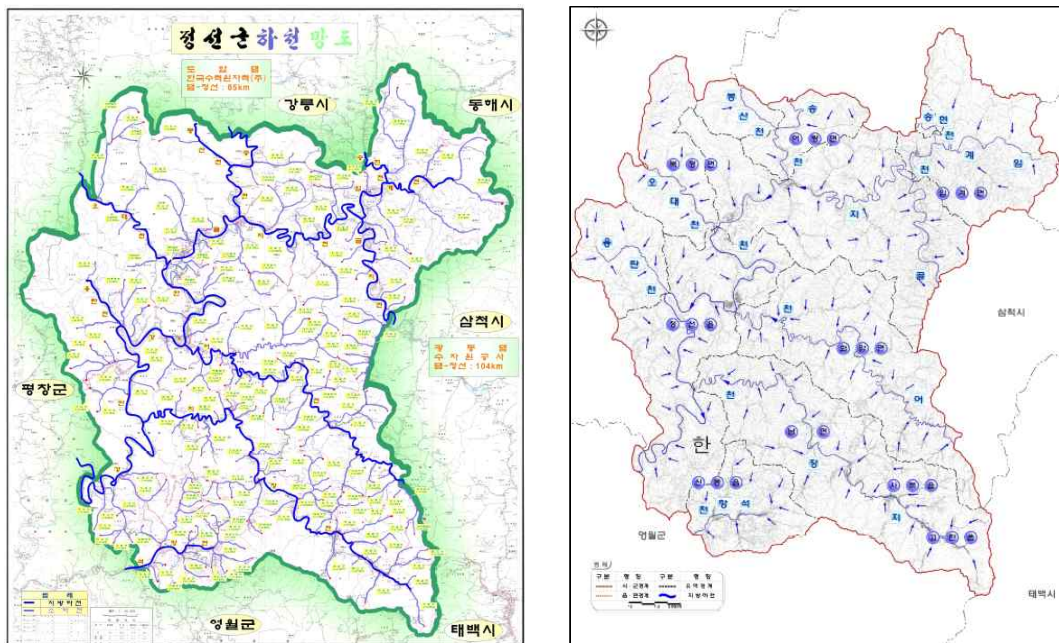
- 정선군 행정구역 내 하천은 총 11개소이며, 조양강은 동면 백전에서 흘러내리는 어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고한읍과 사북읍을 거쳐 남면에서 흘러드는 지장천이 합류하여 동강이 됨
- 동강이 영월쪽으로 빠져나가 평창군에서 흘러내리는 주천강(혹은 평창강)과 합류, 용탄천은 정선읍 용탄, 광하리를 돌아 갈래산에 발원하여 고한·사북·남면을 관류하는 지장천과 가수리에서 합류하여 영월군에서 남한강을 이루고 있음

[표 2-5] 하천현황

(단위 : 개소, km, %)

구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소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11	269.70	256.48	209.77	46.71	81.78
국가하천	-	-	-	-	-	-
지방하천	11	269.70	256.48	209.77	46.71	81.78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2] (좌)정선군 하천망 및 (우)정선군 수계

4) 기상개황

- 정선지역의 기후는 내륙 산간지대로 내륙의 고랭지 산악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서 기온차가 심하며 특히, 지형적인 관계로 평야와 고랭지간의 기온차가 심함
-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기온은 11.0℃이며 여름철 최고기온은 35.4℃, 겨울철 최저기온은 영하 -18.4℃임
-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1,131.1mm이며, 7~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1년에는 강수량이 2,085.7mm로 다른 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정선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 습도는 66.1% 정도로 비교적 다습한 편이며 주야간 일교차가 심하며, 바람은 봄철에 태백산맥의 높새바람 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며 주로 계절풍이 주를 이룸
- 정선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바람장미(Wind Rose) 분석을 통해 관측된 연간 주 풍향은 남서풍 계열이며, 계절별 풍향을 보면 봄, 여름, 가을은 남동풍이 주풍향이고 겨울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 연도별 기상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mm)	평균상대습도 (%)	일조시간(h)	평균풍속(m/s)
	평균	최고극값	최저극값				
2008	11.3	34.6	-16.2	876.6	68.0	2,030.4	1.4
2009	11.5	34.7	-17.4	1,027.0	67.0	2,054.6	1.4
2010	11.2	35.7	-22.7	1,341.2	68.0	1,861.5	1.4
2011	11.0	35.4	-20.4	2,085.7	66.0	1,994.7	1.4
2012	9.9	37.2	-21.3	965.1	66.0	1,786.6	1.8
2013	10.5	33.8	-22.0	1,250.2	69.0	1,965.8	1.7
2014	10.8	34.6	-16.5	893.7	65.0	1,765.5	1.6
2015	11.4	36.3	-14.4	724.6	64.0	2,036.7	1.7
2016	11.5	36.3	-18.3	1,174.2	64.4	1,986.1	1.5
2017	10.8	35.5	-15.0	972.5	63.8	2,034.9	1.7
연평균	11.0	35.4	-18.4	1,131.1	66.1	1,951.7	1.6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3. 인문·사회 환경

가. 인구 현황

1) 총인구

- 외국인을 포함한 2017년 정선군의 총인구는 38,429명이며, 그 중 내국인은 38,173명(99.3%), 외국인은 256명(0.7%)으로 나타남
 - 2008년 대비 내국인은 3,096명(7.5%) 감소, 외국인은 26명(9.2%) 감소
- 2017년 정선군의 세대수는 19,554세대로 전년대비 17(0.1%)세대 감소하였으며, 세대당인구수¹⁾는 2.0명으로 나타남



[그림 2-3] 총인구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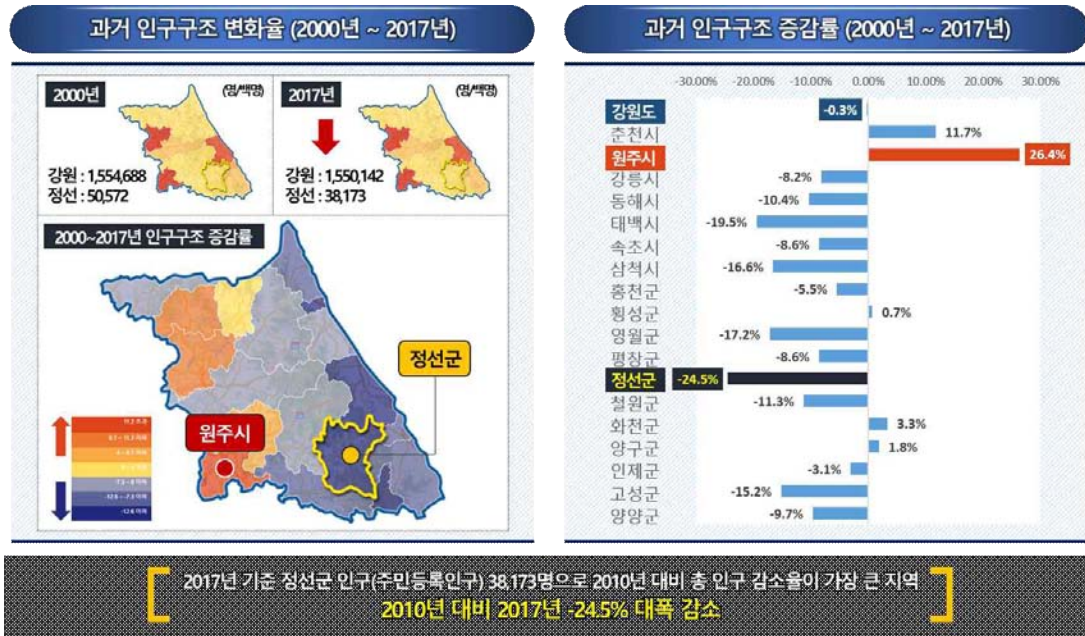
[표 2-7] 총인구 및 세대수

(단위 : 명, 세대, %)

구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구성비	세대수	전년대비 증감률		
			남자	여자			총인구	외국인	세대수
2007	42,048	41,806	21,634	20,172	242	0.6	18,114	-3.2	
2008	41,551	41,269	21,403	19,866	282	0.7	18,292	-1.2	16.5
2009	41,000	40,708	21,123	19,585	292	0.7	18,417	-1.3	3.5
2010	41,429	41,045	21,286	19,759	384	0.9	19,210	1	31.5
2011	40,514	40,181	20,815	19,366	333	0.8	18,968	-2.2	-13.3
2012	40,240	39,915	20,686	19,229	325	0.8	19,058	-0.7	-2.4
2013	40,310	39,985	20,675	19,310	325	0.8	19,330	0.2	-
2014	39,752	39,425	20,387	19,038	327	0.8	19,347	-1.4	0.6
2015	39,502	39,197	20,253	18,944	305	0.8	19,519	-0.6	-6.7
2016	38,993	38,718	19,975	18,743	275	0.7	19,571	-1.3	-9.8
2017	38,429	38,173	19,748	18,425	256	0.7	19,554	-1.3	-6.9

자료 : 2018년 정선군 사회조사 보고서, 2017년 기준

1) 세대당 인구수는 내국인 기준



[그림 2-4] 정선군 인구구조 변화

- 2017년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전국, 강원도, 정선군의 인구추이를 검토한 결과, 정선군 인구는 전국의 0.1%, 강원도의 2.5%로 2007년도의 전국의 0.1%, 강원도의 2.8%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전국 및 강원도, 정선군 인구 변화 (단위 : 만인(전국, 강원도), 인(정선),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전국	4,927	4,954	4,977	5,052	5,073	5,095	5,114	5,133	5,153	5,170	5,178	0.5%
강원도												
인구	150	151	151	153	154	154	154	154	155	155	155	0.3%
전국 대비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정선												
인구	41,806	41,269	40,708	41,045	40,181	39,915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0.9%
전국 대비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강원도 대비	2.8	2.7	2.7	2.7	2.6	2.6	2.6	2.6	2.5	2.5	2.5	-

자료 : 정선군 각 년도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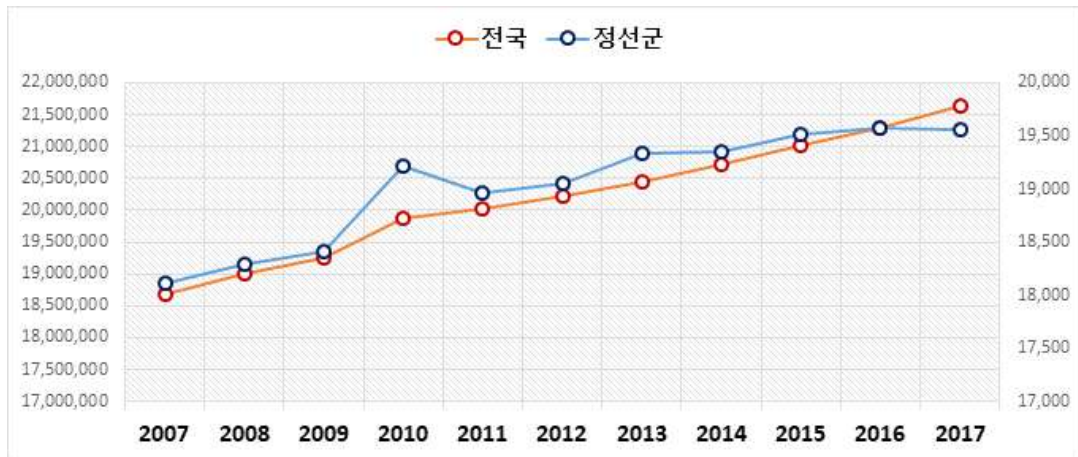
[그림 2-5] 전국·정선군 인구 변화 추이

- 전국 세대수는 2007년 1,889만 세대에서 2017년 2,163만 세대로 연평균 약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는 2007년 59만 세대에서 2017년 70만 세대로 전국 보다 높은 약 1.7%의 증가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정선군은 2007년 18,114세대에서 2017년 19,554세대로 1,440세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약 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9] 전국 및 강원도, 정선군 세대수 변화 (단위 : 만세대(전국, 강원도), 세대(정선),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전국		1,869	1,901	1,926	1,987	2,003	2,021	2,046	2,072	2,101	2,129	2,163	1.5%
강원도	세대	59	61	62	64	65	66	66	67	69	69	70	1.7%
	전국 대비	3.2	3.2	3.2	3.2	3.2	3.2	3.3	3.3	3.3	3.3	3.2	
정선	세대	18,114	18,292	18,417	19,210	18,968	19,058	19,330	19,347	19,519	19,571	19,554	0.8%
	전국 대비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강원도 대비	3.0	3.0	3.0	3.0	2.9	2.9	2.9	2.9	2.8	2.8	2.8	

자료 : 정선군 각 년도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그림 2-6] 전국·정선군 세대수 변화 추이

2) 행정구역별 인구

- 2017년 정선군의 행정구역별 인구는 정선읍(11,177명)이 전체인구의 29.3%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사북읍(5,189명, 13.6%), 고한읍(4,545명, 11.9%) 순으로 나타남
 - 화암면(1,681명, 4.4%)은 행정구역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음
- 인구증감률을 보면, 2013년 대비 남면은 0.8%(28명) 증가하였고, 고한읍은 11.6%(597명)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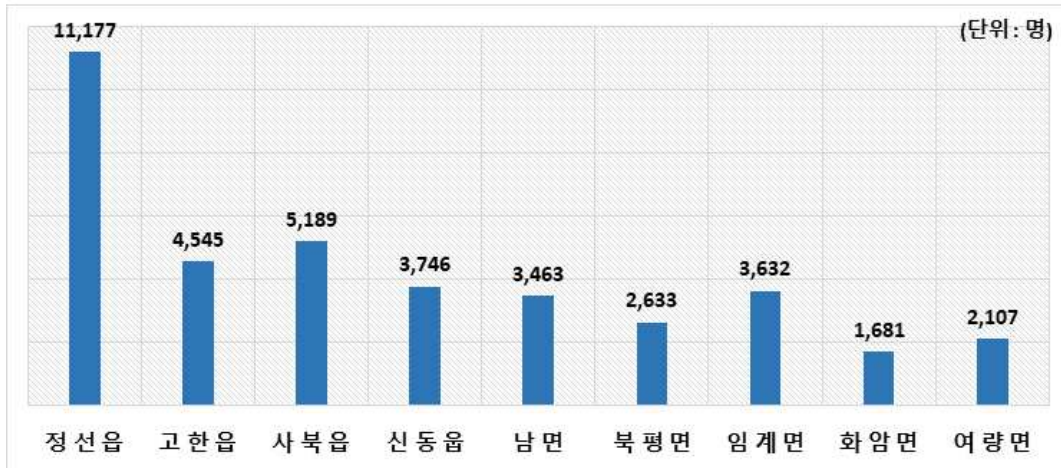
[표 2-10] 행정구역별 인구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강 원 도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7,879	0.5
정 선 군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1,812	-4.5
정 선 읍	11,676	11,491	11,460	11,277	11,177	-499	-4.3
고 한 읍	5,142	5,008	4,867	4,715	4,545	-597	-11.6
사 북 읍	5,592	5,543	5,425	5,297	5,189	-403	-7.2
신 동 읍	3,870	3,819	3,810	3,766	3,746	-124	-3.2
남 면	3,435	3,413	3,450	3,477	3,463	28	0.8
북 평 면	2,658	2,681	2,678	2,660	2,633	-25	-0.9
임 계 면	3,693	3,643	3,667	3,681	3,632	-61	-1.7
화 암 면	1,741	1,685	1,683	1,694	1,681	-60	-3.4
여 량 면	2,178	2,142	2,157	2,151	2,107	-71	-3.3

자료 : 2018년 정선군 사회조사 보고서, 2017년 기준

주 : 주민등록인구 기준, 외국인 제외



[그림 2-7] 행정구역별 인구

3) 연령별 인구

- 2017년 정선군의 연령별 인구는 50대(7,497명)가 총인구의 19.6%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60대(6,278명, 16.4%), 40대(5,484명, 14.4%)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10대 인구 구성비는 9.1%에서 7.9%로 1.2%p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14.9%에서 17.5%로 2.6%p 증가
- 70대 이상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하의 남자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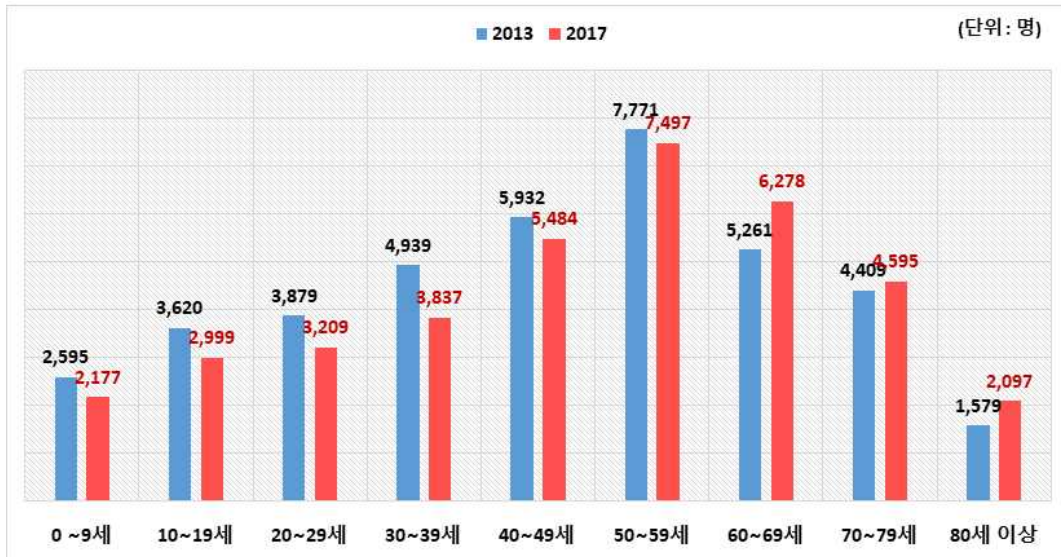
[표 2-11]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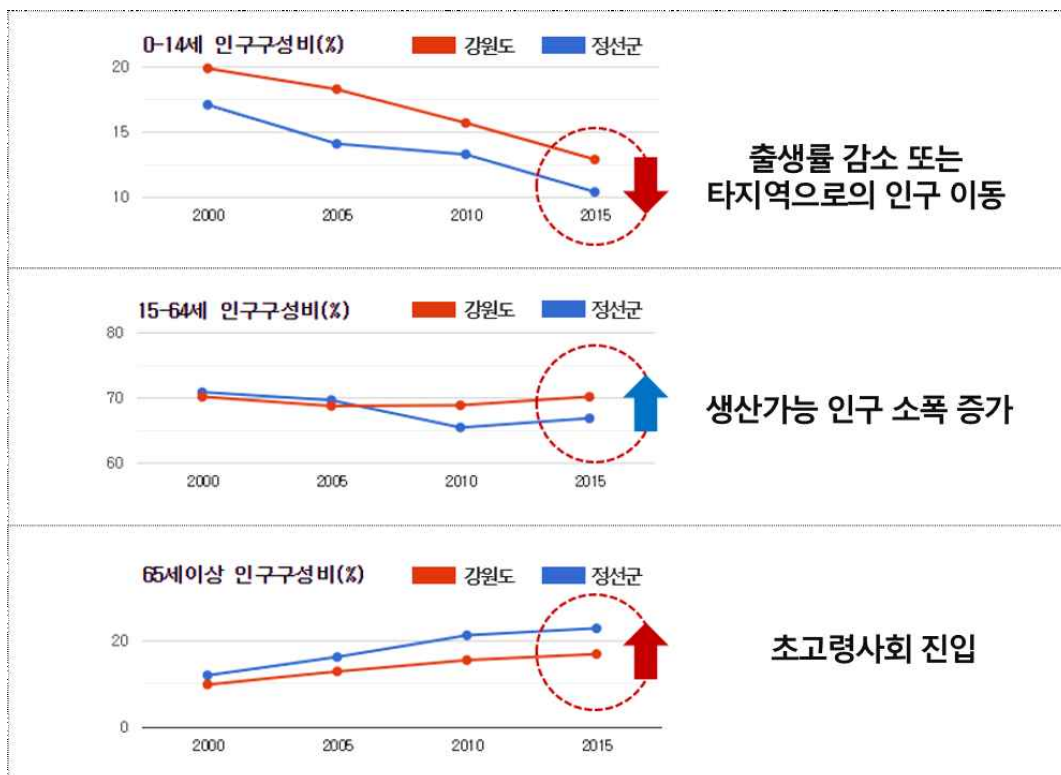
구분	2013				2017			
		남자	여자	구성비		남자	여자	구성비
계	39,985	20,675	19,310	100	38,173	19,748	18,425	100
0 ~ 9세	2,595	1,331	1,264	6.5	2,177	1,129	1,048	5.7
10 ~ 19세	3,620	1,897	1,723	9.1	2,999	1,542	1,457	7.9
20 ~ 29세	3,879	2,119	1,760	9.7	3,209	1,783	1,426	8.4
30 ~ 39세	4,939	2,834	2,105	12.4	3,837	2,177	1,660	10.1
40 ~ 49세	5,932	3,398	2,534	14.8	5,484	3,208	2,276	14.4
50 ~ 59세	7,771	4,140	3,631	19.4	7,497	4,004	3,493	19.6
60 ~ 69세	5,261	2,576	2,685	13.2	6,278	3,208	3,070	16.4
70 ~ 79세	4,409	1,923	2,486	11	4,595	2,046	2,549	12
80세 이상	1,579	457	1,122	3.9	2,097	651	1,446	5.5

자료 : 2018년 정선군 사회조사 보고서, 2017년 기준

주 : 주민등록인구 기준, 외국인 제외



[그림 2-8] 연령별 인구



자료 :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고령화 추세진단, 2016

[그림 2-9] 연령별 인구구성비 증감률

4) 노인인구

- 2017년 정선군의 노인 인구는 9,329명으로 총인구의 24.4%를 차지함
 - 2013년 대비 노인 인구는 826명(9.7%)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감률은 3.6%(321명)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1.3%에서 24.4%로 3.1%p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구성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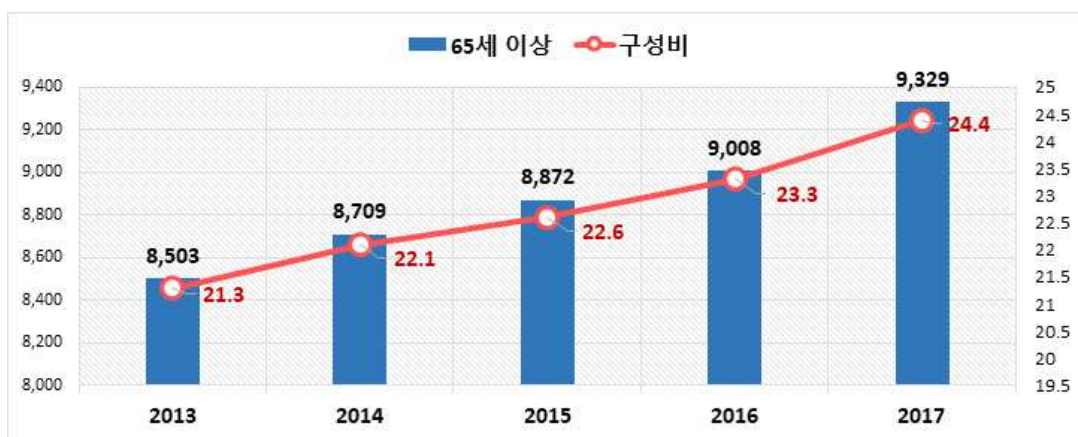
[표 2-12] 노인인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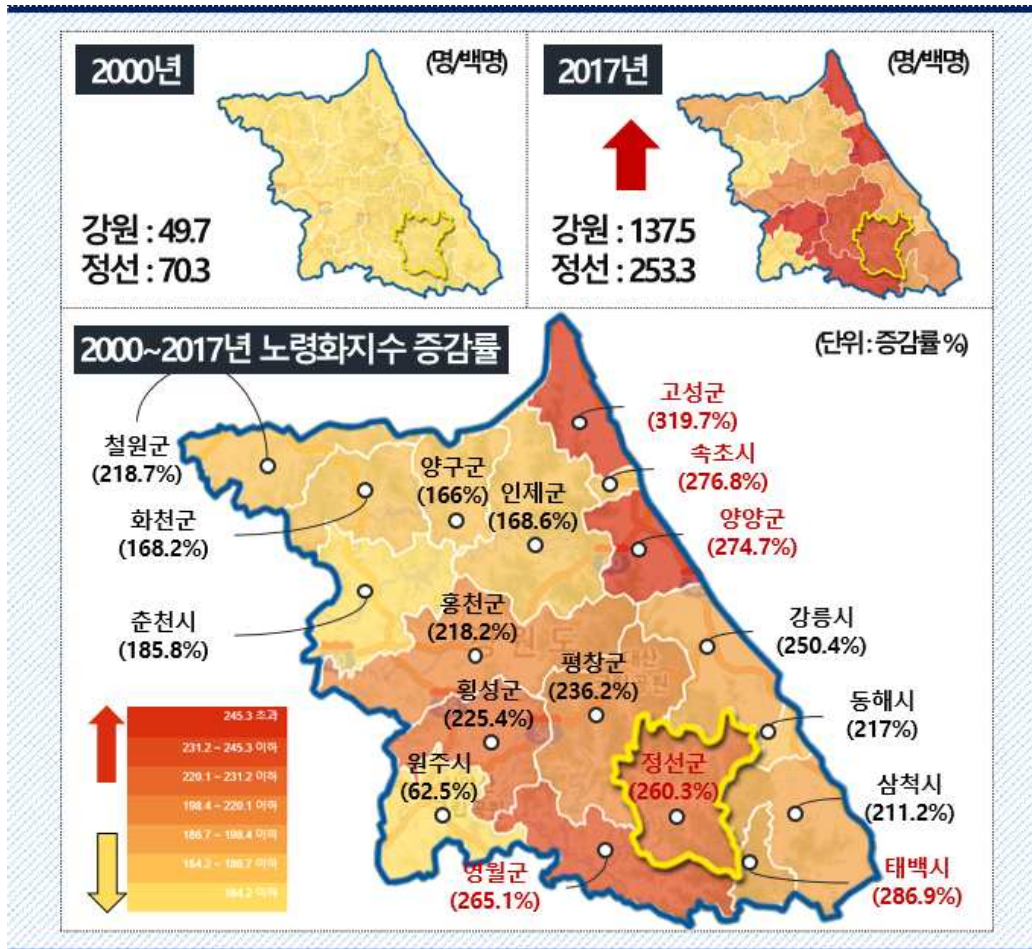
구분		총 인구	65세 이상	전년대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정선군	2013	39,985	8,503	21.3	318	3.9
	2014	39,425	8,709	22.1	206	2.4
	2015	39,197	8,872	22.6	163	1.9
	2016	38,718	9,008	23.3	136	1.5
	2017	38,173	9,329	24.4	321	3.6
강원도	2013	1,542,263	249,539	16.2	7,845	3.2
	2014	1,544,442	255,930	16.6	6,391	2.6
	2015	1,549,507	261,671	16.9	5,741	2.2
	2016	1,550,806	266,152	17.2	4,481	1.7
	2017	1,550,142	279,976	18.1	13,824	5.2

자료 : 2018년 정선군 사회조사 보고서, 2017년 기준

주 : 주민등록인구 기준, 외국인 제외



[그림 2-10] 노인 인구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17 /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고령화 추세진단, 2016

[그림 2-11] 노령화지수 현황

5)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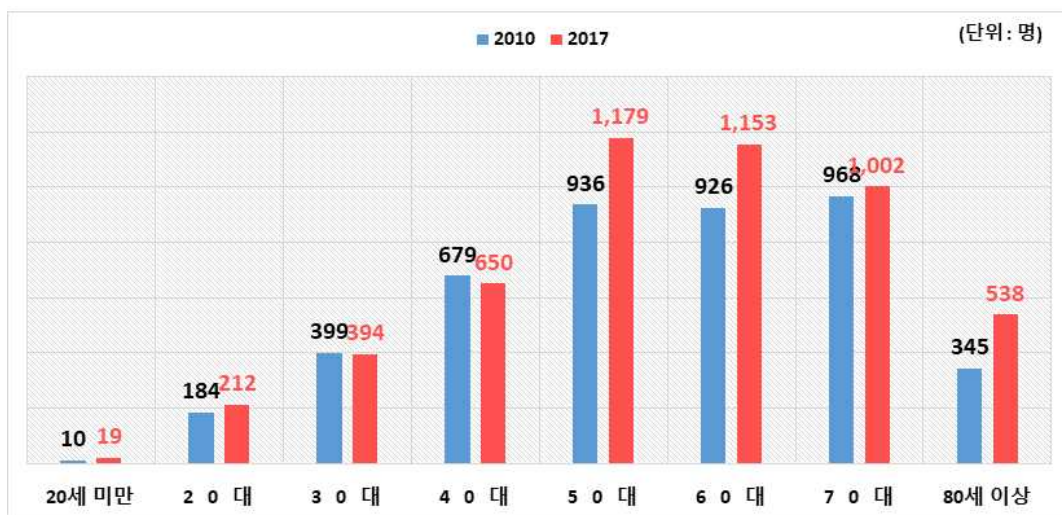
- 2017년 정선군의 1인 가구는 5,147가구이며, 2010년 대비 700가구(15.7%) 증가함
 - 1인 가구 구성비는 50대가 1,179가구(2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0대 1,153가구 (22.4%), 70대 1,002가구(19.5%)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80세 이상 남자 1인 가구는 44가구, 여자 1인 가구는 149가구 증가
- 60대 이상 여자 1인 가구는 남자보다 781가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1인 가구

(단위 : 명, %)

구분		2010			2017			구성비	2010년 대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증감	증감률
전국	계	4,447	2,010	2,437	5,147	2,541	2,606	100	700	15.7
	20세 미만	10	6	4	19	8	11	0.4	9	90
	20대	184	93	91	212	123	89	4.1	28	15.2
	30대	399	290	109	394	271	123	7.7	-5	-1.3
	40대	679	488	191	650	463	187	12.6	-29	-4.3
	50대	936	563	373	1,179	720	459	22.9	243	26
	60대	926	318	608	1,153	550	603	22.4	227	24.5
	70대	968	196	772	1,002	306	696	19.5	34	3.5
	80세 이상	345	56	289	538	100	438	10.5	193	55.9
강원도	계	155,453	71,718	83,735	199,645	100,677	98,968	100	44,192	28.4
	20세 미만	2,892	1,729	1,163	2,365	1,380	985	1.2	-527	-18.2
	20대	27,820	16,535	11,285	34,355	22,298	12,057	17.2	6,535	23.5
	30대	19,118	12,401	6,717	22,143	14,368	7,775	11.1	3,025	15.8
	40대	21,538	13,312	8,226	25,927	16,496	9,431	13	4,389	20.4
	50대	26,103	13,440	12,663	37,972	21,185	16,787	19	11,869	45.5
	60대	22,733	7,503	15,230	32,507	14,507	18,000	16.3	9,774	43
	70대	25,159	5,115	20,044	28,484	7,507	20,977	14.3	3,325	13.2
	80세 이상	10,090	1,683	8,407	15,892	2,936	12,956	8	5,802	57.5

자료 : 2018년 정선군 사회조사 보고서, 2017년 기준



[그림 2-12] 1인 가구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17년 기준 정선군의 행정구역 총면적은 1,219.77km²이며, 이중 임야가 1,042.42km²로 85.5%, 전·답이 106.8km²로 8.7%이며, 하천이 27.29km²(2.2%), 도로가 12.49km²(1.0%), 대지가 7.27km²(0.6%)로 조사됨

[표 2-1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

구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도 로	하 천	구 거	기타
면적	1,219.77	99.06	7.77	1,042.42	7.27	12.49	27.29	11.89	11.59
비율	100.0	8.1	0.6	85.5	0.6	1.0	2.2	1.0	0.9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주 : 기타는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등

2)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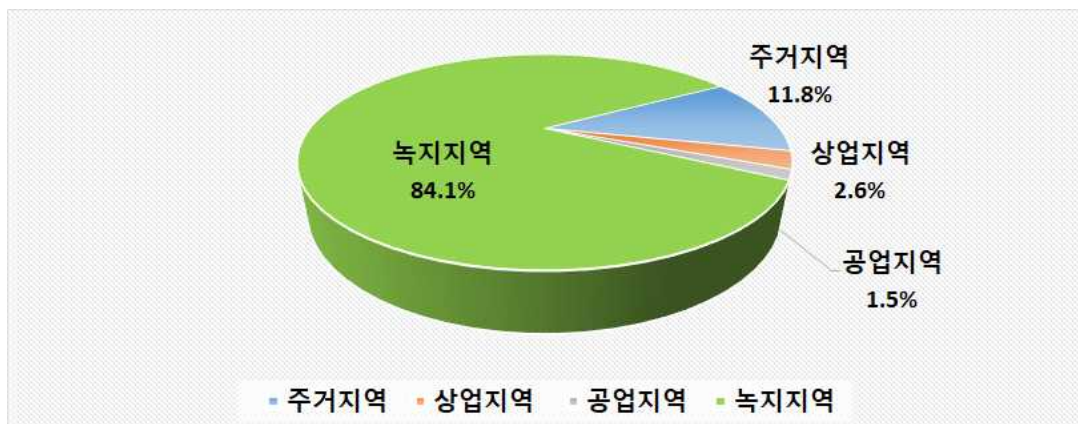
- 정선군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이 42.55km²(3.5%), 비도시지역이 1,177.17km²(96.5%)로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5.02km²(3.5%), 녹지지역이 35.79km²(2.9%), 주거지역이 5.02km²(0.4%), 상업지역이 1.12km²(0.1%), 공업지역이 0.62km²(0.1%)를 차지함

[표 2-15]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소계
면적	1,219.72	42.55	5.02	1.12	0.62	35.79	-		1,177.17
구성비	100	3.5	0.4	0.1	0.1	2.9	-		96.5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13]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자료 :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그림 2-14] 용도지역 현황도

4. 기반시설

가. 교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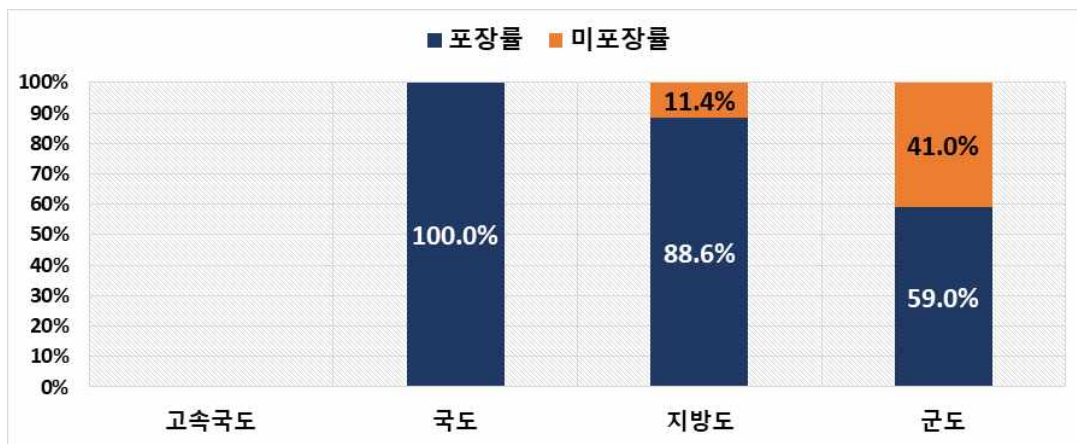
1) 도로시설 공급현황

- 정선군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군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도 4개 노선, 국지방도 5개 노선, 군도 8개 노선이 지역간 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포장률은 국도가 100%인 반면, 지방도 88.6%, 시군도 59.0% 수준으로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가 상당 부분 존재함

[표 2-16] 주요도로 시설현황

구분	노선수	연장(m)	포장도로 연장(m)	미포장&미개통 도로 연장(m)	포장률(%)
고속국도	-	-	-	-	-
국도	4	152,117	152,117	-	100.0
지방도	5	125,170	110,970	14,200	88.6
군도	8	226,100	132,930	93,170	59.0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15] 주요도로 포장현황

2) 타 시군과의 도로공급 비교

- 정선군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면적은 다섯 번째로 넓고 인구수는 13번째에 해당하여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음
- 고속도로가 해당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시·군 중 속초시와 삼척시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강원도내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8개 시·군으로 정선군도 여기에 포함됨

[표 2-17] 타 시군과의 도로현황 비교

구분	인구(인)	면적(km ²)	도로연장(m)	포장률(%)	고속도로연장(m)	1인당도로연장(m/인)
강원도	1,567,091	16,875	10,006,585	77.1	472,020	6.4
춘천시	284,192	1,116	886,298	95.9	39,480	3.1
원주시	344,614	868	1,183,541	75.9	89,990	3.4
강릉시	215,856	1,041	979,645	70.2	66,480	4.5
동해시	93,657	180	459,816	51.9	17,630	4.9
태백시	46,142	304	303,750	64.5	0	6.6
속초시	83,213	106	245,237	57.4	7,770	2.9
삼척시	69,339	1,187	766,241	73.5	11,290	11.1
홍천군	71,285	1,820	722,000	89.3	58,830	10.1
횡성군	46,912	998	515,473	78.7	51,110	11.0
영월군	40,327	1,128	446,118	77.6	0	11.1
평창군	43,592	1,464	553,100	85.4	44,490	12.7
정선군	38,429	1,220	514,252	76.5	0	13.4
철원군	47,921	889	397,380	70.6	0	8.3
화천군	26,252	909	402,623	80.7	0	15.3
양구군	24,098	706	373,524	80.5	0	15.5
인제군	32,901	1,645	516,306	80.3	34,200	15.7
고성군	30,871	664	386,401	73.1	0	12.5
양양군	27,490	630	354,880	76.8	50,750	12.9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3) 도로망 체계

- 정선군의 광역가로망체계는 도로시설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없으며 정선군과 연접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망으로 동서축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이용되고 있고, 서축으로는 충북 제천시를 경유하는 중앙고속도로가 이용되고 있음
- 주요 간선도로는 평창군 미탄면에서 군 소재지를 거쳐 북평면, 임계면을 통하여 동해로 나가는 국도 42호선과 영월군에서 신동읍, 사북읍, 고한읍을 지나 태백, 삼척을 연결하는 38번국도, 진부방면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59번국도가 있음
- 지방도는 정선읍에서 화암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과 신동, 남면, 임계를 연결하는 지방도 421호선이 주요 연결망임
- 그 외 107개 노선, 454.8km에 이르는 농어촌도로가 접근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도로의 포장률은 32.4%임



자료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그림 2-16] 정선군 도로망 현황

[표 2-18] 정선군 도로체계 현황

구분	노선번호	구간	연장(km)	포장률(%)
국도	35호선	골지 ~ 송계	15.1	100.0
	38호선	예미 ~ 고한	36.9	100.0
	42호선	광하 ~ 가목	66.1	100.0
	59호선	문곡 ~ 숙암	34.1	100.0
일반지방도	412호선	사북 ~ 백전	13.0	100.0
	414호선	고한 ~ 만항	10.8	100.0
	415호선	신월 ~ 구절	31.5	64.1
	421호선	예미 ~ 덕암	44.9	90.1
	424호선	회동 ~ 백전	29.6	100.0
군도	정선1호선	여량 ~ 반천	9.5	100.0
	정선2호선	조동 ~ 북실	34.4	40.1
	정선3호선	용탄 ~ 숙암	39.5	30.9
	정선4호선	선평 ~ 가수	12.0	76.3
	정선5호선	임계 ~ 임계	7.0	0
	정선6호선	예미 ~ 광하	32.0	73.8
	정선7호선	천포 ~ 덕암	33.4	100.0
	정선9호선	유평 ~ 구절	58.3	52.7
농어촌도로		107개 노선	454.8	32.4

자료 : 정선연감(2015)

- 정선군은 군청을 기점으로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가까우며 진부IC를 통해 43분이면 접근이 가능함
- 고속도로 접근에 한시간정도 소요되는 태백시나 화천군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향후 국도, 지방도와 함께 고속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위계의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19] 강원도내 고속도로 미개설 지역별 연계현황

구분	인근 고속도로	연계지점(IC)	연계지점 접근거리	연계지점 접근시간
태백시	중앙고속도로	제천 IC	102.4km	77분
	동해고속도로	삼척 IC	61.0km	61분
영월군	중앙고속도로	제천 IC	34.8km	34분
정선군	영동고속도로	진부 IC	40.5km	43분
철원군	구리-포천 고속도로	신북 IC	29.1km	37분
화천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IC	38.4km	55분
양구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IC	46.0km	41분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IC	37.5km	44분
고성군	동해고속도로	속초 IC	28.9km	30분

주 : 해당 시청 및 군청의 위치를 거리 및 시간측정의 기준으로 함

4) 철도

- 정선군의 철도는 정선군의 중심부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는 정선선을 중심으로 하여 철도망이 갖추어져 있음. 정선선은 제천에서부터 백산까지 운행하는 태백선과 연결되어 있고, 태백선은 다시 영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운행하는 영동선과 연결되어 있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개통된 서울~강릉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59번 국도를 통하여 진부역으로 접근이 가능함



자료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그림 2-17] 정선군 철도망 현황

5) 터미널

- 정선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을 살펴보면 정선군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5개 운영 중에 있음
- 정선 버스터미널과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점을 연결하고 운행횟수가 많아 정선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광역통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2-20] 정선군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구분	위치	운행방면
임계버스터미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8	강릉, 태백, 정선
여량 버스터미널	강원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910-1	서울, 강릉, 정선
나전 버스터미널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 56	서울, 강릉, 정선
정선 버스터미널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서울, 수도권, 강릉, 영월, 태백, 동해, 춘천, 원주
고한·사북버스터미널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	서울, 수도권, 춘천, 원주, 경북, 충북, 전남지역

자료 : 정선군 내부자료

5. 도시경제 현황

가. 경제활동인구

- 2017년 기준 정선군의 경제활동 인구는 21.0천인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65.8% 수준이며, 실업인구는 0.4천인으로 실업률 1.7%를 보이고 있음
- 정선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65.8%로 강원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5.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1] 경제 활동 현황

(단위 : 천인,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강원도	1,297	845	819	26	452	65.1	63.2	3.0
정선군	31.9	21.0	20.6	0.4	10.9	65.8	64.6	1.7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2017년 2/2 반기)

나. 산업구조

- 산업유형은 사업체 기준 1차산업이 0.3%, 2차산업이 10.6%, 3차산업이 88.1%로 3차 산업이 강세이며, 전국의 3차산업 비중은 85.4%로 정선군이 전국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기준 또한 3차 산업이 86.2%로 전국 종사자 기준 73.3%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남

[표 2-22] 산업유형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정선군				전국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계	3,921	100.0	19,094	100.0	4,019,872	100.0	21,626,904	100.0
1차산업	10	0.3	123	0.6	3,880	0.1	40,642	0.2
2차산업	415	10.6	2,517	13.2	584,526	14.5	5,724,052	26.5
3차산업	3,454	88.1	16,454	86.2	3,431,466	85.4	15,862,210	7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다. 기술업종별 정선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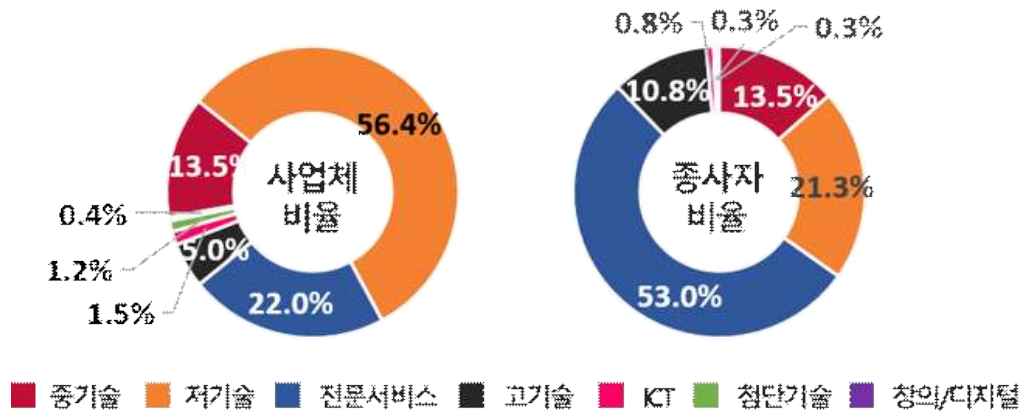
1) 업종별 비율 현황

- 정선군 기술업종별 사업체는 ‘저기술’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종사자는 ‘전문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인 ‘저기술’ 업종에는 ‘식료품 제조업’이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비율이 높은 업종인 ‘전문서비스’ 업종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3] 기술업종 비율 현황

	업종별	사업체수 (개소)	구성비 (%)	종사자수 (명)	구성비 (%)
첨단기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0.4	6	2.3
	계	13	5.0	223	86.1
고기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3.1	186	71.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	1.5	35	13.5
	전기장비 제조업	1	0.4	2	0.8
	계	35	13.5	277	106.9
중기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	8.5	179	69.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	3.9	20	7.7
	1차 금속제조업	2	0.8	62	2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	0.4	16	6.2
	계	146	56.4	436	168.3
저기술	식료품 제조업	102	39.4	301	116.2
	기타제품 제조업	16	6.2	36	13.9
	음료 제조업	6	2.3	14	5.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1.9	15	5.8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1.5	6	2.3
	가구 제조업	4	1.5	6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3	1.2	40	15.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1.2	12	4.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0.8	5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	0.4	1	0.4
창의/디지털	방송업	3	1.2	6	2.3
ICT	전기통신업	4	1.5	16	6.2
	계	57	22.0	1091	421.2
전문서비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	8.5	88	34.0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5.4	962	371.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4.2	12	4.6
	법무, 회계, 건축서비스	5	1.9	16	6.2
	광고대행업 및 전시광고업	4	1.5	8	3.1
	연구개발업	1	0.4	5	1.9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기술업종 통계지도(시군구), 2017년 기준



[그림 2-18] 기술업종 비율 현황

2) 업종별 입지계수 현황

- 사업체 : (전국대비) 저기술, 전문서비스 업종의 집적도가 높음
- 종사자 : (전국대비) 전문서비스, 저기술 업종의 집적도가 높음



[그림 2-19] 업종별 입지계수 현황

2)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 상대적 특화도 지수로 불리는 입지계수는 어떤 산업이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특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선택된 지역의 기술업종의 사업체 입지계수와 종사자 입지계수가 1이상의 경우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

라. 지역 내 총생산

- 정선군의 지역내총생산(당해년 시장가격 기준)은 2016년 기준 13,300억원으로 강원도의 3.2% 수준에 해당함
- 강원도내 지역내총생산 점유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7%로 최고조에 달한 후 점차 그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정선군 지역내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에 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2-24]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중 정선군 점유 비율 (단위 : 10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원도	29,111	30,628	32,438	33,853	35,357	37,170	39,566	41,738
정선군	1,023	1,127	1,165	1,104	1,120	1,137	1,216	1,330
비율(%)	3.5	3.7	3.6	3.3	3.2	3.1	3.1	3.2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주 : 당해년 시장가격 기준임

6. 생활환경 현황

가. 공급처리시설

1) 상수도

- 2017년 기준 상수도 급수구역 내 인구 38,429명 중 급수인구는 30,812명으로 보급률은 80.2%이며 1인당 1일 단위급수량은 446 l 로 나타남
- 시설용량은 31,900㎥/일이나 실급수량은 13,729 l 로 시설가동률 43%로 사용중임

[표 2-25] 상수도 현황

구분	총인구(인)	급수인구(인)	보급률(%)	시설용량 (㎥/일)	급수량(ℓ)	1일1인당급 수량(ℓ)
2017	38,429	30,812	80.2	31,900	13,729	446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2) 하수도

- 2017년 기준 정선군 하수도 보급률은 86.5%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33,023인,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는 5,150인으로 타나남

[표 2-26] 하수도 현황

구분	총인구 (인)	하수도 보급률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계	공공 하수처리 인구(인)			인구(인)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계	시가	비시가
2017	38,173	86.5	33,023	-	-	33,023	5,150	-	5,150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정선군 문화공간은 공공공연장 2개소, 영화관 1개소, 복지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1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표 2-27]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	랑	시군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	-	1	-	-	-	-	1	-	1	-	1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2) 교육시설

- 2017년 기준 정선군 교육시설은 유치원 15개소, 초등학교 16개소, 일반계 고등학교 6개소, 전문계 고등학교 1개소를 포함해 총 47개소의 교육시설이 분포
-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생 11.0인, 중학교 16.9인, 일반계 고등학교 17.6인, 전문계 고등학교 21.6인임

[표 2-28]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교, 학급, 인, 인/학급)

구분	학교수	학급(과) 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계	남	여	
계	47	249	3,418	1,744	1,674	81
유치원	15	25	340	164	176	13.6
초등학교	16	133	1469	746	723	11.0
중학교	9	42	708	356	352	16.9
일반계 고등학교	6	39	685	345	340	17.6
전문계 고등학교	1	10	216	133	83	21.6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3) 체육시설

- 체육시설로는 실내체육관 3개소, 테니스장 9개소 등을 포함하여 공공체육시설이 총 16개소가 있으며, 그 외 신고체육시설(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48개소와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3개소가 있음

[표 2-29]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공공체육시설							등록 시설	신고 시설
	소계	실내 체육관	종합 경기장	테니스 장	수영장	사격장	기타		
2017	16	3	1	9	1	0	2	3	48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4) 공원·녹지

- 2017년 기준 정선군 내 공원 지정현황은 총 54개소로, 자연공원(시·군립공원)이 1개소, 도시공원인 어린이공원 27개소, 근린공원 10개소, 도시자연공원 3개소, 소공원 12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있음

[표 2-30] 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자연공원	도시공원					
	시군립공원	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54	1	53	27	10	3	12	1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7. 주거환경 현황

가. 주택관련 지표변화

- 정선군의 주택수는 2012년 19,926호에서 2017년 기준 20,160호로 약 1.2%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정선군의 주택보급률은 103.10%로 2012년의 101.36%보다 1.7%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세대원수는 2012년 2.1인/세대에서 2017년 기준 2.0인/세대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최근 주택관련 지표변화 (단위 : 인, 세대, 인/세대, 호, %)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원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2012년	40,240	19,058	2.1	19,926	101.36
2013년	40,310	19,330	2.1	19,364	100.18
2014년	39,752	19,347	2.1	19,667	101.65
2015년	39,502	19,519	2.0	16,326	83.64
2016년	38,993	19,571	2.0	19,973	102.05
2017년	38,429	19,554	2.0	20,160	103.10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주 : 인구수(외국인 포함)

나. 주택 유형별 현황

- 주택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12,787호로 6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아파트가 5,627호로 2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 이루어짐

[표 2-32]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 호, %)

구분	가구수	주택보급률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017	19,554	103.10	20,160	12,787	379	5,627	686	393	288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20] 주택유형별 현황

8. 지역의 잠재력 및 관광환경

가. 지역별 지역특성 및 관광잠재력 분석

1) 북부권 : 여량면, 북평면

- 북부권은 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등 3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부권의 자연적 경관과 지역 고유의 전래담 등은 이를 소재로 한 지역문화의 전승 및 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의 여지를 높여주고 있음
- 여량면의 경우 송천강을 중심으로 한 전래 이야기의 형상화와 여량읍 일원의 테마파크화를 통해 지역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고 있고, 여량의 대표적 관광 테마로 레일바이크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체험 레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구절리 벚꽃랜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마련하고 있음
- 북부권역의 문화재는 여량면에 천연기념물은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48호)’ 와 ‘산호동굴(천연기념물 제509호)’ 등 2곳이고, 비지정문화재가 1곳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33]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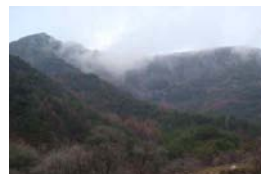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주요 관광지	- 여치카페 - 정선아리랑 전수관 - 반론산 - 정선 레일바이크 - 아우라지 - 자개골 - 홍터휴양지 - 오장폭포 - 여량5일장 - 스카이박스	- 솔들마을 - 단임계곡 - 항골계곡 - 줄드루야영장 - 숙암계곡 - 백석폭포 - 인형의집	-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 백두대간 약초마을
축제	아우라지 뗏목 축제	토속음식 축제	정선 사과축제



<여치카페>



<정선아리랑 전수관>



<반론산>



<정선레일바이크>



<아우라지>



<자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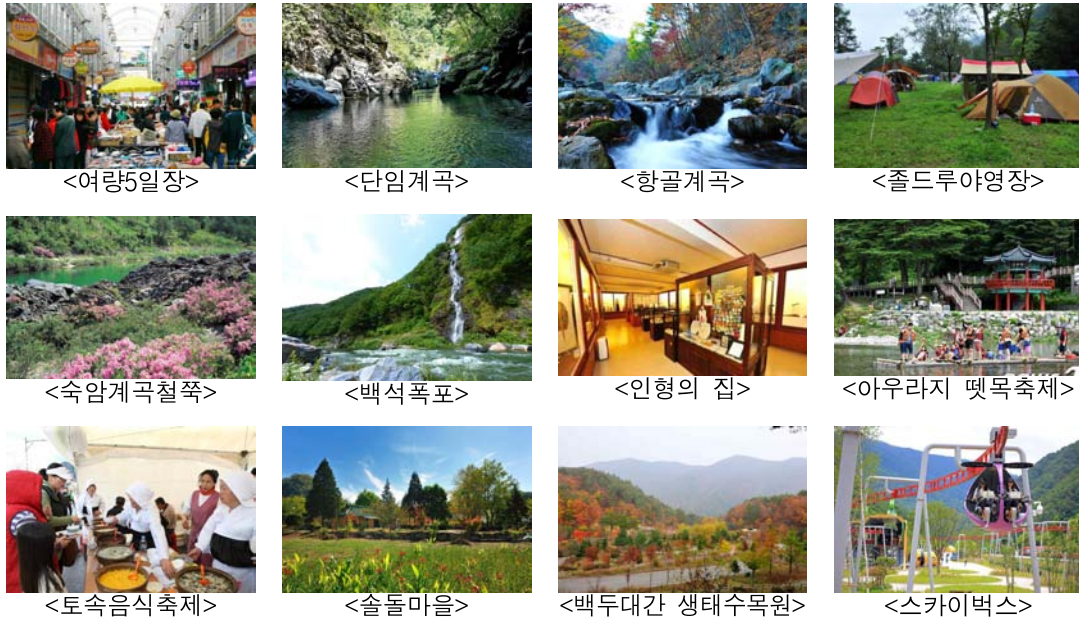


<홍터휴양지>



<오장폭포>

[그림 2-21]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1)



[그림 2-22] 북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 여량면

- 여량면은 자연경관과 전통민속 설화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방문객의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방문객의 계절적 편중성을 고려하여 아우라지역 인근의 광장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높은 이벤트 및 공연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여량면의 수려한 지리적 환경과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으로 엮어 운영 중에 있음
 - 아우라지역과 주례마을 광장의 열린 공간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 등을 레일바이크와 구절리 벅스랜드를 연계시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함

■ 북평면

- 북평면은 숙암지역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건설되었고, 경기장 주변으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됨
- 북평면은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생산활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여 지역 농업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체계의 이용에 유리한 환경을 지님

-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 작목을 개발하고 그것의 생산과 가공을 융합시킬 수 있는 연구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생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지역의 정주권 강화를 위한 조건이 됨
- 지역내외에서 생산된 1차 상품의 가공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내 생산물은 물론 지역 외부의 원재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신뢰도를 강화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북평면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정선군 관내 전역에 확장시켜 정선군 지역 농업 자체의 조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기구로 전환시켜 명실상부한 과학적 영농, 청정한 영농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및 소득원의 창출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함

■ 임계면

-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백두대간약초나라, 백복령카르스트지대 등 우수한 산림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송계산성, 구미정과 같은 문화유적자원이 있음
- 임계면은 농림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광농업과 연계한 방안이 필요하고, 고랭지 지역으로 겨울철이 길어 축제나 겨울레포츠 시설 등이 필요함
- 과거 임계댐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수몰대상지 주민의 이주, 개발규제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2) 중부권 : 정선읍, 화암면

- 권역별 구분에 의한 중부권은 정선읍과 화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개념화된 테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중부권 지역은 정선읍을 중심으로 하여 정선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경우에는 화암면의 화암동굴과, 정선읍의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 문화재가 있으며,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복지 시스템과 교육문화적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중부권에 위치한 지정문화재는 정선읍에 지방지정문화 5개소와 비지정문화재 2개소가 있으며, 화암면에 지방지정문화재 2개소와 비지정문화재 2개소가 있음

- 정선읍의 경우 유형문화재로는 고학규가옥과 정선 강릉부 삼산봉표 등 2개이며, 기념물로는 정선 봉양리 뽕나무가 있음. 또한 비룡굴과 정선향교 등 2개의 기념물이 소재함
- 화암면의 경우 기념물로 화암동굴이 있고 기념물로 백전리 물레방아가 있음
- 중부권의 경우 정선읍은 방문객의 빈도수가 높고 많은 관광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정선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발의 초점도 문화도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무형의 관광자원과 결합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이 결합된 관광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부권에서 정선읍은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상대적인 접근성의 유리성에 의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 반면 화암면의 경우 교통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접근성이 불리하여 문화적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산업적 분포를 볼 때 중부권은 곤드레, 황기, 산나물, 옥수수 등과 같은 특산 작물 중심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생산물의 경쟁력은 지역의 청정성과 지역 고유의 이미지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조건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정선읍

- 정선읍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정선5일장을 보유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정선5일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지역행정 중심지로서 정선군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일상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보이고 있음
- 지역의 5일장으로 인한 지역 생활 형태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집중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 불편함과 동시에 다양한 활력의 중심지로서 역할하고 있음
- 볼거리 및 먹거리 등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체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통과형 관광 형태가 주를 이룸.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재 및 관광상품 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정선읍 및 인근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읍내의 이동축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관광상품의 패키지화를 통해 지역내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높

일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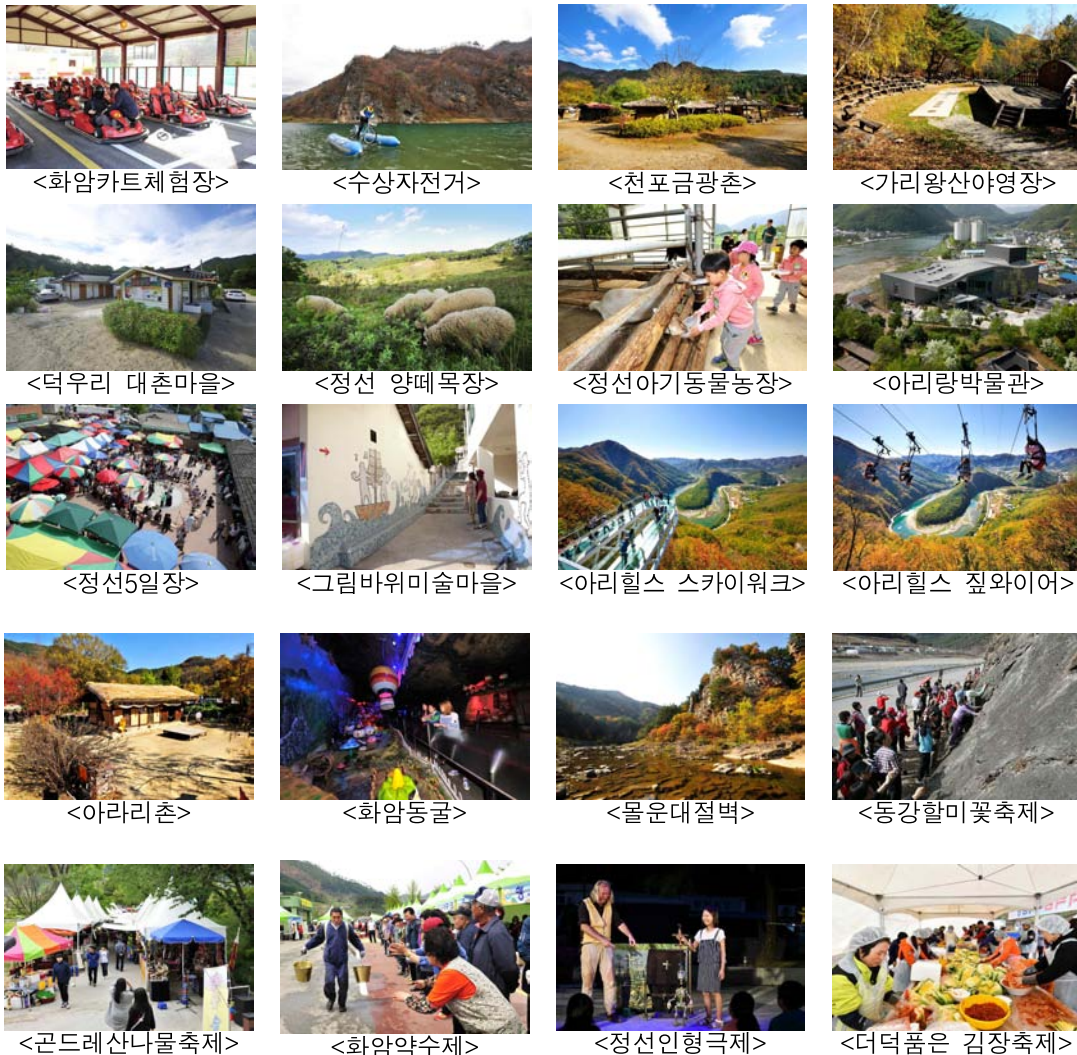
- 지역의 관광자원들에 대한 구매 방식과 상품 선택의 다양화를 통해 방문객의 기호에 대응하고 편의성을 높여 지역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암면

- 화암면은 해발 400m이상의 산간지역으로 밭농사와 고랭지채소 위주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1930년경에는 금광이 성행하여 정선군내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임
- 그림바위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기암절벽이 자랑거리로 강원도 기념물 제33호인 화암동굴과 제66호인 화암리 소나무, 화암약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개발 사업이 기대되는 곳이며, 물론, 화암, 석곡리에서 대단위로 농사가 이루어지며 특산물인 잣이 유명함
- 화암면은 청정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며 매년 향토문화축제인 《화암약수제》가 개최되고 예술인들의 작품이 관광성수기에 펼쳐지며 정선 유일의 국민관광지와 화암8경을 보유하고 있는 정선의 관광1번지라 할 수 있음

[표 2-34] 중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정선읍	화암면
주요관광지	• 수상자전거 • 가리왕산야영장 • 덕우리 대촌마을 • 정선 양떼목장 • 아리랑박물관 • 정선5일장 • 아리힐스-스카이워크 • 아리힐스-짚와이어 • 아라리촌 • 정선약초시장 • 아일랜드정선 • 조양강래프팅 •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 회동휴양지 • 솔밭야영장 • 생태체험학습장 • 동강 • 석공예단지	• 화암카트체험장 • 천포금광촌 • 정선아기동물농장 • 그림바위 미술마을 • 화암동굴 • 물론대절벽
축제	• 동강할미꽃축제 • 정선 곤드레산나물 축제 • 정선 인형극제 • 정선아리랑제	• 화암약수제 • 더덕품은 김장축제



[그림 2-23] 중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3) 남부권 : 신동읍, 남면, 사북읍, 고한읍

- 남부권은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등 4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하이원 연계형 서비스 산업과 예미 신동 농공단지 중심의 농업 및 농가공 식품 산업 중심의 강원랜드 배후 산업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를 지니고 있음
- 남부권은 기본적으로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다수의 농공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내 방문객을 유입하는 중요한 시설인 강원랜드 및 하이원 리조트와 연계한 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고한과 사북의 강원랜드 방문객의 지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의 이벤트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와 경제적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방문객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모색함
 - 하이원리조트, 강원랜드, 체험 스포츠 프로그램, 민둥산 등의 관광자원과의 연계 이벤트 상품을 제공하여 새롭게 구성되어 가는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 신동과 남면의 농업과 농업기반 농가공 생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가공과 유통 및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함
 - 신동을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철도변과 간이역을 중심으로 한 시설개선 및 신규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열차 관광의 매력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함
 - 함백역과 함백 농공단지의 생산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신동 지역을 경유하는 열차에 대한 이벤트 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함
- 남부권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민둥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내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하산 후 행사를 마련하여 건강과 지역 향토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민둥산역 인근 광장을 활용한 정선군 향토 음식 축제를 계절별로 주말을 중심으로 하여 개설하고,
 - 민둥산 억새꽃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 행사를 마련하여 등산객들이 하산 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방문객의 체류를 위해 지역내 혹은 인근 지역의 체류 시설을 합리적으로 연계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선을 구상하여 판매함
- 남면의 잘 보존된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의 일상과 생산활동을 산업 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38국도 선상의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지역의 스포츠 파크를 활용한 바이크 코스를 신동과 연계시켜 순환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여 산악자전거 동호회 구성원들의 수요를 창출함

- 상대적으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의 청정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전통체험형 이벤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38국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동선을 활용하여 남부권역에 산재한 문화재 및 관광자원을 제공하여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새로운 지역의 활력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
- 고한의 정암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보물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개선함. 정암사 적멸보궁,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제410호),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에 대한 방문 프로그램
- 사북의 두위봉 주목(천연기념물 제433호)에 대한 체험형 등산 프로그램과 지역내 축제와의 연계 이벤트 상품의 개발
- 신동의 고성산성 체험 프로그램 및 동해남부선 철도 여행객과의 연계 관광상품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표 2-35] 남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신동읍	남면	사북읍	고한읍
주요 관광지	• 동강전망자연휴양림 • 정희농박캠핑장 • 아띠엔솔 카페 • 타임캡슐공원 • 고성산성	• 고병계곡 • 민동산 • 역새전시관 • 민동산시장	• 강원랜드 • 도사곡휴양단지 • 석탄유물보존관	• 하이원CC골프장 • 정암사 • 정암사 적멸보궁 • 삼탄아트마인 • 하이원리조트 • 수마노탑
축제	• 두위봉철쭉제	• 민동산역새꽃축제	• 사북석탄문화제	• 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하이원CC골프장>



<정암사>



<정암사 적멸보궁>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정희농박캠핑장>



<아띠엔솔 카페>



<타임캡슐공원>



<삼탄아트마인>



<강원랜드>



<두위봉철쭉제>



<고한함백산야생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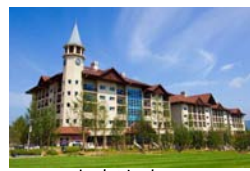
<사북석탄문화제>



<민동산억새꽃축제>



<석탄유물보존관>



<하이원리조트>

[그림 2-24] 남부권역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황

■ 고한읍

- 고한읍의 지역적 정체성은 야생화 마을의 조성을 통한 야생화 축제, 지역의 주요 골목과 시설을 추리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의 접목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관련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중임
 - 야생화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및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기념품으로 제품화하고,
 - 야생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관과 주거환경의 양자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야생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골목디자인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추리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야생화와 추리극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이벤트 사업으로 개발함
-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내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한읍은 지역의 경관과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하이원리조트 방문객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고한읍 일원에 대한 야생화마을 경관조성과 지역내 건축물들이나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과정 자체를 디자인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함
- 지역의 골목길을 테마화하여 지역 구성원의 정주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 형태의 공방이나 판매장 등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운영하여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원의 강화를 모색함
- 야생화마을의 경관을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고한 시가지 어디서나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 전략을 마련함
- 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숙소를 지역의 지형에 맞도록 디자인하고 편의성을 개선하여 수평형 숙박시설의 테마를 구현함
- 지역내 동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지역의 특화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함
- 고한읍 소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한읍 소재 정암사의 다양한 보물과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패키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전통문화의 융합적 이벤트를 발굴하여 지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함

■ 사복읍

- 지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개념은 풍요로운 빛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석탄사업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호황기부터 합리화조치 이후의 침체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적 변화를 하나의 지역적 가치로 전환시켜 문화유산으로 조성함
- 일루미네이션이나 파사드 등을 활용한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의 산업적 유산과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조명과 빛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성을 제고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하이원리조트의 다양한 서비스 상품과 연계하여 지역에 대한 방문객 유치를 모색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함
- 이를 위해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조형물이나 조명 등과 같은 설치물들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 지역내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유치를 활성화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
- 사북읍 인근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지역내 체류를 확장하고 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하이원리조트 연계형 관광상품과 동시에 공연문화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 문화적 이벤트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함
- 사북읍 사북초등학교 앞 광장을 지역문화의 개방형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구성원이 즐기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 함
 -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접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과 방문객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사북읍 중심에 마련된 광장을 하이원리조트와 지역문화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공연장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연문화를 일상화하고,
 - 나아가 계절별 및 요일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창달 및 공연의 수준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 수준 높은 개방된 광장형 공연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색함
- 지역이 제공하는 문화적 이벤트와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체험형 문화공연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매력도를 제고함

■ 신동읍

- 신동을 지나는 철도망을 활용한 간이역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의 융합을 모색하고 계절별 혹은 요일별 간이역의 정차를 통해 열차 사이의 연계 수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역내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함
 - 함백역 주변 기차여행 테마파크 등과 같은 새로운 체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함백역의 보존과 문화 역사적 내용을 철도와 탄광촌 문화의 융합형태로 발굴함
 - 새롭게 조성된 철도역과 지역의 역사 문화적 유산을 기차로 여행하는 개념으로 제공

- 하여 인근의 캠핑장, 체험객 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함백역 인근의 선탄장, 방제항, 단곡천 등의 철도부지와 폐광부지를 활용한 ‘증기기관차’, ‘모노레일’의 운행 가능성의 모색
 - 폐광지역의 슬로우시티 문화와 철도문화가 접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휴양 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함
 - 인근의 하이원리조트 방문객들에 대한 수요의 창출을 위해 지역내 이벤트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한 번의 방문에 연계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체험형 MTB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MTB 연계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동호회 방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예미 MTB 마을 준공과 새로운 코스를 발굴하여 MTB를 즐기는 수요자의 관심을 높여 지역에 대한 방문을 활성화함
 - 지역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스포츠 체험과 결합된 관광 마을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남면

- 남면은 지역의 청정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남한강의 발원지로서의 스토리텔링을 보유한 수려한 지역임
 - 많은 관광객들이 남면의 민둥산을 방문하고 있어 남면의 자연자원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방문객들이 등산이나 지역의 방문을 마친 이후 즐길거리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의 소득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민둥산 방문객들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함
 - 민둥산 인근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민둥산의 매력도를 높이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함
 - 민둥산 방문 이후 지역에서 제공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편리하게 접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발굴함
 - 계절별 및 요일별 5일장 장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벤트 공연 문화의 내용을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지역내 명품 관광 행사로의 도약을 모색함

- 남면의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문화와 연계된 상품이나 스포츠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미흡함
 - 지역내 자원경관과 긴밀하게 연계된 관광상품의 발굴과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남면의 체험형 스포츠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계절별로 벚꽃 등과 같은 경관 식물을 매개로 한 공연문화, 축제 등의 행사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5] 정선군 관광자원 현황

나. 정선군 관광객 방문 동향

1) 정선군 연도별 관광객수 추이

- 국내총생산(GDP) 대비 레저비 지출 비중 확대로 전국의 관광지 방문객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정선군의 자연환경과 하이원리조트 등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로 관광객 수는 꾸준히 성장함
- 정선군의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방문객수는 약 937만명으로 연도별 관광객수의 추이는

2012년 786만명에서 2017년 기준 1,046만명으로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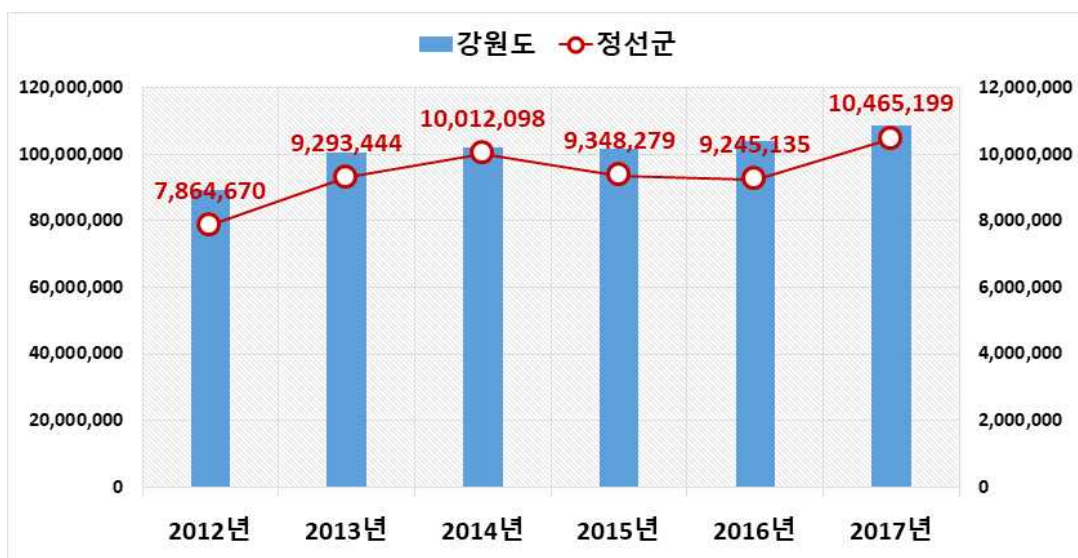
- 강원도 내 전체 방문객 대비 정선군의 관광객 점유율 또한 2012년 8.8%에서 2017년 9.6%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2-36] 연도별 관광객 현황

(단위 : 인, %)

연도별	강원도 관광객수		정선군 합계				점유율 (정선/강원)
			유료관광지			무료 관광지	
			계	내국인	외국인		
2012	89,228,142	7,864,670	5,639,880	5,590,118	49,762	2,224,790	8.8
2013	100,567,179	9,293,444	6,589,273	6,504,264	85,009	2,704,171	9.2
2014	102,047,847	10,012,098	5,656,406	5,618,588	37,818	4,355,692	9.8
2015	101,649,382	9,348,279	5,973,142	5,903,639	69,503	3,375,137	9.2
2016	104,010,702	9,245,135	5,287,321	5,179,521	107,800	3,957,814	8.9
2017	108,762,502	10,465,199	5,796,967	5,708,750	88,217	4,668,232	9.6
평균	101,044,292	9,371,471	5,823,832	5,750,813	73,018	3,547,639	-
연평균증가율	4.0%	5.9%	0.6%	0.4%	12.1%	16.0%	1.8%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그림 2-26] 정선군 연도별 관광객 현황

2) 정선군 연도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 2017년 기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를 살펴보면, 강원랜드 카지노(3,114,948명), 하이원 스키장(500,856명), 화암관광지 화암동굴(228,728명), 정선레일바이크(202,226명)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관광지로 개미들마을(연평균 85.34%), 도사곡휴양단지(연평균 29.14%), 백두대간 약초나라(연평균 29.14%)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높은 관광지로 아라리촌(연평균 -30.89%), 타임캡슐공원(-25.11%), 화암관광지 화암동굴(연평균 -17.01%), 하이원스키장(연평균 -15.69%), 정선레일바이크(연평균 -11.15%) 순으로 조사됨

[표 2-37] 연도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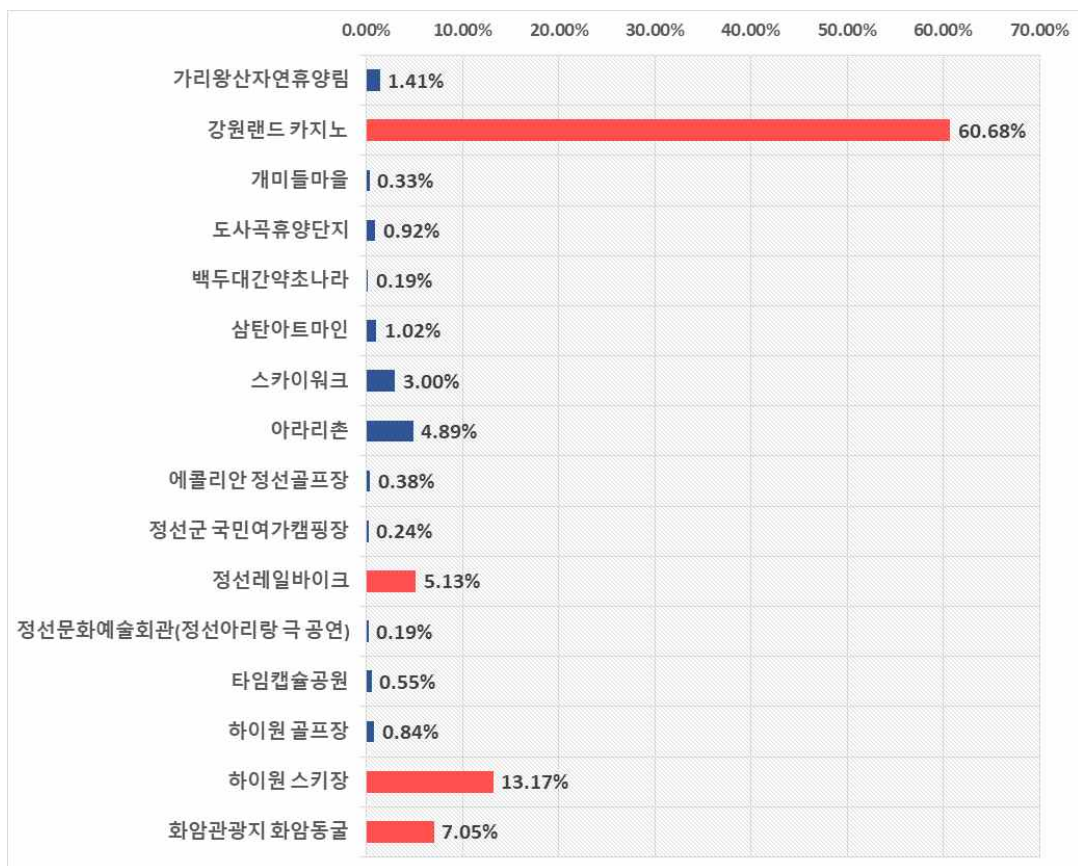
구분 \ 연도	유료/무료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유료	54,863	50,961	77,084	90,454	86,994	12.22%
강원랜드 카지노	유료	3,069,262	3,014,258	3,125,931	3,169,656	3,114,948	0.37%
개미들마을	유료	-	3,324	23,794	18,165	21,161	85.34%
도사곡휴양단지	유료	13,776	104,086	41,924	36,619	38,313	29.14%
백두대간약초나라	유료	-	9,039	9,441	6,234	13,529	14.39%
삼탄아트마인	유료	-	48,022	40,612	71,035	49,083	0.73%
스카이워크	유료	174,023	166,907	109,430	156,674	159,761	-2.12%
아라리촌	유료	378,340	436,599	153,857	194,225	86,330	-30.89%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유료	16,705	16,249	18,090	20,761	24,979	10.58%
정선군 국민여가캠핑장	유료	-	-	-	12,016	12,146	0.54%
정선레일바이크	유료	324,454	293,180	272,418	218,020	202,226	-11.15%
정선문화예술회관(정 선아리랑 극 공연)	유료	-	8,852	11,083	9,944	9,633	2.86%
타임캡슐공원	유료	-	49,475	26,545	16,483	20,780	-25.11%
하이원 골프장	유료	42,918	40,230	42,138	43,013	46,274	1.90%
하이원 스키장	유료	991,067	863,467	617,289	390,182	500,856	-15.69%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유료	482,289	551,757	281,339	256,889	228,728	-17.01%

자료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 주요 관광지만을 대상으로 방문객수를 중복 집계하였기에 실제 방문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정선군 5개년 평균 관광지 점유율

- 정선군 5개년 평균 관광지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강원랜드 카지노가 60.68%로 가장 높은 관광객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하이원스키장(13.17%)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관광객의 과반이상이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숙박시설 역시 고한읍과 사북읍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광자원과 서비스시설의 편중과 지역 내 교통의 불편함은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아라리촌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관광으로까지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관광자원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개선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광 정보 안내가 필요함



[그림 2-27] 정선군 5개년 평균 관광지 점유율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교통부)

가. 계획의 배경 및 성격

1) 계획의 배경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공간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제시
 -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추세로 전환에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제시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누적된 국토현안문제 해소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 증대에 따라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되는 국토기반 조성 방안 모색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중앙정부의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간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소통·참여 강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

2) 계획의 성격

-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



[그림 2-28]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 경관 조성 및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그림 2-29]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s), 국토계획헌장)
 -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국토계획헌장)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다. 6대 추진전략

[표 2-38] 6대 추진전략

구분	내용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4)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3) 미래형 혁신교통체계 구축 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라. 정선군 관련내용

1) 강원권 발전방향

■ 권역의 비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 기본목표

- 체류인구 250만 명 달성
- 전국 4% 강원경제권 실현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 발전방향

[표 2-39] 강원권 발전방향 <계속>

구분	내용
동북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신발전축 구축	• 한반도 통합경제권과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신발전축 조성 • 강원도 G-HI 벨트를 중심으로 공간 재편
활력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환경 조성	• 청정 자연환경과 고품질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농복합타운형 스마트 헬스케어단지 조성 • 인구소멸에 대응해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공공서비스를 집적한 스마트 생활공동체타운 모델사업 추진 • 스마트 평화빌리지 국가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KTX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거점개발 추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교통망 확충	•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기 위한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추진 • 양양국제공항 경제권 육성 및 국가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모색 • 접경지역 연결도로망 구축, 평화지역(접경지역) 연결도로(국도, 지방도 등) 구축 등 통일경제·평화지역(접경지역) SOC기반 구축 • 국토 내륙 통합·포용국토 기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스마트 헬스·모빌리티·관광 등 스마트 라이프산업의 중점 육성 • 국가산업단지 및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신성장거점 육성 • 미래 강원 농도(農道) 실현을 위한 푸드테크 거점 조성 • 남북평화경제 협력모델 구축 • 글로벌 평화관광지대 조성 추진 검토 • 동계올림픽특구 평화관광벨트 및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관광휴양클러스터 구축 • 힐빙(Heal-Being) 포용 국민여가공간 조성

[표 2-39] 강원권 발전방향

구분	내용
365 안심·행복한 안전공동체 실현	• 자연과 공생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방재 실현 •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 재난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형성	• 글로벌 산림관광, 고원경제산업 및 생태자원 중심지대 육성 • 설악산-금강산(DMZ 연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 유역관리 기반 통합 물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연안의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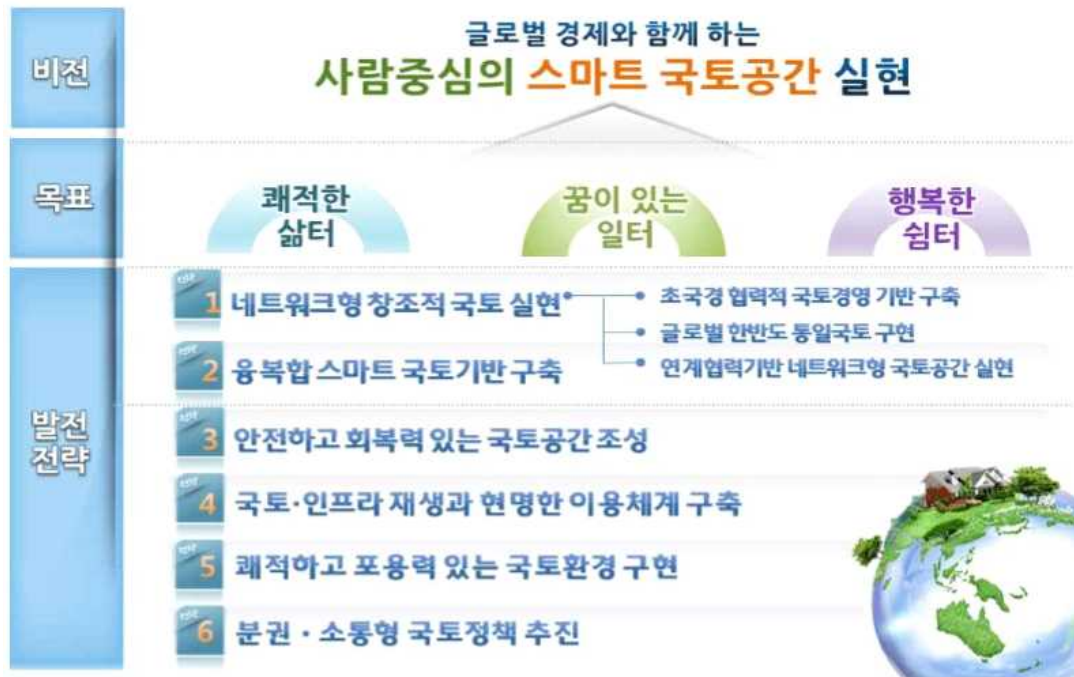
2. 2040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국토연구원)

가. 연구목적

- 국토에 초점을 맞춰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고, 미래 국토정책 방향 정립과 핵심전략,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국토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국토정책 방향을 설정(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14.2.19.)

나. 비전과 전략

- 한세대 후인 2040년의 바람직한 국토비전(미래상)은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 으로 설정
 - ※ 미래 국토정책에서는 “국민행복” 에 최우선 목표로 설정
- 2040년에는 국민이 행복한 국토공간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삶터(생활), 꿈이 있는 일터(일자리), 행복한 쉼터(여유·문화)”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
- 2040년 미래국토 비전과 목표(미래상) 실현을 위해 국토공간 구조, 국토이용 및 관리, 국토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6대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제안



[그림 2-30] 2040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다.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표 2-40] 미래 국토발전 6대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계속>

6대 전략		정책 과제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실현	초국경 협력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 • 한·중·일 동북아 경제협력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 글로벌 국토 프론티어 개척 및 시장 확대
	글로벌 한반도 통일국토 구현	• 남북한 협력 증대와 통일국토 관리기반 구축 • 한반도 국토 그랜드 디자인 공동 수립·실행 • 한반도 메타경제권 형성과 경쟁력 강화
	연계협력 기반 네트워크형 국토공간 형성	• 대도시권의 전략적 강화와 글로벌·메가 시티리전 육성 • 지방중소도시의 경제기반·정주거점화 • 과소도시의 유희화 대비
융복합 스마트국토 기반 구축		• ICT융합형 스마트 국토공간 시스템 구현 • 기술 첨단화·융복합화로 도시·생활공간의 스마트화 구현 • 스트레스와 장애 없는 국토인프라 실현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국토공간 조성		• 기후변화에 강한 안전국토 실현 및 국토회복력 강화 • 자원순환형·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조성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

[표 2-40] 미래 국토발전 6대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6대 전략	정책과제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노후 산업인프라 및 SOC의 재생 촉진 • 도시·지역 재생 촉진과 생활인프라 공유 기반 강화 • 유휴토지·인프라의 창조적 활용 및 복합·입체적 토지이용
쾌적하고 포용력있는 국토환경 구현	• 국토자원의 어메니티화 • 국민여가·휴양·건강 창출을 위한 창조공간 조성 • 친숙한 장소만들기 등을 통한 포용적(Inclusive) 국토 구현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 국토정책 추진 및 계획체계의 분권화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국토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토가치 재발견 국민운동’ 전개·확산

3. 강원비전2040(강원도)

가. 비전 슬로건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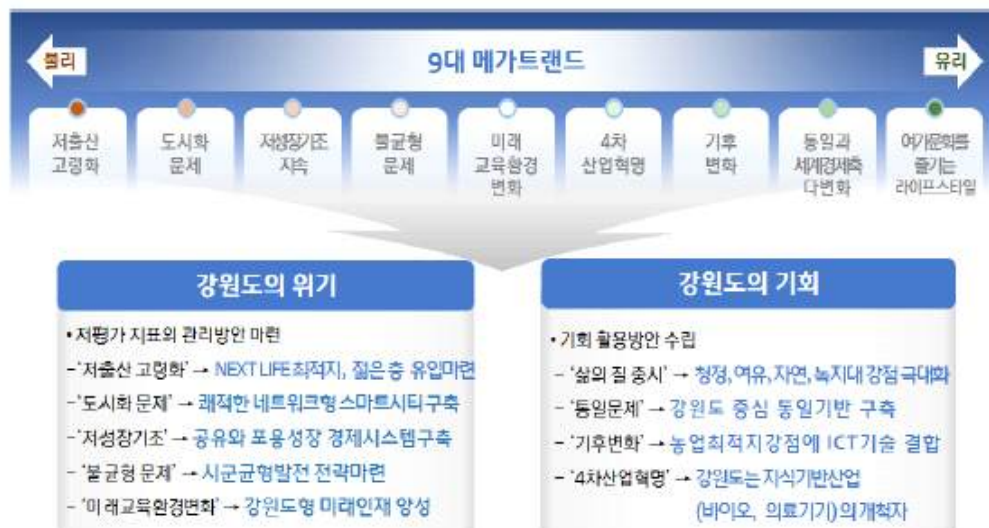
- 자연과 사람의 미래
 - 과거와 현재의 강원도는 ‘청정한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정체성임
 - 미래사회의 지향점은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잘사는 곳’ 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라는 의미
 - 4WD의 Dramatic-Nature와 Wonderful-Stay로 실현
- Login 강원
 - 자연과 사람의 미래가 있는 강원도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누구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
 - 또한 Login은 컴퓨터를 시작하는 디지털을 의미하며 온라인(플랫폼, 정보혁명)과 오프라인(사람, 사물)이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를 의미
 - 4WD의 Well-Come과 Dream-Works로 실현



[그림 2-31] 강원비전 2040 비전 하우스

나. 기본 추진 방향

- 강원도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



[그림 2-32] 9대 메가트렌드를 통한 강원도의 방향성

다. 세부전략 수립 방향

■ 저평가 지표의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위기극복

- (저출산 고령화) 앞으로도 더 심화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젊은 층이 도내에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정주환경과 청정·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이 보장된 힐링(힐링+웰빙)지대를 조성
- (도시화 문제) 타 시도대비 낮은 도시화율은 자연 자원과 넓은 공간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극복
- (저성장 기조) 경제성장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강원도형 공유·포용성장 시스템 구축으로 극복
- (불균형 문제) 도내 18개 시군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 (미래 교육환경 변화) 강원도의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과 참신하고 다양한 선진 교육방법들을 강원도에 맞게 고도화

■ 기회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강원도의 잠재가치 극대화

- (삶의 질 중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여유, 자연, 녹지대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강원도형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관광인프라 구축
- (통일문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변방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미래에는 지역차원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제시
- (기후변화) 기후변화 트렌드와 관련,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난 재해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
- (4차 산업혁명) 강원도가 가지는 강점(수열 에너지 등)과 역량(첨단의료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

라. 실천전략과 아젠다

[표 2-41] 강원비전 2040 실천전략과 아젠다

	실천 전략	아젠다
국내외 연결성이 강력한 연결 공간	고도화된 교통·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형 공간	- 강원도발 국내외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 신기술 대응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통일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협력 확대	- 남북교류협력 다각화 및 신 협력체계 구축 - 통일 역량강화 및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 북방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동북아 국제협력 확대·강화
	강원도가 주도하는 신 관광시장 생태계 구축	- 기술 기반형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 융복합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강원도 관광스타일 완성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 인프라	- DMZ와 동해안 국제 관광자유지대 조성 - 산악환경 활용고도화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세계적 도시관광 명소 발굴 및 브랜딩 강화
살고싶고 머물고싶은 지역공동체	자연·생태환경과 함께하는 스마트 정주기반	-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 수요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 생태가치가 실현되는 생활환경 조성
	첨단 보건/복지 인프라와 상생의 가치공동체	- 공유·협업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고도화 - 미래형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 - 공생, 공감의 건강한 자치공동체 형성
	강원도 문화의 가치 창조	- 강원도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 창조적 문화예술인 양성
	초연결사회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환경	- 창조적 스마트 교육기반 구축 -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 강원도 미래인재 양성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신산업지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강원경제시스템	- 빅데이터 중심의 거점 인프라 조성 -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체계 구축
	국가 선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 강원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 강원도 거점산업의 고도화 - 산업별 R&D 클러스터 조성 및 역량강화
	대한민국 미래 “農道”	- 강원도 농수산업의 첨단화 -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과 융복합 농림수산업 고도화 - 차세대 미래농업인력 양성
자연이 자본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자연과 인간의 공존시스템 구축	- 보전되는 자연 높아지는 환경가치 - 늘어나는 산림이용 커지는 산촌 - 강원도 수자원의 갈등해소와 가치제고
	카본프리로 완성되는 에너지자립	- 멀티소스 클린에너지 생산인프라 구축 -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통한 청정사회 실현 -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순환용 에코플랜트 조성
	사회 안전과 개인 안심의 사회 완성	- 자연재해 대비 지능형 시스템 구축 - 사회재난 대비 능동형 안전망 구축 - 특수상황 대비 미래형 인프라 조성



[그림 2-33] 산림/에너지/관광의 신성장 거점

마. 권역별 발전방향

1) 정선군 관련내용

■ 강원남부지역권 (태백, 삼척, 영월, 정선)

- 태백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첨단화하여 소재 및 원료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문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며, 백두대간의 아고산대를 활용한 웰니스향노화 산업을 정선, 영월 지역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
- 삼척은 제천~삼척 고속화(ITX)철도와 동서6축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대폭 확대 하고, 기존 해양자원의 고도화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 인프라 조성 및 탄소자 원화 등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 및 기존 LNG산업기반을 활용한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소차 등 다양한 제품 개발화 추진
- 영월은 미래형 드론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물류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존 관광· 레포츠 산업의 고도화와 매력적인 산악관광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주력
- 정선은 올림픽 사후시설과 지역 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테마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치유산촌 조성 and 다양한 복 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기반 마련

- 폐광지역은 지역 특성상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형성에 주력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적 이점을 살린 테마형 관광 상품 개발과 산림·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의 친환경브랜드 형성이 필요

산림/에너지/관광의 신성장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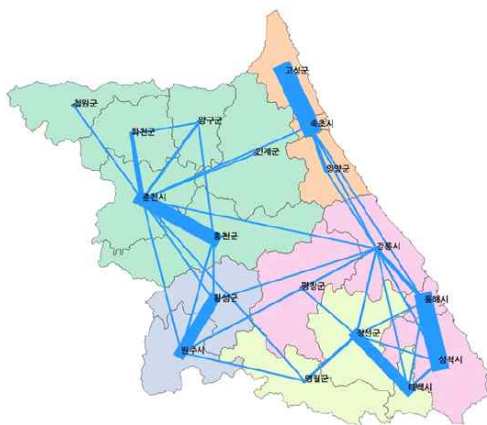
[그림 2-34] 강원남부지역권 주요사업 구상도



[그림 2-35] 2040 강원도 권역별 구상(종합)

■ 미래 강원의 새로운 권역 구상

- 강원도 내 2014년 통근통학 교통량 분석과 Social Network Analysis 중 Community 분석을 통해 지역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선군은 태백시와 강한 연계성을 보이며,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도내 시군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시군별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간 연관성을 고려한 관계도를 구성하여 나타낸 결과, 정선군은 웰니스향노화 산업의 입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권역으로 나타남



<교통량 분석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 관계도>



<권역별 산업입지 분석>

[그림 2-36] 미래 강원의 새로운 권역 구상

- 교통량 분석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과 산업의 연관성을 종합하여 2040년 강원의 권역을 새롭게 나타낸 결과 영서·영동 축을 각각 남북으로 구분한 영서접경권, 영서산업권, 설악해양권, 해양산업권으로 구상해볼 수 있었음
- 영서접경권은 춘천, 홍천과 철원, 화천, 양구, (서)인제지역/ 영서산업권은 원주, 횡성, 영월, (서)평창, 설악해양권은 고성, 속초, 양양, (동)인제, 마지막 해양산업권은 강릉, 동해, 삼척, 정선, 태백, (동)평창 지역으로 구분함
- 새롭게 구분된 권역사회에서는 SOC인프라와 광역교통망 완성에 따른 공간구조의 큰 골격이 형성되면서 초연결사회와 지역 간 접근성 확대로 기존 생활권의 광역화현상이 나타나고, 중규모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계층적 기능분담이 이루어지는 미래 공간모습을 구상함



[그림 2-37] 2040년 강원도의 새로운 권역구상(안)

4.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강원도)

가. 공간구상

- 최근 자원의 동질성보다는 주민생활 및 자원의 접근성, 서비스 위계, 성장축 등을 고려하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임
- 최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공간구상 설정기준들을 참조하여 2017년~2021년의 향후 5년 동안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의 테마성보다 기능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본 계획에서는 제4차, 제5차 권역계획과 달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자원과 상품,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단위를 설정함
- 소권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기능을 배분하던 전례에서 벗어나 교통로중심의 6대 관광벨트를 핵심적인 공간 단위로 설정함
- 또한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광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기반형 관광플랫폼을 상정하고, 공통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권역을 묶어 소권을 형성함



[그림 2-38]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공간구상

[표 2-42] 제6차 관광개발계획 공간구상

발전방향	주요사업
6대관광벨트	① 춘천~양양 간 관광벨트 : 춘천, 홍천, 인제, 속초, 고성, 양양 ② 원주~강릉 간 관광벨트 : 원주, 횡성, 평창, 강릉 ③ 원주~삼척 간 관광벨트 : 원주, 영월, 정선, 태백, 삼척 ④ 철원~고성 간 관광벨트 : 철원, 화천, 양구, 안제, 고성 ⑤ 고성~삼척 간 관광벨트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⑥ 춘천~원주 간 관광벨트 : 춘천, 홍천, 횡성, 원주
관광플랫폼	① 메인 플랫폼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② 서브 플랫폼 : 고속도로IC와 철도 역세권 중심
관광소권	① 호수문화 관광권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② 융·복합 건강산업 관광권 : 원주, 횡성 ③ 설악 MICE 관광권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④ 동계올림픽 레거시권 : 평창, 강릉, 정선 ⑤ DMZ 문화 관광권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⑥ 해양문화 관광권 : 동해, 삼척 ⑦ 탄광지역 관광재생권 : 태백, 정선, 영월

나. 공간별 계획

[표 2-43] 제6차 관광개발계획 공간별 계획

구분	내용
원주-삼척 간 관광벨트 : 슬로우라이프 벨트	38국도를 통해 경기·충북·강원권 당일관광과 전국권 숙박관광객들 적극 유치함. 최근 논의가 시작된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본 관광벨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고속도로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국도와 연계된 원주,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각 시군별로 필요한 관광자원을 확충하되, 본 관광벨트의 경우 탄광지역 자원 개발 이외의 다양한 자원 스펙트럼을 확보하며, 탄광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확충되는 관광자원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전략을 고도화함 - 원주-삼척 간 관광벨트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원의 숨겨진 보물」임을 새롭게 이미지화하면서 기존 탄광지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원주까지 확장 - 원주 남부,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소규모 관광자원들을 확충하면서 주요 숙박시설(동강시스타, 오투리조트, 하이원 등)과 관광매력물(한반도지형, 청령호, 삼탄아트마인, 민동산, 태백산, 365세이프타운, 추추레일파크 등)의 이용도를 제고시킴
동계올림픽 레거시권 : 평창, 강릉, 정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투입되는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서비스 요소들을 모아 올림픽 이후 유산을 남기고 이로 인한 지역 관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권을 형성함 - 경기장 및 관람시설의 사후활용, 확충된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이용도 제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화, 관광서비스 품질의 향상 등 유·무형의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본 관광권 발전의 동력으로 삼음
탄광지역 관광재생권 : 태백, 정선, 영월	- 그동안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다양한 마케팅 및 역량강화 사업들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 및 지역의 재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특화 사업들을 추출하는 관광권을 형성함 - 탄광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산업유산으로서의 문화관광, 문화예술형 창작지구, 리조트 기반 레포츠,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테마의 장소적 특성화로 관광재생의 목적을 달성함

5. 2025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정선군)

가. 부문별 목표 및 추진전략

1) 농업 및 농가공 부문

■ 비전 : 생태환경 농업과 가공공정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도입한 지역경쟁력 제고 전략의 마련

■ 추진방향

- 농업 및 농가공 부문에 대한 비교우위성을 활용하여 타지역에 대한 경쟁력 확보, 농산물 유통의 고도화, 농업의 융복합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함. 이를 위해 지역내 창업센터 및 산업진흥원(가칭) 연계형 영농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 농업을 조직화함

■ 추진전략

[표 2-44]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농업 및 농가공 부문 추진전략

구분	내용
지역내 경제주체의 영농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농업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조직화	• 센터(가칭)와 연계한 지역 영농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을 조직화하고 개별 영농인들에 대한 생산 및 경영 지원 추진 • 농가 인구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영농 교육 및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정선군의 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과학화된 생산 방식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전략 마련
농산물 유통의 고도화	• 생산물의 명품화 및 마케팅의 선진화 • 영농 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 지역 생산물의 명품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관광 경쟁력의 제고 방안 • 지역 고유의 대표 작목의 유지와 연계산업 발굴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판로의 확보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원 강화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사슬의 고도화	• 지역 특화 작목의 부가가치 사슬을 고도화하기 위해 가공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지원 체계 구축

2) 문화관광 부문

- 비전 :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한 정선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험과 여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패턴을 선도함으로써 정선 문화관광의 차별성 확보

■ 추진방향

- 지역 내 관광자원의 재구축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창조하고 지역민들이 새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함. 지역 관광의 문화적 콘텐츠와의 결합 형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에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추진전략

[표 2-45]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문화관광 부문 추진전략

구분	내용
지역문화의 재창조와 지역민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역량의 강화	• 최근 관광 패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질적 수준 제고 •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자원의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계상품에 대한 수요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의 편의성 제고
지역 관광 역량 강화	•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 수요의 새로운 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지역 정주권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에 고유한 문화적 콘텐츠의 내용을 보완하고 연계시켜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관광자원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재창조의 과정 제공
지역 대표브랜드의 개발과 홍보의 강화	•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설정하여 지역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높은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재창조의 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정선군의 권역별 관광테마의 지정을 통해 지역간 이미지의 중복을 피하고 특정 테마에 집중함으로써 전문성과 구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강원랜드 연계형 사업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내 대체산업으로서의 강원랜드 존재를 부각하여 인근 읍면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의 개발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정선군 남부권역 중심의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물류 기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재원에 대한 수요와 창출 방안 마련

3) 일자리·창업 부문

- 비전 : 지역 산업과 일자리의 축소에 대응하여 지역 소득원 창출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내 발굴사업의 부가가치 확장형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지역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사업 아이템의 구상을 통해 지역내 지원 기관이나 연계 사업체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함.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화를 모색하고 사업이익을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추구함. 또한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지리적 연계성을 통해 경제적 확장성을 모색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집적 효과를 강화시켜 생산과 판매의 연계성을 강화함

■ 추진전략

[표 2-46] 2025폐광지역개발기금 일자리·창업 부문 추진전략

구분	내용
지역산업의 조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역내 사업체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산업을 조직화하여 대응 •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과 2차 가공산업의 연계와 융합, 그리고 산업관광 자원으로 전환되어 전체적으로 패키지화하는 일련의 융복합화하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음
일자리 보전과 새로운 창출을 위한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소규모 창업에 대한 자원 체계의 구축을 통한 활성화 전략의 수행과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경제적 자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함
폐광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강원 남부 4개 시군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별 시군이 모색하는 개발 전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역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 수요의 가능성을 높이고, 파급효과의 광역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역 고유의 향토산업 분야의 집적효과를 강화시켜 생산활동에서의 효율성 제고와 판매 및 마케팅의 협력 구조를 통해 판로의 안정성 확보	• 지역내 산업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안 마련 • 농공단지 혹은 생산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설의 공동이용과 생산공정의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모색

③ 정선군 여건변화3)

1. 외부 여건 변화

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정선군을 포함한 강원도의 발전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되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선 알파인 경기장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으로 중요한 지역성장의 기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1) 올림픽 개요

-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0년 3월 IOC에 신청도시 파일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 유치경쟁에 돌입하여 2018년 2월 개최
 - 개최기간 : 2018년 2월 9일 ~ 2월 25일(17일간)
 - 장애인올림픽 개최기간 : 2018년 3월 9일 ~ 3월 18일(10일간)
 - 참가국 및 인원 : 100여 개국, 5만 여명
 - 개최장소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 관람객 수 : 140만 명



출처 : 강원도민일보

[그림 2-39]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현황

- 3) 정선군 여건변화는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시 검토되었던 사항과 2040 강원비전 내 정선군에 적용될 만한 여건 변화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미래 트렌드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4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나.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종료 대비

1)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

-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어려워진 강원도 폐광지역에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현 상황

-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대부분 관광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일부 시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광지역 4개 시·군(삼척, 태백, 영월, 정선)의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 이전 '89년 41만명에서 '15년 20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2015년 199,276명)되었음
- 강원랜드 설립 등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다른 인구 유입책 등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공공기반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대체산업 발굴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대비 필요

- 202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체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2025년 이후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 등의 지원체계 마련 등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 기존의 관광 리조트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첨단과학산업, 휴양힐링, 천상의 화원 조성, 주민 참여형 첨단 농업 육성 등 정선군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 중심형 사계절 관광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존 리조트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 구축마련이 필요함

다. 최근 경제여건 및 산업의 트렌드 변화

1) 경제여건 변화

- G2간 갈등, America First 등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정국불안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2008년 이후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한 이후 최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인 소비의 글로벌화에 따라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강원도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으며, 생명·건강산업 육성이라는 키워드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왔으나, 정선군의 경우 관광분야로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음

2) 산업여건 변화

- 강원발전 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 제품의 시스템화 확산 등 기존 산업패러다임을 바꾸며, 2020년까지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는 반면 기존 일자리는 710만 개나 소멸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를 대비하여 주요국들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계하며 개방형 플랫폼 운용을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정선군을 포함하여

ICT 등 제조업기반이 열악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는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정선군의 경우 한번 구축되면 사용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없고, 락인 (Lock-in)효과가 높은 분야인 에너지, 통신, 분야 등의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농축산 분야 관련하여서는 2014년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국토면적 세계 109위의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타결로 경제영토가 전 세계의 73%에 달하게 되었음
- 따라서 정선군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성장 가능품목의 집중육성 및 명품 브랜드 개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축개발사업 및 생산비 절감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정선군의 우선하여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기존 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화 하는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함

라. 군민의식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1) 군민의식의 변화

- 교육수준의 향상, 주민소득의 증대, 주5일근무제의 정착 등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공간의 조성 요구 증대
- 미래 정선군의 장기발전구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증대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도 주민의견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2)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 군민의식 성숙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가 등 주민의식 변화와 고령사회·저성장 시대 도래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 국토계획평가, 성별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 등 법규 및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선군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관리 전략 재정립 필요

마. 제도 및 정책적 여건변화

1) 제도적 여건변화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2008.10.30.)

-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용도지역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

[표 2-47]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구분	내용			
비전	효율적인 국토이용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			
목표	간결하고 투명한 국토이용체계 정비·여건변화에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도시계획	용도규제	이용절차	토지공급
	중앙중심·분산적	복잡·중첩·상충	번잡한 절차 / 장기소요시간	분야별 불균형
	↓	↓	↓	↓
	지역중심·통합적	단순·일치·투명	간소한 절차 / 신속한 처리	유연한 토지수급
정책과제	• 국토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 •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 민간개발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지침 개정(2005.05.31.)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 확보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목표연도 총량범위 내 토지를 이용하게 하여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물량조정 유연화
- 하천의 환경특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지역 관리
- 안전,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할 기본원칙으로 추가

■ 수요자 중심의 국토이용체계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1.04.14.)

-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

■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시행(2012.08.27.)

-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시·군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실행력 강화 도모
-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 강화 및 인구배분계획 유연성 확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수립 도모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도입(2013.03.23.)

-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 평가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시행(2014.10.31.)

- 도시 규모나 특성의 고려 없이 동일한 계획 작성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관행에 대해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성숙화에 대한 변화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재생, 경제·산업 분야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 추세(성장형, 성숙·안정형)에 따라 차별화를 도모하고, 무리한 인구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허가 등)를 얻은 경우에만 기본계획에 반영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여 국토계획평가와의 연계성 제고

2) 정책적 여건변화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교통부)」 수립

- 202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관련 부문·지역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지역계획 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표 2-48]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구분	내용
기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강원권 목표	• 체류인구 250만 명 달성 • 전국 4% 강원경제권 실현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강원권 발전방향	• 동북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신발전축 구축 • 활력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환경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교통망 확충 •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2040 강원비전」 수립

-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라 강원도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2030 강원비전」을 상위계획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2017년에 「2030 강원비전」이 재수립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필요
- 또한, 변경 수립된 강원비전 계획의 정책방향과 부합될 수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40 강원비전 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간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필요

[표 2-49] 2030 및 2040 강원비전 비교

구분	2030 강원비전	2040 강원비전
비전	「동북아의 첨단 쾌적산업 수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목표	• 체재 인구(상주+유동) 250만명 달성 •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비중 5% 달성 • 첨단 쾌적·융복합산업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	• 삶의 질 1등 도 • 연간유동인구 2억명 • 연간 GRDP 3%+ ②
추진 전략	• 글로벌 네트워크 신발전축 구축 • 미래 첨단 쾌적·융복합산업 육성 • 녹색·첨단이 융합된 명품 공간 창조 •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잠재자원의 고부가 시장가치화 실현	• 국내외 연결성이 강력한 열린 공간 • 살고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 공동체 •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신 산업지대 • 자연이 자본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정선군 주요 내용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약동하는 통합 국토'의 실현을 위해 성장축 구상 - 백두대간 축 : 생태·산림·휴양벨트 → 인제군~홍천군~평창군~정선군~태백시 • 광역간 체계적 교통망 구축 : 양구~정선간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 정선은 올림픽 사후시설과 지역 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테마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치유 산촌 조성과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기반 마련 • 폐광지역은 지역 특성상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형성에 주력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적 이점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과 산림·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의 친환경브랜드 형성이 필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



<폐광지역 도시재생(고한 18번가 마을만들기)>

[그림 2-41] 정선알파인 스키장 및 폐광지역 도시재생

2. 내부 여건 변화

가. 인구 저성장 추세와 1인 가구의 증가

1) 인구 저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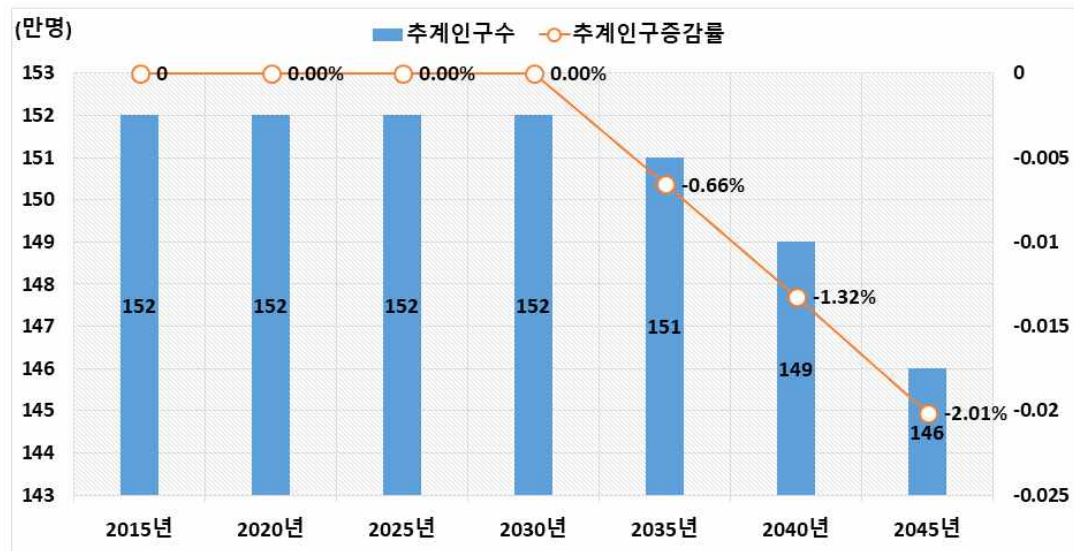
- 한국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2031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 예상
 - 인구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31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5-2045(2017.06)」의 인구성장(중위) 가정에서도 향후 30년간 중위연령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강원과 경북으로 모두 17세 이상 증가 예상
 - 2045년에 25-49세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은 29.0%, 가장 낮은 전남은 18.9%, 강원·경북·전북도 20%대로 모든 시도에서 핵심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45년 고령자 비중은 전남(45.1%), 경북·강원(43.4%), 전북(42.0%)순으로 높고, 세종(28.8%), 울산(32.1%), 경기(3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 인구의 저성장 추세에 직접영향권에 있는 정선군의 경우 인구감소를 대비한 대책 필요
- 따라서 정선군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정선군의 발전 방향 마련 필요

[표 2-50]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예측(저위추계)

(단위 : 만명,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15년 대비 2045년	
								증감	증감률
전국	5,101	5,163	5,163	5,123	5,040	4,906	4,724	-377	-7.4%
서울	994	957	937	914	886	855	819	-175	-17.6%
경기	1,242	1,313	1,339	1,345	1,332	1,300	1,253	11	0.9%
경북	268	267	264	261	256	249	240	-28	-10.4%
충북	159	162	164	165	165	163	159	0	0.0%
강원	152	152	152	152	151	149	146	-6	-3.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 2015~2045」 (2017)



[그림 2-42] 강원도 인구추이(2015-2045)

2) 1인 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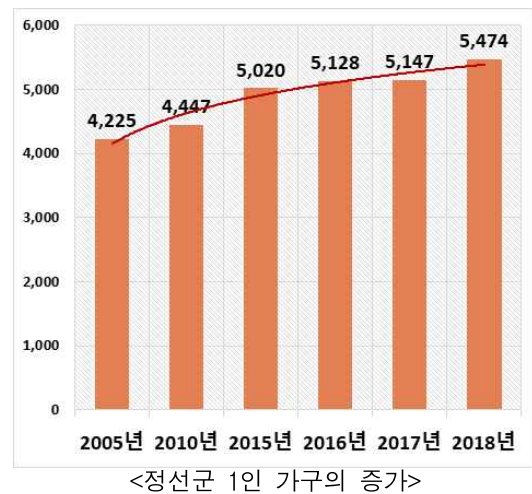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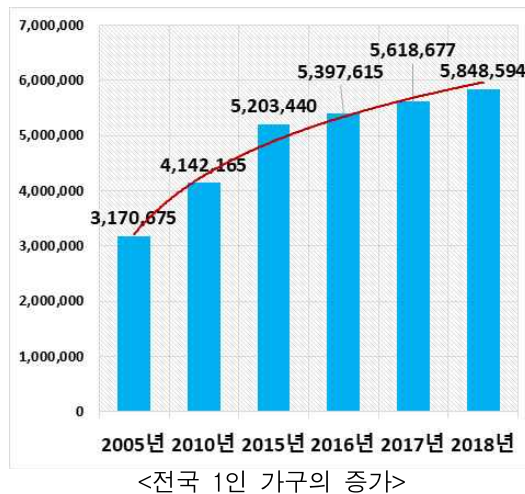
- 통계청의 총인구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는 2005년 전국 3.2백만 가구에서 2010년 4.1백만 가구로 약 1.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정선군은 2005년 0.4백만 가구에서 0.5백만 가구로 약 20%가 증가한 상황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표 2-51] 2005년 이후 1인 가구 증가 추세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정선군		비고
	1인 가구	증가율	1인 가구	증가율	
2005년	3,170,675	-	4,225	-	
2010년	4,142,165	30.6%	4,447	5.3%	
2015년	5,203,440	25.6%	5,020	12.9%	
2016년	5,397,615	3.7%	5,128	2.2%	
2017년	5,618,677	4.1%	5,147	0.4%	
2018년	5,848,594	4.1%	5,474	6.4%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국가통계포털



[그림 2-43] 전국 및 정선군 1인가구 증가추세

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1) 광역교통체계의 개편으로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상

- 동계올림픽에 따른 강원 정선과 평창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의 전구간 개통, 정선~진부를 연결하는 국도 59호선의 개통 및 정선~남면 구간 국도 59호선 착공, 사북~직전을 연결하는 군도 7호선의 개설공사 추진 등 강원 중남부권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상
- 또한, KTX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연계 방안 마련 등 정선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이러한 광역교통체계의 개편으로 정선군의 물류 및 산업기능의 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광역교통 여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불가피

2) 토지자원의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가능지의 여건과 변화 검토

- 정선군의 기개발지는 고한·사북도시지역의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개발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지인 남부생활권(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의 비중이 높고, 산악지형과 하천 등이 대부분인 북부지역(북평면, 여량면, 임계면)은 개발불가능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
- 개발억제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생활권(북평면, 여량면, 임계면)의 비중이 높고, 개발가능지는 중심생활권(정선읍, 화암면), 북부생활권(북평면, 여량면, 임계면), 남부생활권(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선군은 생활권별 특화전략 및 기능배분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도시공간 구조와 생활권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낮은 밀도와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으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 낮은 밀도와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확산으로 토지공간 이용이 비집적화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초래

■ 기성시가지의 쇠퇴

-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석탄광산이 폐광되어 지역 소득기반 상실과 인구의 급속한 감소 초래
- 폐광지역 기성시가지간의 장기간 경제침체는 정추체계 붕괴 위기를 초래
- 낙후된 원도심의 인구감소, 생활여건의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정주환경 여건이 악화됨
- 산악지형의 지리적 특성상 산발적으로 분포된 도시지역간 연계성 부족과 지역경제의 둔화로 인해 교육 및 일자리 여건이 풍부한 강원간 타 경쟁도시로 인구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기성시가지의 중추기능 및 수요 감소현상을 발생시킴

■ 광역교통 및 지역간 연계체계 미흡

- 관내 통과 고속도로 부재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불리하고, 지리적으로 주요 국도인 42호선, 59호선을 제외하고 지역간 교통연계체계 미흡함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편

■ 교통시설(도로)

- 지역간 및 도시내 접근과 이동을 위한 대로 및 중로 이상의 도로는 대부분 집행되었거나, 실시계획 인가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로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
- 지역별 현황이 상이하므로, 도로에 대한 검토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지역내와 주변지역, 기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에서의 구분을 통해 별도의 정비방안 마련 필요
- 특히, 북평면의 주거지역에 장기 미집행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향후 일몰제에 따라 자동실효시 주거지역 기능 상실이 예상되어 자동실효제에 적극적 대응 관리방안 필요
- 비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경우 조성에 따른 수요가 적을 것으로 추정됨

■ 공간시설(공원·녹지)

- 도로와 더불어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을 나타내고 있는 시설이며, 조성에 대한 인식은 도로에 비하여 낮은 편임. 공원·녹지는 단위시설당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성과 정비에 따른 재정적 한계가 발생함

다. 도심 및 시가지의 쇠퇴와 정주여건의 변화

1) 도심지간 접근성 미흡

- 읍·면이 주로 도로변을 따라 발달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내부의 가로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간 연계성도 미흡함
- 도심지역인 읍소재지 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뚜렷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열악한 실정임

2) 정주여건의 변화

- 고한·사북지역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지역에 전당포와 유흥업소 등 도박 관련 상권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 규격화되지 않은 간판과 네온사인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무차별

적인 광고전단과 현수막 등이 지역의 경관을 관광지가 아닌 무질서한 도시로 변모하였음

- 2015년 강원발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생활환경과 교통부문에 있어서 만족도는 높았으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 중심생활권의 부재

- 시가지의 중심 생활권 부재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생활권 유출 현상으로 정선의 인구 감소와 지역자본의 외부유출 우려
 - 북평면, 여량면, 화암면은 정선을 주변으로 소생활권을 이루고 있지만 고한읍과 사북읍, 남면 일부는 주변도시인 태백시로, 신동읍은 영월군으로, 임계면은 강릉, 동해, 삼척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자본의 외부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함

4) 노후·불량 주택

- 수치상으로 볼 때 주택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시가지내에 산재해 있는 저층 위주의 노후·불량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택보급효과는 미약한 실정임

[표 2-52] 최근 주택관련 지표변화

(단위 : 인, 세대, 인/세대, 호, %)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원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2012년	40,240	19,058	2.1	19,926	101.36
2013년	40,310	19,330	2.1	19,364	100.18
2014년	39,752	19,347	2.1	19,667	101.65
2015년	39,502	19,519	2.0	16,326	83.64
2016년	38,993	19,571	2.0	19,973	102.05
2017년	38,429	19,554	2.0	20,160	103.10

자료 : 정선군 통계연보, 2017년 기준

주 : 인구수(외국인 포함)

5) 빈집문제 발생

- 도시외곽지역에 신규주택지 및 개발행위에 따른 노후주택들이 빈집으로 남게 되거나, 인구가 유출되면서 신규주택은 공급됨에 따라 기존 노후 주택들이 빈집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 공가의 증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경관 훼손, 지역상권의 위축, 안전문제, 범죄가능성 증대 등의 지역문제를 야기하면서 다시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정선지역의 경우 특히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들은 폐가로 까지 진행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 강원도의 경우 삼척시와 강릉시에서 2016년 빈집정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등의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지역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거주 불가능 빈집의 철거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빈집활용사업은 시작 단계로 춘천시는 빈집정비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

[표 2-53] 강원도 빈집 발생현황

(단위 : 개소, %)

시군별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빈집 수	빈집 비율(%)
춘천시	94,142	7,847	8.3
원주시	116,183	11,117	9.6
강릉시	76,837	6,421	8.4
동해시	36,526	4,181	11.4
태백시	20,913	3,165	15.1
속초시	32,089	3,521	11.0
삼척시	29,471	4,192	14.2
홍천군	27,228	3,336	12.3
횡성군	17,754	2,284	12.9
영월군	16,509	2,104	12.7
평창군	19,459	4,186	21.5
정선군	16,326	2,241	13.7
철원군	15,588	350	2.2
화천군	8,615	242	2.8
양구군	7,445	156	2.1
인제군	11,289	621	5.5
고성군	11,258	757	6.7
양양군	12,267	2,539	20.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주택총조사

■ 관련법들을 아우르는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주택 중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상 빈집에는 농어촌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 시행 시 혼란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선군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와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빈집정비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정선군의 경우 관련조례 미비로 관련조례 마련 필요

■ 인접 시군 연계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효율화

-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의 빈집관리/활용체계 구축은 행정력, 자원, 정책대안 개발 등의 측면에서 중복되어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기초지자체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시군 간 협력을 통한 공동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빈집활용방안 공동 개발, 정보시스템 공동 구축, 빈집매칭 시스템 광역화 및 교차 매칭, 리모델링 사회적기업 공동 육성 등

■ 지역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모색

- 빈집은 방치상태에 따라 거주 불가능한 폐가가 있는 반면 정비를 통해 이용가능한 빈집, 상태가 양호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빈집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젊은 세대의 유입을 도모
- 농촌지역 빈집의 경우 인구 과소지역 빈집은 철거와 관광/공공시설로의 활용을 농촌 중심지 지역 빈집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

라.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1) 수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수요관리

■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한 상수도 시설 및 배수체계 정비 미흡

- 정선군 일원의 도시발전, 인구증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상수도 공급능력과 수급능력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한 시설정비 및 확장,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의 선행 필요(광역상수도 수급에 따른 배수지의 신설, 확충 필요)
- 현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구역 배분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구역체계를 수립

■ 상수도 보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지하수의 수질 관리

- 정선군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송·배수시설의 노후화로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면지역의 경우 지하수를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임
- 면지역의 취수원인 지하수의 경우 시설용량이 작고 별도의 대체수원(식수용 저수지개발, 농업용저수지)이 여의치가 않아 광역급수구역 확대가 불가한 상태임
-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의존 지역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보전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녹색도시형 물순환 시스템 전향

- 도시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왜곡된 물순환으로 인해 빗물 유출량 및 홍수위험성 증가, 지하수위 저하 및 하천의 건천화, 증발산량의 감소로 인한 도시 미기후 변화 등의 문제점 발생
- 도시내 물순환 환경의 회복을 위해 공원·녹지와 같은 자연지반 녹지공간의 확보, 옥상 녹화 등 인공지반 녹화 및 투수포장, 틈새포장, 빗물침투도랑 등을 통한 자연순응형 물순환 시스템 마련
- 중수도 시스템 도입 검토를 통해 중수도의 지역순환방식을 도입하여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추구

2) 저탄소도시계획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최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자급을 통한 탄소배출 억제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추세와 세계적인 도시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은 기존 도시계획의 한계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나아가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
- 국내의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위한 법제화 노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04) :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립지침(2009.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도시발전전략

-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더반플랫폼으로 알려진 당사군 총회(COP17)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위한 공약기간을 당초 2013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을 확정
- 최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6.1,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가정, 상업, 공공 등 비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1차적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성 향상 측면과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도시발전전략이 필요

3. 정선군의 위기와 기회

가. 정선군의 위기

1)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기반

- 산악지형으로 인한 개발 용지 부족, 교통접근성 취약, 석탄산업 쇠퇴 등 대체 산업기반 취약
- 최근의 교통망 확충, 지역의 풍부한 농림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육성 전략 필요

2) 저성장 기조 비도시지역 문제 군내 권역간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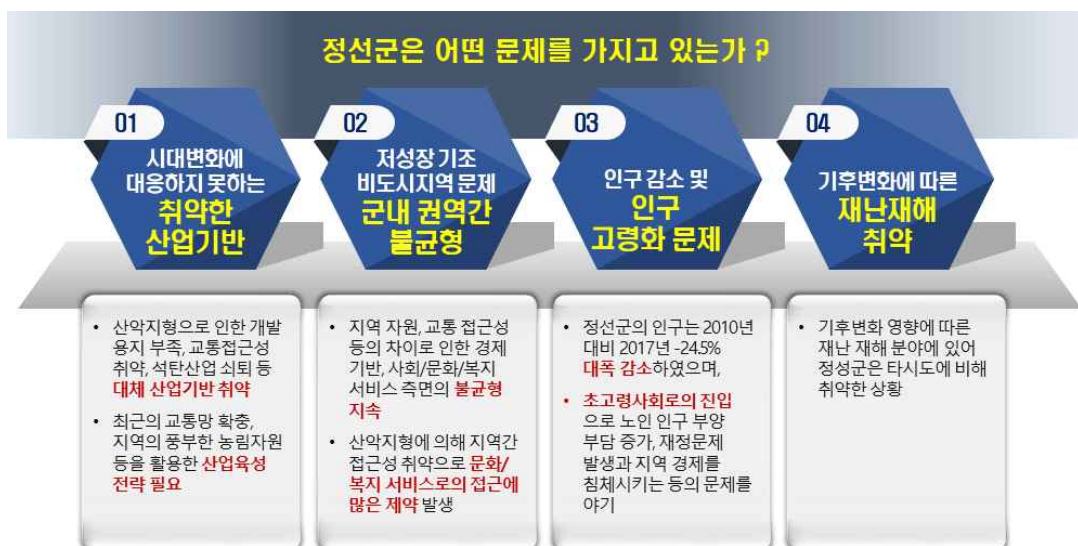
- 지역 자원, 교통 접근성 등의 차이로 인한 경제기반, 사회·문화·복지 서비스 측면의 불균형 지속
- 산악지형에 의해 지역간 접근성 취약으로 문화·복지서비스로의 접근에 많은 제약 발생

3)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 문제

- 정선군의 인구는 2010년 대비 2017년 -24.5% 대폭 감소하였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정문제 발생과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

4)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취약

-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재난·재해분야에 있어 정선군은 타시도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그림 2-44] 정선군의 위기(1)

5) 산악지형과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 접근성 취약

-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노폭과 군 내부지역 간 순환 교통체계 미흡
- 열악한 접근 교통망으로 정선지역의 산업성장과 관광객 유입의 걸림돌 발생
- 지속적인 접근도로망 확충을 위한 정책 필요

6) 유사 관광콘텐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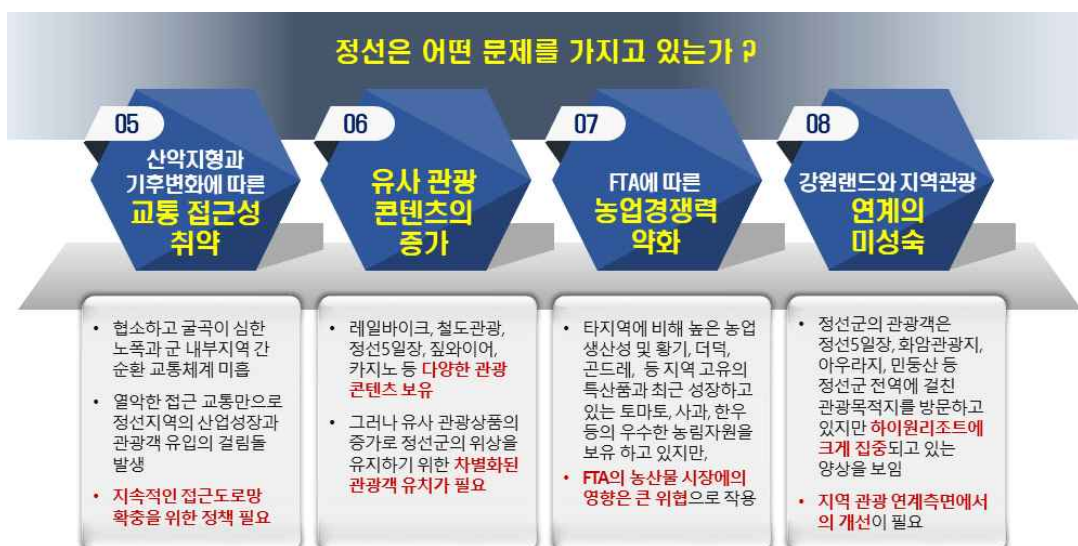
- 레일바이크, 철도관광, 정선5일장, 짚와이어, 카지노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보유
- 그러나 유사 관광상품의 증가로 정선군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가 필요

7) 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 타지역에 비해 높은 농업생산성 및 황기, 더덕, 곤드레 등 지역 고유의 특산품과 최근
성장하고 있는 토마토, 사과, 한우 등의 우수한 농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FTA의 농
산물 시장에서의 영향은 큰 위협으로 작용

8) 강원랜드와 지역관광 연계의 미성숙

- 정선군의 관광객은 정선5일장, 화암관광지, 아우라지, 민둥산 등 정선군 전역에 걸친 관
광목적지를 방문하고 있지만 하이원리조트에 크게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지역 관광 연계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



[그림 2-45] 정선군의 위기(2)

나. 정선군의 기회

1) 1인가구, 소득증가로 여가를 즐기는 삶

- 정선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매년 국내 숙박여행지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및 국도42호선 개통 등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

2) 새로운 시스템 4차산업 혁명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경제구조와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며, AI 빅데이터 등 아직 패스트 팔로워를 벗어나지 못한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

3) 유·무형의 지역 향토자원 풍부

-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선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자원인 정선아리랑과 전통시장인 정선5일장 등 유·무형 전통자원들을 보유

4) 정선군 자원활용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다품종화는 정선군 농업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
- 천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활용 가능성 존재



[그림 2-46] 정선군의 기회(1)

5) 경제활성화 기반 강원랜드 입지

- 폐광지역 특별법의 지원기간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카지노뿐만이 아닌 골프, 스키, 워터파크, 컨벤션 등 종합적인 가족중심 휴양리조트로서의 성장 확대
- 카지노 유입 관광객들이 지역 내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정책 필요

6) 품질 높은 다수의 관광 목적지 보유

-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정선5일장, 강원랜드, 민둥산 등 사계절 관광상품을 보유함으로써 계절적 시너지효과가 큼
- 평창군 다음으로 관광지가 많으며, 관광객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7) 우수한 산림 및 수자원 보유

-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가리왕산, 함백산, 두위봉, 민둥산 등 명산 22개소와 조양강, 화암계곡, 백석폭포 등의 관광자원 등 차별성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산악지형을 활용한 산악레저 관광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음

8) 강원도와 정선의 기회, 통일

- 통일시 강원도 지역은 환동해 거점으로 부상이 가능하며, 북한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 육성이 가능



[그림 2-47] 정선군의 기회(2)

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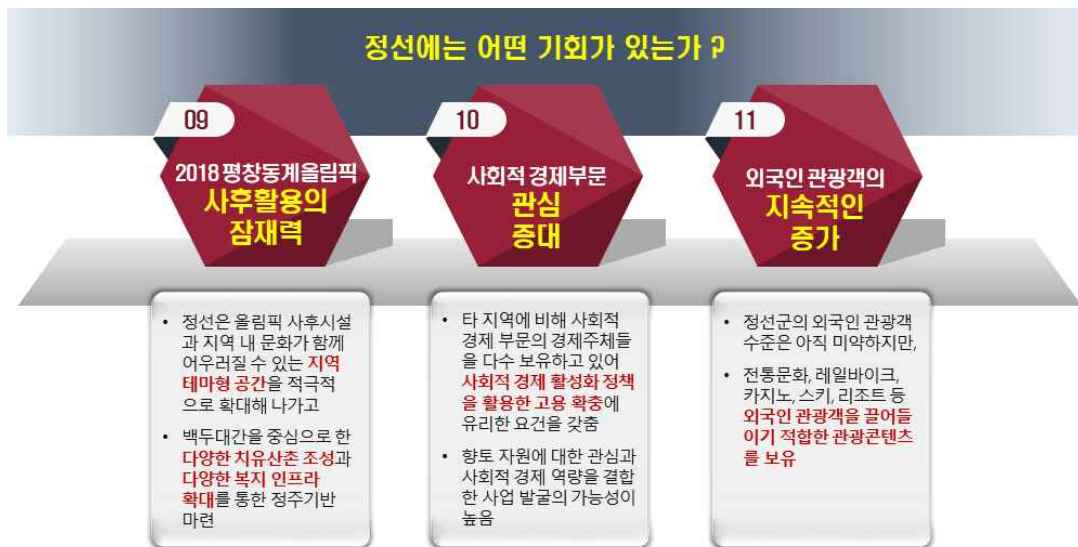
- 정선은 올림픽 사후시설과 지역 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테마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치유산촌 조성과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정주 기반 마련

10) 사회적경제부문 관심 증대

-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부문의 경제주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고용 확충에 유리한 요건을 갖춘
- 향토 자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경제 역량을 결합한 사업 발굴의 가능성이 높음

11)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 정선군의 외국인 관광객 수준은 아직 미약하지만, 전통문화, 레일바이크, 카지노, 스키, 리조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적합한 관광콘텐츠를 보유



[그림 2-48] 정선군의 기회(3)

4 종합검토

1. SWOT분석에 따른 전략

[표 2-47] SWOT분석에 따른 전략

		강 점	약 점
외부환경	내부환경	- 유·무형의 지역향토자원 (아리랑, 정선5일장, 낙동농악 등) 풍부 - 경제활성화 기반으로서 강원랜드 입지 - 관광수요가 높은 관광자원 다수 보유 - 청정자연 긍정적 이미지 정착 - 높은 일교차와 고도차이로 특화작물 생산 최적지	-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관내 통과 고속도로 부재로 인한 광역교통 접근성 불리 -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취약한 산업구조 - 폐광지역 주변에 집중된 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 산악지형 특성상 개발가용 토지자원 부족 - 기반시설(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부족으로 자족기능 미약
	기 회	강점(S) + 기회(O) - 지역향토자원의 대내외 홍보 마케팅 전략 마련 - 아리랑의 고장 이미지 구축으로 문화예술 가치 강화 - 청정자연을 강조하여 건강 및 휴(休)개념 관광도시 실현 - 동계올림픽 개최와 경강선(KTX) 개통 효과를 활용한 올림픽 특구 관광거점 육성	약점(W) + 기회(O) - 삶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 - 압축적 토지이용계획으로 부족한 개발용지 활용 극대화 - 도시재생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동서6축 미개설(영월~삼척) 구간 조기개통으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기틀 마련
위험	기 회	강점(S) + 위협(T) - 지역향토 및 문화예술 자원의 관광특성화 전략 마련 6차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폐특법 만료를 대비한 강원랜드 및 지역 자생력 강화 - 청정테마공간 조성을 통한 인구유인화 도모 - 산림/수자원을 활용한 산림경영 육성	약점(W) + 위협(T)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부 유출 인구 최소화 -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신(新)산업 기반 구축 -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고른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지역특성화 전략 마련으로 생활권 자족기능 강화 -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지역간 교통연계체계 구축
	위험	- 유사 관광콘텐츠의 증가로 정선만의 관광 특성화 부족 및 강원랜드와 지역관광 연계성과 지역재투자 부족 - FTZ 협상 및 타결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 2025년 폐특법 만료 도래에 따라 지역경제 쇠퇴 우려 - 열악한 주거 및 교육 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 심화 및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한 지역 자생력 및 성장동력 한계	

비전정선 2040

미래트렌드와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3장

미래 메가트렌드 1

사회영역의 미래시나리오와 삶의 질 2

한국의 2040년 미래트렌드 3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4

시사점 5

3장. 미래트렌드와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1 미래 메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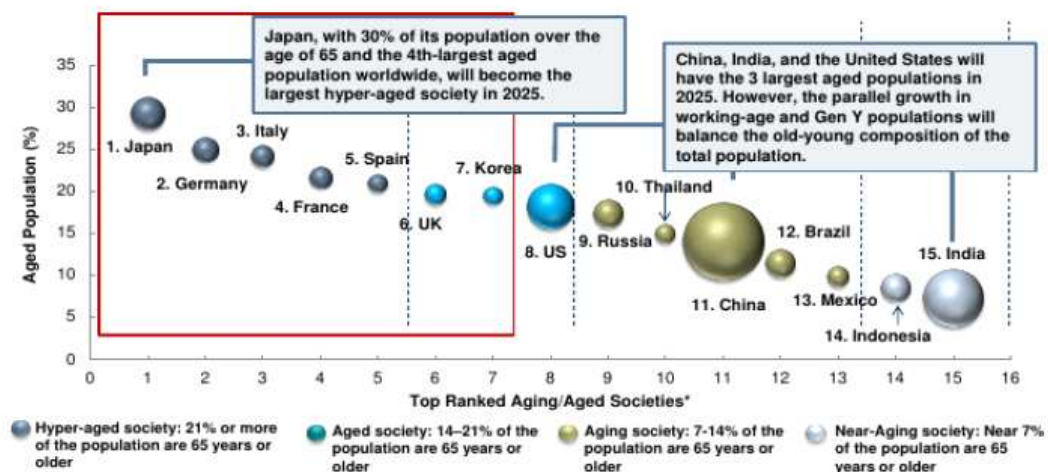
1. 9대 메가트렌드

가. 미래 트렌드 진단

1) 저출산 고령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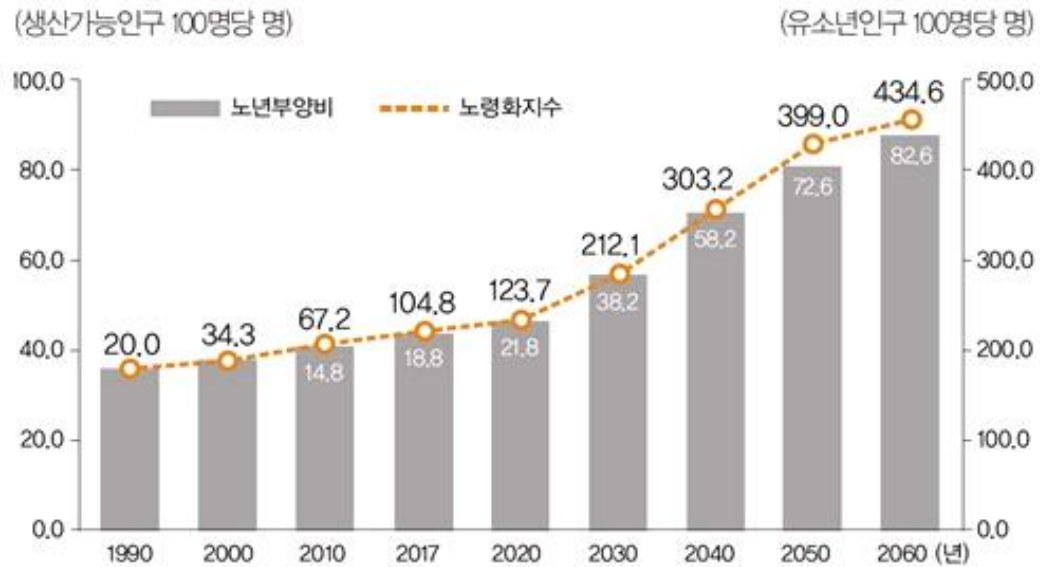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도내 첨단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젊은 층 인구(특히 여성인구)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세계 인구 구조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지금까지 노령(65세 이상)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2~3%를 넘지 않았으나, 오늘날 선진국의 노령인구 비중은 약 15%에 달함
 - 2030년 무렵에는 25%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지금의 세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은 OCE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과 함께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그림 3-1] 2020년 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주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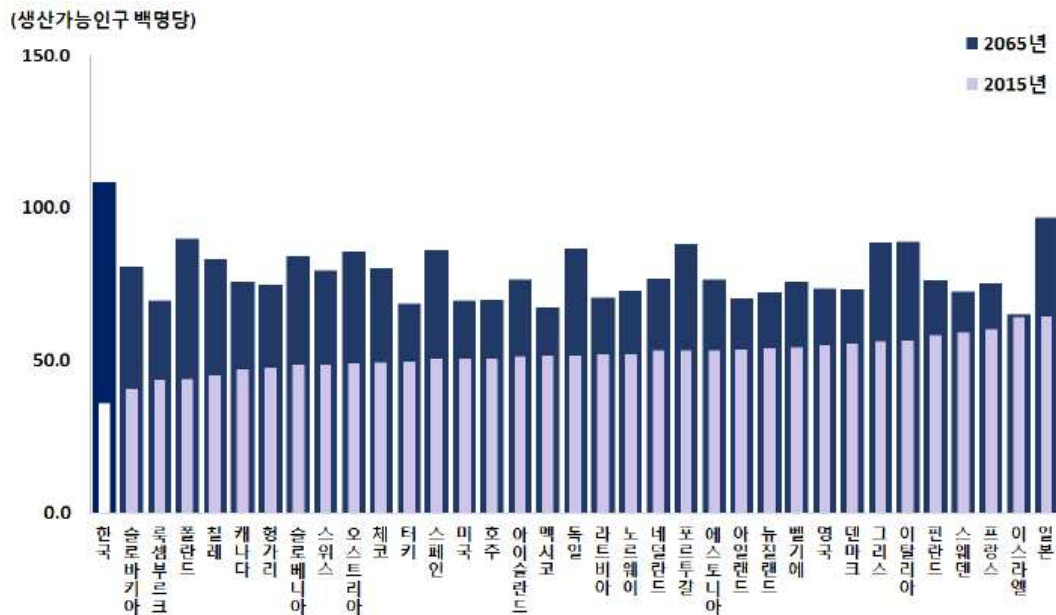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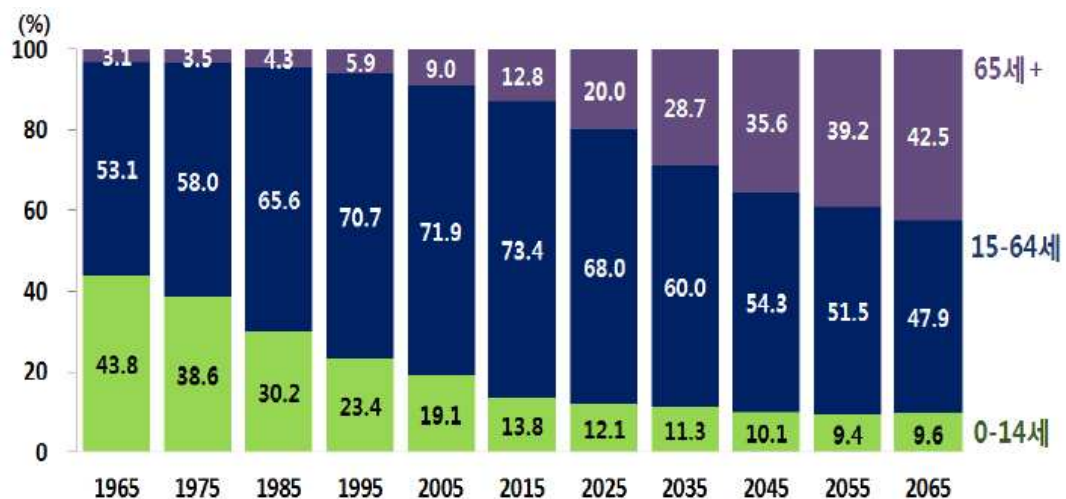
[그림 3-2] 2060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 인구의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전망으로, 세계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는 2015년 12.5명에서 2060년 28.3명, 한국은 2015년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약 4.5배 증가할 전망
 - 세계 국가 중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51번째에서 2060년 2번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또한 미혼 및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45년에는 전국기준 1인 가구가 27.2%에 이를 전망이며, 강원도는 2015년 31.2%에서 2045년 40.9%까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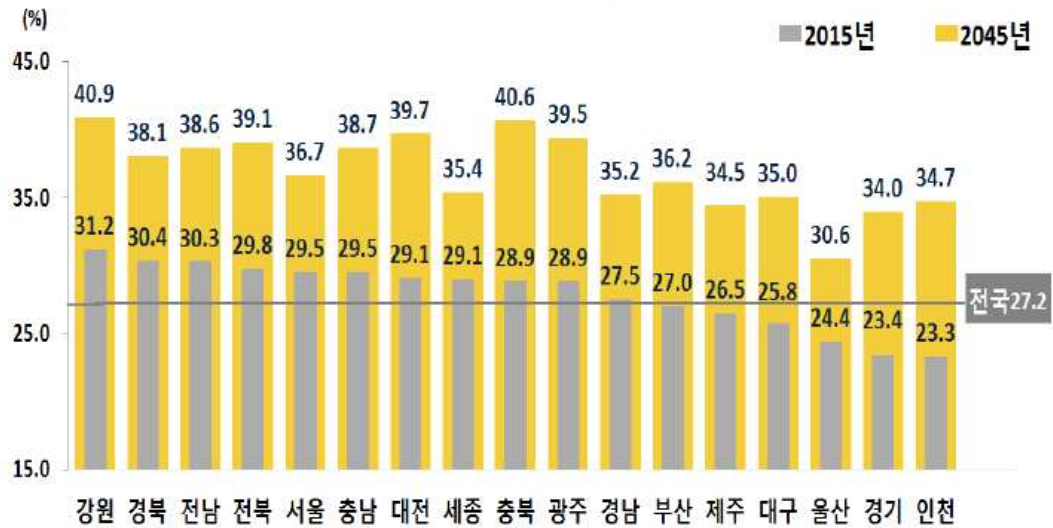
자료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그림 3-3]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2015, 2065년)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그림 3-4]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5-2065(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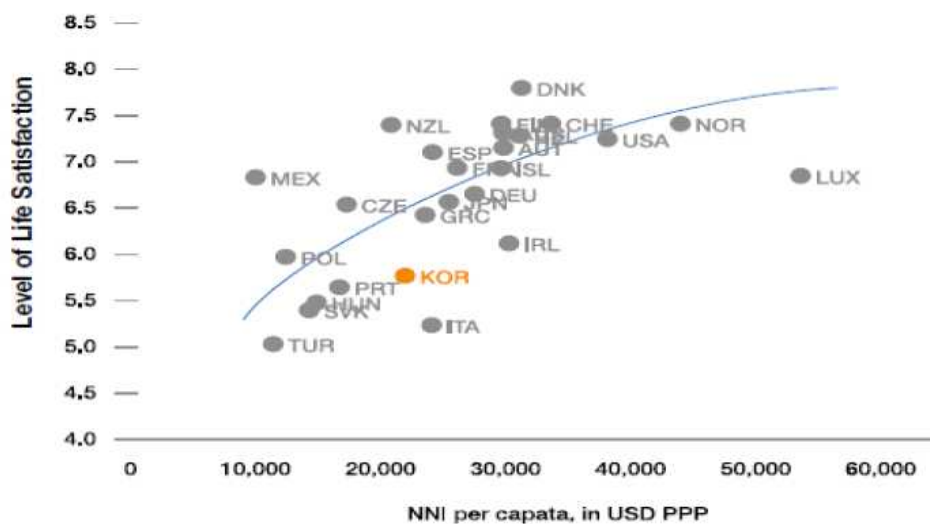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그림 3-5] 시도별 1인 가구 구성비, 2015~2045년

2)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수요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

- 세계화 및 기술 발전으로 문화 접변이 가속화되며 소득수준 상승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자료 : KDI (2010)

[그림 3-6] 삶의 만족도와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

- 21세기에는 관광산업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73조1,000억원,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관광산업 규모는 GDP의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연구원)



자료 : UNWTO 홈페이지 (2017)

[그림 3-7] 소득과 관광산업과의 관계

- 관광소비의 양극화로 고급소비와 알뜰소비가 공존하며, 인류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어 120세 생존의 ‘슈퍼에이지’ 현상에 따른 고령자들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관광객 증가세는 외래 관광객 및 국민해외여행객 성장보다 낮은 상황이며 국민여행 이동총량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회·경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정체상태
- 해외 주요국의 시장은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낮아 외부 충격 영향이 크고 비수기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 발생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광산업의 파급력이 아직은 미약한 수준으로, 세계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고용기여율 5.8%, GDP기여율 5.1%를 나타냄
- 이 밖에도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국토의 활용방식 및 수요 다양화 예상
 - 도시서비스 수요 증가와 대도시 기능 강화가 전망되는 한편, 산지·수변 공간 등을 여가공간화하고, 어메니티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중요

3) 도시화 문제

네트워크형 스마트 도시, 회복도시 구현 전략 필요
고령친화형 도시환경 및 서비스 공간 조성 시급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시 교외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토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 촉진

- 2040년 도시는 스마트 시티의 보편화, 공간수요의 다양화, 생활공간의 시공간적 공유화, 정주공동체와 시민참여의 역할 증대, 차세대 교통수단의 보급 등이 주요 메가트렌드로 제시
- 스마트시티의 보편화
 -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ICT 기술은 도시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도시 중심지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이원적인 영향을 미침
 - ICT기술과 전통적인 공공/민간 도시서비스의 매시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임
 - 반면 도심의 고차서비스 기능은 도시 내에 분산됨에 따라 대안적인 도심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됨
 - 스마트 서비스와 이에 따른 고용 역시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 될 것임
 -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도시로 네트워크 도시가 제기되고 있음



[그림 3-8] 스마트시티 키워드

- **공간수요의 다양화**
 - 건강장수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친화 정주환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1인 가구 증대, 국제화로 인한 가치관과 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정주공간에 대한 수요패턴 역시 다양

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서비스, 산업 공간들이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수요맞춤형, 또는 가변형으로 조성 될 것임
- 특히 3D프린팅 건설기술, 스마트 건축기술 등의 고도화가 수요맞춤형 공간 창출을 뒷 받침



자료 :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진경호

[그림 3-9] 스마트 건설기술 개념도

• 생활공간의 시공간적 공유화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경제활동의 가변성 증대로 생활공간에 대한 소유개념은 약화되고 이용의 개념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정주, 생산 공간에서 임대형, 공유형, 다목적 공간의 비중이 확대됨

• 정주 공동체와 시민참여의 역할 증대

-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보전하고, 지역기능 회복 및 경쟁력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주공동체의 인식제고가 확대되어야 함
- 점진적, 단계적, 협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함께 정비되어야 함

• 차세대 교통수단의 보급

- 자율주행차, 전기차,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네트워크 도시 시스템은 인근 도시들이 수평적으로 상호적인 거버넌스 체제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 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에 따라 교통기술·무인기술 발달 전망

- 첨단 ICT와 인터넷 기술혁신,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거주, 이동, 경제활동 등 국토 공간 활용에서의 유연성 및 연계성 확대 예상
- 초고속 교통기술 발달로 거리보다 장소를 중시하게 되고, 무인기술 발달로 지능형 도시 및 자율제어 국토관리 시스템 활용 확대 전망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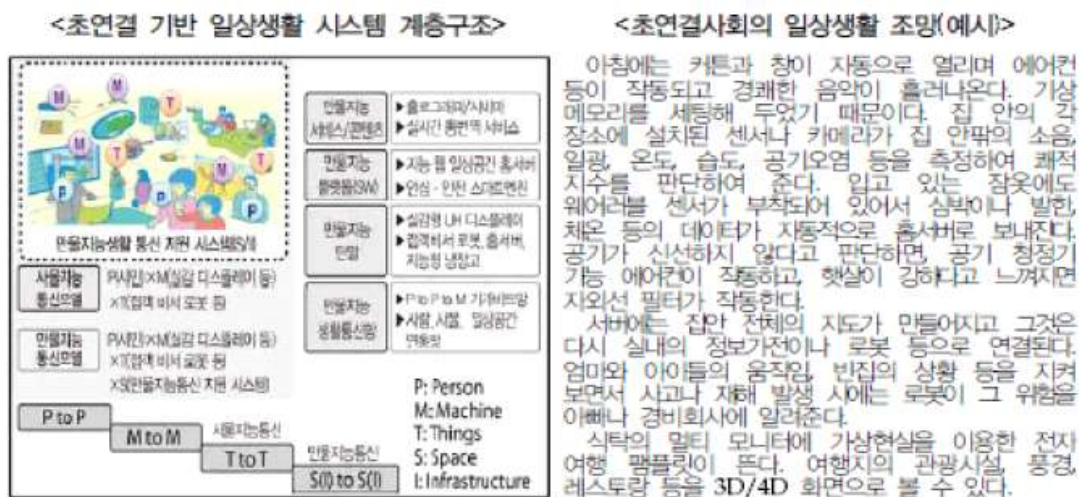
[그림 3-10]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4) 과학기술 융합과 발전(4차 산업혁명의 도래)

5G, IoT, UHD, AI, VR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선도 전략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유통비용을 낮춰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
 -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서비스와 연결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수고와 사고 위험을 줄이며, 3D프린터로 복사하듯 물건을 찍어냄

-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했으며 로봇 등의 노동 대체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4차 혁명 시대는 인간화와 휴머니즘을 강조하며, 인성교육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 4차 산업혁명은 사람·프로세서·데이터·사물 등 세상 만물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대, 이른바 초연결 사회를 이끌 것으로 예측
- 초연결사회는 의료, 교통, 제조,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기존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초연결사회에서는 지능로봇의 부각(가정이 거대로봇), 재택근무 보편화, 전자종이의 만능 디스플레이화, 웨어러블 단말기의 확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 등이 큰 트렌드를 형성
- 초연결 과정에서 모바일/입체 가상공간 라이프의 실현, 소셜 미디어의 관계형성 주요 채널화 (공공서비스 제공, 긴급상황 전달, 선거활용 등 영역), 소셜 쇼핑, 맞춤형 서비스(예 : 스마트 레저, 스마트 러닝, 스마트 헬스 등)의 이용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



자료 : 하원규·최민석(2012),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산업의 계층구조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림 3-11] 초연결사회 시스템 계층 구조 및 일상생활 조망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IT, BT, N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기후 스마트 농업도 보편화할 것으로 예측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경제를 의미하며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시장으로 구성
- 디지털 경제 실현에 중요한 원동력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IT 서비스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거래 비용 감소 및 모바일 플랫폼 보급은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출현이 예고

- 공유경제 : 제품, 서비스, 콘텐츠 공유를 위한 거래비용을 대폭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동차 공유, 카풀 서비스가 대표적

- 기업이 해당 영역에 진입할 경우 개인 영역과의 구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경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진단 서비스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잠재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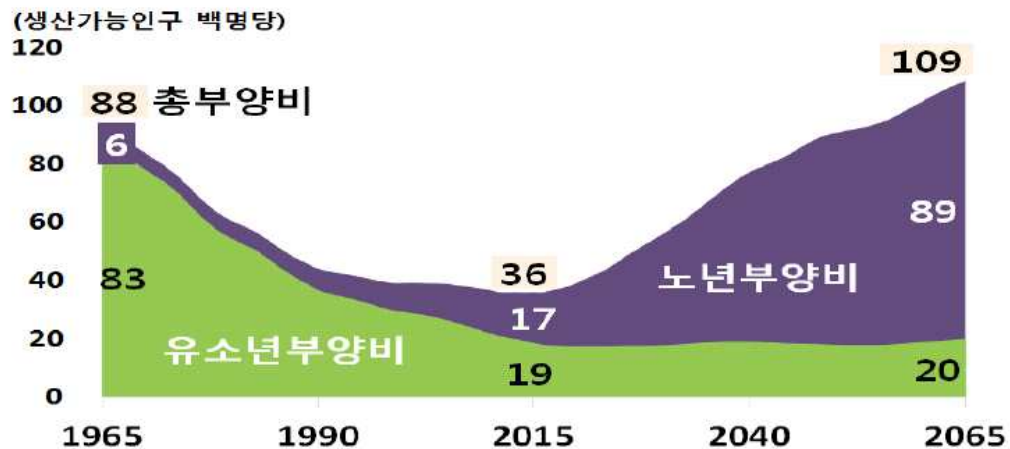


[그림 3-12] 9대 메가트렌드 (1)

5) 저성장 기조 유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 향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추세 하락세를 보이며 2040년도에 세계경제는 약 2.5%, OECD 회원국 기준은 약 1.8%,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GDP성장을 전망
- 주요 기관별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11~2020년 연평균 3.4~3.8% 수준에서 2021~2030년 2.8~2.9%, 2031~2040년 1.9~2.5%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미래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노년부양비의 급증이 저성장 기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2016

[그림 3-13] 부양비, 1965~2065년

6) 불균형 문제

시군 간 지역격차 해소, 세대 간 갈등 및 도농 간 균형발전 전략 필요 성장과 분배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인 0.327보다 낮은 0.295(2015년 기준)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 값을 나타냄
- 계층 간 이동성도 제자리걸음

- 한국은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14.8%에서 2016년 14.7%로 계층 간 이동성은 10년 전과 차이가 거의 없음
- 청년 고용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장년층의 취업은 증가하는 등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증폭

7)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사회 실현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스마트 농림축산업 기반 마련 필요

- PCC WG I 제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화석연료 배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CO₂ 농도 상승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
- IPCC WG II 제5차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아열대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 감소, 2030년 이후 식량생산량 감소, 육상 및 담수종의 멸종위험 증가, 연안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 등 전 부문에 걸쳐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 총 손실액이 소득의 0.2~2.0%(1,400억~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을 밝힘
- 전 세계의 2040년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은 2014년 대비 약 30.6%가 증가한 17,866백만 toe를 기록하여 연 평균 1.0% 증가할 전망
 - 2014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 중 석탄의 비중은 28.7% → 23.2%(2040년), 석유의 비중은 31.2% → 26.7%(2040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반면, LNG 비중은 21.1% → 24.1%(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8.9% → 25.9%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

8) 세계 경제축의 다변화

세계 경제축 변화로 인한 영향과 대비책 마련 필요

- Pw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진 경제권(G7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중심에서 신흥 경제권(E7 :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으로 경제력 이동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2016년 GDP 수준 13위에서 2050년 18위로 5계단 하락을 전망
- 2028년까지는 통일준비 시기, 2040년까지는 통일과정 시기 그리고 정상국가로는 2051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
- 통일 한국은 인구 약 8,000만 명과 영토는 22만 1,336Km 로 증가하여 풍부한 내수시장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9)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 미래교육은 디지털화 된 가상교실 등장으로 전통적 학교의 종말이 예측되며, 학교와 교사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직접 교육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
- 로봇 교사의 등장, 게임기술과 교육의 융합 실현도 가능해질 전망
- 국내는 에듀테크 산업(수학, 영어, 소셜 러닝 등)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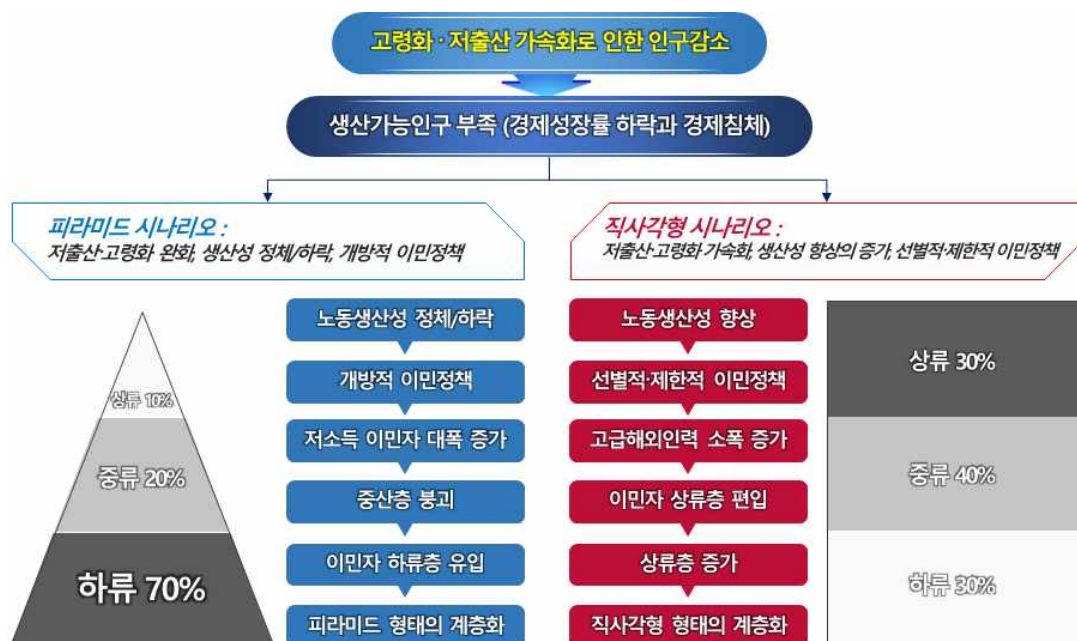


[그림 3-14] 9대 메가트렌드 (2)

2 사회영역의 미래시나리오와 삶의 질

1. 개요

- 인구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 및 경제현상, 가족제도, 일상적인 소비 등 미래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을 시나리오의 형태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 미래 한국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문제들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 현재, 한국사회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구의 유입을 들 수 있음. 고령화는 현재의 기대 수명과 의료기술의 발달 추이로 볼 때, 그 추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며, 저출산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저출산의 추세 자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음. 인구구조 변화에 또 다른 한 축인 외국인 유입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며 조절이 가능함
-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독립변수로, 외국인 유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시나리오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도출하기 위해 2개의 2040년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미래의 시점을 중심으로 현재이후를 예측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과거형’을 쓰도록 할 것임



[그림 3-15] 사회영역의 미래시나리오

2. 2040년 피라미드 시나리오 : ‘실패한 다문화사회’

가. 저출산·고령화 완화, 생산성 정체/하락, 개방적 이민정책

- 한국사회는 21세기 초반부터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2009년 65세 이상 인구가 10.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34%를 넘어섰고, 고령인구와 유년인구 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간 평균 1.2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음
- 특히 통계청은 기존의 예상보다 빨리 2020년경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점유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KDI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인력 수급차질과 세수감소를 초래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한국은행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6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고, 2020년에는 480만 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한국이 현재의 경제수준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1,300만 명의 해외 노동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2010년에서 2050년 사이 전체 인구는 600만 명 정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15~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는 1,300만 명 이상 줄어들기 때문임

1) 2015년 적극적·개방적 이민정책 개시

- 피라미드 시나리오를 보면 전문가들은 생산인력의 감소를 고령·여성인력 활용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유입이 1,300만 명이라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 인력의 유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함. 아울러 주로 20~30대의 젊은 연령으로 구성된 외국 이민 인구의 확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감소를 완화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임
- 정부는 전문 인력 중심의 폐쇄적 구조인 당시의 이민정책으로는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할 정주민구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정부의 이민정책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우호적 이민정책과 단순인력의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인력수급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내국인 고용보호, 산업 구조조정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순 인력의 외국인 이민에 엄격한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임.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정부로서는 2015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정주권제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음

2) 단순 저임금 외국 노동자 대폭 증가

- 한국사회는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0년 당시 농어촌 총각 35%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음. 2010년 한국사회는 이미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었으며, 정부가 개방적 이민정책을 취한 2015년 이후부터 외국인 유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외국인근로자 유입, 국제결혼증가, 근로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의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30년에는 40만, 2040년에는 700만까지 증가하여 2040년 현재의 한국 인구는 2010년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 20%까지 육박하게 되었음

3) 커져가는 문제들과 사회적 불만

-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인구감소와 기업 노동력 부족 문제의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효과들이 2030년 중반부터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음
- 저소득층, 비숙련 노동자인 이주민이 국내의 저소득층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었고,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등 물가가 상승하고 도심지역 교통이 혼잡해졌고, 외국인 거주 지역이 슬럼화 되기 시작하였음

■ 저임금의 고착화와 이민자 하류층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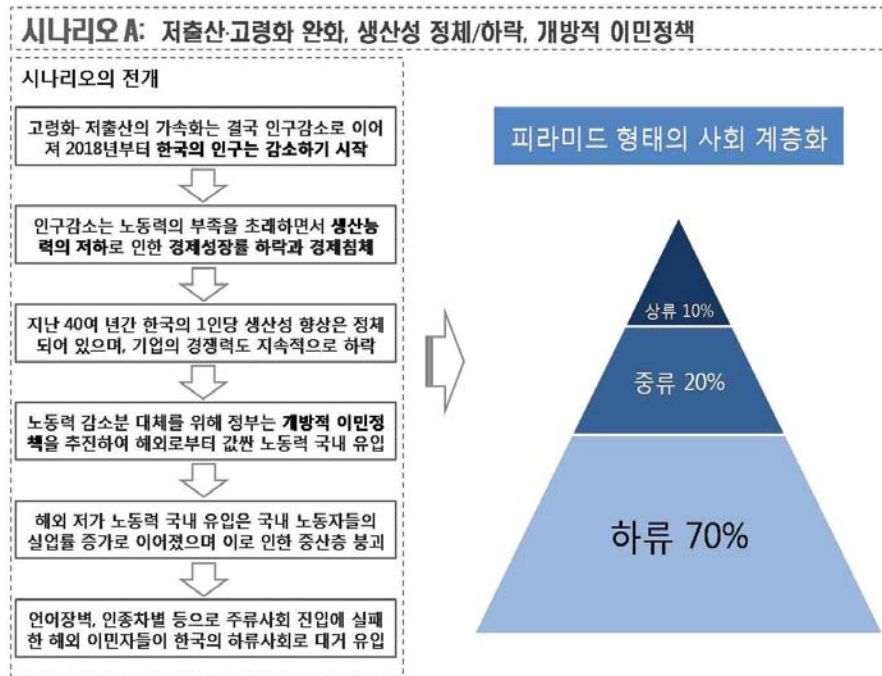
- 외국인 단순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이 가져온 가장 큰 경제적인 부작용은 임금에 하향압력이 가해지면서 저임금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붕괴임. 대부분의 건설현장과 영세 공장 등 어렵고 힘든 직종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으며, 이들 직종의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 경우가 발생하였음

며, 일자리도 부족하여 국내의 저소득 계층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음

- 제조업체들은 경영의 효율화나 기술혁신을 피하기보다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기댔으로써 업체들의 노동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2039년 노동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대비 178%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동 생산성의 저하와 함께 과다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로 인한 공공재정의 부담 증대 및 공공재 합의 도출의 실패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문화적인 배타성과 외국인 수용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 미비는 상당수의 외국 이주민이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감당할 수 없는 사회통합비용

- 지난 25년 동안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한국사회로 유입됨에 따라 언어, 문화, 종교 간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게 됨에 따라 가치관의 갈등이 생겨났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였음
-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이슬람권으로부터의 대량 이주민 유입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주류 한국사회에게 커다란 거부감으로 작용하였고, 이들 문화와의 다양한 갈등은 이슬람 문화권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이어졌으며, 이들 이주민 또한 한국 주류사회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가지게 되었음
- 이슬람 문화권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로부터 유입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교육 및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이민 2세대의 사회적 상향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업률과 범죄율 증가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음. 203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이들 이민 2세대들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2040년 현재 한국의 신규 취업 연령인 20대 전체 실업률은 8%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들 이민 2세대의 20대 실업률은 33%에 달하였음
- 저소득과 차별로 인한 취학을 저조는 이민 2세대의 취업기회를 그만큼 감소시켰으며,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결국 이들 이민자들의 사회 이동성에 대한 취약성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상위계층만 존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켰으며,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통합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 :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이종관, 김흥중,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그림 3-16] 피라미드 시나리오

3. 2040년 직사각형 시나리오 : ‘인구감소사회’

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생산성 향상의 증가, 선별적·제한적 이민정책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이 정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잠재 성장률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특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부터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하여 국민총생산이 축소되게 될 것이라는 등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우울한 전망들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출산율 제고 정책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
-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적극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이민정책만이 부족한 생산인력을 충원하고 고령화를 완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성장의 선순환과 사회적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단순 노동력의 한시적 체류가 아닌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통한 정주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방적 이민정책의 핵심이었음

1) ‘인구감소 위기론’ vs ‘인구감소 기회론’의 팽팽한 대립

- 인구감소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외국 인력의 유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음. 외국인 유입 신중론자들은 독일의 다문화주의의 실패와 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시켜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예를 들어, 저소득층, 비숙련 외국 노동자들로 인해 국내의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아울러, 이들의 자녀들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다문화 교육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외국인 이민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이 아니라, 아무관계도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신중론자들과 함께, 소수이긴 하지만 오히려 인구 감소가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인구감소 기회론’의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문제들은 노동생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게 ‘인구감소 기회론’자들의 논리였음. 즉, 인구의 양보다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인구감소 기회론’자들의 논리임
- ‘인구감소 기회론’자들은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은 지난 40년 동안 약 500% 이상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40년간의 47% 생산성 향상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 기업들은 20세기 말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눈부신 실적을 달성하고 있었으나, “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지, 다수의 노동력 투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반대하고 나섰음
- 많은 환경론자들 또한 당시 한국이 겪고 있는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자원 고갈 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의 구현이 가능하고, 아울러, 한국사회가 20세기 말에 겪었던 인구과밀로 인한 콩나물 교실, 주택난, 교통난,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도 가능하다는 ‘인구감소 기회론’을 옹호하였음

- 2012년부터 진행된 ‘인구감소 위기론’과 ‘인구감소 기회론’의 3년간의 논쟁은 결국 ‘인구감소 기회론’자들의 관정승으로 일단락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이며,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인지했기 때문임
- 외국 이민자의 수혈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 교육, 사회복지 문제, 사회갈등 등 비용 또한 엄청나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도출되었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한국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음.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저출산·고령화를 시대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음

2) 2015년 고급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정책

- 정부는 기존 이민정책의 주요 골자인 고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발급과 단순인력에 대한 쿼터제 강화를 고수함과 동시에, 해외 전문인력 국내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단순노동직, 저소득, 미숙련 노동직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고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 단순노동직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입국허가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여 제한적인 유입 정책을 펼치는 데에 반해, 전문직 및 고소득층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우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이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고,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고급 해외 전문인력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2015년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정부는 2016년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외국인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외국인 정책과 이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해외인재개발청’을 설립하였고, ‘해외인재개발청’에서는 해외의 우수인력 유치 업무와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정책 및 노동 전반에 관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였음
- 그 외에도, 취업 허가증 발행의 간소화나, 외국인이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 분야의 확대, 거주 외국인 지역과 국내인 거주지역간의 연계 확대 등도 모색하였고, 과거 추진되었던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제도를 재도입하여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

업조건 없이 졸업 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였음. 전문인력과 우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발급은 정주민구 확대뿐만 아니라 숙련단절의 해소 등의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으며, 아울러, 해외 고급 인력이 국내 정주를 기피하는 이유가 체류신분의 보장 미흡보다는 언어, 교육, 주택, 의료 등 정주 인프라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외국 인재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맞춤형 서비스로 해외 우수 이민자들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수업, 한국의 문화·역사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정부가 공영주택을 매입해 타당한 임대료로 외국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실시하였음. 해외인재개발청은 국내외에 외국인 전용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유학·취직관계, 해외 우수인력을 위한 국내 거주지나 자녀의 교육에 관한 최신 생활정보, 각종 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외인재개발청은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음
- 2016년 해외 제1호 사무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치된 이래, 2020년까지 북경, 동경, 뉴델리, 시드니, 런던, 파리 등에 개설되었음. 해외 사무소는 주로 해외 인재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해외 인재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외인재개발청은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글로벌 기업과 해외 인재를 연결시켜 한국으로의 해외 인재 유입을 촉진 시키는 역할도 수행해 오고 있음.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결과 2040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의 수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인구의 28.7%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와 같은 수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3) 노동 생산성 향상과 기업과 정부의 혁신

- 노동력 인구의 신장률과 생산성의 신장률을 비교해 보면, 노동력 인구의 성장이 적은 국가일수록 생산성의 성장이 높다는 것을 OECD 국가들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1인당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 등 기업의 혁신 노력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5%를 유지하였으며 2010년 이후 30여 년 동안 4.8배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는 기술의 진보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 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력화 기술과 함께, 생산설비 자체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음. 한국은 IT 및 로봇강국의 강점을 살려 산업별

IT와 로봇의 활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과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실행해 왔음

- 그 결과 로봇은 산업 현장은 물론, 가정에까지 비집고 들어가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 로봇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서비스산업 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35년 현재 로봇이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300만 명분의 노동력 대체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도 2010년에 대비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고, 21세기의 자동차, PC, 휴대폰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로봇은 2040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가 되었음

4) 인구감소시대의 교육, 산업, 생활환경

■ 실용성과 전문성 위주로의 교육시스템 개편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교육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학생 수의 감소는 국공립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이끌었음.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에서 약 1000의 초중고가 폐교되었고, 남아 있는 학교도 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학생 수의 미달로 학급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낮추었음. 특히, 학력 인구의 감소는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2010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5% 수준이었으나, 2039년 처음으로 대학 정원과 수험생 수가 같아지는 ‘100% 전원 입학 시대’가 도래한 것임
-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은 해가 갈수록 격화되어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들은 통폐합되었으며, 50여개의 지방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았음. 대학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들은 기업들과 제휴해 이론 보다는 전문성 위주의 직업 훈련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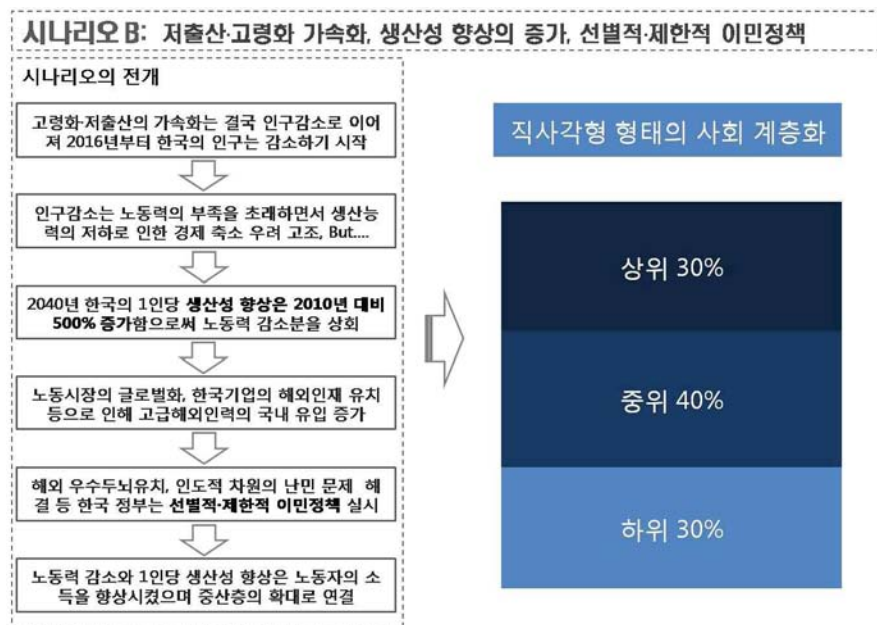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업

- 출산·고령화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은 풍부한 사회의 기반의 하나로써 기능하게 되었으며, 식량자급율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가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침. 도시의 근로자들은 은퇴 후, 농지를 구입하여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즐기면서 낮은 생활비로 자연의 공간을 누리고 있고,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도 농업은 많은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에서 내려오는 고령 은퇴자와 취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농업 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농업은 하이테크와 접목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 또한 이끌었으며, 농기구 및 농업 장치의 제조업, 비료와 농약 등의 화학산업, 식품 가공업, 운송업 등이 농업과 중층적으로 조합되면서 상승효과를 가져왔음. 이러한 상승효과들과 함께 농업은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핵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쌓아 올리게 되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됨

■ 보다 쾌적해진 일상생활

-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약 4,500만 명 정도로 30년 전보다 약 500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들을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음.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사업을 중단한지 이미 오래이며,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 대신 대규모 녹지와 자연 생태계 공간 창출에 공공사업이 집중하게 됨
-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로봇의 대량 보급 등 기술 진보에 의한 노동 생산성의 상승과 설비 투자의 축소에 의한 노동 분배율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크게 향상되었으며,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사람들은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생산성과 노동 분배율의 향상은 빈부 격차를 크게 완화시켜 한국사회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구분이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켰고, 인구감소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



자료 :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이종관, 김홍중,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그림 3-17] 직사각형 시나리오

3 한국의 2040년 미래트렌드

1. 미래전망 1 – 창조, 자유, 포용의 문화공동체

가. 긍정적 시나리오

1) 고학력, 경제력 있는 실버 문화수요층 증가

- 노인은 높은 교육과 소비수준을 갖춘 세대로서 높은 사회참여와 주체의식을 가진 최대 여가소비층으로 부상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핵가족화 진전과 연금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노인상을 거부하는 톤크족(Tonk)이 등장하는 등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이 노년층에 확산될 것임. 노령인구의 급증은 실버산업의 급성장을 예견하는데, 장기요양, 의료건강 등과 접목된 콘텐츠 소비가 출현한 것이고, 또한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체육활동과 관광상품, 노인의 문화적 취향에 맞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2) 여가시간 증가

- 소득 상승으로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노동시간은 연간 2,000시간미만으로 줄어들어 생활의 여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기존에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노동시간 중에 잠시 여가시간을 갖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등 노동시간,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안정으로 문화여가비 증가

-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과 문화에 대해 지출하는 GDP의 비율은 1인당 국민소득과 상관관계가 높고, 더 부유한 나라일수록, 문화여가비 지출이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이들 분야에서의 지출이 적정수준으로 낮아지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면 문화소비가 현실화될 수 있음

4) 유비쿼터스 문화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축된 유비쿼터스 환경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책, 전시,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 기존 창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문화창작이 활성화되면서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 문화콘텐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확대는 네트워크가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

5) 창조적 문화활동 증가

- 과거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서 감상에 머물렀던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창조형 문화활동이 부상하고 있음. 음악을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에 올리며,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거나 방송하는 등 1인 미디어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문화를 창조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가 늘어나고 문화를 쉽게 창작, 유통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발전한 데 따른 것으로 기술발전은 시민을 문화소비의 수동적인 주체로 만들었던 읽기 일변도(Read Only) 시대에서 감상과 표현을 동시에 하는 읽고 쓰는(Read & Write) 시대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들에 의해 다량으로 공급되는 문화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내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 현재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소비되는 문화의 상당수가 아마추어가 생산한 콘텐츠임. 여기에서 문제는 아마추어가 생산한 콘텐츠가 기존의 저작물과 맺는 관계이며,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 간의 균형을 잡지 못할 경우 시민의 창조력을 제한하거나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6) 창조적 문화활동 증가

- 소득수준의 증가나 사회적 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윤리적 가치관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성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문화자원봉사활동은 사회공헌을 통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문화동호회 활동은 동일한 관심과 취미 갖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게 됨. 이러한 사회성 여가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및 모바일 커뮤니티로 연계되며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와 독신 가구 증가, 자식이 없는 부부(empty nester) 증가 등으로 가족 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적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임

7)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

- 삶과 여가, 물질과 정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부상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들은 산업사회의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 이원적 대립으로 여겨졌던 것들로서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음
- 그러나 자연의 파괴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일중독이 삶을 파괴하며, 물질주의가 정신적 만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대두하게 된 것임.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웰빙(well-being), 홀리즘(holism) 등이며, 이는 여가의 행태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면서 휴식, 명상, 치유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증가할 전망이다

나. 부정적 시나리오

1) 문화욕구는 높으나 빈곤한 노인의 여가문제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11.0%에서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현재 50대가, 2030년에는 현재 40대가, 2040년에는 현재 30대가 은퇴를 하게 됨. 현재의 50대는 연간 예술 행사 관람률이 51.3%인데 반해 40대는 70.1%, 30대는 78.5%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노인의 문화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은 대부분 교육을 잘 받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혜택을 받은 세대로서 문화욕구가 높고, 과거 노인과 달리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노인의 문화생활은 여가비용의 부담능력에 따라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여가비용 부담능력이 높은 노인은 실버문화산업의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할 것임. 그러나 여가비용 부담능력이 낮은 노인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노인을 가족에서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들에게 여가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비용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

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노인우울증, 노인자살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음

2) 일과 여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여가시간이 감소

-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메일,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근간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지구적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은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문제는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게 만들며 이는 현재 전문직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집, 교육, 건강치료 등에 드는 민간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보상을 주지 못하는 여가시간을 줄이도록 할 것이며 봉급의 증가만큼 휴식시간은 줄어들 것이며 일찍 은퇴하기보다는 계속 일하는 것을 택할 수 있음. 더 길게 일하고 수시로 일하는 시스템 하에서 여가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각난 시간들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는 인터넷을 한다거나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는 정도의 수동적이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산력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3) 기후변화로 인한 여가인프라 조성 및 이용비용의 증가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적 제약이 심해짐에 따라 교통, 주거, 여가공간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기술발전으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짓는 방법과 노후화가 늘어나겠으나 30년 정도의 기간 안에 현재 있는 거의 모든 문화인프라의 노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환경친화적인 공법과 재료로 지으려면 막대한 공공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문화정책에 있어서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조성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결국 여가공간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4) 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확대

- 세계화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 블록화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 하에서는 국제통상에 유리한 입지를 가진 도시를 중심으

로 집중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음.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특정 도시들이 발전하게 될 경우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와 소비의 중심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이러한 교역거점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음

5) 사행성 여가문화 형태의 증가

-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음. 이러한 삶의 다양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알콜, 약물, 도박, 게임,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자기파괴적 여가행태가 증가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자기파괴적, 현실도피적 여가행태가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긍정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 고학력 경제력 있는 실버 문화 수요층 증가 및 여가시간 증가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문화여가비 증가 • 유비쿼터스 문화 (온라인, 모바일 DB 환경) • 창조적 문화활동 증가 (유투브 등 1인 미디어 등) • 문화커뮤니티 증가 (문화동호회를 넘어 모바일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 웰빙(Well-being), 홀리즘(holism)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	 문화의 민주화	• 문화육구는 높으나 빈곤한 노인의 여가 문제 • 일과 여가의 경계 모호로 인한 여가시간 감소 • 기후변화로 인한 여가 인프라 조성 및 이용 비용 증가 • 도시로의 집중 가속화 및 지역간 문화 격차 확대 • 사행성 여가문화 행태 증가
•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확대 •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확대 • 콘텐츠 산업의 역내 분업화 선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류의 지속가능성	•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력 약화 • 불법복제 확대로 인한 수익률 감소 • 중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문화적 통합을 통한 사회안정 (외국 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 결혼이민자수 증가, 외국국적 동포 유입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속 증가) •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경쟁력 제고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 통합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노동운동 심화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금지 조치 및 문화교육 시급) • 결혼 이민자 및 혼혈 아동에 대한 차별 심화

[그림 3-18] 미래전망 1 - 창조, 자유, 포용의 문화공동체

2. 미래전망 2 - 2040 경제와 삶의 질

가. 성장공간의 변화

1) 수평적 공간의 전망

■ Global Shift

- 향후 30년간 한국이 직면할 세계경제가 경험하게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성장 동력의 전환임. 이 장기적인 변화는 이미 2003년 골드만삭스에 의해 BRICs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즉 1990년대까지 NICs로 불리는 신흥공업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이들의 빠른 성장과 추격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음. 그러나 1990년대 다양한 계기로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은 그 거대한 인구, 성장속도, 잠재력으로 인해 미래의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30년까지 신흥경제의 성장률은 선진국의 2~3배에 이르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의 경제적 비중은 32%(2010년)에서 46%(2020년), 56%(2030년), 66%(2040년)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 이 과정에서 미국과 더불어 EU, 동북아시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남미국가 등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의 중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미래 한국의 성장공간의 주축도 신흥시장으로 향하게 될 것임

■ 동아시아의 부상과 통합

- 향후 동아시아가 미래 다극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비약적으로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 2007년 한중일의 경제적 비중은 북미나 EU의 각각의 절반 수준이지만, 2020년이 되면 북미나 EU를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2040년에는 북미와 EU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임

[표 3-1] 세계3극의 경제비중 장기전망(2007~2040년)

(단위: %)

구분	2007	2020	2030
북미	28	22	19
EU	31	25	22
한중일 + 홍콩	17	26	30

자료 : Global Insight

- 이는 특히 중국의 세계사적 부상과 동반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적인 역할 재조정 혹은 역할 교체가 시작될 것임

- 동아시아의 부상은 그 규모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님. 향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아세안을 아우르는 동아시아는 향후 장기간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당분간 중국을 조립 허브로 하여 구축되고 있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대체할 만한 네트워크와 경제규모를 가진 post 동아시아 지역이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1세기 동아시아는 19세기와 20세기 유럽과 북미가 담당하였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대체하면서 그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3-2] 교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분야	변화의 양상
제조업	제조공정의 기업 내 분할, 역내 기업 간 전략적 제휴 확대,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 직원의 다국적화
사업 서비스	법률, 컨설팅, 회계 서비스의 다국적화, 각종 전문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인증 시스템 완성
교통/통신/물류 서비스	사실상 단일망으로 통합, 역내 주요도시 일일생활권 실현, 역내에서 국경 간 서비스 자유화, 대규모 공동 물류 거점 출현
인적교류	역내 비자면제, 노동력 이동 범위 확대, 대규모 상호 정주 거점 출현
문화/교육/의료 등	공동 방송 서비스 출현, 상시적 대중문화 교류, 일상적 초중고등 교육 교류, 의료 서비스의 역내 개방 등

자료 :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이종관, 김흥중, 양현미, 조항희, 최항섭

2) 수직적 공간의 전망

- 한국의 성장공간의 공급 측면의 변화를 초래하는 장기 동인은 과학 및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산업의 성격 변화일 임. 21세기 미래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은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은 전통적인 동력 외에도, 2) 미래적 가치의 등장, 3) 부가가치 활동을 기준으로 한 산업 내부의 분화, 4)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경쟁화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음. 즉 산업의 장기적인 변화는 과학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산업의 조직형태의 변화,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표 3-3] 미래 산업 발전의 동인과 발전 방향

발전의 동기	주요 내용	발전의 방향
과학기술의 발전	IT, BT, NT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첨단산업의 발전 기존산업의 첨단화 연구개발의 중요성
미래 가치의 등장	저탄소 녹색성장, Ubiquitous well being, 소비의 개인화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기술의 융합, 통섭
산업 활동의 내부 분화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의 확대, 부가가치 활동의 분화, 산업의 수행 기능에 초점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의 독립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	교육/의료/교류/문화 산업의 세계화, 공공 서비스, 일국(一國) 인프라 탈피, 성장동력이자 경쟁적 상품으로 변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화

자료 :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이종관, 김흥종,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 과학기술과 미래 가치의 결합

- IT, BT, NT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창출함. 미래 산업들은 단순히 IT, BT, NT 각 분야의 발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미래 가치와 결합하면서 기술 영역간의 통섭(consilience)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함. 2000년대 등장한 이른바 6T¹⁾ 중 환경(ET), 우주항공(ST), 문화컨텐츠(CT) 등은 단지 기술의 분류에서 비롯된 개념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와 그 용도가 혼합된 개념임
- 2006년 6월, 미국 RAND연구소는 2020년까지 세계 기술 발전의 추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주목할 트렌드는 “기술과 가치의 결합” 이라고 주장하였음. 뿐만 아니라 IT, BT, NT 등 기술의 자체적인 발전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에너지, 환경, 융합, 건강, 생활밀착 등의 미래 가치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미래 기술 분야가 발굴 될 것이라고 전망함

1)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logy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환경공학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CT, Culture Technology)

■ 부가가치 활동 중심의 산업 구분

-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 혹은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적 분업구조 내에서의 역할이 더 이상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IT, BT 등)의 기준에 따라 단선적으로 구별되지 않음. 산업 자체의 성격이나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국가 혹은 기업이 그 생산과정 내에서 수행하는 부가가치 활동의 내용이 중요함.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단순 제조, 프리미엄 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브랜딩 등 다양한 활동이 각각 분화되어 새로운 국제 분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

활동	경쟁요소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시장창조자	가치창조 시장지배	레고 블럭	우주/항공/군수	구글, 화이자	아바타
브랜드	전통/신뢰	Coca Cola, Nike, 명품류	BMW, 3M	Apple, Sony	Harvard 매킨지
연구개발	지식응용의 체계화	신소재/신기술 응용 제품	에너지 절약기술, 신소재, 자동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개발	투자은행 미국대학
디자인/기획	창의력	패션산업 고급도서	크루즈 선	i-pod, i-phone	영화, 연예 산업
프리미엄 제조	기술력 장인정신	이태리 의류산업, 와인 (주류), 한식, 스포츠용품	독일/일본의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선박	프리미엄IT, 정밀화학, 의료기기	금융, 회계, 의료
조립제조	조달망 품질관리	일반 의류, 신발	전자, 기계, 조선	부품조립	택배, 인도 서비스산업
단순가공	저임금	섬유, 봉제, 플라스틱, 식품	철근, 시멘트 등 범용 소재	부품 가공	식당

[그림 3-19] 산업과 부가가치활동의 매트릭스 및 사례

- 부가가치 활동을 기준으로 한 분업 및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 첨단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 그린 테크놀로지의 적용, 디자인과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 기술개발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결과임
- 예를 들어 이른바 ‘사양 산업’으로 취급되었던 경공업 분야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 그렇지만 이들이 해당 사업 영역을 떠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연구개발, 디자인, 브랜딩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있음.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도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 에너지의 사용(하이브리드 자동차),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의 적용

(신일철의 제철 기술) 등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따라서 21세기 각 국가경제에 있어 미래 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산업고도화가 아니라 단순 제조에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고도화를 포함하는 복선적 고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서비스의 상업화/세계화

- 이미 금융, 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세계화된 분야임. 이들은 주요 다국적 은행과 기업의 사업 영역으로 정립되어 있음.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일국(一國) 차원의 공공서비스이면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의료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미 미국은 교육 및 의료에서 글로벌 차원의 서비스 제공자임. 20세기 들어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의료 및 교육 허브를 지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통합은 광범한 인적/문화적/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연결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촉진하게 될 것임

나. 경제주체의 변화

1) 인구의 고령화

- 이미 2000년에 노령인구비율 7%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노령인구비율 14%의 고령 사회, 2026년에는 노령인구비율 20%의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005년 34.8세에서 2010년에는 38세, 2020년에는 43.8세, 그리고 2040년에는 53.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0~14세가 전체 인구의 10.3%, 15~64세가 57.2%, 65세 이상이 32.5%를 차지해 유년층의 인구 비중이 2010년 대비 거의 6%p 감소하고, 노년층은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하여 경제활동의 중심을 담당하는 15세~64세의 청장년층, 즉 생산가능 인구가 2018년부터 줄어들어 2040년에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2010년의 72.9%에서 57.2%로 15%p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내부 배분도 바뀌어 고령 노동 인구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4] 2040 연령구조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20	2030	2040
유년층(0~14)	16.2	12.4	11.4	10.3
청장년층(15~64)	72.9	72	64.4	57.2
노년층(65+)	11	15.6	24.3	32.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3-5] 생산가능 인구

(단위 : %)

구분	2005	2010	2020	2030	2040
15~24	19.9	18.3	15.6	13.1	13.6
25~49	59.6	56.7	50.9	49.5	48.2
50~64	20.5	25	33.5	37.4	38.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다민족화 경향 강화

- 인구의 다민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외국인의 거주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이해지고 이는 새로운 이주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증가 추세는 204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 독일, 영국, 덴마크의 국가별 외국인 비율의 증가를 1990년과 2004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독일(6.1%, 8.9%), 영국(4.2%, 4.7%, 2003년), 덴마크(2.9%, 5.0%) 등으로 늘어난바 있음. 한국의 경우도 향후 2040년까지 외국인 비율이 약 5~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²⁾
- 숙련노동 중심의 해외이주민의 유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숙련 노동의 지속적 유입은 중소기업, 저생산성 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고 경제의 이중화 초래할 수 있음. 단순노동위주의 해외이주민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저생산성 산업의 퇴출을 늦춤으로써 이중경제구조가 지속될 수 있음. 이는 나아가 이민자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일인당 GDP 감소, 실업률 상승(maybe) 취약 계층 증가, 소요 사태 등 사회 불안정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민족화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개방성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유입, 가족 형성, 교육 등의 각 단계에 따른 제도적으로 이주민이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민 집단의 부적응 문제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 다시 말해, 유입 인력의 연령, 성, 가족 구조와 문화, 출산 행태, 언어 능력 등에 따라 유입인구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갈등 유발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그동안 해외이민자가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국적취득 절차, 불법체류자 관리, 이민2세 교육지원, 해외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³⁾ 등 이

2) 물론 다민족화의 정도는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2007년에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를 보인 이유는 2007년 3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민자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민자가 이주 후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⁴⁾ 이주자의 통합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는 국가재정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3)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공간적 구성 변화

-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로 도시화율은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0년도 이후에는 연 평균 약 0.3% 증가율만을 보인 반면, 수도권외의 비대화는 지속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메갈로폴리스화가 가속되었음
- 2040년에는 서울·수도권의 메가시티⁵⁾⁶⁾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이는 동과 남의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서고속도로 및 경춘고속전철의 건설에 따라 동으로 서울·수도권 메가시티는 춘천시와 연결되고, 남으로는 세종시, 대전광역시와 서울·수도권 메가시티가 연결되어 서울, 성남, 인천, 안산, 안성, 평택, 세종, 대전, 춘천을 연결하는 메가시티의 확대가 예상됨. 또한 대구, 울산, 창원, 부산이 연결되어 메가시티화가 예상됨. 메가시티는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식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해 각 지역의 자원과 인력이 연결, 활용되어 시너지가 나오게 될 것임
- 이와 더불어 2040년에는 국토 전 지역의 도시화가 예상됨. 도시의 편의성이 도시화 제고에 유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정보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면 이 산업들이 농촌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즉, 정보통신기술, 초고속 교통수단이 발달해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면⁷⁾ 도심 주변의 교외화, 광역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거주 인구가 늘어나 도시화가 진행될 것임

3) 조성남(2008)에 따르면, 교육 및 보건 등의 사회 보장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3명중 1명은 의료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높고, 자연 유산율, 사산율 등이 국내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4) 반면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이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의 경우 이주민의 문화, 경제, 교육까지 받아들이자는 다문화주의의 사회통합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김태현, 2010).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이 melting pot을 표방하고 있다면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의 경우는 mixed salad bowl을 표방한다.

5) 유엔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으로 국내총생산에서 5%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위 1,2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행정적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을 가진 지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한다.

6) 전 세계에서 거주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현재 21개 수준이나 205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현재 대표적인 메가시티에는 동경(요코하마, 카와사키, 사이타마 지역), 광저우(Northern Pearl River Delta incl. Dongguan, Foshan, Jiangmen, Zhongshan), 서울(부천, 고양, 인천, 성남, 수원 포함) 등이 있다. (Thomas Brinkhoff: The Principal Agglomerations of the World, 2010-09-27)

7) Baum-Snow(2007)에 의하면 1950~1990년 사이, 미국 도시들이 광역화되고 전체 인구가 7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거주 인구는 17%가 줄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를 통과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하나 당 인구가 18% 줄어든다.

다. 삶의 질에 대한 공간과 주체의 제약

1) 높은 1인당 소득과 생산성

- 성장공간의 수평적/수직적 확대 및 경제주체의 고령화는 향후 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성장공간의 수평적 확대(Global shift)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재/소비재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 제조업에 지속적인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 생산 공간의 수직적 확대는 소득과 생산성 향상과 직결됨. 개도국 시장도 빠르게 고위기술제품 수요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기술 제조업의 경우 수평적 확대에 의한 성장과 소득의 향상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생산 공간의 수평적 확대는 수요 증가에 도움을 주나, 수직적 확대 없는 수평적 확대는 소득 및 생산성 향상에 일정한 한계를 가져올 것이며, 수평적 확대 없는 수직적 확대는 수요 창출의 부족으로 일본형 불황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주체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수평적 공간의 확장을 활용하여 1) 성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2)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한계로 작용할 것임

2) 낮은 빈곤율

- 전반적인 일인당 소득증대에 따른 빈곤율의 감소(소득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2040년까지 예상되는 다양한 구조변화가 새로운 빈곤형성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신행 빈곤층이 형성될 것임(구조효과)
- 따라서 낮은 빈곤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밀 식별과 대처(pinpoint identification and treatment)가 중요함. 주요 빈곤 요인과 범주로는 i) 고령화, ii) 양극화, iii) 다민족화, iv) 사회부적응/불운형 빈곤 등을 예상할 수 있음. 즉 고령화에 따라 고령/은퇴형 빈곤층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로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억제를 위한 자원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음
- 계층 양극화 및 교육의 계층이동 기능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빈곤지역/빈곤문화 형성되어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게 될 수도 있음. 이는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며, 나아가 다민족화에 따라 저부가가치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 등 외국인 빈곤층이 형성될 전망이다
- 사회의 경쟁격화/고생산성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국인 저부가가치/경쟁탈락형 빈곤층

형성도 예견됨. 특히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가 초래하는 각종 위험(risk)에 노출된 불운(不運)형 빈곤도가 증가할 것임

3)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주체의 변화(고령화)와 노동형태의 변화(유연화)가 경제활동참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며, 특히 고령화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함
- 아울러 기존의 경제활동 미참여 집단인 여성이나 청소년이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 것인가도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침. 최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조치 없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획기적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청소년의 경우,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음
-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가치관 및 경제생태의 변화임.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무시간 등 노동유연성의 확대가 적절한 대우와 연결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기대소득이 낮아지거나 생활방식에 대한 관념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다양화될수록 노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임. 노동의 장소(재택근무)나 노동형태의 제약이 줄어들수록 노동참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음

4) 짧은 노동시간

- 성장공간의 수평적 확대, 경제주체의 변화, 제도적 요인 등이 향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임. 수평적 확대에 의한 수요 증가와 경쟁범위의 확대는 국제적 경쟁의 격화를 통해서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연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경쟁효과라 할 수 있음
- 다만 소득 및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보수의 증가로 연결될 경우 개인의 소득/여가 선택에 따라 노동시간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소득 및 가치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소득의 향상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큼
- 한편 경제주체의 고령화/청소년화/여성화는, 이들 계층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청년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온 노동시간에 대한 규준의 재정립을 요구함.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형태의 다양화, 노동유연화, 가치관의 변화 과정에

서 노동시간의 재정의(redefine)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제도화된 노사관계 공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률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경제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뿐 아니라 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화 노력도 중요한데 주로 정치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 효과라고 부름



성장공간의 변화

- 과학기술의 발전 및 미래 가치의 결합
- 저탄소 녹색성장, 유비쿼터스(Ubiquitous), 웰빙(Well-being), 소비의 개인화 등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의 확대, 부가가치 활동의 분화, 산업의 수행 기능에 초점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의 독립)
- 서비스의 상업화 및 세계화 (교육·의료·교통·문화 산업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일국(一國) 인프라 탈피, 성장동력이자 경쟁적 상품으로 변화)



경제주체의 변화

- 다민족화를 통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및 사회 전반의 개방성 증진
-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공간적 구성 변화 (정보통신기술, 초고속 교통수단의 발달로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도심 주변의 교외화, 광역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거주인구가 늘어나 도시화가 진행될 것임)



삶의 질에 대한 공간과 주체의 제약

- 성장공간의 수평적 확대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재/소비재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 제조업에 지속적인 기회 창출
- 일인당 소득증대에 따른 빈곤률 감소(소득효과)
- 노동유연성의 확대 및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다양화되거나 노동의 장소 및 형태의 제약이 줄어들 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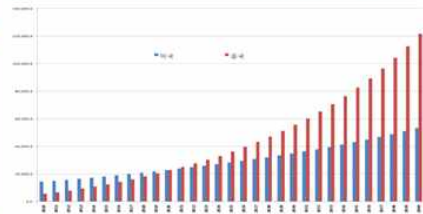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부상과 통합

2040년 한중일의 경제적 비중의 부상

단위: %				
구분	2007	2020	2030	2040
북미	28	22	19	14
EU	31	25	22	15
한중일+홍콩	17	26	30	33

자료: Global Insight

세계 3국의 경제비중 장기전망 (2007~2040년)



[그림 3-20] 미래전망 2 - 2040 경제와 삶의 질

3. 미래전망 3 - 삶의 질과 과학기술

가. 삶의 질 개선과 과학기술

1) 과학기술역할의 변화 : 산업관점에서 개인과 공공관점으로

- 지금까지 과학기술개발의 가장 큰 동기는 경제력 강화와 군사력 강화였음. 경제력 강화는 자원 고갈화와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측면을 창출하였고, 군사력 강화는 대량파괴무기로 인한 위협을 안고 있음. 향후에는 자원의 지속적 확보, 자연계와의 조화, 미래로 이어지는 기술과 같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이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는 그린 에너지, 유전자 기술의 농업, 낙농 등에 적용, 폐기물의 분해처리, 생분해성 플라스틱, 핵폐기물처리, 초소형초고성능컴퓨터, 자동차 운전, 생명과학의 의료와 식량에 적용, 생활용 로봇 등이 있음
- 경제력 강화를 인해 그 동안 정부는 산업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이로 인해

도로, 철도, 통신, 전력 분야의 망이 잘 갖추어지게 되었고, 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왔음. 향후에는 이러한 산업인프라 이외에 국민 모두와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망, 지능형 사회기반, 녹색인프라와 같은 공공적 인프라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동인이 될 것임.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경제 중심 발전전략 추진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자연자원 보전은 상대적으로 취약,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및 기상재해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90% 이상이 기상현상으로 발생하고, 향후 물 부족 및 해안지역 부영양화(적조)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OECD 2030 전망, 2007)

2) 중점사회의 변화와 지원기술

- 인류의 사회변천을 보면, 농업사회를 시작으로 공업사회(제조업)를 거쳐 현재의 정보화 사회(정보통신, 서비스)의 성숙화와 함께 녹색사회가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음. 향후에는 정보화 사회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회와 녹색사회가 보다 강화되고 건강 사회가 탄생할 것으로 보임
- 이들 사회에는 사회를 선도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음. 농업사회에서는 토목, 공업사회에서는 건축, 기계, 화학, 엔지니어링,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통신,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시스템엔지니어링 그리고 녹색사회에서는 엔지니어링과 센서링이 중점적 기술이었으며, 미래의 스마트사회에서는 무선통신기술, 전지 등 그리고 녹색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저에너지 소비형 기술들이 중요해질 것임. 그리고 건강사회에서는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감안한 예방의료 등이 강화되어 건강수명이 연장되게 될 것임

[표 3-6] 사회의 변천

사회	농업사회	공업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정보화 사회	녹색사회
중점 산업	농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환경, 에너지
공공 인프라	관개, 저수지	도로, 항만, 댐, 교량, 전력, 통신	네트워크, 정보도서관, 교통체계, GPS	자원순환사용 안전예방
지원 기술	토목	토목/건축/ 엔지니어링	시스템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스템엔지니어링/센서링
경제	농업경제	산업경제/석유경제	디지털경제/지식경제	태양경제/녹색경제

자료 : 조항희(2009),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구축전략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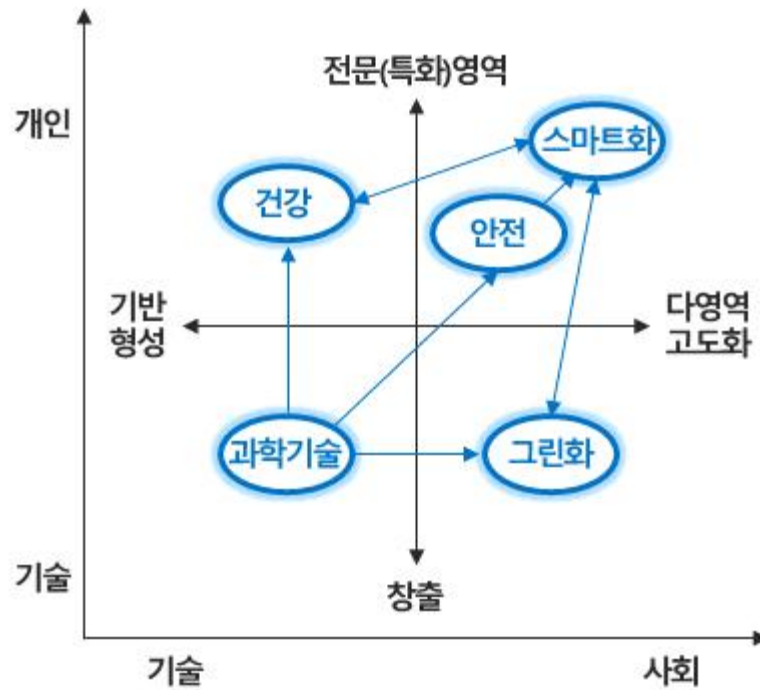
3) 생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수요

- 정부정책은 국민들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현재 우리사회의 실태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국민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국가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추진해야 함. 인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으뜸 요소로 한국 국민은 ‘건강’을 꼽고 있음. 국민의 건강은 적절하게 의식주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이 심리적으로 만족을 느끼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때 이루어 질수 있음
-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하면서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국가정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이 요청되고 있음. 환경은 일반상품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살게 될 수록 수요가 누적적으로 커지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줌. 일반 소비재와 달리 환경재는 공유재로서 소비의 비교와 경쟁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기만족과 상생적인 삶에 필수적인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담보해 주며, 특히 깨끗한 물과 토양과 공기로서 건강한 육체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 환경전문가들이 경고하였던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여건이 열악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음
-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면서 자연자원을 생태-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지닌 국가들이 경쟁력을 지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원순환형산업, 바이오산업, 자연친화적 농수산업 등 환경친화적 발전정책들은 지역분산적이며 전통산업과 비교하여 고용효과도 대체로 큼. 자연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급은 자원과 에너지의 해외수입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먹거리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큰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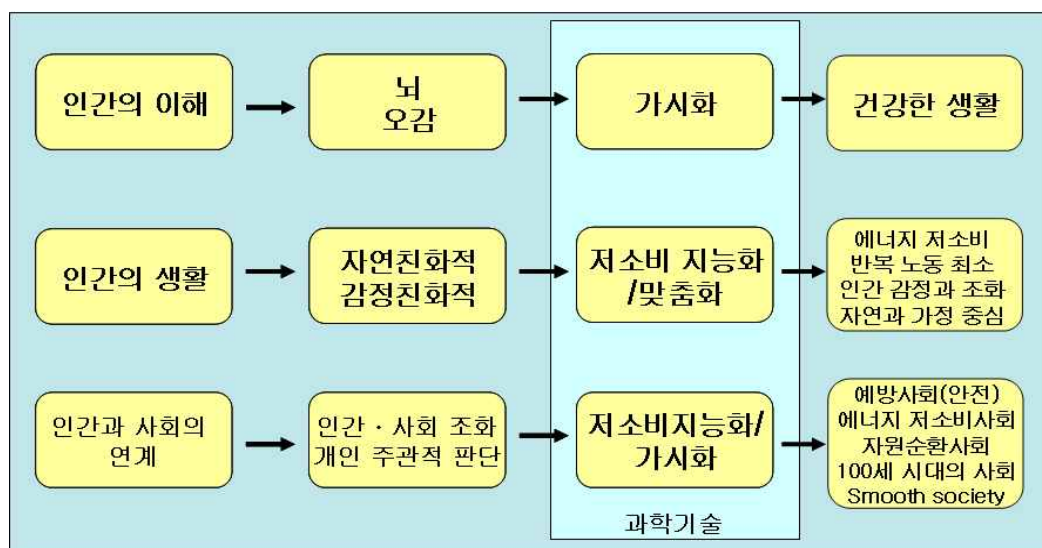
4) 기술과 사회 그리고 미래의 이슈

- 건강, 안전, 그린화, 스마트화의 기반기술은 정보통신기술과 나노기술, 바이오기술로써 이들 기술들은 상호 통합되어 미래사회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감. 건강, 안전, 그린, 스마트가 2040년에 개인과 사회에 적용이 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건강을 위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안전과 그린을 위해 인간의 생활이 에너지저소비 생활, 반복 노동의 최소화 생활, 인간 감정과 조화로운 생활, 자연과 가정 중심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인간과 사회의 연계 관점에서는 예방사회(안전), 에너지 저소비 사회, 자원순환사회, 100세 시대의 사회, Smooth society를 지향할 것임
- 인간의 이해는 주로 뇌와 오감 분야가 될 것이고, 이들 분야를 인간이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시화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며, 인간의 생활은 자연친화적이고 감정친화적이 되면서 저소비지능화와 무선화, 맞춤화가 중요한 이슈가 됨. 인간과 사회의 연계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통한 사회생활 활동 강화와 인간과 사회의 조화가 강화되어, 사회 기반시설의 지능화와 가시화가 중요하게 될 것임



[그림 3-21] 미래의 니즈와 기술과 개인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그림 3-22]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연계

나. 미래의 삶의 질 증대와 과학기술

1) 시간 저소비 지능화와 맞춤형을 통한 삶의 질 증대

■ 디지털 라이프화로 건강을 증진

- 생명공학이 21세기 인류의 건강과 번영, 복지의 발전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명공학에 대한 R&D 투자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편리함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힘입어 앞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복합화 되어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명공학기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우리 삶의 변화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우선 디지털화 DB가 보편화되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릴 수 있음. 즉, 의료기관에서는 종이로 관리하던 모든 환자들의 기록과 정보를 디지털화된 DB에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이 가능해지고, RFID(무선인식) 등의 IT가 도입되면서 병원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전자의무기록이 활성화되면서 환자의 기록이 언제나 필요시에 연동되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또한 개인의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지문 및 화상 인식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문 등 신체적 특성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게 되어 건물 출입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 시스템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어 암세포 등 질환보유 환자를 구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명공학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로, 생활용품 기능의 복합화 및 지능화를 들 수 있음. 예를 들어, 양치질 후 칫솔에 묻은 상피세포를 점검함으로써 매일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병원에 전송되어 담당 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됨. 또한 체온을 감지해주는 스마트 잠옷, 침대 머리맡에 부착된 소형 뇌파 검사기 등을 통해 뇌파, 안구운동, 심전도 등을 상시 체크할 수 있음. 이처럼 디지털 라이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교통정체를 최소화하는 시간 저소비지능형 교통망과 자동차

■ 자동차의 무인자율운전 실현

- 미래의 자동차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기반 위

에 기계, 전자, 통신, 제어를 기초분야로 하여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확보하여 사람과 화물의 운송은 물론 정보와 업무, 레저 공간으로 변모된 첨단 자동차” 라고 할 수 있음. 지능형 자동차의 기술은 크게 차량의 기능제어분야와 차량과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정보제공분야(텔레매틱스, 차량정보통신)로 나눌 수 있음

- 최근 구글은 스탠퍼드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셀프 주행 시스템 실험에 성공했으며,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폭스바겐의 파사트 등 7대의 차량이 개조가 되어 실험에 동원이 되었는데, 1,000(약 1,600km) 가량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무인으로 무사히 주행을 하였음. 무인 운전을 위해 자동차 상단에는 광선레이더,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위치 측정기, 신호등과 움직이는 사물을 식별하는 비디오카메라, 물체 탐지를 위해 범퍼에 전방 3개, 후방 1개의 센서가 탑재되었음. IT 기술이 발전되면 2040년경에는 무인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3-23] 구글무인자동차 사례

■ 차량의 무인운전을 실현시키는 도로교통망

- 자동차의 지능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도 교통 혼잡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도로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재원이므로 한정된 공간에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은

더욱 증가할 것임. 공간을 입체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운전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는 관심이 적기 때문에 장래에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임. 따라서 자동차의 독자적인 기술발전보다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과 공간효율(도로용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될 것임. 교통 혼잡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도로에서는 교통(도로)시설이 교통 수단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하부 일체화가 실현될 것임

- 자동차와 도로의 개념이 변화되고 첨단화되어가고 있지만 ITS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차량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완전 자동으로 주행하는 AVHS(Advanced Vehicle and Highway System)의 완벽한 실현은 2040년에도 특정한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어려울 수도 있음. 자동차 자체의 무인운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모든 도로시설에서의 무인자동차 운전에 대한 안전과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건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자동주행 자동차의 차선의 대안인 차량-도로 연계시스템(Cooperative Vehicle - Highway System : CVHS)은 2020년에는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2030년경에는 일반화될 것임. 즉 도로와 차량간, 차량과 차량간 완벽한 유비쿼터스형 도로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가 능동적으로 차량제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Active형 미래도로 단계를 우선 거칠 것임
- 이는 우리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것을 전제로 구현하는 것인데, 지능화된 첨단안전차량이 정보화도로를 주행하면서 단거리전용통신, 광대역통신 등의 무선통신기술과 DMB 등 디지털방송기술을 이용하여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간 정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방송/통신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장래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여 자동차, 도로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여도 상당기간 동안은 자동차와 도로가 상호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40년경에는 지능화된 도로가 차량의 주행을 전적으로 통제 및 제어함으로써 자율주행 및 군집운행 등 첨단제어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차량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완전 자동으로 주행하는 AVHS(Advanced Vehicle and Highway System)가 등장할 것임. 이러한 도로는 최소한 2040년 전후에 일부 전용고속도로 등에서 실현될 것임

3) 국제간 연결 초고속 교통망의 실현

- 2040년에는 전국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초고속 KTX로 인해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며, 수도권에서는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도심까지 30분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및 고속도로망이 2030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임
- 국제교통에서도 한반도와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망(철도, 도로), 대륙간 횡단 초대형 여객기,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개통되어 2020년에 이미 세계 최대의 시장, 공장 이자, 고도성장의 축이 된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더욱 결속시키게 될 전망이다. 열차 및 항공분야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고속 대량수송 항공기가 상용화될 것임

4) 개인선택형 교통수단의 등장

-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개인비행기나 개인선택형 대중교통, 1인용 교통수단이 실용화되거나 또는 일부 상용화될 것임. 현재 일부 시험용이 개발되고 있는 개인비행기의 경우 2030년경에는 자동차 크기로 차고에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자동차 운전만큼 손쉬운 조작과 자동차와 동일한 연비를 가지게 될 것임. 2040년경에는 도시부에서도 개인용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상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할 것임



[그림 3-24] 일인용 비행기 사례

- 또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혼합교통수단인 개인선택형 대중교통(PRT : Personal Rapid Transit)도 실현될 것임. Personal Rapid Transit는 대중교통의 노선 개념을 선(線) 개념에서 면(面)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써 노선이 선형이 아니고, 도시 곳곳으로 뻗어있는 대

중교통망임.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운행되므로 일종의 궤도택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25] PRT(Personal Rapid Transit)

5) 새로운 물류수송시스템의 등장

- 통행수요의 증가와 혼잡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람통행대신 물류통행을 사람통행과 분리하는 기술들이 실현될 것임. 모든 물건에 RFID를 부착시키고 물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시키는 기술이 실현될 것임.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보다 빠른 물류운송 요구 등으로 모든 물류에 인식장치를 부착하고 모든 물류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40년에는 가상현실에 의한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에 의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통행을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임. 하지만 소득수준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B2C(기업 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의 보급으로 시간을 지정하는 개별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한 물건을 즉각적으로 배송하기 위한 물류수송량은 현재보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화물차 전용도로나 차로를 설치해야겠지만 소음 및 대기오염, 교통안전, 화물운송의 정시성 확보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입체적 물류전용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40년 일부 지역에서는 진공터널, 마그네틱 와류장, 부력, 진공을 이용한 고속 물류운송 튜브망 등 여객수송수단과 분리된 초고속, 대

량 물류수송기술이 상용화될 것임

- 무인이송시스템(AGV, Cargo Domino)는 자동 운전되는 무인운반차량이 있는 공장 또는 사내에서 지상으로 물류를 이송 제어 하는 시스템을 말하나, 2030년 이후에는 특정 지역에서 물류시스템을 운반하는 장비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튜브수송 (Tube Transportation)은 튜브를 지하에 매설하여 그 가운데를 왜건 또는 캡슐에 의하여 대량의 화물을 완전한 자동화로 수송하는 방식으로, 구동은 공기의 압력 혹은 라이너 모터를 이용하며, 왜건방식에서는 컨테이너 트럭을 왜건에 적재하여 수송하는 데 대해서 캡슐식은 캡슐 속에 화물을 집어넣어 수송함. 현재는 실험 내지 계획단계이나, 2040년경에는 도심부 등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튜브물류수송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임. 이외에도 지상공간을 활용한 경량 튜브시스템도 검토되고 있음

다. 기술발전에 의한 삶의 질 증대

- 차세대 기술 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 바이오컴퓨터, 바이오칩 등의 신기술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가 가해져 융합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I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건강·의료 서비스 분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원격의료, 재택의료가 도입될 것이고, 유비쿼터스(u) 시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u-헬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임. IT융합기술시장의 가장 큰 분야인 u-헬스케어 시장규모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농업, 축산, 수산 등 기존 산업에도 IT가 도입되어 미래에는 산업 환경이나 생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류독감 등 전염병 감지 서비스 및 식품의 이력관리 등 거의 모든 생명공학산업분야의 획기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이 외에도 건축이나 의류 등 전통산업에도 홈 헬스나 바이오서츠와 같은 신제품이 개발되어 산업의 첨단화를 꾀할 수 있음. 이와 같이 I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전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1) 우리의 일상생활과 로봇

- 로봇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 중에서 힘든 노동의 빈도를 줄여주어 노동으로 인한 질환 감소와 함께 보다 생산적인 일이나 여가에 시간을 활용하도록 해주어 인간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것이며,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1차 산업과 국방 그리고 정밀한 수술을 요하는 병원 등에서 인간의 노동력 대체나 사고율 감소 등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증대시킴. 이를 위해서는 로봇의 안전성과 인간과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해져, 이와 관련된 규제와 제도가 함께 강화될 것임

2) 스마트세상

■ 스마트그리드

- 2040년의 에너지원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화석연료에서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으로 전환될 것이며, 초고성능 배터리가 각 가정에 설치되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에너지를 저장하게 될 것임. 국가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생활화되어 각 가정의 에너지 저장 상태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임. 특히 이 시대의 교통수단에는 지금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기로만 작동되는 전기자동차가 일반화 될 것임. 이러한 추세에 의해 주유소는 전기 충전소로 전환 될 것이며, 각 가정에서도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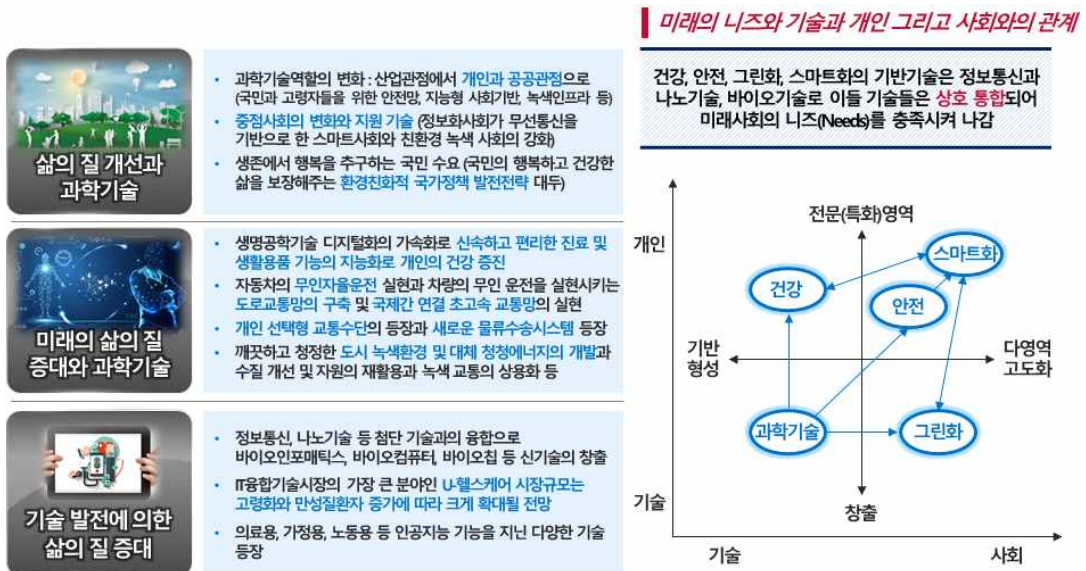
■ U-health

- 병원과 원거리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이 2040년에는 보편화되어 있을 것임. 원격진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급작스러운 통증에 접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가능한 원격진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환자로부터 병원이 너무 먼 곳에 있을 경우 원격진료는 이들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

■ 헬스케어

- 헬스케어의 핵심 기술은 인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기반의 표준화된 임상 치료 기술 등이라고 할 수 있음. 다양한 생체 측정기 등을 이용해 별도의 검사실로 옮기지 않고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임. 센서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과거에는 결과를 얻는 데 수 주가 소요되었던 검사 기간을 수 일, 또는 수 시간 내로 단축시키고 있음.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센서는 항원-항체 반응이나 DNA 결합 반응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특정 세균에 노출되었는지 아닌지를 금방 판별해 낼 수 있음



[그림 3-26] 미래전망 3 - 삶의 질과 과학기술

4. 미래전망 4 - 2040년에 부상하는 미래의 일자리

가. 미래 일자리 변화 동인

1) 기술의 진보

- 최근의 기술진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통해 일자리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어 가고 있음. 소위 기술의 새로운 DNA, 즉 데이터(D), 네트워크(N), 아키텍처(A), 알고리즘(A) 측면에서의 놀라운 발전은 데이터가 갖는 콘텐츠와 연결 매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면서 기존의 다양한 경계를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 관계가 다양하게 창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계의 역할은 크게 확대되고 일자리 환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갈 것임. 그 변화 속에서 인간 또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을 것임



자료 :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미래전략보고서, 2017,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3-27] 기술진보의 특성과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

2) 사회경제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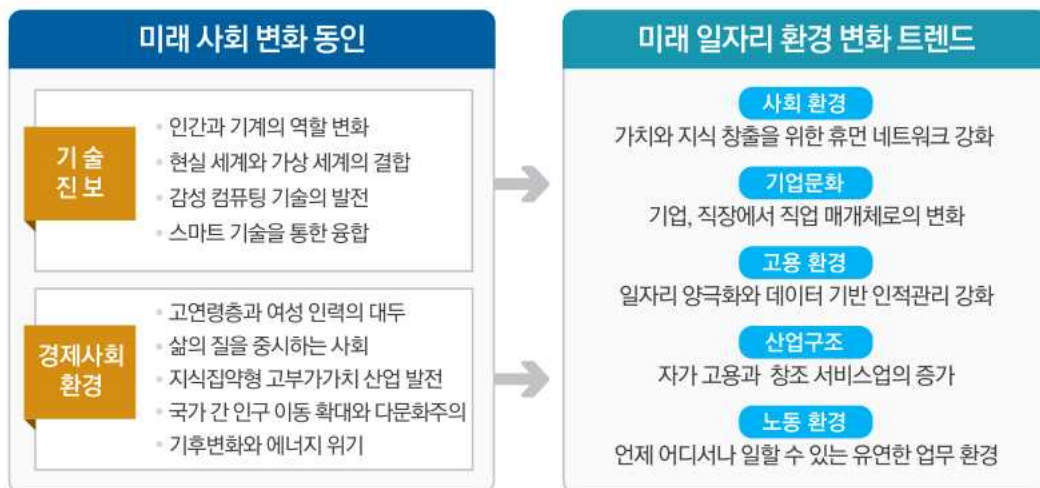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인구구조, 사회적 가치, 산업 환경, 국제 관계, 자연 환경 등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구조에서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 인력이 주요 노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여,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비중이 변화하고, 직업의 선택과 노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산업, 실버산업 등의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산업 환경에서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형태로 성장할 것이며, 서비스, IT,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소프트화가 심화될 것이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스마트 기술에 영향을 미쳐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전망이다

-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간 인구 이동 확대와 다문화 주의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 인구 다변화를 야기 하여 채용 시장 및 직장 문화의 다양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자연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예상됨. 이로 인해 자원 남용과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한 투자 증대와 관련 미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음

나. 미래 일자리 트렌드

1)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

- 기술 진보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미래 일자리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사회 환경, 기업문화, 산업구조, 고용 환경, 노동 환경 등 5가지 관점에서 주요한 변화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미래전략보고서, 2017,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3-28] 미래사회 변화 동인과 미래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

- 사회 환경에서는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며,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필요시마다 구인, 구직이 이루어는 새로운 형태의 구인 및 구직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 기업 문화에서는 기업의 의미가 직장에서 직업의 매개체로 변화해 갈 전망이며,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조직 중심의 문화가 개인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고, 열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일이 곧 행복’ 이 되는 사람 중심이 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 산업구조에서는 자가 고용이 증가하고 창조 서비스업이 발달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새로운 생산 형태가 강화되어 1인 기업과 같은 자가 고용(self-employment)이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되는 기업 구성이 변하고, 상상력의 가치 증가와 스마트 기술 발전이 결합하면서 이를 이용한 창조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임
- 고용환경에서는 일자리 양극화와 데이터 기반 인적관리가 강화될 것임.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 영입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적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환경에서는 유연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임.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동일한 컴퓨팅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임

2) 미래의 직업변화 트렌드

- 일자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의 모습 또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임. 특히 4개의 트렌드가 직업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간의 역할 변화는 물론 기존 직업의 발전, 분할, 연결과정을 통해 직업의 특성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미래전략보고서, 2017,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3-29]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

- 기계가 인간의 업무 영역을 일부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 기존 직업이 고부가 가치화될 것임
- 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수요 맞춤형 재화가 증가하면서 많은 직업이 전문화되고 세분화 될 것임
- 디지털 경제가 일반화되고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지식과 업무가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융합형 직업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임
- 우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직업들이 새롭게 출현할 것임



[그림 3-30] 2040년에 부상하는 20가지 일자리

5. 미래전망 5 – 미래 농촌의 실태 및 농림식품 기술 메가트렌드

가. 미래 농촌의 실태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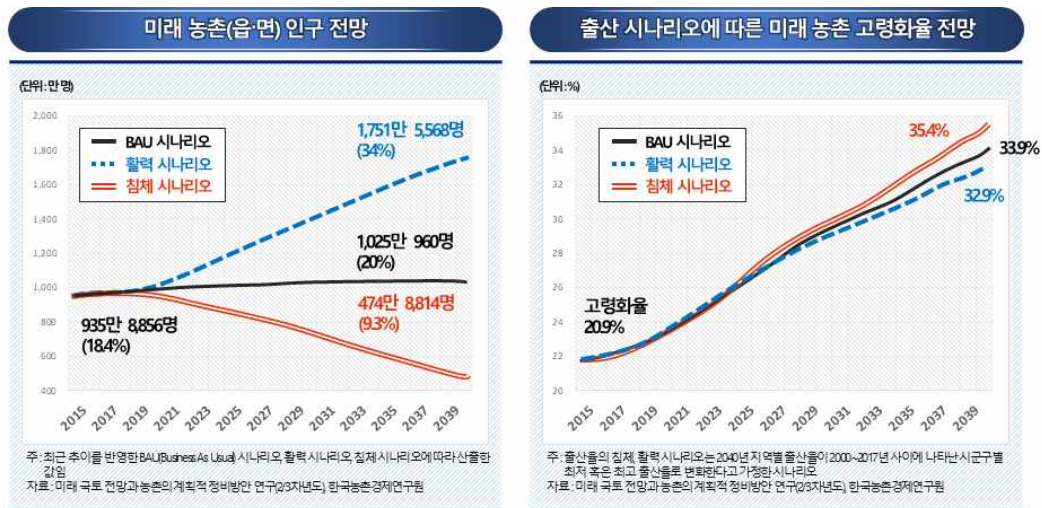
- 농촌은 우리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현재 농촌 인구는 약 936만 명이며, BAU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경에는 1,025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됨. 이는 2015년 전국 인구의 18.4% 수준에서 2040년 전국인구의 20.0%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임⁹⁾.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근교의 농촌이며 대부분의 농촌은

8) 미래 농촌 실태는 연구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미래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 이는 현재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것이다. 향후 인구 증가로 일부 군이 승격하거나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읍'이나 '면'이 동 지역으로 변하는 경우는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다를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반면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가 지금의 약 2배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약 1/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현재 고령인구가 20.9%에 이르고 있으며 2040년에는 3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저성장·저출산 기조 등 농촌이 침체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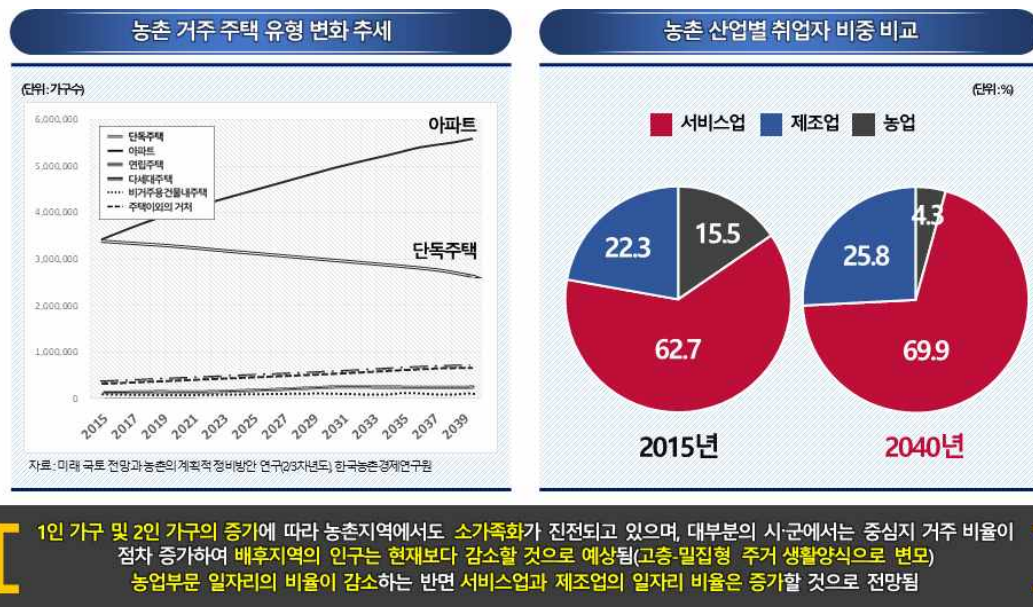


농촌인구는 2040년 전국 인구의 20.0% 수준까지 증가하지만 대도시 근교의 농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성장·저출산 기조 등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40년에는 3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31] 미래 농촌(읍·면)인구 및 미래 농촌 고령화율 전망

- 향후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2015년 1,911만 1,030호에서 2040년 2,256만 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서도 소가족화가 진전되어 가구 수가 753만호에서 991만 호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농촌 역시 1인·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파악됨
- 농촌의 인구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중심지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배후지역의 인구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배후지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후지까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도농복합시와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유형의 주택 거주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2040년경에는 아파트 주택 유형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농촌은 기존의 저층형 주거 생활양식에서 고층·밀집형 주거 생활양식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도농복합시 및 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의 실질 GRDP는 2015년 총 570,516조 원이며 GDP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향후 2040년경 농촌지역의 실질 GRDP는 1,425,677조 원으로 GDP의 5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즉, 미래의 농촌은 OECD 및 EU 국가들에서 말하는 새로운 농촌 경제(혹은 저밀도 경제)로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장소가 될 것임
-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2015년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취업자는 총1,086만 3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1.5%를 차지하고 있음. 주로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분야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편이며, 전체 대비 비율은 각각 62.7%, 22.3%, 15.0%를 차지함. 향후 2040년 농촌지역의 취업자는 1,289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 전체 대비 산업별 비율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순으로 각각 69.9%, 25.8%, 4.3%를 차지하게 되어 농업부문 일자리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3-32] 농촌 거주 주택 유형변화 추세 및 농촌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나. 메가트렌드 및 농림식품 트렌드 선정

- 농업농촌의 첨단화,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보존, 식품 첨단 가공/유통,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안전, 미래 에너지 활용, 미래형 질병 치료 등의 6가지 메가트렌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14개 세부 트렌드를 도출하였음

메가트렌드	트렌드	Keyword
농업농촌의 첨단화	기술융합형 농산업 패러다임 확산	IT, NT, BT 등의 기술 융합, 3D, 홀로그램
	자동화를 위한 로봇 활용 농업 생산	인공지능로봇, 원격 자동화시스템
	도심형 농장 및 에코시티의 확산	식물빌딩, 축산공장, 리조트팜, 심해농장
생태계의 변화	자원순환형 농업의 확산	자연모사 기술, 토양박테리아, 생물 정화
	농업생태보호체계 구축	생물 농약, 천적, 생태계 복원, 친환경 사료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	이산화탄소 감축, 사막녹지화 구축
식품가공 및 유통 혁신	농식품 초고속 유통망 구축	쾌속 배송, 무인비행기 (드론)
	개인 맞춤형 가공시스템 구축	식물성 달걀, 배양육, 안전포장기술, 전자혀 등
식품 안전	농식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	전자코, 농식품 신선도 유지기술
	안전한 농식품을 위한 품질관리 혁신	종자보호기술, DNA 개량, 친환경 축사관리
에너지 및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순환
	핵심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질병 치료	개인 맞춤형 의료 기술 발전	식물을 활용한 인공장기, 식물백신, 천연항생제
	가속전염병 및 병충해 치료 체계 혁신	슈퍼백신, 전염병 제어기술, 바이러스 안지센서, 전염병 원인 진단 키트

[그림 3-33] 메가트렌드 및 농림식품 트렌드 선정



[그림 3-34] 미래 농림식품 기술트렌드 사례

6. 미래전망 6 – 미래기술기반의 먹거리산업의 변화

가.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산업

- 6개의 메가트렌드로부터 도출된 식품트렌드 핵심요인 6개의 조합을 통해서, 4개의 프로세스(농업생산, 식품생산, 물류, 소비자) 별 미래기술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을 도출함
 - (스마트 가드닝) 미래 소비자는 안전성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니즈가 확보되길 원하여 직접 원료를 기르는 스마트 가드닝 산업 가능성 높음
 - (중개플랫폼) 미래 소비자는 그들이 원하는 제품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에 익숙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받기를 위하여 중개플랫폼이 보다 발전할 것임
 - (대체소재)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업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소재 산업 가능성 높음
 - (맞춤형 가공/서비스) 미래 소비자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신의 다양한 기호와 건강에 대한 니즈를 섬세하게 충족하는 제품/서비스에 편안함을 느끼며, 맞춤형 서비스가 상용화가 될 것임



[그림 3-35]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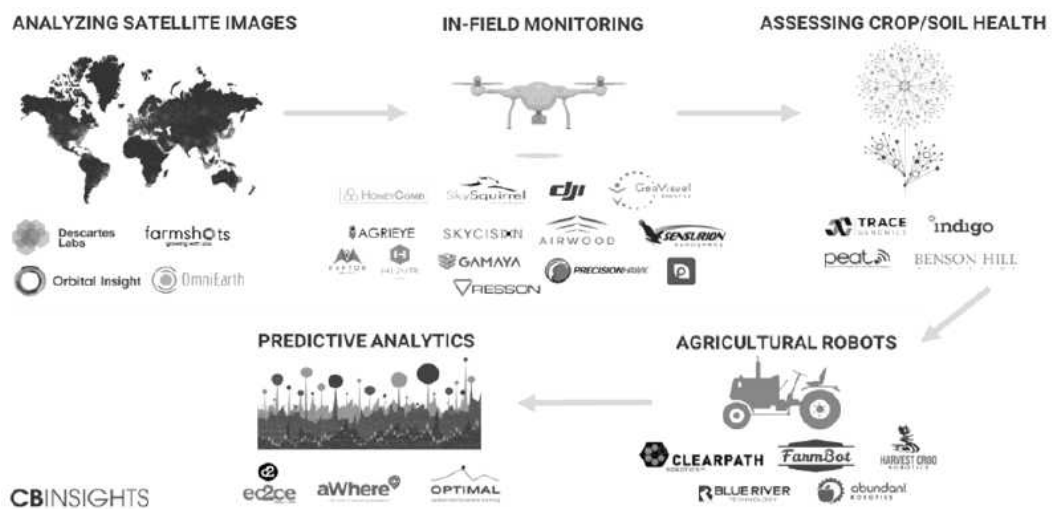
- 이러한 주요산업을 통해서 도출된 미래기술을 살펴보면 전통적 기술과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 기반 기술이라는 점과 융합이 가속화 된다는 점임
 - 데이터를 생산, 관리, 분석, 의미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기술로 부각됨. 스마트 가드닝의 경우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식물생장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D2C 중개플랫폼, 맞춤형 서비스 등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술임

- 기술간의 융합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제품개발을 넘어 소비자의 기호,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융합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1) 스마트농업

- 스마트 농업은 기존 농업에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디지털농업, 정밀농업, 스마트팜 등으로 세분화됨.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이 스마트 농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음
- (스타트업 주요 기술 분야) 정밀농업 및 예측분석 기업,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스마트 물관리 기업, 로봇과 드론 기업, 센서기술 기업, 생장데이터 분석 기업 등
-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분야)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기술, 드론을 통한 모니터링 기술, 작물 상태 측정 기술, 예측 분석기술, 농업 로봇 기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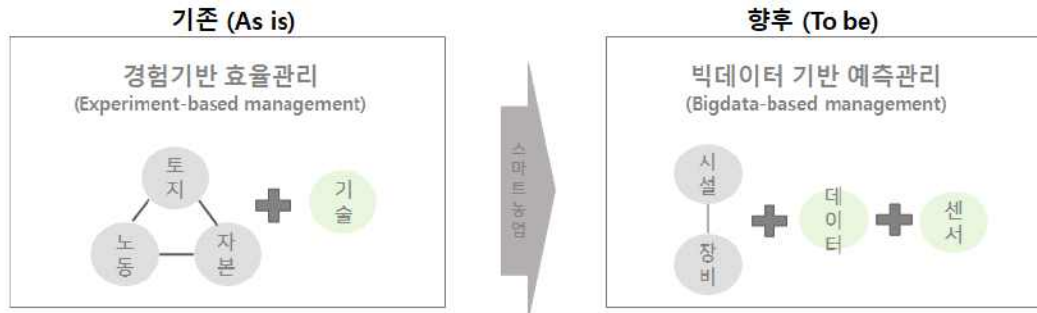


자료: CBINSIGHT

[그림 3-36]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산업지도

- 이러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은 효율적인 관리체계에서 예측 기반의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기존 생산은 ‘경험기반 효율관리’로서 토지, 농업, 자본에 기술을 더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로서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임

- 스마트 농업은 ‘빅데이터 기반 예측관리’로서 시설과 장비에 데이터와 센서를 더해
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의 절감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생산자 중심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비교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그림 3-37] 스마트농업의 관리체계 변화



[그림 3-38]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산업(1)

2) 맞춤형 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식품 소재에 대한 건강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서비스가 연결된 건강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식품 소재의 경우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건강 요소를 추가하는 동향이 꾸준히 나타나

고 있음

- 최근에는 유전자, 대사, 마이크로비옴 등 맞춤형 식품 개발을 위한 인간 신체에 대한 연구를 더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제품에 더해 구매, 보관, 조리, 관리 등 전 체계에 걸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건강 솔루션 모델로 접근하고 있음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연구된 과제이며, 글로벌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네슬레의 경우 2011년 건강과학 연구소(NIHS)를 설립하였고, 스위스와 미국 두군데의 연구원 수만 5천명에 이르며, 2015년에만 약 2조원을 투자하였음
- 자체 연구이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으며, 네슬레의 경우 2013년 ‘실리콘 벨리혁신센터’를 수립하여 HENRi@Nestle라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출범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프로젝트별 5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딩 프로그램, 디지털 뉴트리션, 진단기기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스타트업의 경우, Habit.com 이 잘 알려졌으며, 개인의 유전자 생활데이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고, 이를 배달 서비스 기업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유전자분석 스타트업과 아침죽 배달서비스 스타트업 간의 연계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임



[그림 3-39]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산업(2)

7. 미래전망 7 - 미래 관광산업의 변화

가. 여행객 수요의 변화 : 고령화와 접근 가능한 관광

- 여행객 수요의 변화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고령화 진전이라는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됨. 세계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은 204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러한 변화가 관광에 가져올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움. 유럽 선진국의 고령자는 구매력을 지니고 있고 여행 선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향후 그 구매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임.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로 은퇴 연령이 늦춰질 수도 있으며 제한적인 연금 등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농후함
- 고령화에 따라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의료관광의 성장 및 모든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세대 여행의 증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나.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관광 지역 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극한의 기상 이변으로 항공기 출항이 제약을 받게 되거나 해안 지역의 폭풍 등 재난이 이어지거나 겨울철 강설이 줄어드는 등 잠재적 변화가 존재함.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국경을 넘는 다각적인 범주의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관광은 환경적 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 관광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항공부문의 탄소 배출은 2035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집중 소비(샤워, 온천, 수영장, 스키, 골프장 등)로 인한 수질악화나 수자원 고갈 등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관광은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스칸디 호텔(Scadic Hotel) 체인은 유기농과 공정거래 커피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2)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 관광명소에서는 대규모 관광객이 지역의 수용능력을 넘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덜 알려진 관광지에 관광객이 유입함으로써 생활비 상승 및 주택시장 압력이 가해지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fication)’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관광수요 분산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암스테르담은 여행자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 패스를 고안하였고, 포르투갈은 해안지역 관광객 분산을 위해 내륙 지역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그리스는 비수가 휴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도했으며 이탈리아 북부의 친퀘테레(Cinque Terre) 공원은 관광객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시범운영 하고 있음

다. 기술진보

1)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관광의 재구성

- 기술부문의 주요 메가트렌드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 및 성장과 관련됨. 기술혁신으로 소비자 편의는 제고됐지만 한편 관광산업 및 관광지는 선택받기 위해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디지털 존재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여행지 선택에 있어서 SNS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여행사를 이용하기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공유경제도 지난 5년간 급성장하면서 관광경제의 상당부분을 재편하고 있음. 숙박공유 플랫폼 및 차량 공유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여행현지 경험상품(식사 및 체험) 부문의 공유경제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음

2)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대응 필요

- 향후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관광경험 및 관광산업은 더욱 크게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과 동시통역기술, 블록체인 기술, 가상현실(VR) 등은 관광경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 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도입될 것인지 기술의 발전이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 단정 짓기는 어려움.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기업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관광비용이 증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임

- 기술 진보 시대, 관광지역 및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는 글로벌 대기업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국제협력을 통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

자료:OECE Tourism Trend and Policy 보고서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idxno=18625>

“미래 관광산업”

관광산업 인프라 부족
접근성 개선 필요

서비스산업의 증가
미래 과학기술의 적용

환경의 변화(기후변화/에너지 고갈)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여행객 수요의 변화:
고령화와 접근 가능한 관광

여행객 수요의 변화로 **고령화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의료 관광의 성장, 다세대 여행의 증가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

환경가치로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및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관광산업을 통해 환경 가치와 지역 산업이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고, 지나친
관광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관광의
재구성 및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대응 필요

기술혁신으로 소비자 편의는 제고됐지만 관광산업 및 관광지는 선택 받기
위해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디지털 존재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기술 진보 시대, 관광지역 및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문화**를
장려하여야 함

[그림 3-40] 미래 관광산업의 변화

8. 미래전망 8 –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

가.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재활용 수요 증대

- 물 부족이나 지하수의 염화 및 오염, 습지 축소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빗물 및 하수 처리수 이용, 지역 내 물 재이용 및 순환체계, 상수도 유수율 증대 등 수원확보의 중요 이슈화
 -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포츠다머 플라자는 빗물을 재활용한 성공적 사례로 옥상녹화, 지하저류, 저수 등으로 우수를 유입하도록 계획 및 설계함으로써 우수유출의 99%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았음. 인천의 물 부족 미래이슈는 이러한 우수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 등의 대안 가능
- 생태적 공생, 녹색생활, 저탄소 청정에너지, 자원순환, 제로 배출 등 실현의 요구가 증대됨
 - 자원채취 이용 및 폐기의 반복에 대응하는 산업생태학적 원리 적용에 의한 자연자원

의 순환이용 확대 및 폐기물 매립의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 예상



[그림 3-41]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1)

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위협

- 환경오염을 포함한 유해환경인자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시민 건강이나 생태계교란의 위협이 점차 커질 것임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황사, 스모그, 소음·진동, 자외선 및 빛 공해, 전리방사선, 전자파, 광화학산화물 생성물질 및 오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POPs), 내분비계 교란물질(EDs) 등에 노출에 따라 건강 위협 증가
 - 유독물, 유독물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가능성 증가
 - 현재 유해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노물질, 잔류성 의약품,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잠재적 생태계 독성영향물질 등 장래 환경노출을 통한 잠재적 건강 위해성 또는 생태계 파괴 요인이 확인됨으로써 환경위협 범위의 확대

다. 식량체계에 대한 대응 필요

- 미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등이 가능할 것임

- 인구증가, 재배지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식량부족은 국제 곡물가 가격 상승, 농업용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도시농업과 연계하여 도시 식량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
- 뉴욕, 벤쿠버 등 선진 도시는 식량체계라는 거시적 접근으로 도시농업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천에서도 식량 보장,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보전, 녹색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농업과 연계하는 도시 식량 시스템 창출이 필요



[그림 3-42] 청정한 에너지, 깨끗한 물 자원의 중요성(2)

9. 시사점

-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비중 축소와 국가간 불평등 양극화
- 다국적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공동체 사회의 발전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니즈(Needs)를 반영한 생활환경으로 전환
- 수요공급의 긴밀성과 기호 다양성을 감안한 맞춤형 생산, 가공, 서비스와 시스템 생성
- 기후변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다양성 유지
- 지속가능성, 사회윤리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대체 소재의 발전

- 농업 비중은 1/3 수준으로 감소, 제조와 서비스업 비중 증가
- 미래기술 기반의 식품산업은 맞춤형 서비스 기반으로 발전
- 미래의 관광산업은 고령 접근 가능한 관광, 중산층, 신중세대의 트렌드를 반영 예상
-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수요공급과 환경가치를 고려한 사회환경의 재구성
-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재활용 수요 증대 및 수자원 확보의 중요 이슈화와 유해환경과 식량체계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대응 정책 확대

1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비중 축소와 국가간 불평등 양극화	2	다국적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공동체 사회의 발전
3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4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니즈(Needs)를 반영한 생활환경으로 전환
5	수요공급의 긴밀성과 기호 다양성을 감안한 맞춤형 생산, 가공, 서비스와 시스템 생성	6	기후변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다양성 유지
7	지속가능성, 사회윤리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대체 소재의 발전	8	농업 비중은 1/3 수준으로 감소, 제조와 서비스업 비중 증가
9	미래기술 기반의 식품산업은 맞춤형 서비스 기반으로 발전	10	미래의 관광산업은 고령 접근 가능한 관광, 중산층, 신중세대의 트렌드를 반영 예상
11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수요공급과 환경가치를 고려한 사회환경의 재구성	12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재활용 수요 증대 및 수자원 확보의 중요 이슈화와 유해환경과 식량체계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대응 정책 확대

[그림 3-43] 한국의 2040년 미래트렌드 시사점

4 정선군 미래사회 전망

1. 농촌지역의 현실과 장래 발전 여건

가.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여건

- 농촌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보았음
-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분야별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0~10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도·농 간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도시민이 평가한 정주 만족도 점수가 높은 값을 기록하였음(60대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 부문은 예외)
- 도시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특히 낮은 분야는 경제·일자리 및 문화·여가이며, 이어서 보건복지 및 교육 부문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일수록 거주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어, 농촌이 젊은 세대의 거주 공간으로서 매력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줌

부 문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민	농촌 주민	도시민	농촌 주민	도시민	농촌 주민
보건복지	6.6	5.2	6.8	5.5	7.0	6.0
교육	6.1	5.2	6.3	5.4	6.4	6.0
정주생활기반	6.8	6.0	6.9	6.2	7.2	6.5
경제·일자리	5.6	4.9	5.6	5.0	5.3	5.4
문화·여가	5.9	4.9	6.1	5.2	6.2	5.8
환경경관	6.0	5.5	6.2	5.7	6.5	6.3
안전	6.6	5.8	6.8	6.3	7.0	6.7

주: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척도의 집단별 평균값임(0점 낮음 ~ 5점 보통 ~ 10점 높음).

자료: 2018년 KREI의 도시농촌 주민(3,152명)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도시민 949명, 농촌 주민 2,203명)

[그림 3-44]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분야별 정주 만족도(연령별 비교)

- 서비스 분야를 보다 세분하여 농촌 주민들이 특히 열악하다고 평가한 항목을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 및 문화·여가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림 3-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도 점수가 낮거나 도시 대비 격차가 큰 항목들은 의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아동 양육 및 출산, 복지서비스 이용, 문화·여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서비스들 중에는 응급의료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에 국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있는 반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 프로그램 같이 지역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음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구 분	분 야	세부 서비스 내용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서비스 항목	보건복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종류, 수준이 양호하다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돌봄,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고 이용 가능하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문화·여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문화·체육 강좌, 공연, 영화 등)
도시 대비 주민 만족도 격차가 큰 서비스 항목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종류, 수준이 양호하다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돌봄,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고 이용 가능하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문화여가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문화·여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문화·체육 강좌, 공연, 영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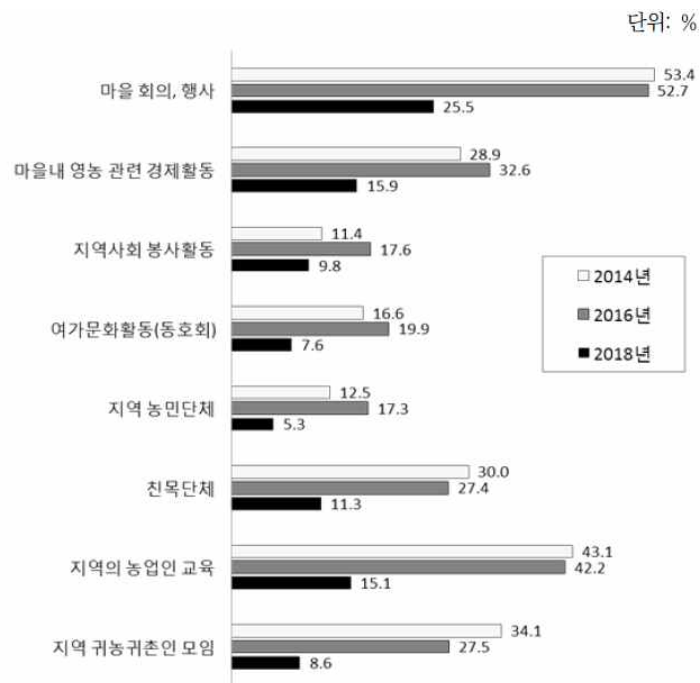
주 1) 2018년 KREI의 도시 및 농촌 주민(3,152명)의 세부 서비스 항목별(35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점수값이 낮은 항목(하위 10개) 및 도시와의 점수 격차가 큰 항목(12개)을 표시

2) 만족도 점수 값이 낮은 동시에 도·농 격차도 큰 7개 항목은 음영으로 강조

[그림 3-45] 농촌주민의 정주 만족도가 낮은 세부 서비스 항목

나. 다양한 인적 자원의 농촌 공동체 활동 참여 여건

-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귀농·귀촌인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유입 계층이 농촌에 정착하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연도별 패널 조사¹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활동 종류별 귀농·귀촌인의 참여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3-46>에 제시되었는데, 동일한 응답자인데도 2014년 대비 2018년 참여 비율이 모든 활동 종류에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초기에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 조직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농촌에 이주해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만한 공동체 조직, 단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현재로는 많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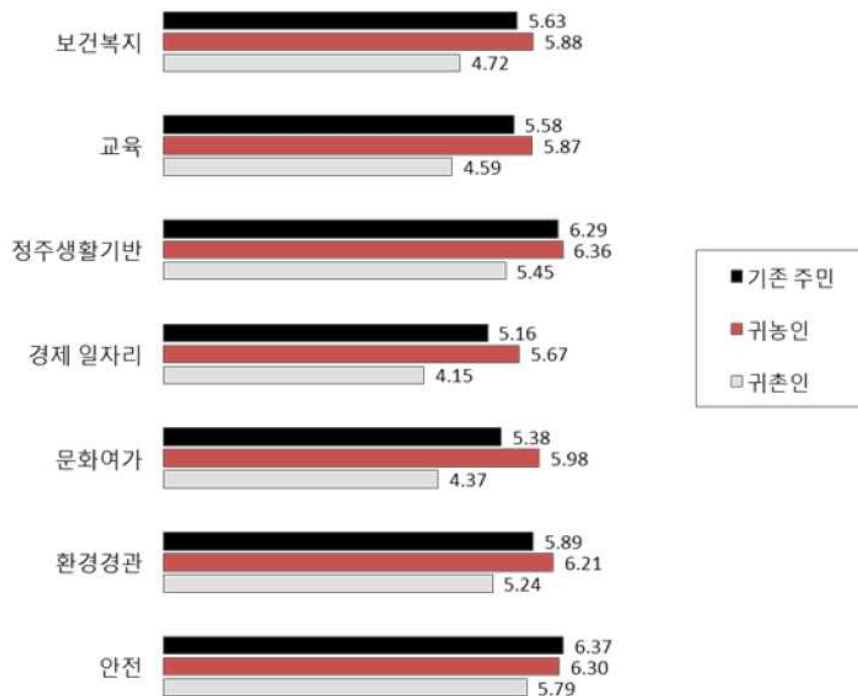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패널 1천 명 중 각 연도마다 조사에 참여한 610명을 선별, 각 활동별 참여 비율을 집계
 자료: 연도별 KREI 조사 데이터 재집계

[그림 3-46] 귀농·귀촌인의 연도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율 변화 추이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4년에 귀농·귀촌인 패널 1천 명을 선정하여 매년 추적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한 패널 610명을 선별하여 동일 문항에 대한 시기별 응답 변화를 비교하였다.

- 지역 공동체 활동이 제한적일 경우, 귀농·귀촌인 입장에서는 여가·문화나 친목 활동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창출을 통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 정주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됨
 - 실제로 <그림 3-47>에서는 주민 유형별로 농촌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귀촌인 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타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일자리 분야 및 문화·여가 분야에서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 농사를 주목적으로 이주한 귀농인 집단에 비해 농촌에서의 여가 및 취미 생활, 공동체 참여 등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인 집단일수록 지역사회 활동 기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적 농촌 정착이 영향을 받을 것임
 - 기존 주민 입장에서조차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폭넓게 존재할수록 다양한 커뮤니티 인력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예상 가능한데, 현실은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 힘든 것임



주: 2018년 KREI에서 조사한 농촌 주민(2,203명)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 점수(10점 만점)를 주민 유형별로 집계

[그림 3-47] 주민 유형별 농촌 정주 만족도

-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집계한 <그림 3-48>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교육이나 정보 제공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과 같이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기존 영농 정착 지원 중심의 귀농정책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영역이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 발굴이 요구됨
 - 일자리 발굴 및 효과적인 매칭 등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기반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주택 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책 역시 지역사회 차원의 준비와 관련 중간지원 조직 등 활동 주체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들이라 할 수 있음



주: 필요한 지원 시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집계
 자료: 귀농·귀촌인 610명에 대한 2018년 KREI 조사 데이터 집계

[그림 3-48]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 농촌사회의 정주민족도 조사, 농촌경제연구원(2019)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도시민이 평가한 정주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가 낮거나 도시 대비 격차가 큰 항목들로는 의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아동 양육 및 출산, 복지서비스 이용, 문화여가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이 필요함

[그림 3-49]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 여건(전국 농촌지역 대상)

2. 정선군 미래 인구구조 변화(늘어나는 고령인구)¹¹⁾

가.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 과거추세연장법

- 모형식에 의한 추정치는 과거추세 연장에 의한 방법으로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지수함수법, 로지스틱함수법에 의한 모형을 적용하였음

[표 3-7] 모형식에 의한 인구예측

(단위 : 인)

구분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함수	로지스틱함수	비고
장래인구 (인)	2015	39,197	39,197	38,974	39,178	38,034
	2016	38,872	38,778	38,597	38,716	37,740
	2017	38,546	38,363	38,220	38,250	37,447
	2018	38,221	37,952	37,843	37,781	37,154
	2019	37,896	37,546	37,466	37,308	36,863
	2020	37,570	37,144	37,089	36,831	36,573
	2021	37,245	36,747	36,712	36,351	36,283
	2022	36,920	36,354	36,334	35,867	35,995
	2023	36,594	35,965	35,957	35,379	35,707
	2024	36,269	35,580	35,580	34,888	35,421
	2025	35,944	35,199	35,203	34,393	35,135
	2026	35,618	34,823	34,826	33,894	34,851
	2027	35,293	34,450	34,449	33,392	34,568
	2028	34,968	34,081	34,071	32,886	34,285
	2029	34,642	33,717	33,694	32,375	34,004
	2030	34,317	33,356	33,317	31,861	33,724
	2031	33,992	32,999	32,940	31,343	33,446
	2032	33,666	32,646	32,563	30,821	33,168
	2033	33,341	32,297	32,186	30,295	32,891
	2034	33,016	31,951	31,808	29,765	32,616
	2035	32,690	31,609	31,431	29,232	32,342

자료 : 모형식에 의한 인구예측은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자료를 재인용하였음

11) 정선군 계획인구 추정값은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연구 추정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2)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추정결과

- 2035년의 추정인구에 대하여 등차급수식에서 가장 많은 32,690인이 추정되었고, 지수합수식에서 29,232인으로 가장 적은 인구가 추정되었음
- 인구추정에 사용된 5가지 모형 전체 평균값은 31,461인 임

[표 3-8] 과거추세연장법 추정 결과 (단위 : 인)

구분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합수	로지스틱합수	평균
2020	37,570	37,144	37,089	36,831	36,573	37,041
2025	35,944	35,199	35,203	34,393	35,135	35,175
2030	34,317	33,356	33,317	31,861	33,724	33,315
2035	32,690	31,609	31,431	29,232	32,342	31,461

자료 : 과거추세연장법 추정 결과는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자료를 재인용하였음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 모형식 추계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신뢰도가 높은 모형식은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법을 선정

[표 3-9] 과거추세연장법 산정검증 (단위 : 인)

구분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합수	로지스틱합수
MAPE법 (평균오차백분율법)	0.67	1.18	0.76	1.28	3.29
CRV법 (상대분사계수법)	0.0242	0.0326	0.0281	0.0327	0.0229
RMS법 (평균제곱근법)	401	636	372	681	1,371

자료 : 과거추세연장법 산정검증은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자료를 재인용하였음

3)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계획인구 산정

- 선정된 3가지의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31,910인으로 추정되었으며, 2015년 인구 대비 7,287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계획인구 산정 (단위 : 인)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등차급수	39,197	37,570	35,944	34,317	32,690
등비급수	39,197	37,144	35,199	33,356	31,609
최소자승법	39,197	37,089	35,203	33,317	31,431
평균	-	37,268	35,449	33,663	31,910

자료 :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계획인구 산정은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자료를 재인용하였음

나.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생잔법에 의한 조성법)

1) 산정기준 설정

■ 산정기준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 추정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
- 10년간 출생아수를 산출하여 성비에 따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고, 각 연령계급별로 사망 확률을 곱하여 장래인구 추정
- 5세 계급을 토대로 5년 단위의 인구 추정(2015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 자연증가분 추정을 위한 집단 생잔법 5세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인구에 대한 5세 계급자료가 없으므로, 외국인 인구수는 제외하여 최종 인구수 집계

■ 추정식

- 순수한 자연증가분을 계상하기 위해 인구 전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률 및 사망률만 적용하여 추정

$$P_t = P_0 + B_{0-t} - D_{0-t} \quad P_t : t\text{시점의 인구} \quad B_{0-t} : 0\text{시점과 } t\text{시점사이의 출생인구}$$

$$P_0 : 0\text{시점의 인구} \quad D_{0-t} : 0\text{시점과 } t\text{시점사이의 사망인구}$$

■ 출생률과 사망률

- 생잔(사망)율 및 출산율은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강원도 지역 적용

[표 3-11] 장래 강원도 가임여성 천명당 출산율(2015~2035)

연령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TFR	0.2622	0.2632	0.2716	0.2794	0.2882
15~19세	0.0020	0.0027	0.0027	0.0027	0.0027
20~24세	0.0177	0.0122	0.0119	0.0119	0.0119
25~29세	0.0778	0.0569	0.0555	0.0547	0.0547
30~34세	0.1161	0.1164	0.1173	0.1181	0.1192
35~39세	0.0428	0.0630	0.0707	0.0773	0.0838
40~44세	0.0056	0.0103	0.0117	0.0128	0.0140
45~49세	0.0001	0.0018	0.0019	0.0019	0.001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생명표(강원도)

주 : TFR(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의 여자인구 1천명당 해당연령의 출생아수

[표 3-12] 장래 강원도 출생성비(2015~2035)

(단위 : %)

구분	출생성비 (여아 1백명당 남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강원도	102.5	102.5	102.5	102.4	102.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생명표(강원도)

[표 3-13] 장래 강원도 인구 사망률(2015~2035)

(단위 :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4세	0.00282	0.00233	0.00194	0.00181	0.00144	0.00133	0.00107	0.00100	0.00081	0.00075
5~9세	0.00055	0.00044	0.00035	0.00031	0.00026	0.00022	0.00019	0.00016	0.00014	0.00012
10~14세	0.00057	0.00042	0.00036	0.00031	0.00027	0.00023	0.00020	0.00017	0.00015	0.00013
15~19세	0.00137	0.00078	0.00087	0.00060	0.00068	0.00046	0.00053	0.00037	0.00042	0.00029
20~24세	0.00205	0.00125	0.00141	0.00104	0.00111	0.00081	0.00088	0.00065	0.00070	0.00051
25~29세	0.00344	0.00202	0.00280	0.00173	0.00228	0.00140	0.00185	0.00114	0.00151	0.00092
30~34세	0.00506	0.00314	0.00410	0.00266	0.00338	0.00217	0.00278	0.00180	0.00229	0.00147
35~39세	0.00670	0.00379	0.00544	0.00310	0.00453	0.00256	0.00377	0.00214	0.00312	0.00177
40~44세	0.01072	0.00504	0.00898	0.00407	0.00751	0.00338	0.00626	0.00283	0.00521	0.00235
45~49세	0.01774	0.00698	0.01522	0.00570	0.01281	0.00477	0.01075	0.00403	0.00900	0.00335
50~54세	0.02671	0.00986	0.02358	0.00832	0.01991	0.00698	0.01675	0.00590	0.01404	0.00493
55~59세	0.03624	0.01205	0.03167	0.01017	0.02673	0.00852	0.02247	0.00720	0.01883	0.00601
60~64세	0.04976	0.01813	0.04416	0.01616	0.03741	0.01358	0.03156	0.01152	0.02652	0.00964
65~69세	0.07207	0.02884	0.06318	0.02514	0.05421	0.02141	0.04633	0.01837	0.03943	0.01556
70~74세	0.11830	0.05063	0.10566	0.04574	0.09360	0.04023	0.08267	0.03559	0.07275	0.03115
75~79세	0.20659	0.09868	0.18859	0.09129	0.17130	0.08224	0.15519	0.07443	0.14014	0.06676
80~84세	0.31882	0.19409	0.29899	0.18187	0.27955	0.16888	0.26095	0.15725	0.24298	0.14545
85세 이상	0.72774	0.66094	0.71927	0.65210	0.70954	0.64303	0.69995	0.63437	0.69021	0.6251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강원도)

2)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결과

- 기준년도 2015년의 인구 39,197명 보다 2020년에는 873명이 감소한 38,324명, 2025년에는 약 2천명이 감소한 37,252명, 2030년에는 약 3.4천명이 감소한 35,762명으로 산정되었음
- 계획목표년도인 2035년에는 기준년도보다 약 5.1천명이 감소된 34,075명으로 감소 추정됨

[표 3-14]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 추정치<계속>

(단위 : 인)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외국인 제외)	39,197	20,253	18,944	38,324	19,844	18,480	37,252	19,299	17,953
0~4세	1,119	569	550	1,150	589	561	1,085	556	529
5~9세	1,320	675	645	1,116	567	549	1,148	588	560
10~14세	1,400	735	665	1,320	675	645	1,116	567	549
15~19세	1,889	976	913	1,400	735	665	1,320	675	645
20~24세	1,807	1,005	802	1,887	975	912	1,399	734	665
25~29세	1,691	914	777	1,804	1,003	801	1,885	974	911
30~34세	2,012	1,114	898	1,686	911	775	1,800	1,000	800
35~39세	2,381	1,373	1,008	2,003	1,108	895	1,680	907	773
40~44세	2,701	1,607	1,094	2,368	1,364	1,004	1,994	1,102	892
45~49세	3,090	1,777	1,313	2,678	1,590	1,088	2,352	1,352	1,000
50~54세	3,483	1,866	1,617	3,049	1,745	1,304	2,648	1,566	1,082
55~59세	4,237	2,233	2,004	3,417	1,816	1,601	2,997	1,704	1,293
60~64세	3,195	1,648	1,547	4,132	2,152	1,980	3,343	1,758	1,585
65~69세	2,486	1,201	1,285	3,085	1,566	1,519	4,005	2,057	1,948
70~74세	2,570	1,177	1,393	2,362	1,114	1,248	2,948	1,467	1,481
75~79세	1,965	815	1,150	2,360	1,038	1,322	2,187	996	1,191
80~84세	1,077	365	712	1,684	647	1,037	2,043	842	1,201
85세 이상	774	203	571	823	249	574	1,302	454	848

[표 3-14]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 추정치

(단위 : 인)

구분	2030년			2035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외국인 제외)	35762	18577	17185	34075	17753	16322
0~4세	1105	566	539	1130	579	551
5~9세	1083	555	528	1103	565	538
10~14세	1148	588	560	1083	555	528
15~19세	1116	567	549	1148	588	560
20~24세	1320	675	645	1116	567	549
25~29세	1397	733	664	1319	674	645
30~34세	1882	972	910	1395	732	663
35~39세	1795	997	798	1877	969	908
40~44세	1674	903	771	1789	993	796
45~49세	1983	1094	889	1666	897	769
50~54세	2330	1335	995	1967	1082	885
55~59세	2609	1535	1074	2302	1313	989
60~64세	2940	1658	1282	2567	1501	1066
65~69세	3255	1692	1563	2873	1606	1267
70~74세	3851	1945	1906	3148	1614	1534
75~79세	2751	1330	1421	3622	1784	1838
80~84세	1918	825	1093	2439	1124	1315
85세이상	1605	607	998	1531	610	921

[표 3-15] 자연적 인구증가 총괄

(단위 : 인)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자연증가인구	39,197	38,324	37,252	35,762	34,075

다. 사회적 증가 인구 추정

1) 인구 추정을 위한 외부유입률 및 지표 선정

■ 기본방향

- 사회적 증가인구는 택지개발, 농공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종사자, 부양가족 등 유입 유발인구와 서비스유발인구로 추정
- 인구유입률은 상위계획의 지표와 강원권 타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 유입인구’를 산정

■ 산정기준

- 계획인구(유발인구)는 개발유형에 따라 주택 및 산업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산업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인구 및 세대수, 고용계획인구를 적용하고, 관광개발사업은 각 사업별 추정사업비와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계획인구를 산정
- 외부유입률은 상위계획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강원권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하여 50%로 적용
- 서비스유발율은 상위계획과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하여 30% 적용
- 세대당 인구와 기혼율을 2015년 정선군 통계자료와 사회조사보고서 상 지표 동일 적용

[표 3-16] 외부유입률 및 지표 산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계획인구 (유발인구)	주택개발	• 주택사업 개발계획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된 계획인구 및 세대수 적용
	산업개발	•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사업비 및 종업원 고용계획인구 적용
	관광개발	• 각 관광개발사업 추정사업비×고용유발계수(14.0인/10억원) - 한국은행 산업별 고용유발계수(2014년) 문화·서비스부문 적용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고용유발계수(12.0인/10억원)
외부유입률		• 상위계획 지표 및 강원권 사례 등 고려하여 50% 적용 - 강원권 2030년 도시기본계획 사례(춘천 40~60%, 원주 30~80%, 동해 60%) ※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상 30~60%
세대당 인구		• 2.0인/세대 적용 - 현재 2016년 정선군 통계연보 상 세대당 인구 2.0인 유지
서비스유발율		• 상위계획 지표 및 강원권 사례 등 고려하여 30% 적용 - 강원권 2030년 도시기본계획 사례(춘천 30%, 원주 30%, 동해 30%) ※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상 20~40%
기혼율		• 63% (2015년 정선군 사회조사보고서 상 기혼율) 적용

자료 : 외부유입률 및 지표 산정기준은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자료를 재인용하였음

2) 사회적 증가 인구 추정결과

■ 사회적 증가 인구 총괄

[표 3-17] 사회적 인구증가 총괄

(단위 : 인)

구분		위 치	유발인구 (A)	외부 유입인구 (B)	외부유입 부양인구(C)	서비스 유발인구 (D)	서비스 유발 부양인구 (E)	총 유입인구 (F)
총계 (16개 사업)		-	15,014	7,507	4,730	4,504	2,839	19,580
주택 개발	소계	-	3,728	1,864	1,174	1,118	705	4,861
	사북직전지구	사북읍	2,590	1,295	816	777	490	3,377
	고한행복주택사업	고한읍	300	150	95	90	57	391
	고한파인애플유아파트	고한읍	598	299	188	179	113	780
	신동읍근로자아파트	신동읍	240	120	76	72	45	313
	산업 개발	소계	-	250	125	79	75	47
	신동예미농공단지	신동읍	250	125	79	75	47	326
관광 개발	소계	-	11,036	5,518	3,476	3,311	2,087	14,393
	강원카지노리조트	사북읍	150	75	47	45	28	196
	강원랜드 확장	고한읍	4,109	2,055	1,294	1,233	777	5,358
	강원하이랜드레저타운	사북읍	1,159	580	365	348	219	1,512
	화절령숙박단지	사북읍	324	162	102	97	62	424
	백운밸리조성사업	사북읍	812	406	256	244	153	1,059
	구절지구관광개발	여량면	450	225	142	135	85	587
	숙암레저단지	북평면	1,869	935	589	561	353	2,437
	새골위락시설	신동읍	1,680	840	529	504	318	2,191
	아우라지종합개발	여량면	280	140	88	84	53	365
	참숯힐링랜드	사북읍	158	79	50	47	30	206
	삼탄아트밸리2단계	고한읍	45	22	14	13	8	58

주1 : 유발인구(A) :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된 계획인구

주2 : 외부유입인구(B) : 유발인구×외부유입율(30%)

주3 : 외부유입부양인구(C) : 외부유입인구×세대당인구 2.0인(본인제외 1.0인 적용)×기혼율(63%)

주4 : 서비스유발인구(D) : 유발인구×서비스유발율(30%)

주5 : 서비스유발부양인구(E) : 서비스유발인구×세대당인구(본인제외 1.0인 적용)×기혼율(63%)

주6 : 총 유입인구(F) : (B)+(C)+(D)+(E)

■ 사회적 증가 인구 단계별 인구

[표 3-18] 사회적 증가 인구 단계별 인구

(단위 : 인)

구분		위치	총계	단계별 인구배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총계(16개 사업)		-	19,580	1,723	5,865	5,161	6,831
주택 개발	소계	-	4,861	780	1,654	1,414	1,013
	사북직전지구	사북읍	3,377	-	1,013	1,351	1,013
	고한행복주택사업	고한읍	391	-	391	-	-
	고한파인애플유아파트	고한읍	780	-	250	63	-
	신동읍근로자아파트	신동읍	313	780	-	-	-
산업 개발	소계	-	326	98	163	65	-
	신동예미농공단지	신동읍	326	98	163	65	-
관광 개발	소계	-	143,938	845	4,048	3,682	5,818
	강원카지노리조트	사북읍	196	156	40	-	-
	강원랜드 확장	고한읍	5,358	-	-	1,072	4,286
	강원하이랜드레저타운	사북읍	1,512	-	756	453	303
	화절령숙박단지	사북읍	424	85	339	-	-
	백운밸리조성사업	사북읍	1,059	-	529	318	212
	구절지구관광개발	여량면	587	117	470	-	-
	숙암레저단지	북평면	2,437	487	731	731	488
	새골위락시설	신동읍	2,191	-	1,095	657	439
	아우라지종합개발	여량면	365	-	36	292	37
	참숯힐링랜드	사북읍	206	-	40	124	41
	삼탄아트밸리2단계	고한읍	58	-	12	35	12

주 : 사업기간 및 준공예정일에 따라 유입인구 단계별 배분

3) 계획인구 설정

[표 3-19] 계획인구 설정

(단위 : 인)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39,197	40,000	44,800	48,500	53,700
추정인구	-	40,047	44,840	48,511	53,655
자연적 증가인구	-	38,324	37,252	35,762	34,075
사회적 증가인구 (단계연도 증가인구)	-	1,723 (1,723)	7,588 (5,865)	12,749 (5,161)	19,580 (6,831)
단계연도별 증가율	-	2.0%	12.0%	8.3%	10.7%

라. 인구구조 전망

- 65세이상 인구비율은 2015년 기준 22.6%로 초고령사회(20% 이상)이며, 2035년에는 40%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총 부양인구는 2015년 48.0명에서 2035년 98.9명으로 증가함
-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19.3명 수준이며, 노년부양비는 2015년 33.5명에서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35년까지 79.5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표 3-20] 인구구조 전망

(단위 :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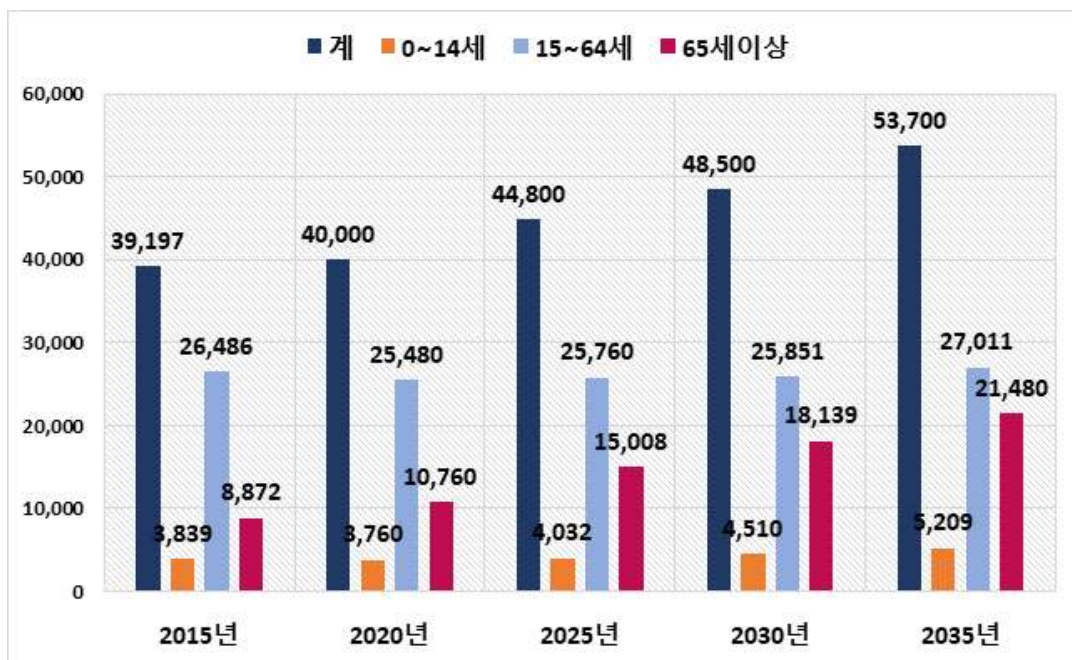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015년	39,197	3,839	26,486	8,872	22.6	48.0	14.5	33.5	231.1
2020년	40,000	3,760	25,480	10,760	26.9	57.0	14.8	42.2	286.2
2025년	44,800	4,032	25,760	15,008	33.5	73.9	15.7	58.3	372.2
2030년	48,500	4,510	25,851	18,139	37.4	87.6	17.4	70.2	402.2
2035년	53,700	5,209	27,011	21,480	40.0	98.8	19.3	79.5	412.4

주1 : 고령인구비율 : (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주2 : 총부양비 : (0~14세 인구+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주3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인구)×100

주4 : 유소년부양비 : (0~14세인구/15~64세인구)×100



[그림 3-50] 인구구조 전망도표

3. 정선군 미래 환경 - 이슈별 환경 검토

- 미래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키워드 및 선행연구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이슈 30개를 선별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슈의 중요도와 발생가능성, 미래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함. 이후 이슈와 미래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으로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 12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식량안보, 4차 산업혁명,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식품 안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생물다양성의 위기, 불평등 문제, 다문화 확산, 에너지 및 자원고갈임



자료: 미래 국토의 전망과 농촌의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년) 제민을, 저작성

[그림 3-51]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

- 위와 같은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들이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농촌 공간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분석·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미래 농촌의 모습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하였음

가. 미래 농촌의 삶터

-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의 삶터는 인구희박(소멸)지역이 증가하고, 기반 시설이 감소하며, 도시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의 암울한 모습으로 전망하는 국민들이 많았음. 하지만 희망적인 것으로는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농촌 중심지 기능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주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있었음

- 미래 농촌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농촌의 삶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농촌 주민의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삶의 측면에서는 미래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를 거점화하고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능적 연결성을 효율화하는 것을 제시하였음

나. 미래 농촌의 쉼터

-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의 쉼터는 미래 농촌은 여가·휴양지역 및 관광지의 개발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배출 농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더불어 다지역 거주 및 상시적 도농교류가 증가하여 농촌에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 회귀지역이 증가하고 농촌다움을 되찾기 위해 농촌 경관 보존에 대한 수요와 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래 농촌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농촌의 쉼터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쉼터 측면에서는 농촌의 여가·휴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유산 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농촌 특화 이슈와 지역 유형별 전개 방향”

미래 농촌의 삶터					미래 농촌의 쉼터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증가 동의도가 큼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감소 동의도가 큼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증가 동의도가 큼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감소 동의도가 큼				
	삶터	근교	일반	원격		쉼터	근교	일반	원격
인구	인구회박(소멸) 지역				여가, 문화 및 관광	다지역 거주 및 상시교류			
	귀농귀촌					휴양지 및 관광지			
정주체계 및 정주기반	중심지 기능				경관 및 자연환경	문화 공간화			
	주거지 집중					난개발 및 경관 훼손			
	도시의존도					경관 보존			
	공동주택					환경정비			
	단독주택					자연 회귀 토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삶터) - 인구회박(소멸) 지역 증가, 기반시설 감소, 도시 의존도가 증가 But 귀농귀촌 증가하고 농촌중심지 기능이 변화로 새로운 정주체계가 등장
(쉼터) - 여가휴양지역 및 관광지 개발 증가, 환경오염 배출 농업 감소, 더불어 다지역 거주 및 상시적 도농교류 증가로 농촌의 새로운 생활양식 증가

자료: 미래 국토의 전망과 농촌의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년) 재인용, 저작성

[그림 3-52] 미래 농촌의 삶터와 쉼터 이슈 및 전개방향

다. 미래 농촌의 일터

-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의 일터는 미래 농촌에는 미래 농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친환경복지 농업 활동이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더불어 경지면적도 감소하지만 이보다 농업분야 종사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지금보다 적은 농민들이 더 넓은 경작을 하는 대농의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더불어 농촌에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입지가 증가하여 농업 부문의 식량 생산과는 다른 부문의 산업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래 농촌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농촌의 일터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일터 측면에서는 미래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여건 조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라. 미래 농촌의 공동체의 터

-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은 소득불평등, 세대 간 격차, 귀농·귀촌자와 원주민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농촌 공동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전망이 많았음. 농촌의 저발전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증대될 것이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에서는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미래 농촌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농촌 공동체의 터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지역 공동체가 이끌어 가는 농촌사회’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삶터, 일터, 쉽터, 공동체의 터의 농촌 특화 이슈와 지역 유형별 전개 방향”



[그림 3-53] 미래 농촌의 일터와 공동체의 터 이슈 및 전개방향

[표 3-21]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계속>

부문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삶터	1.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의 인구를 감소시킬 것인가? 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로 농촌 중심지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또 그 변화의 공간적 패턴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3.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농촌의 주거지를 분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집중시킬 것인가? 더불어 현상의 공간적 패턴은 어떠한 것인가? 4. 미래 세대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의 심화는 귀농·귀촌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촌향도가 증가할 것인가? 특히 귀농·귀촌 등이 증가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인가? 5.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진보하면 농촌 정주체계의 도시 의존도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의 자립적 생활체계가 구축될 것인가? 6.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삶의 질 중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 속에서 농촌의 서비스 수준은 개선될 것인가 더 열악해질 것인가?
일터	1. 산업 변화에 따라 미래의 농촌에는 제조업이 어디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저성장으로 가족농·소농, 대농 중 어떤 영농 형태가 우세할 것인가? 또한 현상의 정도 및 공간적 양상은 어떠한 것인가? 3.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식품안전성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중시, 저성장으로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농업 형태가 확산될 것인가? 경지 면적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경지 면적이 변한다면 어디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 4. 저성장, 불균형의 심화, 식품안전성 증대, 삶의 질 중시로 인해 농촌의 유통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5. 에너지 및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농촌은 에너지 생산 공간이 될 것인가? 6. 저성장 전략과 불균형의 심화로 농촌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지역별 차이는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7. 식량안보는 농업 활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위축시킬 것인가?

자료 :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21]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부문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쉼터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다지역 거주를 증가시킬 것인지 단순히 농촌 관광만을 증가시킬 것인가? 2. 삶의 질 중시와 저성장으로 농촌에 여가·휴양 공간 및 관광지 개발이 촉진될 것인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3. 삶의 질 중시, 에너지 및 자원고갈, 생물다양성 중시로 농촌 경관이 보존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가속화될 것인가? 4. 생물다양성을 중시하여 농업·농촌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5.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정주 공간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임야 등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공동체의 터	1. 저출산·고령화, 불균형 심화, 다문화 확산,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농촌공동체는 위축될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또한 현상의 공간적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 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역발전의 공간적 격차는 발생할 것인가?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할 지역은 어디인가? 3. 불균형 심화와 다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갈등, 사회계층의 분리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4. 불균형 심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공적부분의 지출이 증가할 것인가?

자료 :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위 내용은 1차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농촌에 특화된 미래이슈임
상기 이슈들은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근교, 일반, 원격, 농촌으로 나누어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 예측은 수행하지 못함

4. 미래지향적 농촌 도시모델이 추구해야 할 방향

가. 압축도시로의 전환

■ 인구감소 및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및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도시인구의 감소는 도시의 복합적(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쇠퇴와 교통편리성의 저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생활·생산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신규 개발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 등은 저밀도 시가지 확산 등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켜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집적화에 따른 효율적 공간이용, 압축도시(Compact City)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도시재생 유도가 요구되고 있음
- OECD에서도 한국 도시들의 위기 및 성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정책으로 압축도시 정책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음¹²⁾

- **경제적 도전** : 대도시권 중심의 경제구조,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 등
- **사회적 도전** : 도시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 신체활동의 감소 등
- **환경적 도전** : 주거 및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이로 인한 대기오염, 홍수 등 도시 재해 증가 등

- 수도권 집중 난개발,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대중교통 접근성의 지역간 편차, 공공 서비스의 지역편중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분석
- 특히, 물리적으로도 밀집하여 개발되어 보행 및 대중교통과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도시 어메니티가 부족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OECD는 이런 도전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정책 대안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 정책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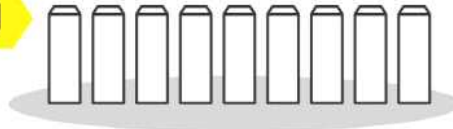


[그림 3-54] 압축도시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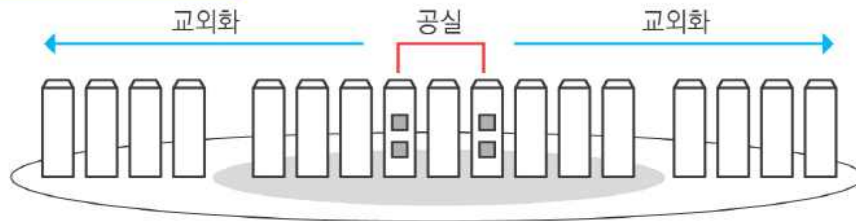
12) OECD, 「Compact City Policies Korea」, 2014.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자료 : 통계청,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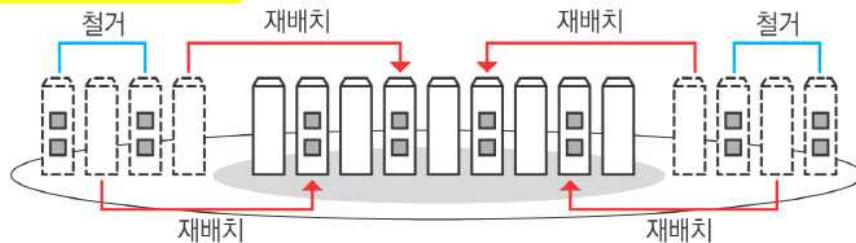
1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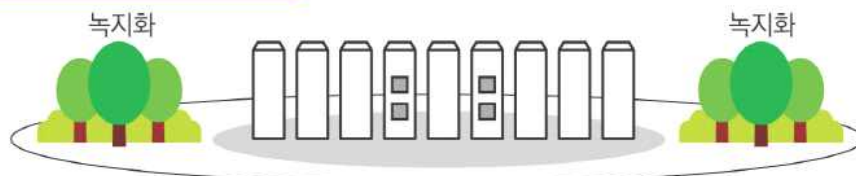
2 구도심 공동화 현상



3 압축도시 전략 실시



4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그림 3-55]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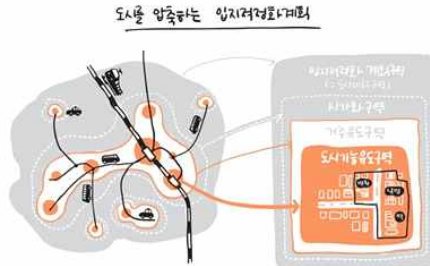
나. 지방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압축도시 정책제언

1) 지방중소도시

■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해 다극네트워크형 압축도시로 조성

-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 시가화구역 등 필수적으로 설정토록 함
 - 도시기능유도구역은 도시기능을 도시와 중심거점과 생활거점에 유도하고 집약함으로써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하는 구역
 -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감소 속에서도 일정구역에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의미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압축성 측정을 필수화하여 지역발전계획수립 시와 지역 현황 및 모니터링 평가, 장래예측 평가시 활용토록 함



입지적정화계획구역 > 시가지화구역 > 거주유도구역 > 도시기능유도구역

입지적정화 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압축적 토지이용을 어느 곳에 할지 정하는 것

시가지화구역

입지적정화계획구역 내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구역 내 특정지역에 모여있을 수 도 있고, 군데군데 퍼져있을 수도 있음

거주유도구역

시가지화구역을 중심으로 거주기능을 집적시킬 거주유도 구역 지정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 내에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잡고 여기에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 등을 모으는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

빈집은 빨리 부수고 새로운 주택개발을 제한하고, 대기업 유치 같은 품 나는 대형 프로젝트보다 자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제조업과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생활 편의 기능을 지방도시 지원방안의 뒷받침으로 응골차게 채워 나가는 압축도시로의 전략 필요

[그림 3-56] 압축도시 실현을 위한 구역설정 예시

■ 도심-지역생활권(반경 300~500m 이내 도보권)을 교통망을 중심으로 설정

- 지역생활권에는 도시기능(교육, 의료, 상업 등)과 고차전문기능(업무시설, 문화·예술, 상업 시설)을 수용하여 주요지역에 편의 제공

■ 도시 외곽부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수단의 도입, 신개발지에서의 최소밀도 규정 설정 등 고려

■ 신규 주거수요나 상업·업무시설 수요,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 수요를 분산개발 하는 것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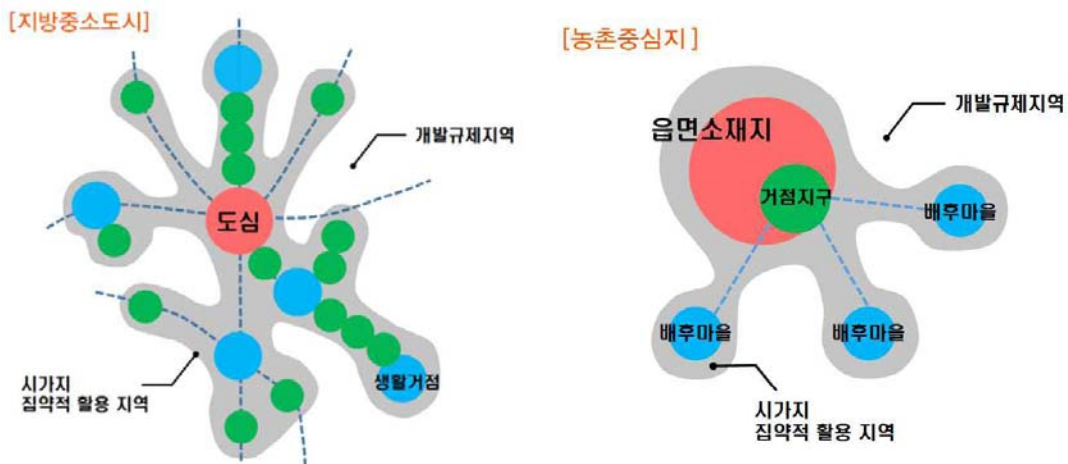
- 도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생활권별로 전략

2) 농산어촌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통합지구·선도지구·일반지구)”를 활용하여 압축적인 지역공간구조로 재편
 - 농촌중심지의 거점지구와 배후마을 간 연계를 통해 “생활권”을 형성
- 거점지구는 초등학교 등 다수의 배후마을을 포함한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기능과 지역활동 거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반경 200m~300m 이내)로 집적시켜 주민의 편리

성 증진

- 읍면 소재지에 거점지구를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 분석을 실시하여 중심지에 부족한 기능 강화
- 중심지의 교통·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 읍면소재지의 거점지구에는 가능한 필요시설을 집적시켜 도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 *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비
 - * 주민체감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강화 : 문화·복지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활용 편리성 도모
- 외곽의 신설 우회도로 주변으로 평면적확산은 가능한 지양하고 읍면소재지의 거점지구를 최대한 이용도록 유도
- 중심지~배후마을을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물품, 서비스 순환 등 교류거점 역할 수행
 - * 셔틀버스, 100원 택시, 천원버스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 배후마을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미사용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기능 전환
-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중 이용이 적은 시설은 통폐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기능에 맞게 용도 변경
 -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저밀도 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서비스 공급을 위해 원격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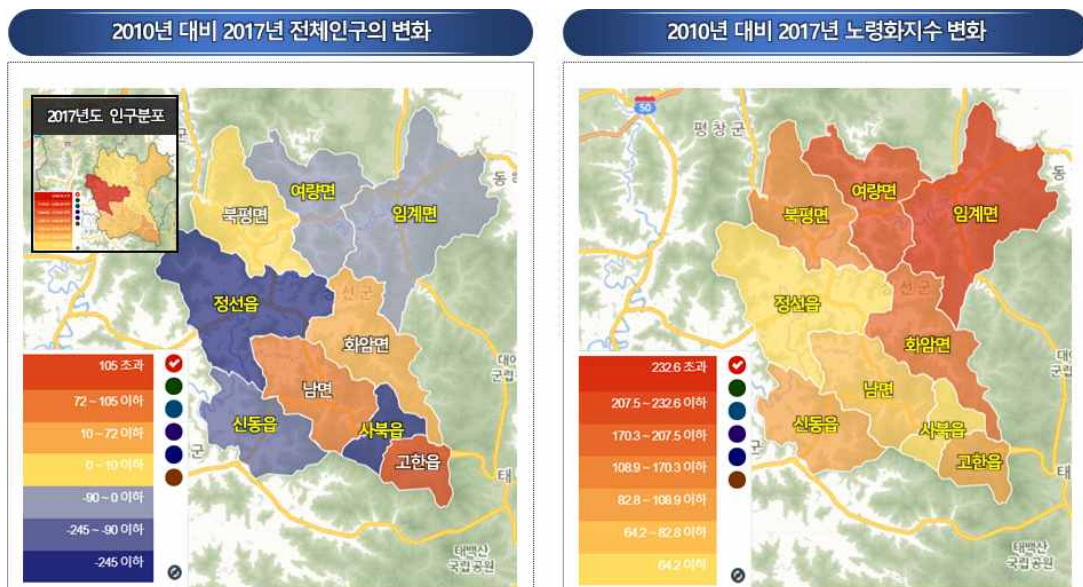


[그림 3-57] (좌)지방중소도시 및 (우)농산어촌지역 압축형 공간구조 구상도

다. 미래 정선군 공간구조

1) 공간구조 개편

- 인구 성장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한 공간구조로 개편
 -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근 인구 및 고용증가 그리고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2도심 3거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 4읍·5면의 공간구조를 2도심·3거점으로 급격하게 변경하기보다는,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도심·7거점을 걸쳐 2도심 3거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 공간 구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도심의 공간적 확장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거점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토지이용을 고밀 개발하고, 고차기능의 집적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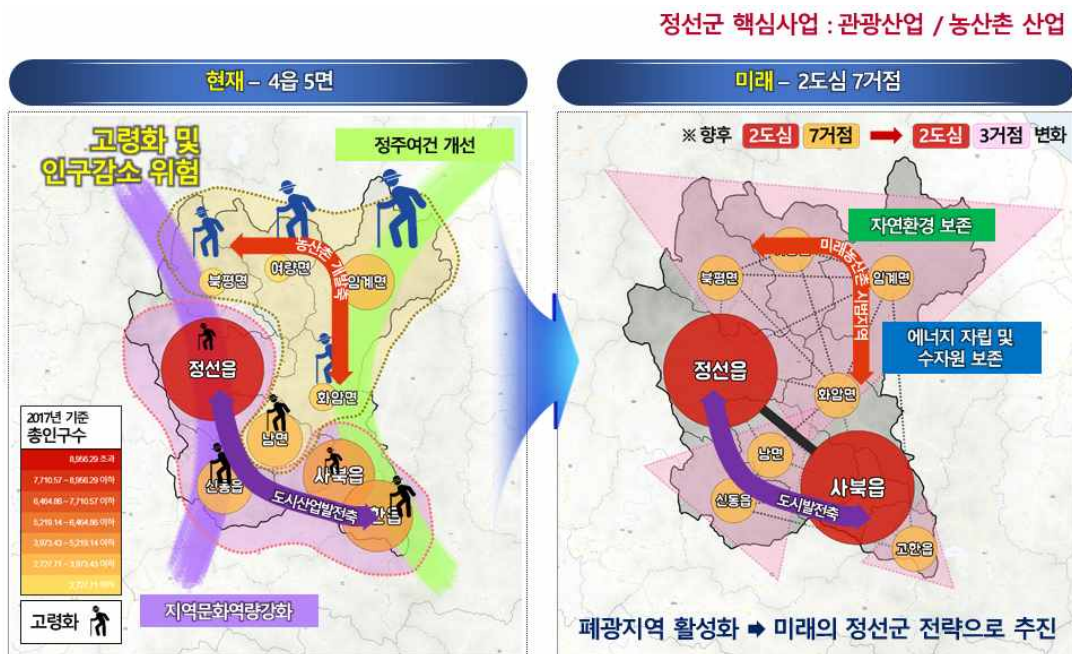


[그림 3-58] 정선군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인구 및 노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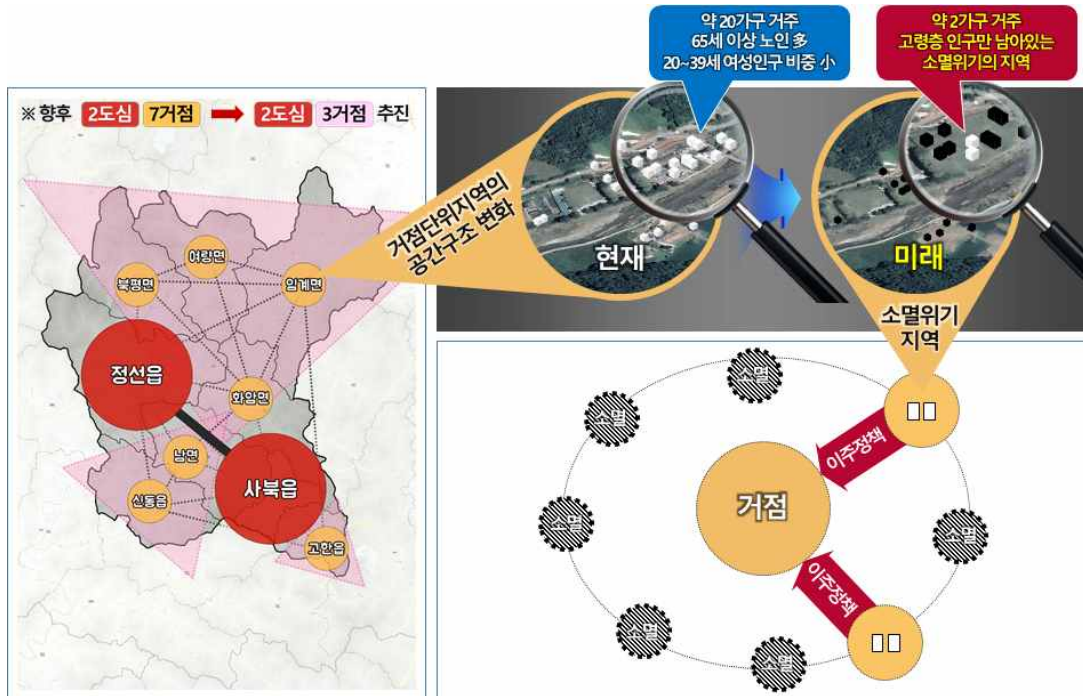
2) 연계교통체계 개선

- 2도심과 주요 거점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주요 거점을 고밀 개발하고, 고차기능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2거점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거점 육성 및 기존 시가지 재생이 필요

- 대중교통 연선 및 거점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지 전략 추진
 - 2도심 개발 시 대중교통 및 국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
 - *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거점집중형 압축 도시 만들기 추진
 - 도시성장축(대중교통 연선)을 중심으로 주거 및 공공시설을 집중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도시성장경계선(Urban Growth Boundary)의 설정 필요
- 도시 중간에 입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 필요
 - 도시외곽 난개발 방지와 도시성장축(대중교통 연선) 중심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며 일부 조정 필요
-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면소재지)을 중심으로 행정·생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조성
 - 면 소재지(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기능 집중
 - 주변 마을과는 네트워크(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등)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교류거점으로 육성



[그림 3-59] 정선군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



[그림 3-60] 정선군 미래 거점지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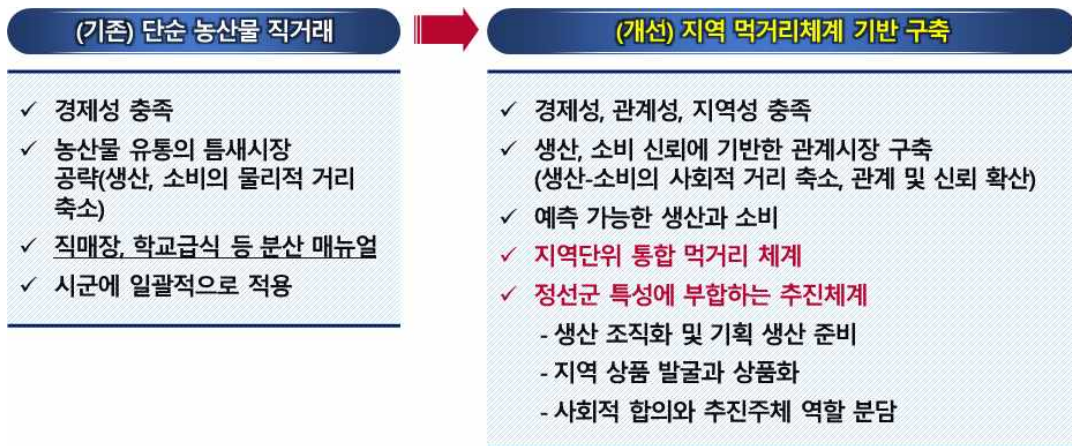
[그림 3-61] 미래 정선군 공간구조

5.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

가. 정선군 푸드플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 추진방향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함.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과 함께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만들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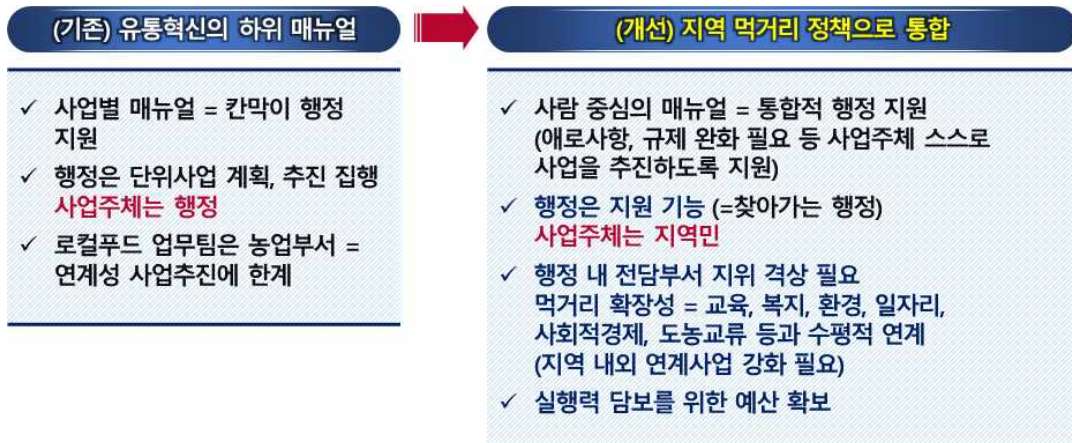
[그림 3-62]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시장은 가격 기준의 일반 시장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을 모색함.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소비의 사회적 거리’가 축소됨을 의미
- 지역 먹거리의 소량 다품목 생산이 조직화되고 연중 공급가능한 체계를 갖추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예측가능한 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갖는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자원이 됨

2) 추진전략

-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임
- 행정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지역 농식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스스로 필요 사업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은 행정의 역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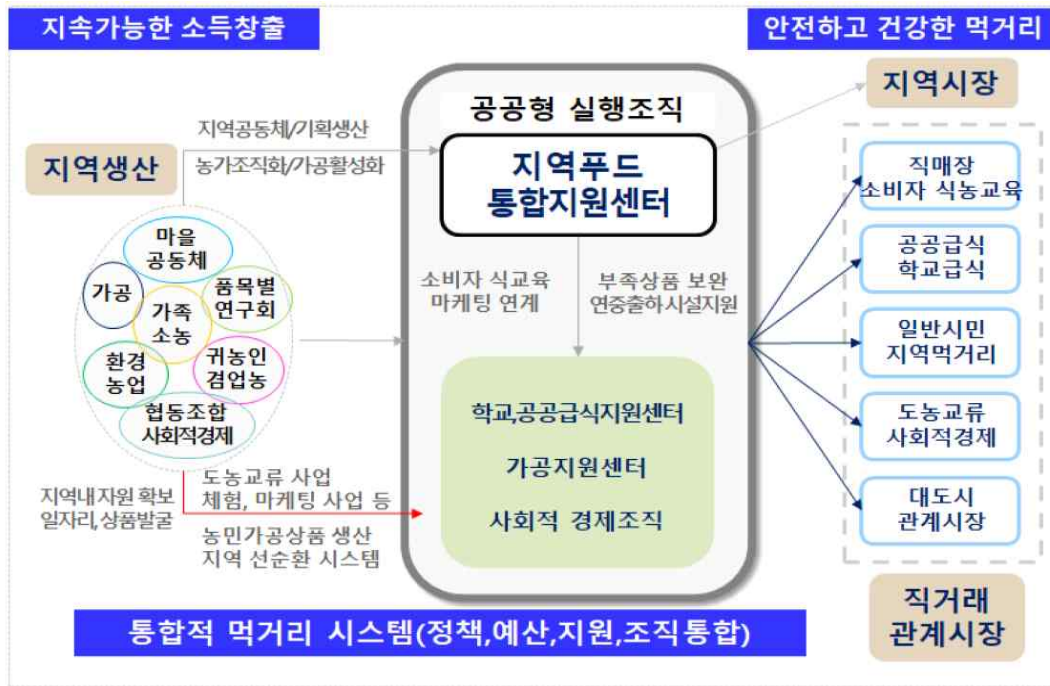
- 따라서 행정 내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먹거리 관련 사업은 생산~소비 과정의 교육, 복지, 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가능하므로 전담 부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직제와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함



[그림 3-63]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전략

- 지역 푸드플랜에서 지역민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소통이 필요하고 주민자치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지역민이 지역농업과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먹거리의 근원을 깨달은 지역민이 지역순환농업 복원과 지역 내 유통망 구축 등 지역농업 정책 수립에 관여하게 됨
 - 그러므로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상호조정 과정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먹거리를 단지 상품으로 거래하는 관계에서 지역 식문화의 보전과 지역자원의 활용, 나아가 지역경제의 순환을 배려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추구해야 함
-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기본 모델로 함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의 지원과 민간 주체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공공형 실행조직으로 구성함
 - 이 과정에서 실행조직은 지역 먹거리 문제를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함. 민관 거버넌스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내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
 - 다만 지금까지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을 민관거버넌스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수렴 훈련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우선 요구됨



자료 :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3-64] 지역 푸드플랜 기본 모델

나. 체질맞춤형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정선 푸드플랜

- 농업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양한 정책은 기존 생산→유통→소비의 구조에서 소비의 형태 분석→적합한 규모의 생산으로 기존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1960년대 이후 국내 소비형태의 트렌드를 검토하면 충족하게 먹는 사회에서 맛있게 먹는 사회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건강하게 먹는 사회(웰빙, 친환경 소비 등)로 진화하여 향후에는 4차산업 혁명을 기초하여 내 몸에 맞게 먹는 사회로 진화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이는 향후 농업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큰 의미에서의 구조적 환경 이슈로 제시 될 수 있어 대규모 생산 환경이 없는 의왕시의 경우 이를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생산물의 소비수요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소비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집적화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농업 생산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위한 농업 소통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됨

- 창의적 농업소통 플랫폼의 구현은 소비와 생산의 역할을 관리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단순한 유통의 개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착이 필요(예시 : 내 몸에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체질검사 프로그램)
 - 체질검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남녀, 계절, 체질이상 유형별, 환자의 증상별 등 다양한 식단의 레시피 등이 제시되고 이에 맞는 농업생산물이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형식
 -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은 농업소통 플랫폼의 필요 수요를 인증 받아 생산방법부터 단위포장, 수시공급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거쳐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전환



[그림 3-65] 정선 푸드플랜 체질 맞춤형 소비트렌드

5 시사점

-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의 변화는 정선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단기적 정책이 아닌 20~30년 뒤의 정선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공통요소 의견으로 미래 정선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감소하며, 사회서비스 비용의 증대와 행정력 감소,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화 의존도 증가 등 전문분야에 대해 암울한 모습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임
- 미래 정선군의 미래상을 1. 삶의 공간, 2. 일하는 공간, 3. 쉬는 공간, 4. 공동체 공간의 4가지 특화 이슈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삶의 공간

-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중심지 기능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주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 기존 면단위 등 행정단위 구조에서 소규모 단지의 마을이 사라지고 인근지역으로 압축되는 공간 구조로 변화
- 기존 형태에서 도심내 자급자족 형식의 산업구조와 삶의 공간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 높음

미래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거점화 및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능적 연결성 효율화

■ 일하는 공간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친환경복지 농업 활동이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증가
- 더불어 경지면적도 감소하지만 이보다 농업분야 종사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지금보다 적은 농민들이 더 넓은 경작을 하는 대농의 형태 증가
- 지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입지가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식량 생산과는 다른 부문의 산업활동 증가

미래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여건 조성

■ 쉬는 공간

- 여가 휴양지역 및 관광지의 개발이 증가, 환경오염 배출 농업 감소
- 다지역 거주 및 상시적 도농교류가 증가하여 농촌에는 새로운 생활양식(쉬는 공간의 변화) 등장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 회귀 지역이 증가
- 농촌다움을 찾기 위해 농촌 경관 보존에 대한 수요와 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 증가

농촌의 여가·휴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유산 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특정 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

■ 공동체 공간

- 정선군은 소득불평등, 세대 간 격차, 귀농 귀촌자와 원주민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따라 농촌 공동체 위축 전망
- 농촌의 저발전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증대될 것이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확대 전망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시사점

※ 미래 비전 및 환경에 대한 관련자료의 분석과 정선군에 대한 전문가 및 연구진의 의견 등을 토대로 재작성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의 변화는 정선군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단기적 정책이 아닌 20~30년 뒤의 정선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공동요소 의견

미래 정선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감소하며, 사회서비스 비용의 증대, 행정력 감소,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화 의존도 증가 등 전문분야에 대해 암울한 모습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 종합검토

1. 삶의 공간

-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중심지 기능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주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 기존 면단위 등 행정단위 구조에서 소규모 단지의 마을이 사라지고 인근지역으로 압축되는 공간 구조로 변화
- 기존 형태에서 도심내 자급자족 형식의 산업구조와 삶의 공간이 생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 높음

2. 일하는 공간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친환경복지 농업 활동이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증가
- 더불어 경지면적도 감소하지만 이보다 농업분야 종사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지금보다 적은 농민들이 더 넓은 경작을 하는 대농의 형태 증가
- 지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입지가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식량 생산과는 다른 부문의 산업활동 증가

【 미래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거점화 및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능적 연결성 효율화 】

【 미래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여건 조성 】

3. 쉬는 공간

- 여가휴양지역 및 관광지의 개발이 증가, 환경오염 배출 농업 감소
- 다지역 거주 및 상시적 농교류가 증가하여 농촌에는 새로운 생활 양식(쉬는 공간의 변화) 등장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 회귀 지역이 증가
- 농촌다움을 찾기 위해 농촌 경관 보존에 대한 수요와 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 증가

4. 공동체 공간

- 정선군은 소득불평등, 세대 간 격차, 귀농·귀촌자와 원주민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따라 농촌 공동체 위축 전망
- 농촌의 저발전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증대될 것이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확대 전망

【 농촌의 여가휴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유산 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 】

【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



[그림 3-66] 정선군 미래전망 시사점

비전정선 2040

정선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 및 아젠다 도출

4장

정선군 핵심키워드 도출 과정

1

정선군 미래 핵심키워드 구성체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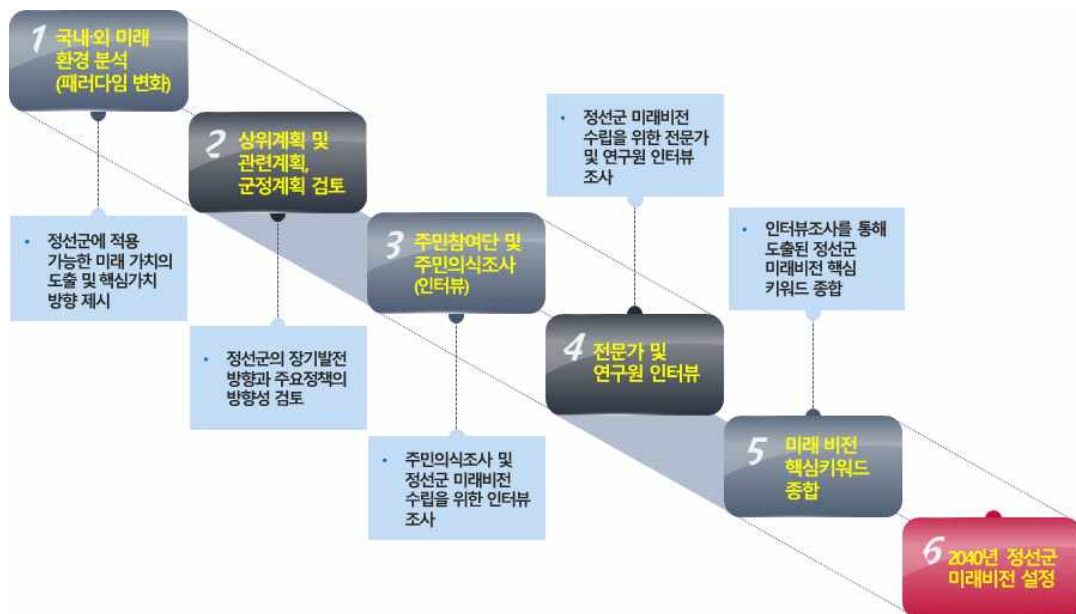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3

4장. 정선군 미래비전의 핵심가치 및 아젠다 도출

1 정선군 핵심키워드 도출 과정

국내·외 미래 환경분석 (패러다임 변화)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미래가치의 도출 및 핵심가치 방향제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군정계획 검토	정선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정책의 방향성 검토
주민참여단 및 주민의식조사 (미래비전 인터뷰)	주민의식조사 및 정선군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인터뷰 조사
전문가 및 연구원 인터뷰	정선군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연구원 인터뷰 조사
미래비전 핵심키워드 종합	인터뷰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선군 미래비전 핵심 키워드 종합



[그림 4-1] 정선군 핵심 키워드 도출 과정

1. 국내·외 국토정책 및 상위계획 핵심가치 검토

가. 국내·외 국토정책 분석

1)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국내외 국토정책 분석을 통하여 정선군에 적용가능한 정책의 도출 및 적용을 통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발달 및 기술혁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압축적 토지이용, 인프라 재생,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연결, 지역간 불균형, 경제 글로벌화

- 『대한민국 국토미래비전 2040』에서는 국토정책을 위한 트렌드요소로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 개발수요 감소 및 지역간 양극화, 경제 글로벌화 및 저성장, 재난·재해 증가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국토정책을 위해 도출된 미래비전 키워드에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 공간 조성,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통합과 포용을 위한 국토 정책 추진,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일본 그랜드비전 2050』에서는 국토정책을 위한 트렌드요소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도시간 경쟁심화 등 세계화, 거대 재해 및 인프라 노후, 자원 및 에너지 등 지구환경 문제, ICT의 급진화 및 기술혁신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국토정책을 위해 도출된 미래비전 키워드에는 컴팩트+네트워크, 다양성과 연계한 국토·지역만들기, 인간중심의 국토 형성, 세계 속의 일본,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대응(지역회복성)등이 제시되어 있음
- 『유럽 미래시나리오 2050』에서는 국토정책을 위한 트렌드요소로 유럽연합의 확대 중지 내용 지향, 인구·경제·에너지·교통, 농촌개발(환경, 저개발지 중시), 거버넌스(공공부문화 확대), 기후변화(탄소저감)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국토정책을 위해 도출된 미래비전 키워드에는 웰빙/지역축소/제3교육(30~34세), 일자리/스마트유럽(R&D), 지역격차 해소/클린에너지, 압축적 토지이용 및 지속가능성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미국 America 2050』에서는 국토정책을 위한 트렌드요소로 새로운 국제 무역패턴, 급

속한 인구성장과 인구변화, 비효율적 토지이용, 지역간의 불균형한 성장 패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도시 인프라의 수용력 부족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국토정책을 위해 도출된 미래비전 키워드에는 10대 메가리전(Mega-Region)내 도시 성장 역량 창출 및 네트워크 연결,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초고속철도, 교통 Hub,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등), 천연자원 및 에너지자원 체계 보호, 토지절약형 성장패턴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위에서 언급된 국내·외 국토정책의 공통 핵심 키워드를 검토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발달 및 기술혁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압축적 토지이용, 인프라 재생,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연결, 지역간 불균형, 경제 글로벌화 등의 키워드가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정선군 미래비전 핵심가치 도출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대한민국 국토미래비전 2040	일본 그랜드비전 2050
트렌드 요소	-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 - 개발수요 감소 및 지역간 양극화 - 경제 글로벌화 및 저성장 - 재난재해 증가 및 에너지 자원 부족 - 첨단기술발달 및 융복합화 - 거버넌스 구축	- 인구감소, 저출산 - 급속한 고령화 - 도시간 경쟁심화 등 세계화 - 기대 재해 및 인프라 노후 - 자원, 에너지 등 지구환경 문제 - ICT의 급진전 및 기술혁신
미래비전 키워드	- 사람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 -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 공간 조성 -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통합과 표용을 위한 국토 정책 추진 -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 컴팩트 + 네트워크 - 다양성과 연계한 국토-지역 만들기 - 인간중심의 국토 형성 - 세계 속의 일본 -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대응 (지역회복성)
	유럽 미래시나리오 2050	미국 America 2050
트렌드 요소	- 유럽연합의 확대중지 내용지향 - 인구, 경제, 에너지, 교통 - 농촌개발(환경, 자개발지 중시) - 거버넌스 (공공부문화 확대) - 기후변화(탄소저감)	- 새로운 국제 무역 패턴 - 급속한 인구성장과 인구변화 - 비효율적 토지이용 - 지역간의 불균형한 성장 패턴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 대도시 인프라의 수용력 부족
미래비전 키워드	- 헬민/지역중소/제3교육(30-34세) - 일자리/스마트유럽(R&D) - 지역적차혜소/클린에너지 - 압축적 토지이용 및 지속가능성	10대 메가리전(Mega-Region)내 도시 성장 역량 창출 및 네트워크 연결 -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초고속철도, 교통Hub, TOD 등) - 천연자원 및 에너지자원 체계 보호 - 토지절약형 성장패턴
공통 핵심 키워드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발달 및 기술혁신 인프라 재생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압축적 토지이용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연결 지역간 불균형 경제 글로벌화	

[그림 4-2] 국내·외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상위 및 관련계획·군정계획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바라보는 정선군의 장기발전방향과 정선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방향성 검토를 통해 2040년 정선 미래에 적용가능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 도출

**신 성장(발전) / 첨단 / 융복합 / 관광 / 문화 / 행복 / 살 맛 나는 /
건강한 삶 / 안정적 삶**

[표 4-1] 상위 및 관련계획·군정계획 검토

구분	강원권(정선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강원권 비전)	• 특화발전 신 성장거점 • 복합교통 및 물류기반 • 첨단지식산업 집중육성 • 복합관광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강원도 종합계획 (2012~2020)	세계 속의 레포트 문화콘텐츠도시 정선 (정선군 비전)	• 올림픽 배후도시, 복합휴양도시 • 정선카지노 연계 게임콘텐츠산업 • 관광자원 연계 환경문화관광 코스
2040 강원비전	산림 / 에너지 / 관광의 신성장 거점 (정선군 비전)	• 올림픽 사후시설과 지역테마형 공간 확대 • 기존 관광 레포트 산업의 고도화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치유산촌 조성 •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기반 마련 • 폐광지역의 재생 등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2017~2021)	동계올림픽 레거시권 : 평창, 강릉, 정선 (정선군 비전)	• 경기장 및 관람시설의 사후활용 • 확충된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이용 제고 •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화 • 관광서비스 품질의 향상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2015~2035)	청정자연속의 행복한 삶 아리랑의 고장, 정선 (정선군 비전)	•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원도시 • 미래가 기대되는 활력도시 • 누구나 원하는 살기좋은 청정환경 도시 • 더불어 발전하는 행복 도시
정선군 정책과제 (민선 7기)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 민선 7 기 정책과제)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 복지정책 앞서가는 행복 정선 • 한번 더 찾고 싶은 문화관광 • 군민이 살맛나는 지역경제 • 민의를 받드는 따뜻한 소통 행정

3. 주민의식조사 및 지역주민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키워드 도출

가. 주민참여단

[표 4-2] 주민참여단 회의내용

구분	주요내용
잠재력 및 자원활용 방안	• 정선 5 일장과 연계한 주변 공간 및 관광자원 활용
	• 경강선 KTX 진부역과 연계한 교통 접근성 강화
	• 천혜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정선만의 차별성 강화
	• 고랭지농산품의 상품화 및 6차 산업 개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출산 장려 및 인구유입정책 필요
	• 개발 가용지 부족, 정주환경 개선 필요
	• 도로망 연계성 확보 및 기반시설 (의료 문화 교육) 확충 필요
	• 관광지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필요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방안 모색하여 지역 관광자원 활용

자료 : 정선군 2030 기본계획의 내용 발췌, 재작성

나. 주민설문조사

1) 장래 정선군은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가?

- 1위 관광휴양도시(48%), 2위 환경생태도시(14%), 3위 문화예술도시(13%), 4위 친환경농업도시(11%), 5위 전원주거도시(5%), 6위 지식첨단산업도시(4%)

2위 환경생태도시 (14%) 5위 전원주거도시 (5%)

1위 관광휴양도시 (48%)

3위 문화예술도시 (13%) 4위 친환경농업도시 (11%)

6위 지식첨단산업도시 (4%)

2) 2040년 정선군 미래상에 꼭 들어갈 키워드는?

- 1위 관광휴양레포츠(22%), 2위 청정환경(20%), 3위 문화예술콘텐츠(13%), 4위 스마트도시(9.5%), 5위 활력있는 도시(8.5%), 6위 도시재생(5%)



다. 지역주민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키워드 도출

- 2019년도 2~4월 각 읍면별 리더 및 주민 의견 인터뷰를 통해 중요핵심가치 키워드와 정선군 문제점 및 개선해야할 가치 키워드를 <그림4-3>과 같이 도출하였음



※ 2019년도 2~4월 각 읍면별 리더 및 주민 의견 인터뷰 결과 적용

[그림 4-3] 지역주민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키워드 도출

4. 전문가 및 연구원 미래비전 인터뷰를 통한 분야별 키워드 도출

가. 공통부문 및 도시·교통·주거기반시설 부문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 인터뷰를 통해 공통부문 및 도시·교통·주거기반시설 부문의 중요핵심가치 키워드와 정선군 문제점 및 개선해야할 가치 키워드를

<그림4-4>과 같이 도출하였음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 인터뷰 결과 적용

[그림 4-4] 정선군 공통부문 및 도시·교통·주거·기반시설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나. 경제·일자리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농촌·산림 부문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경제·일자리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농촌·산림 부문의 중요핵심가치 키워드와 정선군 문제점 및 개선해야할 가치 키워드를 <그림4-5>와 같이 도출하였음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 인터뷰 결과 적용

[그림 4-5] 정선군 경제·일자리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농촌·산림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다.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사회복지·공동체·보건 부문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 인터뷰를 통해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사회복지·공동체·보건 부문의 중요핵심가치 키워드와 정선군 문제점 및 개선해야할 가치 키워드를 <그림4-6>과 같이 도출하였음



※ 2019년도 1~3월 19개 그룹별 전문가 의견 인터뷰 결과 적용

[그림 4-6] 정선군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사회복지·공동체·보건 전문가 인터뷰 키워드 도출

5. 미래비전 핵심키워드 종합

- 분석과정을 통해 2040년 정선군 미래상 키워드 도출은 군민, 전문가&연구원, 정선군 잠재력 재력 조사에 의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핵심가치를 검토하였음



[그림 4-7] 정선군 2040 미래비전 핵심가치 검토(종합)

2 정선군 미래 핵심키워드 구성체계

1. 2040년 정선군 미래비전 설정 과정

가. 정선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 우선 선정

- 정선의 미래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의 이동, 12가지의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에 따른 농촌 미래 공간의 발전, 고밀도 개발의 스마트 압축도시로의 전환, 체질 맞춤형 소비트렌드가 반영된 지역 푸드플랜 등 다양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 정선군민은 사람중심, 건강, 삶의 질, 고령친화, 청정자연, 수자원, 친환경 농업, 향토자원, 우수한 산림, 관광, 지역자원 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정선군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지 및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등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향토자원과 정선군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 및 고유한 자산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정선군의 미래가치의 분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정선군의 미래가치는 정선군이 처해 있는 또는 전망되는 장기적 미래 환경과 정선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이 희망하는 미래모습, 그리고 이러한 미래환경과 군민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선군만의 자산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나. 미래비전 수립시 주요 검토사항

- 2040 정선군 미래비전 수립을 추진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그림 4-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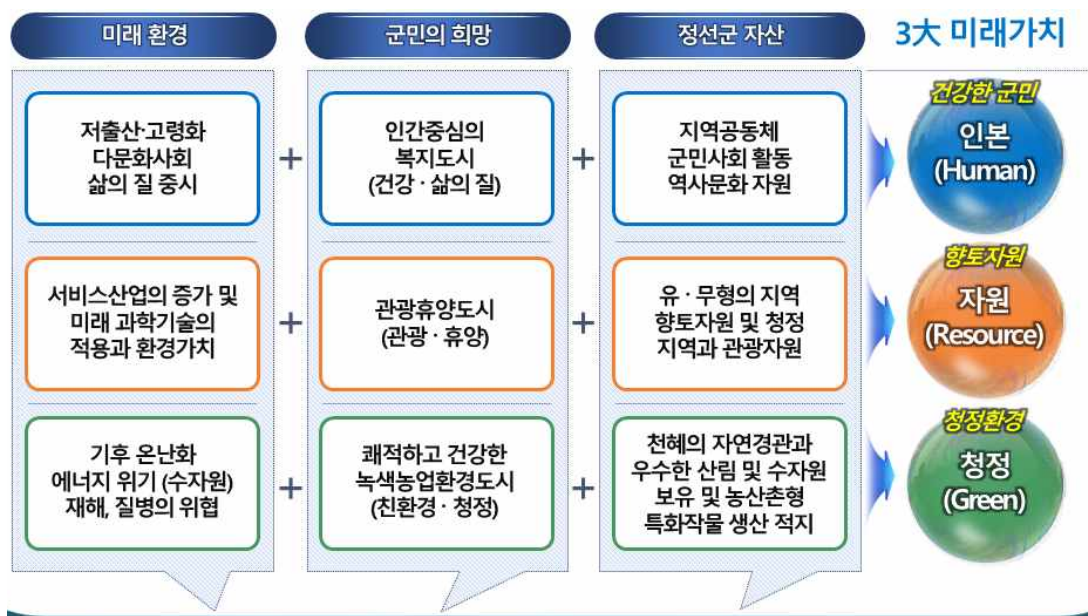
1	미래비전의 아젠다 도출 방향에 대한 정의 - 행정편의 방식과 가치편의 방식중 선택
2	성공적인 미래비전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군민, 전문가그룹의 소통 방법 - 협치에 의한 소통 방법과 미래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필요
3	비전에 따른 전략 구성시 단기 사업에 대한 적용범위 설정 - 정선군 기본계획,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읍면별 기본계획 등 기 추진중인 사업 구분 및 적용 여부
4	비전수립에 따른 아젠다별 입안자, 행정기관, 사용자간 이미지 공유를 위한 방안 - 지속적인 군민교육으로 미래 정선의 위치 인식과 공감대 형성, 협치에 의한 자발적 사업추진 등

[그림 4-8] 정선군 2040 미래비전 수립시 주요 검토사항

2. 정선군 미래비전의 3대 미래가치 및 아젠다 도출 방향

가. 정선군 미래비전의 3대 미래가치

- 정선군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정선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는 무엇인가임
- 정선군의 미래 가치는 정선군의 미래 환경, 군민의 희망, 정선군의 자산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통해 인본(Human), 자원(Resource), 청정(Green)의 3대 미래가치를 도출하였음
- 첫 번째 정선군의 미래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본(Human)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선군만의 역사·문화자원과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한 군민의 희망 인간중심의 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선군의 미래사회를 추구함
- 두 번째 정선군의 미래가치는 정선군 지역의 풍부한 자원(Resource)으로서 서비스 산업의 증가 및 미래 과학기술의 적용된 지역사회와, 유·무형의 지역 향토자원 및 청정지역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휴양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정선군의 미래 사회를 추구함
- 세 번째 정선군의 미래가치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담은 청정(Green)으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재해와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여 정선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산림, 수자원, 농산촌형 특화작물 등을 기반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녹색농업환경도시를 지향함



[그림 4-9] 정선군 2040 미래비전 3대 미래가치

나. 미래비전의 아젠다 도출 방향 선정

-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을 위해 행정분야를 고려한 구성(행정편의 방식)과 핵심가치를 고려한 구성(가치편의 방식)의 2가지 방향을 장·단점 비교 및 적용 사례 지역의 발전계획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트렌드와 환경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핵심가치를 고려한 구성’으로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두 가지 구성체계를 비교한 내용은 <그림 4-10>과 <그림 4-11>에 제시되었음

	행정분야를 고려한 구성	핵심가치를 고려한 구성
개요	미래비전의 전략 구성인 주요 키워드를 행정단위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현	미래비전의 전략 구성을 어젠다별로 수행할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여 표현
장점	• 해당 분야별 업무 영역 구분 용이 • 비전에 대한 개별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 확실 • 각 부서별 추진 사항에 대한 방향성 간단 • 핵심 이슈에 대한 행정기관 입장의 시인성 용이	• 미래의 정선에 대한 목표와 전략 설정 용이 • 각 사업 추진의 결과에 대한 목표 확실 • 사회적 동의 및 군민과의 소통시 이해도 높음 • 중장기 목표에 대한 환경변화 대응 용이
단점	• 미래 가치의 영역은 융복합된 형태를 가짐 • 개별 사업 위주의 범주에서 적용의 한계성 • 각 분야별 추진 사항의 중복 또는 누락 발생 • 비전 시나리오 적용시마다 부서별 협의 발생	• 가치 위주의 어젠다 설정에 따른 업무 경계 모호 • 통합운영을 위한 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직 필요 • 포괄적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의 장기화 • 어젠다 이해력 부족 현상 대비한 정기교육 필요

[그림 4-10]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방향 구성체계

적정

행정분야를 고려한 구성 - 과천비전 2040

핵심가치를 고려한 구성 - 인천비전 2050

구성
형태

9개 부문별 추진계획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4개의 미래 어젠다와 20개의 실천과제

예시

9개 부문별 추진계획

도시공간구조	보건복지안전	교육
관광여가체육	문화예술	교통환경
자연환경 개선	지역경제	행·재정 구조

4개 미래 어젠다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시민과 열어가는 해양 문명도시
자연이 살아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사례
지역

정읍시 미래비전,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

경기비전2040, 제주 미래비전, 충북미래비전2040, 강원비전 2040, 울산비전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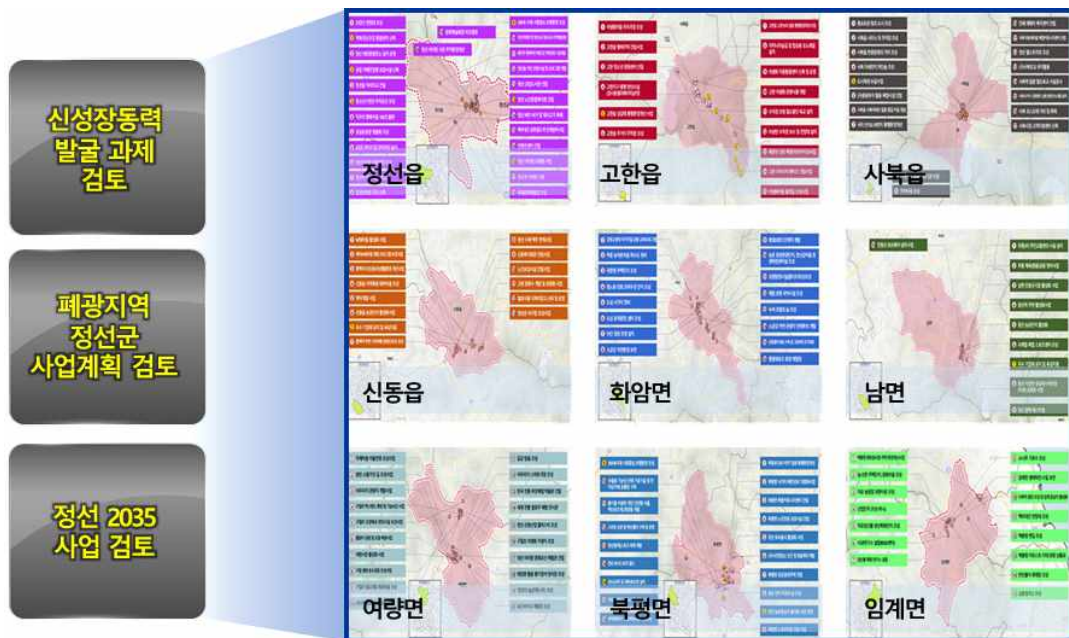
[그림 4-11]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방향 구성체계(예시)

3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1. 정선군 행정구역별 기존사업 현황

가.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검토 내용

- 정선군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에 앞서 정선군의 신성장동력 발굴 과제, 폐광지역 정선군 사업계획, 정선 2035 기본계획 사업 등 기존사업 내용을 권역별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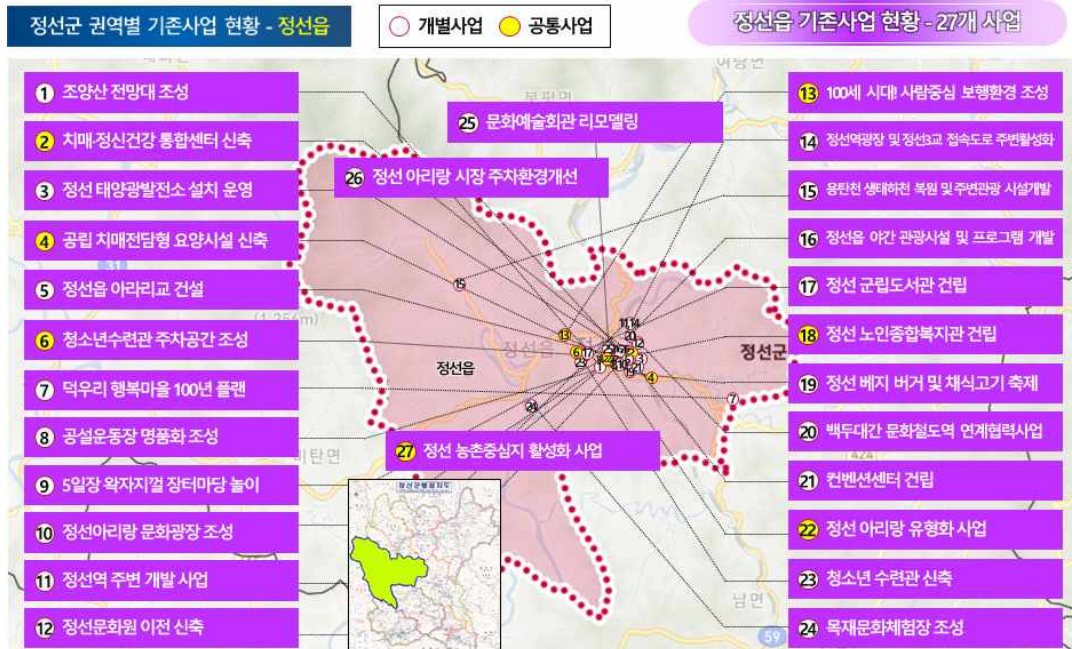


[그림 4-12]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검토내용

나.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1) 정선읍 기존사업 현황 - 27개 사업

- 정선읍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20개, 공통사업 7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양산 전망대 조성 사업, 정선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사업, 100세 시대!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사업,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정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선읍 야간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있음



[그림 4-13]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정선읍

2) 고한읍 기존사업 현황 - 15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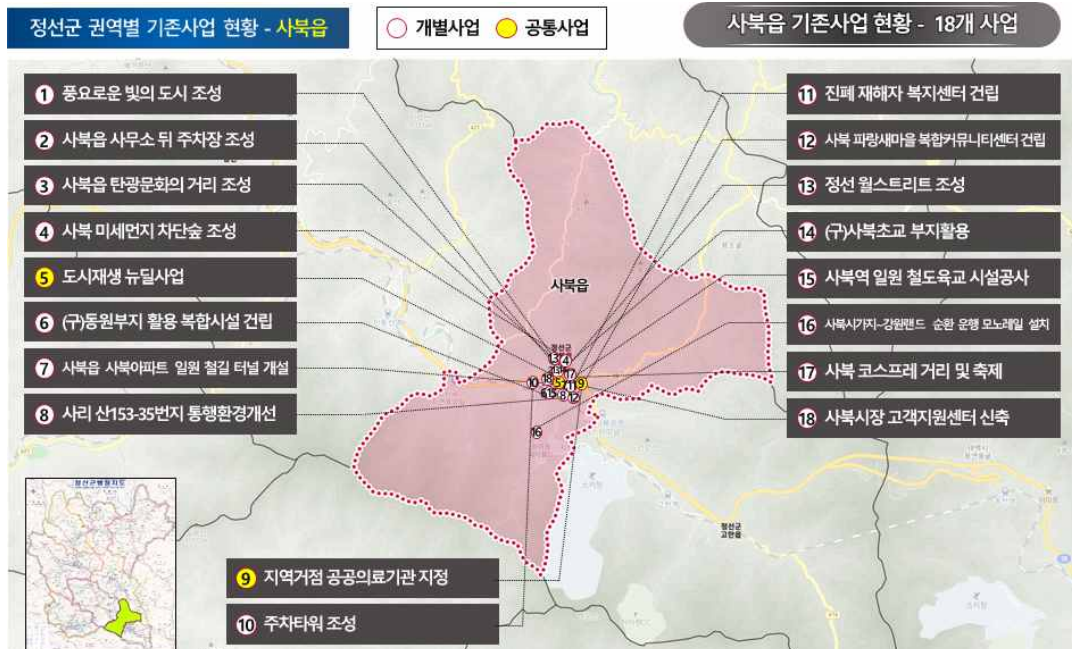
- 고한읍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4개, 공통사업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고한읍 행복주택 건립사업, 자작나무숲길 및 탑승용 모노레일 설치사업, 폐운탄 선로복원(아트바이크)사업 등이 있음



[그림 4-14]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고한읍

3) 사북읍 기존사업 현황 - 18개 사업

- 사북읍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6개, 공통사업 2개로 구성되어있으며,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 정선 웰스트리트 조성, 사북역 일원 철도육교 시설공사 사업 등이 있음



[그림 4-15]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사북읍

4) 신동읍 기존사업 현황 - 14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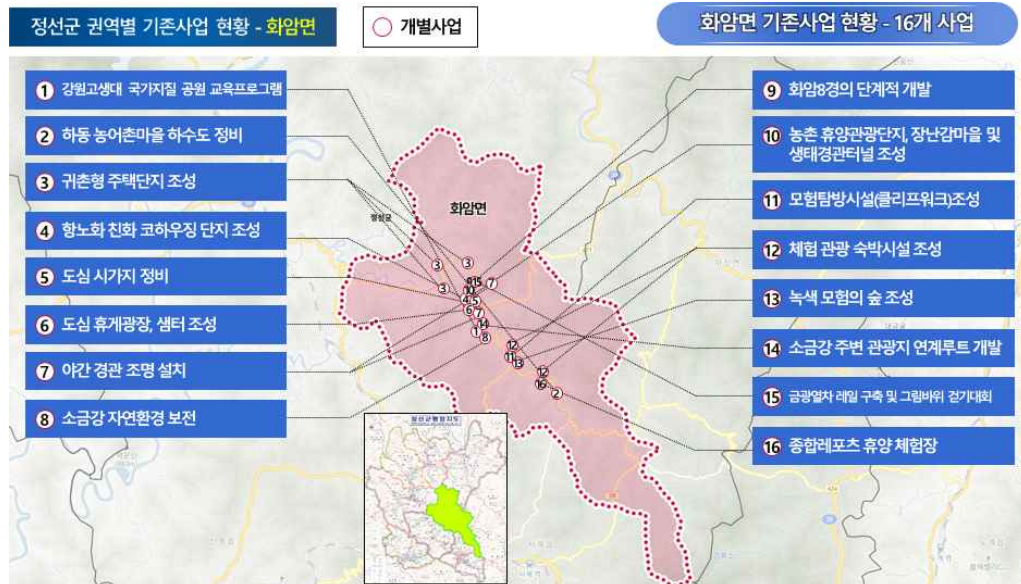
- 신동읍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3개, 공통사업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MTB마을 활성화 사업, 신동읍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 신동읍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등이 있음



[그림 4-16]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신동읍

5) 화암면 기존사업 현황 - 16개 사업

- 화암면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6개로 구성되어있으며, 귀촌형 주택단지 조성, 소금강 자연환경 보전사업, 농촌 휴양관광단지, 장난감마을 및 생태경관 터널 조성사업 등이 있음



[그림 4-17]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화암면

6) 남면 기존사업 현황 - 10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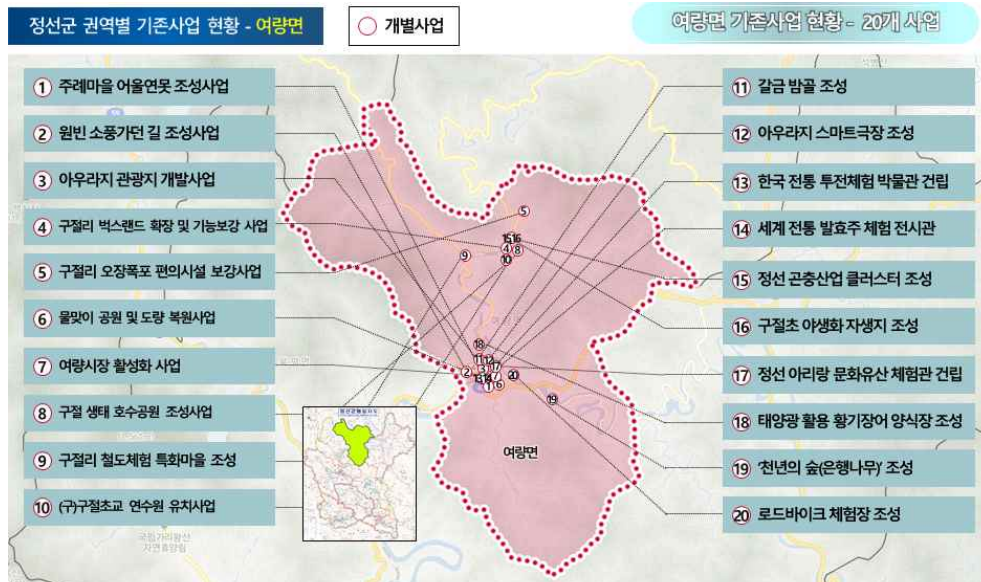
- 남면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9개, 공통사업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남면 민통산시장 활성화사업, 증산역 주변 활성화사업, 정선 흠뻑 페스티벌 등이 있음



[그림 4-18]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남면

7) 여량면 기존사업 현황 - 20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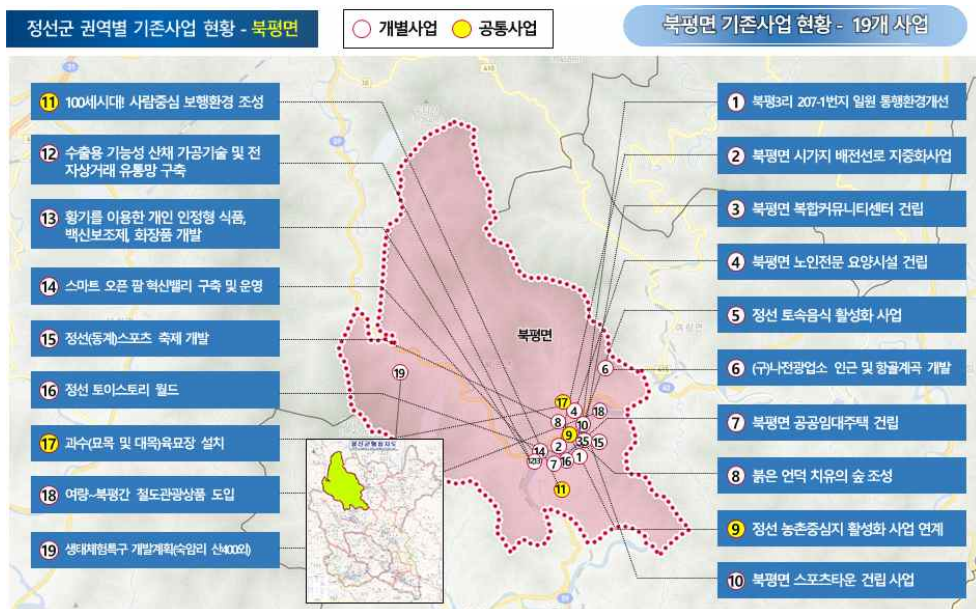
- 여량면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20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구절초 야생화 조성지 조성,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음



[그림 4-19]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여량면

8) 북평면 기존사업 현황 - 19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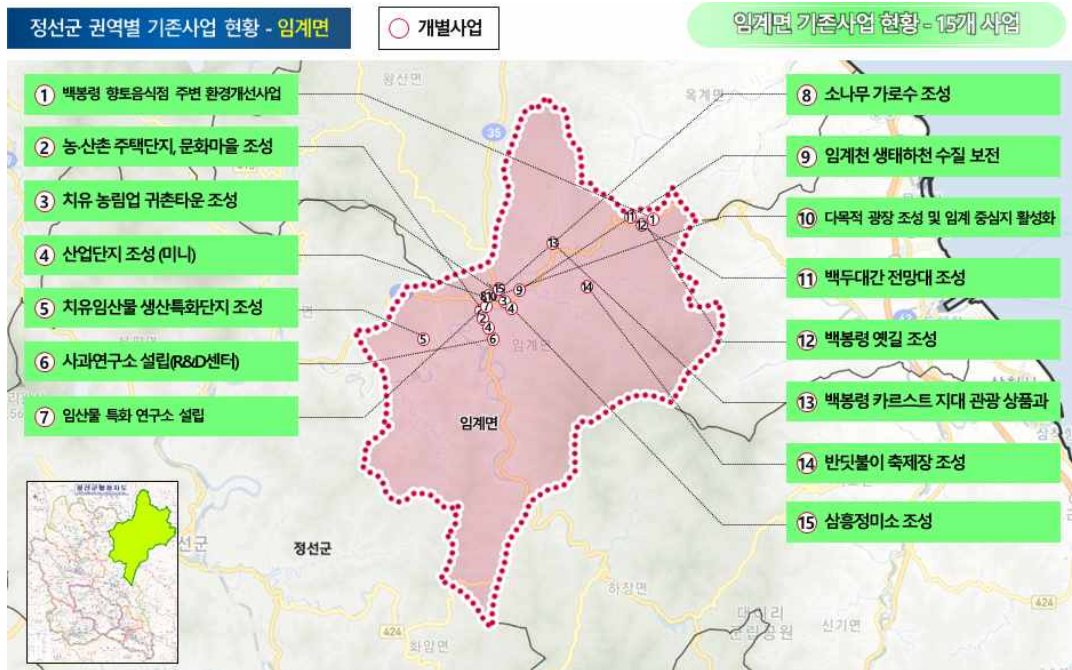
- 북평면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6개, 공통사업 3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선 토속음식 활성화 사업, 붉은 언덕 치유의 숲 조성, 정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이 있음



[그림 4-20]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북평면

9) 임계면 기존사업 현황 - 15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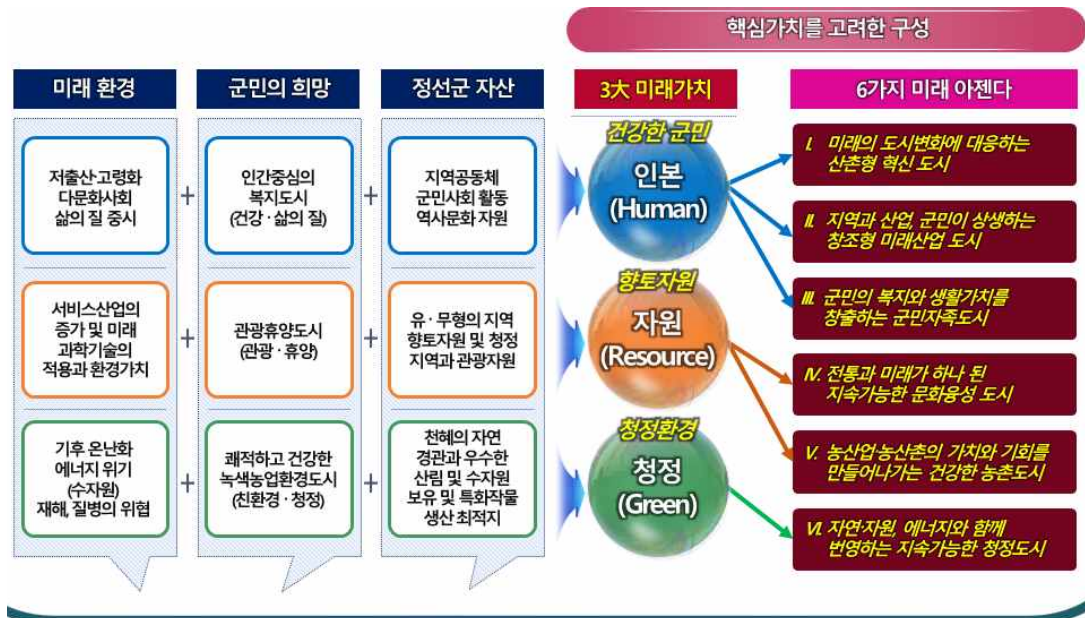
- 임계면 기존사업은 개별사업 15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치유 농림업 귀촌타운 조성, 치유 임산물 생산특화단지 조성, 반딧불이 축제장 조성, 백봉령 옛길 조성사업 등이 있음



[그림 4-21] 정선군 권역별 기존사업 현황 - 임계면

2. 2040 미래비전 아젠다 도출

- 정선군의 3대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정선군이 추진해야 할 6가지의 미래 아젠다를 도출하였음
- 첫 번째 미래가치인 ‘인본(Human)’에 따른 아젠다로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 도시’,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생하는 창조형 미래산업 도시’, ‘군민의 복지와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군민자족도시’의 미래 아젠다를 도출하였음
- 두 번째 미래가치인 ‘자원(Resource)’에 따른 아젠다로 ‘전통과 미래가 하나된 지속 가능한 문화융성 도시’, ‘농산업·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건강한 농촌 도시’의 미래 아젠다를 도출하였음
- 세 번째 미래가치인 ‘청정(Green)’에 따른 아젠다로 ‘자연·자원, 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의 미래 아젠다를 도출하였음



[그림 4-22] 정선군 3대 미래가치에 따른 미래 아젠다 도출

3. 비전정선 2040 미래비전 목표 및 전략

■ 『비전정선 2040』 수립 배경 및 목적

- 정선군의 2040년 변화된 정선군의 모습을 예측하고 창의적 비전 수립
 -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 분석을 통해 2040년 변화된 정선군의 모습
 - 강원 남부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망 검토
 - 여러 관점에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정선군의 창의적인 비전 수립

■ 『비전정선 2040』 수립 절차 및 방법

- 국내·외 미래환경과 정선군의 대내·외 환경을 검토하고 비전 설정
 - 국토개발계획, 강원도 비전계획 등 선행 연구 분석
 - 상위계획 및 군정계획의 검토로 정선군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적용
 - 정선군 지역 주민 및 리더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
 -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인터뷰로 미래비전의 키워드 도출
 - 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미래환경, 군민의 희망, 정선군의 자산을 기반으로 3대 미래가치(건강한 군민, 향토자원, 청정환경)를 반영

■ 『비전정선 2040』 핵심가치 도출

- 정선군의 대내·외 환경을 검토하고 비전수립을 위한 핵심가치 도출
 - 비전으로 「청정자연속에 행복한 삶과 미래가 있는 고장, 정선」 설정
 - 3대 핵심가치를 반영한 6개의 아젠다 도출
 - 6개의 아젠다의 정책 추진에 대한 단계별 위상
 - * 비전정책 정비기간 : 2020년~2025년
 - * 성공모델 구축기간 : 2026년~2030년
 - * 성공모델 확산기간 : 2031년~2040년

■ 『비전정선 2040』 정선군의 미래비전

- 정선군의 미래비전은 정선군의 3대 미래가치인 ‘인본(건강한 군민), 자원(향토자원), 청정(청정환경)’을 담아낼 수 있어야하며, 최종적인 비전은 「청정자연속의 행복한 삶과 미래가 있는 고장, 정선」으로 설정함

■ 정선군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6가지 미래아젠다 선정

- 정선군의 환경과 자원, 상위계획,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 아젠다 작성
 -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도시
 -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행하는 창조형 미래산업도시
 - 군민의 복지와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군민자족도시
 - 전통과 미래가 하나된 지속가능한 문화융성도시
 - 농산업, 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농촌도시
 - 자연·자원·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참조



[그림 4-23] 정선군 2040 미래비전 목표 및 전략

4. 부문별 핵심가치의 이해

- 6가지의 미래비전 아젠다에 따른 핵심가치와 가치별 실천과제는 <그림 4-24>와 같음

아젠다	01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도시	02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생하는 창조형 미래산업도시	03 군민의 복지와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군민자족도시
핵심가치	지역개발, 압축도시, 광역교통·물류, 정보혁신	일자리, 미래과학기술, 지식서비스산업, 인재양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치별 전략	1)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 2)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의 실천 3) 사통팔달 편리한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 4) 미래 스마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1) 정선군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 농업과 빅데이터의 결합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4) 정선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아젠다	04 전통과 미래가 하나된 지속가능한 문화융성도시	05 농산업, 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건강한 농촌도시	06 자연·자원, 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핵심가치	예술문화, 문화융성, 공공디자인, 스마트/창의관광	먹거리 정책, 미래농업기술, 농업혁신시스템	친환경에너지, 수자원, 기후변화, 녹색성장, 자연경관, 재난 및 안전
가치별 전략	1) 정선 문화예술, 문화산업 육성 2) 정선 관광의 경쟁력 강화 3)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1) 활력 있는 농산업 육성 2) 정선군의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 3)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활성화 4)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	1) 저탄소 녹색성장 2)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3) 친환경 수자원 개발과 관리

[그림 4-24] 6대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도시

- 초고령화와 급속한 출산을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지역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위해 Smart Compact City(스마트 압축 도시) 지향

분 야	주요항목	내용
토지이용	적정밀도	▪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규모의 도심 면적
	이동거리 최소화	▪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 중심상업지역 배치 ▪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 및 중심지 고밀배치, 외곽지역 저밀배치 등
교통	대중교통체계 연계	▪ 도심 및 거점 간 대중교통 연계 ▪ 보행거리 내 버스정류장 설치 등
	보행친화적 거리	▪ 차도 폭 및 요철형 포장, 보행동선 연계
환경 및 에너지	자전거 도로	▪ 독립적인 자전거도로망 및 자전거도로 연계
	녹지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연계 ▪ 친수환경조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재활용수집시설 배치

■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행하는 창조형 미래산업도시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의 역량 등 내부요인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지역 성장과 직접 연관 있는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 내부에 입지한 산업들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이 지닌 자본, 지역의 입지, 지역 내의 천연자원, 기술의 발전 정도,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
 -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지역 내의 물리적 요인과 지역 내 주민들의 역량 및 관련 인프라 설치 여부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

■ 군민의 복지와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군민자족도시

- 21세기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간으로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 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 될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 탈산업 사회적 위험, 경제 위기의 장기 여파에 따른 장기 실업 및 근로 빈곤층의 확대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요구를 더욱 다양 하게 함
- 지방화, 분권화 정책의 강화로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가 사회복지 실현의 주체로 부각

■ 전통과 미래가 하나된 지속가능한 문화융성도시

- 지식 기반 경제 하에서 한 나라의 창의성(Creativity)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창의성의 원천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 되고 있음
 - 문화·예술적 요소에 기반 한 문화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문화산업 수준은 미비
 - 이는 문화산업이 갖는 도시집중형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수준에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문화·예술의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이 관광산업과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농산업, 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농촌도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량 변화, 축산물 생산량 변화, 작물 적지 변화, 병충해 및 이상기상 증가로 농업환경 변화, 가용 농업용 수량 변화 현상
 - 기후변동성 증가, 고온다습한 기후로의 변화 등은 기존 작물 성장 저해, 이상기상 증가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물공장이 확대되고 있음
- 농촌인구의 고령화, 과소화로 농가 인구 감소는 생산인력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또한 농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농가소득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 소득률은 감소

- 농업생산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국가 산업 전반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자연 · 자원 · 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며,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때문
 - 교통은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23%를 차지, 배출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가용 이용제한, 주차장 요금차등제 등의 교통수요관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가격체계 도입 등이 추진
- 최근 농촌 · 농업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지 않아 높은 가격임에도 도시지역에 비해 석유류 사용 비중은 높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저탄소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5. 6대 미래비전 아젠다 및 실천과제

가. [아젠다 1]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도시

■ 핵심가치 : 지역개발, 압축도시, 광역교통 · 물류, 정보혁신

■ 가치별 전략

-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
-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의 실천
- 사통팔달 편리한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
- 미래 스마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 핵심의제

- 현재 4읍 · 5면의 공간구조를 2도심 7거점 → 2도심 5거점 → 2도심 3거점으로 변경
-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면소재지)을 중심으로 행정 · 생활 ·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조성
 - 면 소재지(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기능 집중

- 주변 마을과는 네트워크(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등)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교류거점으로 육성
- 2도심 내 순환버스 및 거점 간 간선버스, 그 외 지역 간 지선버스 등 관내 대중교통체계 개선
- 도심 안전망 구축을 위한 5대 서비스 연계
 -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 핵심가치

아젠다 01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산촌형 혁신도시

지역개발, 압축도시, 광역교통·물류, 정보혁신

추진과제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의 실천

사통팔달 편리한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 스마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1.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

1 공간구조 개편

- 1)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 2) 기초 과학 연구원 연구타운 및 주거단지 조성
- 3) 항노화 친화 코하우징 단지 조성
- 4) 귀촌형 주택단지 조성
- 5) 치유농림업+귀촌타운 조성

2 연계교통체계 개선

- 1) 2도심과 주요 거점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2) 대중교통 연선 및 거점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지 전략 추진
- 3) 도시 중간에 입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 필요
- 4)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연소재지)을 중심으로 행정·생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 조성

2.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의 실천

1 백두대간권 연계사업

- 1) 백두대간 생태자원 복원·보호를 통한 가치 증진 사업
- 2) 백두대간 생태관광 명품화: 한국형 생태관광 숙박시설 시범 조성
- 3) 백두대간 연계 테마길 조성 사업 진행
- 4)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 열차 벨트 구축 사업 진행
- 5) 웰니스 항노화 산업 진행
- 6) 백두대간 정주환경 개선
- 7) 백두대간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2 기타사업

- 1) 강원 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추진
- 2) DMZ와 동해안 관광자유지대 조성 사업 연계
- 3) 동계 올림픽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과제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의 실천

사통팔달 편리한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 스마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3. 사통팔달 편리한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

1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 개선

- 1) 광역교통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간선 및 지선 교통망의 문제점 및 개선
- 3) 도로 공급 지표상의 문제점 및 개선

2 정선군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3 대중교통 체계 개선(간지선 버스운영체계 도입)

4 무가선(無架線) 자율주행 배터리형 트램 운영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 1) 자전거 이용체계 개선 / 2) 자전거 인프라 구축
- 3) 공공자전거 도입

6 교통환경 개선(주차환경 개선)

7 철도역 주변 개선

- 1) 정선군의 역사문화와 철도의 결합
- 2) 공간조성 사업

4. 미래 스마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1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2 112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3 119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4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5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6 5대 연계서비스 구성

[그림 4-25] 아젠다 1 실천과제 검토

나. [아젠다 2]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생하는 창조형 미래산업도시

■ 핵심가치 : 일자리, 미래과학기술, 지식서비스산업, 인재양성

■ 가치별 전략

- 정선군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농업과 빅데이터의 결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정선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 핵심의제

- 중앙정부 및 ‘강원 2040’, 정선군이 보유한 청정자원을 고려할 때 정선군의 전략 산업은 향노화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 향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향노화 클러스터 조성
 - 한국형 향노화 토탈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향노화 산업과 타 산업(관광, 숙박, 쇼핑 등)과의 연계를 통한 관련 산업효과 극대화 도모
 -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털+호텔(Hospital+Hotel)운영 및 향노화 투어리즘 운영
 - 카지노, 골프, 쇼핑 투어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된 여행 상품 운영
- 전략 산업과 지역 고용시장을 연계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 정선군민대학 설립 및 운영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진행 및 CoP(Community of Practice : 학습동아리) 육성
- 정선군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 주민주도형 수익사업을 위한 마을단위 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젠다 02 지역과 산업, 군민이 상생하는 창조형 미래산업도시

일자리, 미래과학기술, 지식서비스산업, 인재양성



[그림 4-26] 아젠다 2 실천과제 검토

다. [아젠다 3] 군민의 복지와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군민자족도시

■ 핵심가치 : 보건의료, 사회복지

■ 가치별 전략

-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 핵심의제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정선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정신 건강 통합 센터 신축 및 운영
 -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지역자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환경조성
-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정선군 복지 공동체 형성
 - 정선군 복지 포털 운영 : 지역 내 취약계층 발견 시, 복지포털 및 모바일, 대표전화 등을 통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조기발굴 및 민·관 협력 서비스 연계
 -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사업 진행
- 출산, 보육 친화 환경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 노년 생활 친화 환경조성
 -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설계를 지원하는 시니어와 베이비부머를 위한 시니어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의 취업, 창업,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 구축



[그림 4-27] 아젠다 3 실천과제 검토

라. [아젠다 4] 전통과 미래가 하나된 지속가능한 문화융성도시

■ 핵심가치 : 예술친화, 문화융성, 공공디자인, 스마트/창의관광

■ 가치별 전략

- 정선 문화예술, 문화산업 육성 / 정선 관광의 경쟁력 강화 /청정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화

■ 핵심의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분야 지정 추진
 - 음악분야(정선아리랑) 관련 전문학교 또는 기관, 아카데미, 고등교육기관 개발 계획 수립
 - 음악분야 국제 협력 프로그램 진행 및 창의산업·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뉴미디어 아트 창·제작소 설치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분야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
 - Media Facade를 활용한 정선아리랑 콘텐츠 개발
- 정선 아리랑제 글로벌화 추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분야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
-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 접근에서 예약까지 가능한 원스톱 실현을 위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 동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추진
 - 한국형 향노화 토탈케어 서비스와 연계



[그림 4-28] 아젠다 4 실천과제 검토

마. [아젠다 5] 농산업, 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농촌도시

■ 핵심가치 : 먹거리 정책, 미래농업기술, 농업혁신시스템

■ 가치별 전략

- 활력 있는 농산업 육성
- 정선군의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
-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활성화
-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

■ 핵심의제

- 스마트 팜 혁신 벨리 조성
 -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조성 등
- 스마트 팜 창업생태계 조성
 - 영농 지식 경험,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청년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생태 순환자원화 사업 진행
 - 자원순환형 농업 실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농업비용 절감 및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 즉 유기농업 전환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농법 개발 및 보급
- 농산물 주산지 이동에 따른 농업연구소 설립
 - 농산물 주산지 이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농업연구소 설립

아젠다 05 농산업, 농산촌의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농촌도시

먹거리 정책, 미래농업기술, 농업혁신시스템



[그림 4-29] 아젠다 5 실천과제 검토

바. [아젠다 6] 자연·자원, 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 핵심가치 : 친환경에너지, 수자원, 기후변화, 녹색성장, 자연경관, 재난 및 안전

■ 가치별 전략

- 저탄소 녹색성장 /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 친환경 수자원 개발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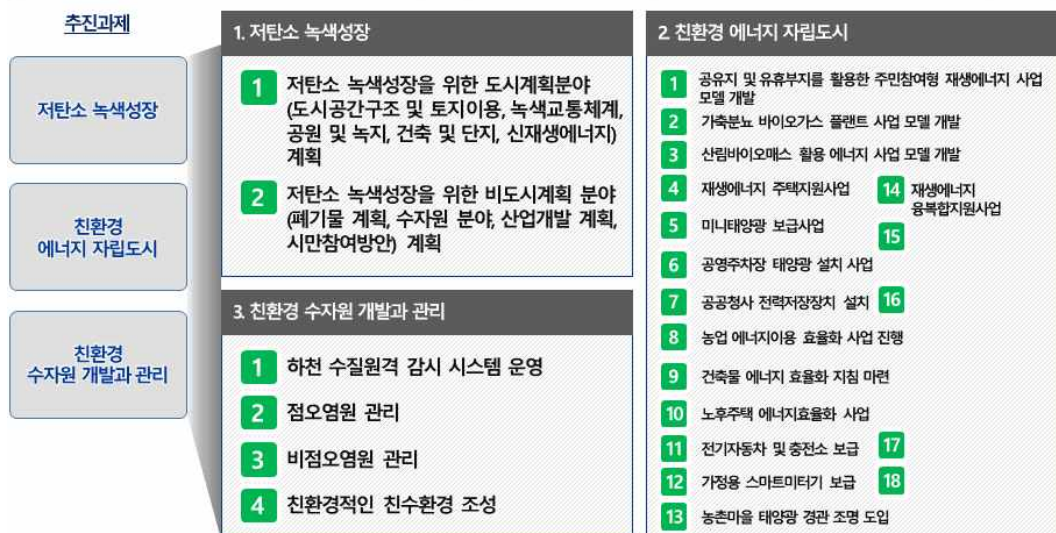
■ 핵심사업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형 녹색네트워크 구축
 - 탄소 저감형 교통시스템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지역 단위 폐기물 재활용 거점 조성 및 산업화 연계사업 진행
 -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 공유지 및 유헴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
 - 국가 및 군소유의 공유지 및 유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산림바이오메스 활용 에너지 사업 추진
 - 정선군 내에서 벌채되거나 가지치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바이오메스로 활용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진행
 -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지원사업 추진

■ 핵심가치

아젠다 06 자연·자원, 에너지와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친환경에너지, 수자원, 기후변화, 녹색성장, 자연경관, 재난 및 안전



[그림 4-30] 아젠다 6 실천과제 검토

비전정선 2040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및 관리운영

5장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1

관리운영계획

2

5장.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및 관리운영

1 정선군 미래비전 실행방안

1. 사업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선군 2040 미래비전에 따른 사업 추진은 아젠다별 정선군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해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트렌드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함
- 정선군 2040 미래비전의 사업계획은 투자, 관리,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전·정책정비(2020-2025)→성공적 모델구축(2026-2030)→성공모델의 확산(2031-2040)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추진
- 정선군 미래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조성사업은 군민의 공동체 활동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개발목적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고, 외부 수요의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구성
- 사업추진은 정선군 미래비전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고 고부가가치의 미래 사업추진으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정선군을 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필요

나. 사업추진 계획

- 사업 추진은 정선군 미래비전 모니터링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변화하는 정선군 환경을 고려하고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방식의 절차를 확정
- 사업추진은 정선군의 내부적·외부적 요건과 미래트렌드를 고려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추진방식별 장단점을 종합 분석하여 프로그램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를 각 단위사업별로 마련하여야 함
- 미래 환경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고 농촌지역인 만큼 농업관련 참여자와의 소통을 기준으로 추진 필요

- 사업 추진은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및 수익성의 극대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표 5-1]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구 분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공공성	- 정선군 미래발전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선군만의 내·외부적 환경과 미래 트렌드를 고려한 추진 - 단순한 지자체 정책이 아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 비전수립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임을 고려 - 지역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가 가능한 구조 모색 필요
안정성	- 지역성을 갖는 농업자원을 토대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 체험 관광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고려 -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효율성	- 거점사업,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이 정선군민의 입장에서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인근 지역의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사업 추진은 농업인과 정선군민의 수요와 공급의 입장을 고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재원조달	- 정선군 자체 재원, 중앙정부 및 강원도 관련 정책 재원,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재원,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재원 등 - 재원 조달은 거점 및 기반사업은 공적재원을 활용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농업인과 정선군민이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

- 거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직접 투자계획과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 거점사업을 위한 테마, 거점, 주체별 직접 투자계획 필요
 - 현재의 대상지 여건과 미래의 개발환경을 항상 고려하여 계획
 - 공공이 개발하는 부분은 우선 시행하고 과잉개발은 지양하며, 사업목적 원래의 취지를 고려한 시행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
 - 거점조성 등 사업의 특성과 사업 용이성에 의한 주체와 수행방식을 우선 결정
 - 지나친 홍보 및 마케팅으로 관광체험공해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정선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 마련시에도 미래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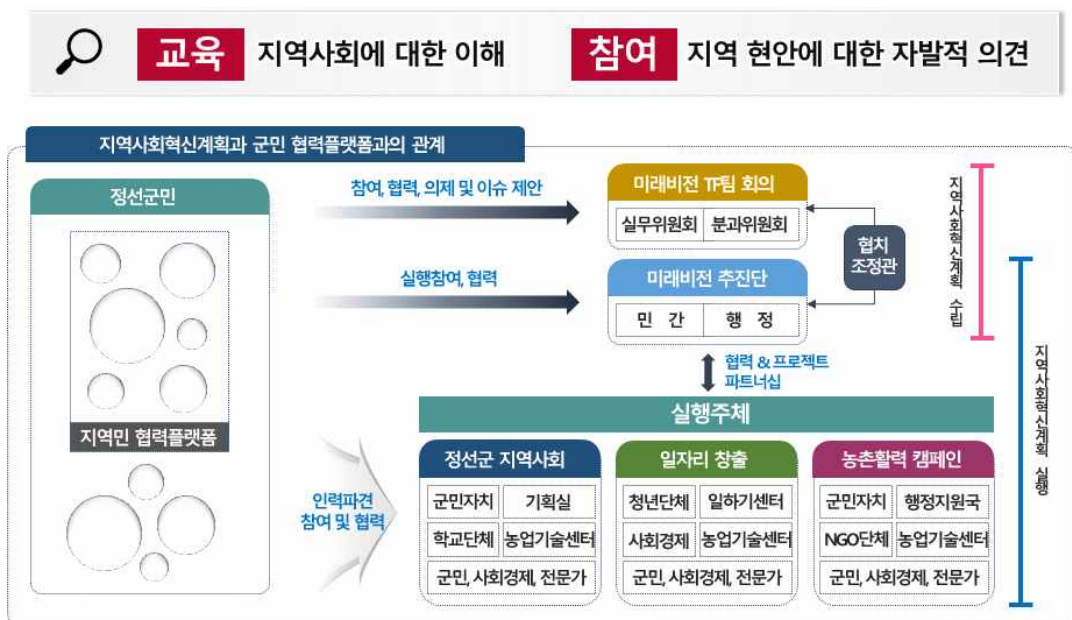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2] 사업추진시 시행전략

사업추진 목표	사업 시행 전략
직접투자계획 수립 운영	• 투자 주체별, 단계별, 지구별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 •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책 모색(사업 관련 진흥기금, 친환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재정지원 등) • 민간 투자능력 중시, 민간자본 적극유치 도모 및 지방채, 지역개발 특별회계제도 등 검토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	• 거점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지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기간의 목표를 두고 수립하되, 사업진행의 현실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설별 주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단계화된 사업 추진(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 검토 • 추진사업별 개발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 • 관·민간 및 기업 간 효율적 협동개발 추진체계 구축
공공개발 우선 시행	• 거점, 진입도로, 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개선과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조성 • 지역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가급적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업주체의 효율화	• 본 사업은 공공을 기본 사업주체로,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개발시기와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전 해소
개발역기능 최소화	• 농업인 및 정선군민에 대해 다양한 사업정책 등의 사전홍보, 계획내용의 충분한 설명 등으로 지역사회 지지기반 구축 • 지역사회 환경피해는 최소화를 중요시하고 환경훼손, 교통혼잡 등 역기능 사전 방지 • 농업을 통한 관광/체험 거점 시설개발과 건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생활 개선사업 병행 추진
여건변화의 능동적 수용	• 거점 사업 및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중점 추진사업 및 강원도 지원사업 등은 시기와 연계 고려 • 농식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 관련법제의 적극적·긍정적 개정 등 사업추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완화되어가는 사회적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립

다. 정선군 미래비전 이미지 공유방안(협치방안)

- 정선군 미래비전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체계(공동 결정, 집행, 평가), 군민과 농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치모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향 정책임
-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플랫폼은 행정과 민간 간의 공론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사업정책을 추진하는 사업팀 회의 및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과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참여
- 또한 협력플랫폼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양한 지역주체들은 사업 추진단, 지역농업 혁신계획 실행주체에 참여·협력
- 따라서 협력플랫폼의 참여자들은 지역농업 및 지역사업 혁신계획 수립·실행에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정선군 관련 부서에 농민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소통방안 제시된 협력플랫폼의 경우 사업팀 회의, 지역 민간단체 및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라 판단됨



[그림 5-1] 정선군 미래비전 이미지 공유방안(협치방안)

라. 사업 추진 주체

- 일반적으로 개발 주체에 따라 제 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선군 미래비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

[표 5-3] 사업추진 개발 주체별 특징

구분	제1섹터(공공개발방식)	제2섹터(민간개발방식)	제3섹터(민관협력방식)
개발 주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공기관 + 민간기업
특징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 및 대지조성 후 개발 •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 되는 사업에 주로 활용되므로 공공성이나 외부효과가 크고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개발 사업이 적합	• 민간이 사업추진 주체로서 투자비를 조성하며, 공공의 경우 투자유치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한정된 부문에 대하여 지원 • 민간이 개발주체일 경우 개발 구상 시 공공성 보장이 어려우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를 선정	• 공공기관과 민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서로 합치거나 절충하는 사업방식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므로 상호간 니즈(Needs)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장점	• 체계적, 일관성 있는 개발로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 가능 •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조화 • 지역민 참여 증대 • 개발 이익의 공공 귀속	• 민간이 사업추진주체가 되어 투자 자원 확보가 민간의 재량에 따름 • 수요자 중심의 개발로 수익성 극대화 • 민간의 개발 노하우를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 민간자본 참여로 재원조달 용이 • 공공성 확보 및 실수요자의 참여확대로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가능 •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 지역 여건, 수요변화에 능동적 대처
단점	• 공공재정의 과중한 부담 • 초기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 자본회수기간의 장기화	• 간의 수익성 추구과정에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가 어려움 •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	•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침해가능 • 사업 후 민간과의 소유권, 이윤의 분배, 법인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문제 등 발생 가능

제 1 섹터로 하는 경우 사업의 확실성과 조기에 사업을 실현할 수 있고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재정투자가 수반되며, 최근 사업 추이는 소통을 통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제2섹터 방식과 사업 여건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 주체에 대한 방식은 공공주도형 개발과 민간 주도형 개발로 구분이 가능하고 개발의 주체, 출자의 주체, 운영관리의 주체별로 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표 5-4] 공공주도형 개발과 민간주도형 개발의 구분

구분	공공주도형 개발	민간주도형 개발
개발의 주체 출자의 주체 운영관리의 주체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 개인 • 민간기업(SPC)
토지의 소유 시설의 소유	• 공공재	• 사유재
수익창출 여부	• 비영리, 공익 추구	• 영리, 사익 추구
개발 시설	• 편의시설(기반인프라)을 중심으로 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도입	• 관광시설(수익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의 인프라 지원
개발 방식	• 공영개발 형식	• 민영개발 형식

- 정선군 미래비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중요함에 따라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이용 수요에 대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등 체험거리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민간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Idea Concept과 농업 환경에 대한 자본투자로 공공부분의 재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참여가 요구됨
- 따라서, 건실한 농업인 등의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외부 자본과 지역자본의 합작투자를 유도하여 농업경영기술 및 미래환경 기술의 습득 및 정보의 교류가 필요

2 관리운영계획

1. 관리계획

- 변화되는 정선군의 미래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정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역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무분별한 추진은 지양하고 자연생태계 보존 및 천연 자원의 매력성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수립을 기본 목표로 설정
-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우선 농업관련 지식기반 경영과 효율적 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관리체계를 구성
- 효율적 경영이란 영역별 책임조직 확보 및 운영활성화, 자원 및 시설의 가치유지를 통한 매력도 증진, 서비스 확립을 통한 수요 유도, 이용객관리를 통한 장기적 비전 제시 등을 의미
- 이러한 원칙하에 농업자원 및 시설 관리계획, 정선군민에 대한 이용 서비스 및 방문객 관리계획, 수익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관리운영 조직체계 정립 등의 체계로 구성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공공시설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나 공익적 목적의 시설 등은 정선군에서 관리하여 일률적으로 통제와 상시 대응에 임하도록 계획
- 가능한 프로그램은 군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유지하되 정선군에는 과다한 답압이 되지 않도록 관리
- 거점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에는 안내 및 이용자의 사고방지, 시설물의 안전대책 등의 안전관리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거점 시설 보수 및 유지 등 시설관리
- 사업 추진은 군민과 농업인의 동반상생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고 도시개발 등으로 감소되는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범사례가 되도록 노력
- 이외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주체와 다양한 정책적 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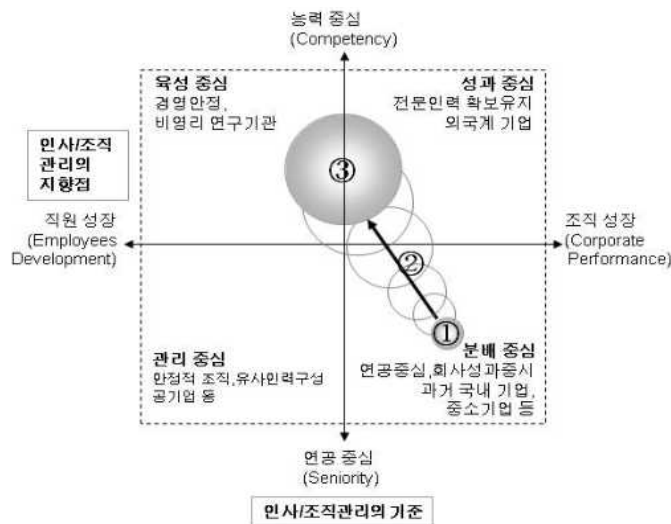
2. 운영계획

- 비전 수립에 포함된 단계별 사업은 거점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각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후 우선적 사업 추진 필요
- 단계별 사업에 추진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분야별 관리운영이 효율적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 자원 및 시설관리 부문의 관리운영
 - 자원의 시설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 그대로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자원의 매력도를 증대
 - 사업 내용에 따라 농업 및 자연환경 측면의 악영향 요인, 각종 환경오염, 이용객의 불쾌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이용자 서비스 및 방문객 관리계획
 - 정선군 지역환경에 대해 방문자의 만족도 및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략을 수립
 - 농업에 참여하는 군민에 대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건전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참여를 위한 이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기 농업인의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수익증대를 위한 운영 방안
 - 농업인, 군민, 참여기업, 참여 단체(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 장비,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
- 조직체계의 설정과 업무의 역할
 - 정선군 미래발전을 위한 관리기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가칭) 미래발전전략과의 상호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관리운영 조직과 농업연구 조직은 지역의 농업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검토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업무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같은 부서 내에 통합하여 운영

3.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가. 조직운영의 변화와 유연한 조직의 운영

- 정선군 미래비전 관리운영은 건설하고 효율적인 관리조직이 현재의 관리측면에서 미래의 성장 부분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변화되는 조직구성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분배중심에서 조직원 성장과 능력중심의 육성중심으로 변화



[그림 5-2] 관리조직의 주요 지향점 및 변화 과정

- 또한, 경직된 조직의 구성이 아닌 유연성 있는 조직의 운영으로 다양한 대외변화 및 위험적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음



[그림 5-3]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 방안

1)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기반 구축

-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비하고, 외부환경 분석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발전계획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장기계획도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함
- 경영의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민간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함양함
- 민간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평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의욕을 배가시킴

2) 경영관리의 합리화 방안

- 조직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팀별 경쟁을 통해 경영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이 없도록 함
- 원가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정확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적으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공격적 경영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 매년 입장객수와 수익에 대한 월별 분석을 통해 홍보전략의 수립 및 요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4. 관리조직의 규모 및 효과

가. 조직설계 및 운영인력 구성

1) 적정 운영인력의 산정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조직의 업무별 목표와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운영과 인력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해야 함

2) 적정 운영인력 편성

■ 적정인력 편성의 의의

- 적정 운영인력의 편성은 인적 자원관리 및 인력계획에 있어 대민서비스와 연계되어 공공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
- 즉, 운영인원의 과대편성은 운영원가 비용증가 요인으로 운영비의 부담측면에서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과소 인원의 편성은 인력부족에 의한 운영관리비 미비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도 있음
- 그러므로 적정 운영인력의 편성은 민간위탁 운영조직의 낭비를 제거하고, 대민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조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운영인력이 산정되어야 함



[그림 5-4] 적정운영인력 편성

■ 정원산정 기법

- 정원산정 기법은 조직의 가치체계에 준거하여 정원산정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납모형과 연혁모형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후자는 가치지향적인 반면 전자는 그러하지 못함
- 귀납적 정원산정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정원 산정시 조직관리자의 관리이념 내지는 조직의 사명과 목표 등 조직의 가치측면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귀납모형은 보통 유사한 조직체와 비교하여 일종의 평균개념에 입각해 정원을 산정하든지, 혹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기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
- 또한 귀납적 방법에 의해 산정한 인원은 ‘있어야 할 인원’ 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원회귀모형의 경우가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 소요인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의미에서 있어야 할 인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는 제한된 조직자원을 경쟁적 가치사이에 할당해야 하는 일은 기술적 소요인력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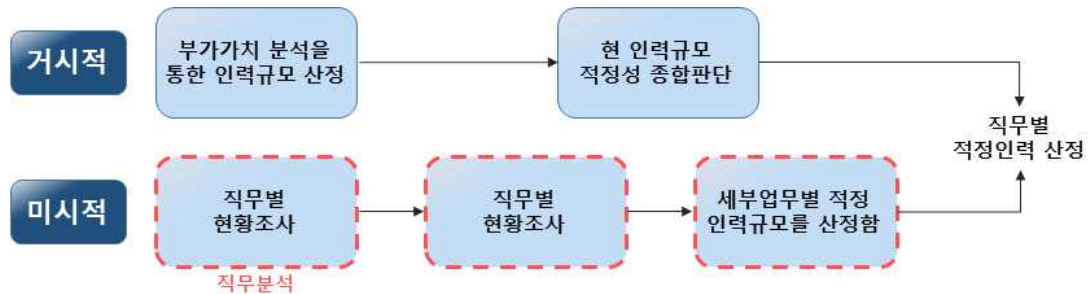
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 배분적 가치판단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방법은 정원을 산정하면서도 ‘왜’ 정원을 산정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함

[표 5-5] 정원산정기법과 적용대상 조직¹⁾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적용대상조직
귀납모형 업무량 중심의 접근법	서술 모형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I • 인건비 비율에 의한 방법 • 매출액-부가가치-총급여액간의 관계에 의한 연구	공사 사업소
		유사기관 비교법 • 유사시설의 기관으로 단순 산술 평균법	지방자치단체
	미시 모형	•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모든 조직
		• 유사기관비교법(생산성지수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
	인과모형	• 회귀모형에 의한 인력산정	모든 조직
		•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사업소·공사
연혁모형 가치 지향적 접근법	• 선형계획기법을 이용한 인력산정 • 정원배분모형 : 선형목적함수를 이용		업무의 정량적 파악이 가능한 조직체
	•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II • 손익분기점에 의한 방법 • 목표이익률에 의한 방법		공사 사업소
	•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모든 조직

- 위에서 살펴본 정원 산정기법 중 미시모형의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및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능,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히어 기술하는 절차로 정의할 수 있음
- 미래비전의 조직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과 관련기술에 따라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직무에 소요되는 기본 인력의 구성은 위탁기관의 직무분석 인원과 유사기관의 직무를 조사하여 인원을 산정하고, 직무를 통합관리하거나 직무 담당자를 제외할 수 있음

1) 배성기(2011.)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산정」, p50.한국민간위탁연구소



[그림 5-5] 적정인력 산정법²⁾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에서는 적정인력 산정 시 거시적 접근방법의 부가가치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가까운 장래의 인건비 총액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을 나눈 값을 종업원수로 산정
- 직무분석 작업 기초가 되는 미시적 접근 방법에서는 위탁기관의 각 직무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강화 및 효율화 기능들을 고려하여 수탁사의 직무별 적정인력을 산정함
- 이와 같은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을 고려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과 업무배치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정선군 미래비전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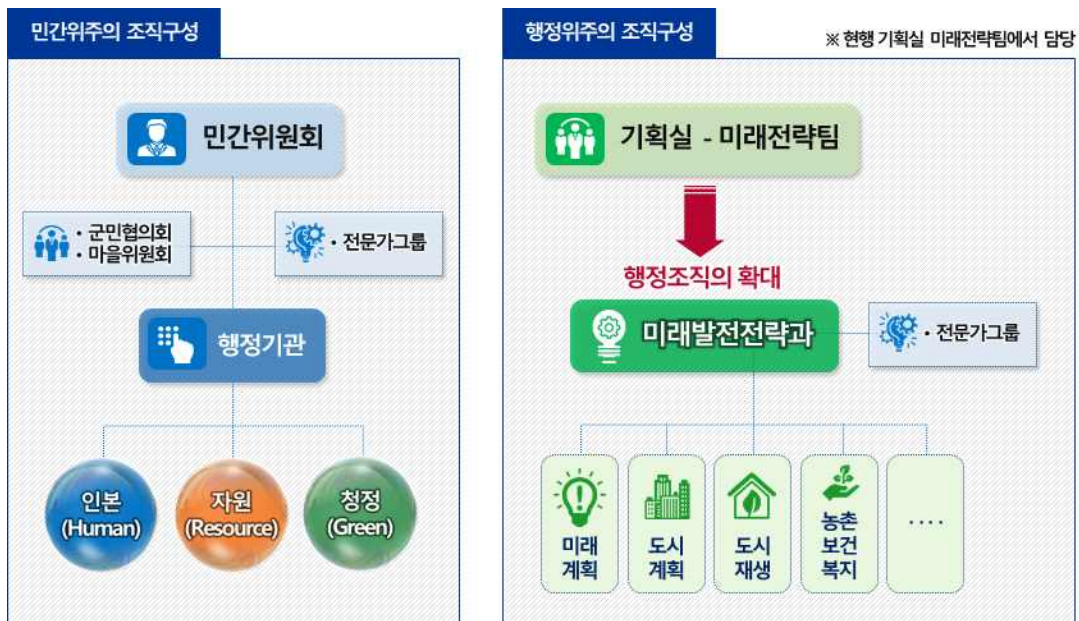
1) 민간위주의 조직구성

- 미래비전의 조직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조직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을 구분하고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방식
- 미래비전에 대한 직무 등이 검토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업무의 범위에 대한 사전 조사를 구축하고 민간에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미래비전의 주요 구성축인 인본, 자원, 청정환경에 대한 BASIC 요소를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도출하고 조직의 운영 여건을 고려
- 다만, 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조직의 경우 행정기관의 실행력과 정책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

2) 노동부(20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 .p112.노동부

2) 행정위주의 조직구성

- 미래비전의 조직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업무 수행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직무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강화 및 효율화 기능들을 고려하여 직무별 적정인력의 산정시 유리한 방안으로 기존 행정조직인 기획실의 명칭변경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미래비전의 업무 추진
- 다만, 행정위주의 조직 구성으로 인해 미래비전의 수행시 주민의 의견과 지역민의 이미지 공유에 저해가 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직의 구성 요인을 검토할 필요 있음



[그림 5-6] 정선군 미래비전 조직구성

3) 정선군의 미래비전 조직구성

- 민간위주의 조직구성 시 보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협치방안의 마련에 유리할 수 있으며, 행정위주의 조직구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자치단체의 정책방안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가능한 행정위주의 조직구성을 기준으로 민간의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선군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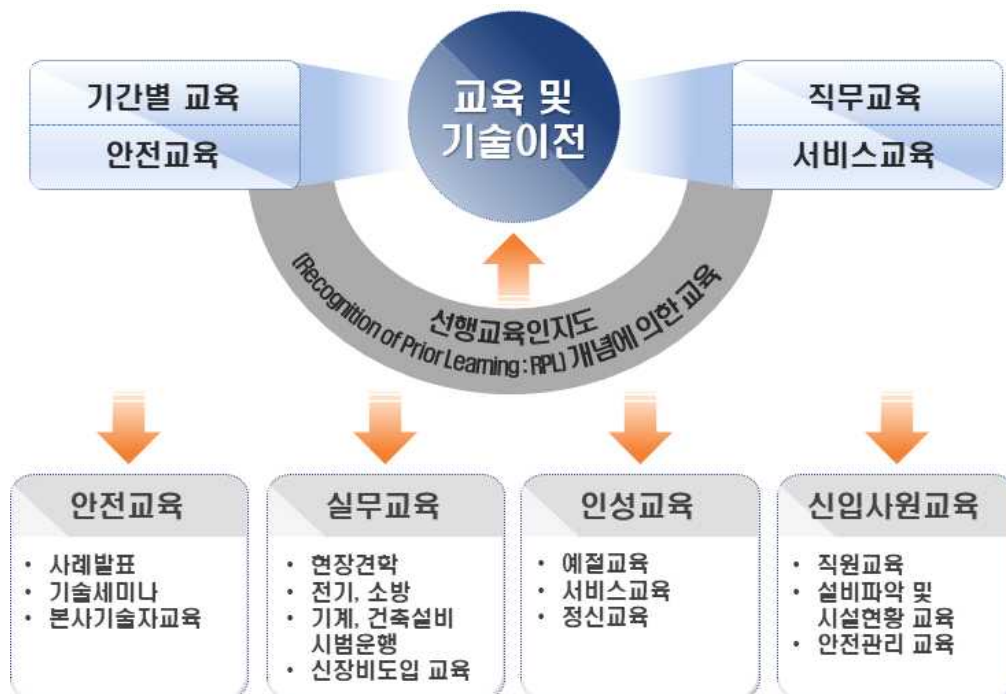
5.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가. 조직교육 방안 검토

1) 인력교육 계획의 기본 방향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집체교육 병행 실시
-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병행 실시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도모
-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무기관 및 자회사 자체교육 실시
- 조직에 대한 비전 및 소속감 고취 → 고품질의 업무진행

2) 교육목표



[그림 5-7] 교육목표

3) 교육목적

- 현장 투입 인원의 위탁교육 및 교육훈련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태도 형성으로 개인발전과 더불어 조직의 발전 도모

[표 5-6] 교육의 목적

현장직무 교육	일상 업무를 통한 팀별 업무수행능력(지식, 기능, 태도)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
직무 교육	업무수행 장소를 떠나서 직무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하여 사내·외 전문 강사로부터 받는 일체의 교육
직급별 교육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 직급 또는 동급의 직책에 임용된 자의 관리능력 향상과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사내 교육	사내·사외의 장소에서 회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직업훈련	직업훈련 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직업훈련 의무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 내 직업 훈련

4) 교육실시

[표 5-7] 교육의 실시 주기

구분	주기	강사	비고
서비스 예절교육	분기 1회	본사 관리팀	필요시 기술지원팀 및 서비스 강사 협조 지원
직무교육	매일 필요시	관리소장	
안전교육			
작업지시			
정신교육			

5) 교육계획의 과정

[표 5-8] 교육계획의 과정

구분	과정	대상	시기	목표	교육방법	주관
1단계	기술교육	신입 사원	입사시	건물관리 목표 및 방향 숙지	자체 교육 관리소장	자체
2단계	장비연구발표		입사 6개월 이상	관리책임장비의 관리능력숙지	개별교육, 기술지원팀 교육지원	기술 지원팀
3단계	1인 다기능화		입사 1년후	전공 외 타전공 업무능력 향상	기술 지원팀 교육	

나. 공공성 확보 방안

- 공공성은 사적성과 대비되는 말로 개인적 권리나 이익을 넘어서 다수 사람들의 권익에 관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와 이해관계를 갖는 성격으로 ‘공적인 성질’을 의미함
- 공공성은 공동의 관심사라는 측면과 공동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써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 지역사업과의 연계 등이 전제 될 경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 지역주민들이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과정을 제도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뿐 아니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 해 일자리 창출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특히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외주용역 인력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업무분야로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조경, 매·검표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함

6. 미래비전의 사업운영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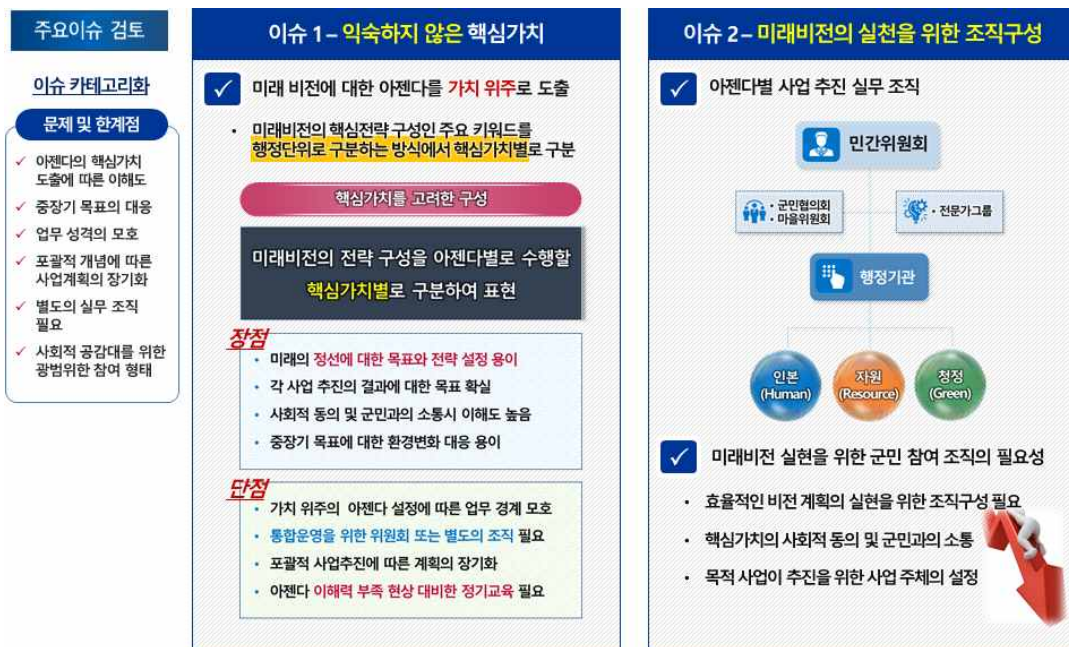
가. 주요 이슈 검토

1) 익숙하지 않은 핵심가치 위주의 정책

- 미래비전 수립시 행정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젠다 도출을 통한 가치 위주의 정책마련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락 우려와 사업 주무부서의 경계 모호로 인한 문제점 발생 여지가 있음
- 미래비전에 대한 실행시 사업추진 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

2)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

- 미래비전 수립에 따른 정책 실행을 위하여 종합검토와 계획이 가능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 조직구성 방식이 민간위주 또는 행정위주의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가능한 상호 보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실행되도록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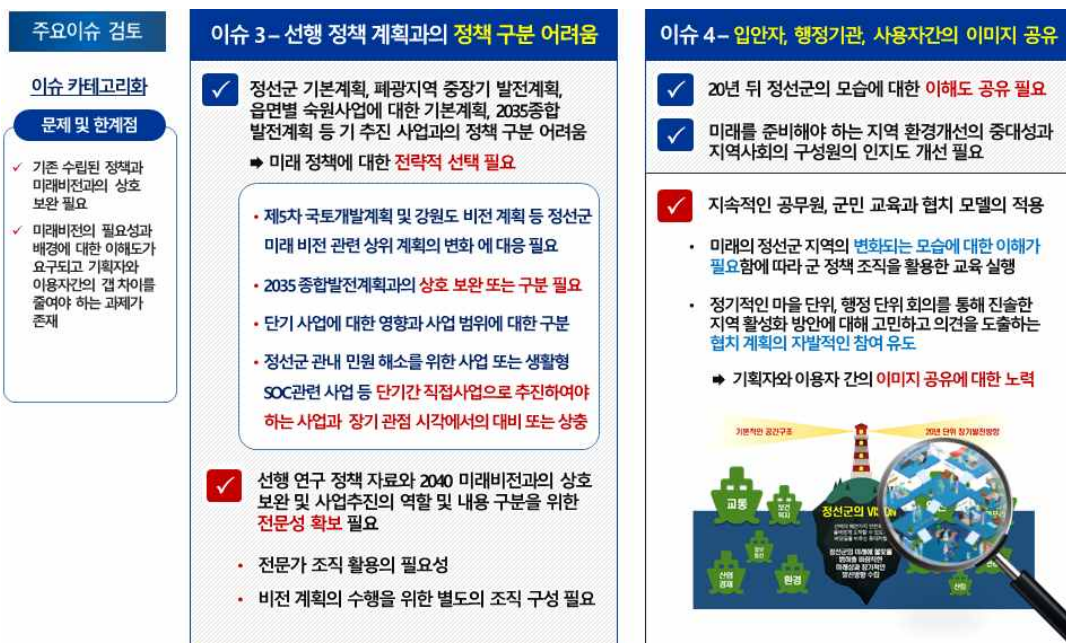
[그림 5-8] 미래비전 운영시 주요 이슈 검토(1)

3) 기존 단기 추진과제와의 정책 구분

- 미래비전 수립 시 정선군의 기존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의 정책과 혼선이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미래비전과의 상충된 정책이 문제점으로 대두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등 최근 고시되거나 진행중인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고려가 필요하고,
- 기존 단기 추진과제 및 각 지역의 숙원사업 등과 미래비전이 추구하는 전략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미래비전 실행 조직의 구성시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사업을 구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사전 조율 필요

4) 입안자, 사용자간의 이미지 공유

- 미래비전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입안자의 정책방향과 사용자 또는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정책의 이미지가 상호 동일한 요건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이는 지속적인 교육 등 이미지공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비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그림 5-9] 미래비전 운영시 주요 이슈 검토(2)

나. 미래비전의 사업 운영시 고려사항

- 미래비전의 사업 추진은 충분한 군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하며, 당위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혼선을 줄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미래비전의 사업 실행은 정선군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종합계획 등의 행정 위주의 사업계획에서 탈피하여 가능한 지속적인 군민의 역량 강화 또는 평생교육 환경을 기초한 협치, 소통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주변환경 요인을 충분히 검토 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필요

미래 비전의 실행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로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외부 수요가 아닌 정선군민에 대한 **사업 이미지 공유가 필수적이며**, 공감대 형성으로 당위성 확보가 중요
- 단기 민원 해소용 정책이 아닌 **미래 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정책

미래 비전의 실행은 지역기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능동적인 조직력 동반 필요

-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 기반의 정책과 동반성장**이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을 포함하여 실행)
- 기존에 계획된 정책에 비전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고도화 전략** 필요

신규 정책 수요 창출을 위한 특화된 비전 운영시스템 필요

- 기존의 종합계획 및 단기 사업계획 수립방식에서 탈피한 **특화된 지역 참여 프로그램 실행** - 마을단위 협치 참여
- 변화하는 환경을 담을 수 있는 열린 미래 비전으로 정책 추진 - **미래 비전의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현재 시점에서 정선군 2040 미래비전의 적용방안

- 정책 실행에 앞서 **정선군 미래 비전의 방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 선행
- 정선군 환경에 맞는 군민 **소통 방안을 계획**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기적 교육 연계 추진
- 미래비전 수행 조직 또는 위원회, TF팀 등을 기반으로 **현행 추진사업에 미래비전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

[그림 5-10] 미래비전의 사업 운영시 고려사항